완자

정답친해



인문학과
윤리

I

성찰 대상으로서의 나

01 나의 몸과 마음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STEP 1 핵심 개념 확인하기 12쪽

01 코스모스 02 (1) ㉡ (2) ㉢ (3) ㉠ 03 (1) 의로움 (2) 플라톤
04 (1) ㄴ (2) ㄱ (3) ㄷ 05 ⑤ 06 ③ 07 ③ 08 ②

05 몸과 마음에 대한 세이건의 입장

세이건은 인간이 코스모스의 일부이며, 발달한 사고 능력을 바탕으로 자신의 행동과 삶을 성찰할 수 있다고 보았다. 또한 세이건은 인간이 지구와 우주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책임 있는 태도를 가져야 함을 강조하였다.

바로 알기 ① 세이건은 인간과 우주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보았다. ② 세이건은 인간이 사고와 성찰을 통해 본능이나 유전적 행동 양식에서 벗어나 스스로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보았다. ③ 세이건은 인간의 우월성을 내세우기보다 인간이 코스모스의 일부로서 다른 존재와의 연관성을 인식해야 한다고 보았다. ④ 세이건은 마음을 신체와 독립된 것으로 보지 않고, 대뇌 피질의 사고 능력과 관련된 것으로 이해하였다.

06 몸과 마음에 대한 세이건의 입장

세이건은 인간의 몸이 우주에서 비롯된 물질로 이루어진 생물학적 유기체이며, 인간은 코스모스의 일부로서 우주의 기원과 밀접하게 연결된 존재라고 보았다. 또한 인간은 몸을 통해 세계를 경험하고, 마음의 작용을 통해 삶의 의미와 가치를 추구할 수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① 인간이 원자로 구성된 생물학적 유기체라는 설명, ② 몸과 마음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존재라는 설명, ④ 삶의 의미와 가치를 추구할 수 있는 존재라는 설명, ⑤ 감각 능력을 가진 존재라는 설명은 세이건의 입장에 해당한다.

바로 알기 ③ 세이건은 인간의 몸이 우주에서 비롯된 물질로 이루어졌으며, 인간이 코스모스의 일부라고 보았다.

07 이이가 주장한 도덕적 주체가 되기 위한 방법

이이는 도덕적 주체가 되기 위해 성인이 되겠다는 뜻을 굳게 세우고, 수양을 방해하는 그릇된 옛 습관을 고쳐야 한다고 보았다.

바로 알기 ① 이이는 몸에 익은 습관보다 먼저 성인이 되겠다는 뜻을 세우는 입지(立志)를 중요하게 보았다. ② 이이는 공부를 단순한 지적 활동으로 보지 않고, 도덕적 성장과 인격 형성을 위한 수양 과정으로 보았다. ④ 이이는 몸과 마음의 편안함을 유지하는 것보다 지속적인 수양을 통해 자신을 바르게 변화시키는 것을 강조하였다. ⑤ 이이는 이익보다 의로움을 우선해야 한다고 보았으며, 이익을 위해 의로움을 희생하는 태도를 경계하였다.

08 이이가 주장한 도덕적 주체가 되기 위한 방법

이이는 도덕적 주체가 되기 위해 몸가짐과 마음가짐을 바르게 하는 수양을 강조하였다. ② 구사는 마음을 바르게 다스리기 위해 살펴야 할 아홉 가지 생각을 의미한다.

바로 알기 ① 거경(居敬)은 경건한 마음을 유지하며 자신의 마음을 바르게 보존하는 수양 방법이다. ③ 구용(九容)은 몸가짐을 바르게 하기 위해 지켜야 할 아홉 가지 태도이다. ④ 신독(愼獨)은 홀로 있을 때에도 도리에 어긋나지 않도록 자신을 삼가는 태도이다. ⑤ 의주리종(義主利宗)은 의로움을 근본으로 삼고 이익은 그에 따르게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STEP 2 내신 만점 공략하기 13~15쪽

01 ④ 02 ⑤ 03 ⑤ 04 ③ 05 ⑤ 06 ④ 07 ②
08 ③ 09 ④ 10 ⑤ 11 ④ 12 ①

01 몸과 마음의 관계에 대한 세이건의 입장

세이건은 ㉠ 인간의 몸을 우주에서 유래한 물질로 이루어진 유기체로 보았으며, ㉡ 인간이 코스모스의 일부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 마음을 대뇌 피질의 사고 능력과 연관 지었으며, ㉣ 몸과 마음이 진화 과정에서 형성되어 긴밀히 연결된다고 보았다.

바로 알기 ㉤ 세이건은 인간이 사고 능력으로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성찰하며 변화시킬 수 있다고 보았다.

02 몸과 마음의 관계에 대한 세이건의 입장

⑤ 세이건은 인간의 마음을 신체와 분리된 독립적 실체로 보지 않고, 마음의 본질이 발달한 대뇌 피질에서 발현되는 사고 능력에 있다고 보았다. 그는 인간이 사고 능력을 바탕으로 자신의 충동과 행동을 성찰하고, 본능적 행동에만 머물지 않으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다고 보았다.

바로 알기 ① 세이건은 인간이 본능이나 유전적 행동 양식에만 따라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사고 능력을 통해 이를 넘어설 수 있는 존재라고 보았다. ② 세이건은 감정이나 습관이 인간에게 없다고 본 것이 아니라, 이것만으로 인간의 고유한 특성을 설명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③ 세이건은 마음의 본질이 대뇌 피질의 작용에 따른 사고 능력에 있다고 주장하였다. ④ 세이건은 감정과 욕구를 사고와 성찰을 통해 조절할 수 있다고 보았다.

03 몸과 마음의 관계에 대한 세이건의 입장

⑤ 세이건은 인간의 의식과 행동이 뇌의 신경망 작용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보았다. 또한 반복되는 경험과 행동은 뇌의 신경망 연결에 영향을 주며, 이러한 과정이 지속되면서 특정 행동이 습관으로 형성될 수 있다고 보았다.

바로 알기 ① 세이건은 의식과 정신 작용이 뇌의 활동과 관련된다고 보았으므로, 습관을 뇌 활동과 무관한 것으로 보지 않았다. ② 세이건에 따르면 습관이 먼저 생겨 신경망이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반복된 행동과 경험을 통해 신경망의 연결이 강화될 수 있다. ③ 세이건은 습관이 선천적으로만 결정된다고 보지 않았으며, 후천적 경험과 행동의 영향을 받는다고 보았다. ④ 세이건의 입장에 따르면 인간의 습관은 반복되는 행동과 경험에 따라 형성되고 변화할 수 있다.

04 몸과 마음의 관계에 대한 순자의 입장

제시된 글을 주장한 사상가는 순자이다. ㄴ. 순자는 인간의 감각 기관을 통해 욕구가 자연스럽게 생긴다고 보았다. ㄹ. 순자는 인간은 마음으로 도리에 맞는지를 판단하여 이러한 욕구를 절제하고 자신의 행동을 조절할 수 있다고 보았다.

바로 알기 ㄱ. 순자는 마음이 도리를 판단하고 욕구를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고 보았다. ㄷ. 순자는 몸의 욕구와 마음의 판단이 서로 관련되어 있으며, 마음은 몸의 욕구를 조절할 수 있다고 보았다.

05 몸과 마음의 관계에 대한 플라톤과 데카르트의 입장

갑은 플라톤, 을은 데카르트이다. 플라톤은 육체와 영혼을 구별하고 영혼이 육체를 떠나서도 존재할 수 있다고 보았으며, 데카르트 역시 정신과 육체를 서로 다른 실체로 보았다. ⑤ 몸과 마음은 서로 구별되며 마음은 몸과 독립하여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 두 사상가의 공통적인 입장에 해당한다.

바로 알기 ① 몸과 마음을 함께 수양하여 겉과 속이 한결같아야 한다고 본 것은 이이이다. ② 영혼이 육체에서 벗어날 때 참된 진리를 인식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플라톤만의 입장이다. ③ 사유하는 정신을 자신의 존재를 확실히 인식하는 근거로 본 것은 데카르트만의 입장이다. ④ 몸과 마음이 우주의 진화 과정에서 비롯된 통합된 존재라고 본 것은 세이건이다.

06 몸과 마음의 관계에 대한 메를로퐁티의 입장

그림의 사상가는 메를로퐁티이다. ④ 메를로퐁티는 몸과 마음을 서로 분리된 존재로 보지 않고, 인간은 몸을 통해 세계를 경험하고 타인과 관계 맺으며 자신의 존재를 드러낸다고 보았다.

바로 알기 ① 메를로퐁티는 몸과 마음을 분리된 존재로 보지 않았다. ② 메를로퐁티는 육체와 영혼을 불완전한 존재와 불멸하는 존재로 구별하지 않았다. ③ 메를로퐁티는 몸을 마음의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세계를 경험하는 토대로 보았다. ⑤ 메를로퐁티는 몸과 마음의 관계를 도덕적 수양보다 인간의 경험과 존재를 중심으로 설명하였다.

07 이이가 주장한 도덕적 주체가 되기 위한 방법

제시된 글을 주장한 사상가는 이이이다. 이이는 ① 이치를 연구하여 선을 밝히고 이를 실천하며, ③ 경(敬)의 자세로 마음을 바르게 다스려야 한다고 보았다. 또한 ④ 이치에 어긋나는 욕망을 제거하고 ⑤ 부정한 생각과 공경하지 않는 태도를 경계하며 홀로 있을 때에도 자신을 살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그는 이익이나 명예보다 의로움을 우선해야 한다고 보았다.

바로 알기 ② 이이는 의로움과 이익이 충돌할 때 의로움을 우선해야 한다고 보았다. 이익이나 명예를 얻으려는 마음도 마땅한 도리에 맞는지 살펴야 하며, 이를 삶의 가장 높은 목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따라서 이익과 명예를 가장 먼저 추구해야 한다는 질문에는 부정의 대답을 할 것이다.

✦ 미리 꼭 알기! **이이가 주장한 도덕적 주체가 되기 위한 방법**

- 성인(聖人)이 되겠다는 뜻을 굳건히 세움 → **입지**
- 배움을 가로막는 그릇된 옛 습관을 버림 → **혁구습**
- 구용과 구사를 실천하여 몸과 마음을 바르게 함 → **지신**
- 경(敬)의 자세로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하고, 홀로 있을 때도 삼가 겉과 속을 한결같이 함 → **거경·신독**
- 이익을 마주하면 의로운지 살피고, 의로움을 이익보다 우선함 → **견리사의·의주리종**

08 이이가 주장한 도덕적 주체가 되기 위한 방법

제시된 글을 주장한 사상가는 이이이다. 이이는 마음이 바라는 것이라도 하늘의 이치에 어긋난다면 이를 극복해야 한다고 보았다. ③ 이이는 명성을 얻으려는 과시적 욕망도 이치에 부합하는지 성찰하고, 그릇된 욕망이라면 수양을 통해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바로 알기 ① 이이는 성인이 되겠다는 뜻을 굳게 세우는 입지를 바탕으로 수양을 방해하는 그릇된 옛 습관을 고쳐야 한다고 보았다. ② 인위적인 욕망과 작위를 버리고 무위의 삶을 추구한 것은 노자의 입장이다. 이이는 도리에 맞게 몸과 마음을 바르게 수양해야 한다고 보았다. ④ 이이는 이익을 마주하면 그것이 의로운지 먼저 살피고, 의로움을 이익보다 앞세워야 한다고 보았다. ⑤ 이이는 몸과 마음이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므로, 겉으로 드러나는 몸가짐과 내면의 마음을 함께 바르게 다스려야 한다고 보았다.

09 이이가 주장한 도덕적 주체가 되기 위한 방법

제시된 글을 주장한 사상가는 이이이다. ㄱ, ㄴ, ㄷ. 이이는 홀로 있을 때에도 자신을 삼가 도리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는 신독을 강조하였다. 또한 마음이 몸을 주재한다고 보았으므로 몸가짐이 흐트러진 것은 마음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한 것과 관련된다고 보았다. 그리고 자신의 마음과 행실을 끊임없이 점검하며 몸과 마음을 함께 바르게 수양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바로 알기 ㄹ. 이이는 인간이 선한 본성을 지녔지만, 그릇된 습관을 그대로 두어도 된다고 보지는 않았다. 이이는 오랫동안 몸에 밴 나쁜 습관을 고쳐야 선한 본성을 회복하고 성인에 이를 수 있다고 보았다.

10 이이가 주장한 도덕적 주체가 되기 위한 방법

이이는 몸가짐을 바르게 하는 구용(九容)과 생각을 바르게 하는 구사(九思)를 통해 도덕적 주체가 되기 위한 수양을 실천해야 한다고 보았다. 학생 답안에서 ㉠은 지신의 의미, ㉡과 ㉢은 구용의 의미와 내용, ㉣은 구사의 의미를 설명한 것으로 옳다.

바로 알기 ㉤은 구사의 내용 중 일부를 잘못 설명한 것이다. 구사 중 의사문(疑思問)은 의문이 생기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자세히 물어 확인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11 이이가 주장한 도덕적 주체가 되기 위한 방법

1. 이이는 칭찬을 바라는 허영심이 참된 수양을 방해한다고 보았다. 3. 그는 몸과 마음을 함께 단속해야 하므로 안일한 태도를 경계하였다. 4. 그는 부귀와 신분에 얽매이지 않고 의로움을 중시해야 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이를 모두 선택한 학생은 정이다.

바로 알기 2. 고요히 지내고 성찰에 몰두하는 것은 마음을 바르게 다스리는 수양의 태도에 해당한다.

12 이이가 주장한 도덕적 주체가 되기 위한 방법

제시된 글을 주장한 사상가는 이이이다. 이이는 의로움과 이익을 분별하고, 백성의 생업을 안정시키는 정치를 중시하였다. 따라서 ① '의로움을 이로움보다 우선적으로 추구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긍정의 대답을 할 것이다.

바로 알기 ② 이이는 군사 제도의 정비보다 백성의 생업을 중시하였다. ③, ④ 백성의 안정된 삶을 국가 존립의 기반으로 보고, 이를 위한 제도 마련을 강조하였다. ⑤ 세속적 이익보다 의로움을 우선해야 한다고 보았다.

STEP 3 서술형 도전하기 16쪽

01 주제: 몸과 마음의 관계에 대한 세이건의 입장

예시 답안 세이건은 인간의 몸이 우주에서 비롯된 물질로 이루어져 있고, 마음이 대뇌 피질의 사고 능력과 관련된다고 보았다. 따라서 몸과 마음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보았다.

채점 기준	
상	인간의 몸이 우주에서 비롯된 물질로 이루어져 있고, 마음이 대뇌 피질의 사고 능력과 관련되며, 몸과 마음이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모두 정확하게 서술한 경우
하	인간의 몸이 우주에서 비롯되었다는 점, 마음이 대뇌 피질의 사고 능력과 관련된다는 점, 몸과 마음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점 중 일부만 정확하게 서술한 경우

02 주제: 이이가 주장한 도덕적 주체가 되기 위한 방법

예시 답안 이이가 도덕적 주체가 되기 위해 극복해야 한다고 주장한 습관으로는 헛된 말과 글로 남의 칭찬을 받으려는 것, 출세를 부러워하고 가난하거나 낮은 신분을 업신여기는 것 등이 있다.

채점 기준	
상	이이가 극복해야 한다고 본 나쁜 습관 중 두 가지를 옳게 서술한 경우
하	이이가 극복해야 한다고 본 나쁜 습관 중 한 가지만 옳게 서술한 경우

03 주제: 몸과 마음의 관계에 대한 플라톤과 데카르트의 입장

(1) 답 갑: 플라톤, 을: 데카르트

(2) 예시 답안 플라톤과 데카르트는 공통적으로 몸과 마음을 서로 구별되는 존재로 보았으며, 마음은 몸과 독립하여 존재할 수 있다고 보았다.

채점 기준	
상	몸과 마음을 서로 구별되는 존재로 보고, 마음이 몸과 독립하여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을 핵심어를 모두 포함하여 정확하게 서술한 경우
하	몸과 마음은 서로 구별되며, 마음이 몸과 독립하여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을 핵심어 일부만 포함하여 설명한 경우

04 주제: 이이가 주장한 도덕적 주체가 되기 위한 방법

예시 답안 이이는 몸과 마음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므로 내면의 성찰과 외적 실천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마음 수양만으로 충분하다는 주장은 잘못이며, 언행과 몸가짐도 바로잡아야 한다고 비판할 것이다.

채점 기준	
상	몸과 마음이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 마음과 몸가짐을 함께 수양해야 한다는 점을 제시하고, 이를 근거로 마음 수양만을 중시하는 주장에 대한 비판을 정확하게 서술한 경우
하	마음과 몸가짐을 함께 수양해야 한다는 점은 제시하였으나, 몸과 마음의 긴밀한 관계를 근거로 제시하지 못한 경우

05 주제: 이이가 주장한 도덕적 주체가 되기 위한 방법

(1) 답 지신(持身)

(2) 예시 답안 ㉠ 구용은 몸가짐을 바르게 하는 아홉 가지 태도이고, ㉡ 구사는 생각을 바르게 하는 아홉 가지 생각이다.

채점 기준	
상	구용을 몸가짐을 바르게 하는 아홉 가지 태도로, 구사를 생각을 바르게 하는 아홉 가지 생각으로 각각 정확하게 서술한 경우
하	구용과 구사 중 하나의 의미만 정확하게 서술한 경우

STEP 4 1등급 정복하기 17쪽

01 ② 02 ⑤

01 몸과 마음의 관계를 바라보는 입장

자료 분석

몸가짐과 마음가짐은 서로 영향을 주므로, 어느 한쪽만이 아니라 함께 바로잡아야 한다는 입장이야.

갑: 몸과 마음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바른 삶을 위해서는 마음뿐 아니라 몸가짐도 함께 바로잡아야 한다. 몸가짐과 행동을 바르게 하는 것은 마음을 안정시키고 성찰하는 데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몸과 마음의 수양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을: 인간의 마음은 몸과 동떨어져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뇌의 작용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뇌의 수많은 신경 세포가 이루는 신경망의 작용은 의식과 사고 같은 정신 현상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마음을 몸과 분리된 독립적인 존재로 보기보다, 뇌의 물질적 작용과 연결하여 이해하는 관점이야.

갑은 몸과 마음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므로 마음을 다스리는 노력과 몸가짐을 바로잡는 실천을 함께 해야 한다고 보는 입장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내면의 성찰은 평소의 행동과 태도를 가다듬는 수양으로 이어져야 하며, 바른 몸가짐도 마음을 안정시키는 데 영향을 미친다. 반면 을은 의식과 사고 같은 정신 현상을 뇌의 신경 세포가 이루는 신경망의 활동과 연결하여 이해하는 입장이다. 따라서 정신 활동을 이해하려면 몸의 물질적 작용도 살펴보아야 한다. 두 입장은 몸과 마음을 서로 무관한 존재로 보지 않는다는 점에서 공통되지만, 갑은 도덕적 수양을, 을은 정신 현상과 뇌의 작용 사이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설명한다. ② 바른 몸가짐을 통해 마음을 다스리는 수양이 필요하다는 것은 갑만의 입장인 A에 해당한다.

바로 알기 ① 몸과 마음이 서로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것은 갑과 을 모두의 입장이다. 갑은 몸가짐과 마음의 수양이 서로 영향을 준다고 보고, 을은 마음이 뇌의 작용과 밀접하게 관련된다고 보기 때문에 B에 해당한다. ③ 도덕적 수양을 통해 몸과 마음을 함께 바르게 해야 한다는 것은 갑이 강조하는 입장이다. 을은 몸과 마음의 관계를 뇌와 정신 현상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설명할 뿐 도덕적 수양을 주장하지 않으므로 B가 아니라 A에 해당한다. ④ 마음이 뇌의 신경망 작용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것은 을에서만 제시되는 입장이므로 B가 아니라 C에 해당한다. ⑤ 을은 마음의 작용이 몸과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보지 않는다. 오히려 의식과 사고 같은 정신 현상이 뇌의 신경망 작용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보므로 을만의 입장인 C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서로 보는 고난도 개념 몸과 마음의 관계를 바라보는 다양한 입장

사상가	핵심 입장
세이건	몸과 마음은 우주 진화의 산물로서 통합되어 있으며, 마음은 뇌의 사고 능력과 밀접하게 관련됨
이이	몸과 마음을 함께 수양하여 겉과 속을 한결같이 해야 함
순자	마음으로 육체의 욕구를 다스려야 함
플라톤	영혼은 불멸하며 육체와 구별되고, 육체를 벗어나 진리를 인식할 수 있음
데카르트	몸과 마음은 서로 구별되는 별개의 실체이며, 사유하는 정신이 자아의 본질임
메를로퐁티	몸과 마음은 긴밀하게 연결되어 인간의 삶과 경험을 이룸

02 이이의 입장에서 도덕적 주체가 되기 위한 방법

자료 분석

마음을 바르게 세우는 것은 내면을 다스리는 일이고, 몸가짐을 삼가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을 단속하는 일이다. 그러나 이 둘은 따로 나누어 실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내면의 수양은 생각과 욕망을 살피는 것이고, 외면의 수양은 말과 행동을 바르게 하는 것이야.

제시된 글을 주장한 사상가는 이이이다. (나)에서 A에는 이이가 '아니요'라고 답할 질문이, B에는 '예'라고 답할 질문이 들어가야 한다. ㄱ. 이이는 몸과 마음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므로 마음의 수양만으로 몸가짐까지 충분히 바르게 할 수 있다고 보지 않았다. 따라서 이 질문에는 부정의 대답을 하므로 A에 해당한다. ㄷ. 이이는 구용을 통해 몸가짐을 바르게 하고 구사를 통해 생각을 바르게 하여 몸과 마음을 함께 수양해야 한다고 보았으므로 긍정의 대답을 하며 B에 해당한다. ㄹ. 이이는 몸과 마음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고 보았으므로 몸가짐을 바르게 하는 수양이 마음을 다스리는 데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질문에 긍정의 대답을 하며 B에 해당한다.

바로 알기 ㄴ. 이이는 도덕적 주체가 되기 위해 수양을 방해하는 그릇된 옛 습관을 고치는 혁구습을 실천해야 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이 질문에는 긍정의 대답을 할 것이므로 A가 아닌 B에 해당한다.

판서로 보는 고난도 개념 이이의 구용과 구사

구분	구용(九容)	구사(九思)
초점	몸가짐을 바르게 하는 아홉 가지 태도	생각을 바르게 하는 아홉 가지 생각
역할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과 태도를 바로잡음	상황을 올바르게 판단하고 마음을 바로잡음
내용	• 걸음걸이를 무겁게 함 • 손가짐을 공손히 함 • 눈가짐을 단정히 함 • 입을 함부로 놀리지 않음 • 목소리를 차분하게 함 • 머리를 곧게 함 • 기운을 엄숙하게 함 • 서 있는 모습을 의젓하게 함 • 얼굴빛을 장엄하게 함	• 볼 때는 밝게 볼 것을 생각함 • 들을 때는 분명하게 들을 것을 생각함 • 얼굴빛을 온화하게 할 것을 생각함 • 몸가짐을 공손하게 할 것을 생각함 • 말할 때는 진실하고 충실할 것을 생각함 • 일을 할 때는 공경할 것을 생각함 • 의문이 생기면 물을 것을 생각함 • 화가 날 때는 뒤에 닥칠 어려움을 생각함 • 이익을 보면 의로운지를 생각함

02 고통과 쾌락은 어디에서 비롯될까?

STEP 1 핵심 개념 확인하기 20쪽

01 삶의 주체 **02** (1) ㉢ (2) ㉡ (3) ㉠ **03** (1) ㄱ (2) ㄷ (3) ㄴ
04 (1) 정적 (2) 중도 **05** ⑤ **06** ② **07** ⑤ **08** ⑤

05 삶의 주체로서 살아가는 자세

⑤ 삶의 주체는 자신의 욕망과 감정, 선택의 이유를 성찰하여 자신이 중시하는 가치와 목표를 분명히 하고, 이를 바탕으로 삶의 방향을 스스로 정해야 한다. 또한 자신의 선택을 실제 행동으로 옮기고 그 결과를 받아들이는 책임 있는 태도가 필요하다.

바로 알기 ① 고통과 쾌락의 경험은 자신이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이해하는 삶의 주체로서의 자기 성찰 계기가 될 수 있다. ② 삶의 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욕망과 감정, 선택의 이유를 돌아보는 성찰이 필요하다. ③ 삶의 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가치와 목표를 분명히 하고 이를 삶의 방향을 정하는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④ 삶의 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자신을 둘러싼 상황과 조건이 삶에 미치는 영향을 살피되, 이에 수동적으로 따르지 않고 삶의 방향을 주체적으로 정해야 한다.

06 고통과 쾌락에 대한 에피쿠로스의 입장

에피쿠로스는 쾌락을 삶의 중요한 가치로 보면서도 감각적 자극을 끊임없이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과 마음의 불안이 없는 평온한 상태를 참된 쾌락으로 보았다. ①, ③ 에피쿠로스는 쾌락을 고통이 없는 상태로 보아 불필요한 욕구를 제거하여 고통을 없애는 정적 쾌락을 중시하였고, 욕구의 결핍에서 고통이 발생한다고 주장하였다. ④, ⑤ 인간이 고통을 피하고 쾌락을 추구하려는 성향을 가진다고 본 것은 쾌락을 선, 고통을 악으로 보는 에피쿠로스의 쾌락주의에 따른 것이다.

바로 알기 ② 에피쿠로스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보았다. 죽으면 감각이 소멸하므로 죽음 이후에는 쾌락이나 고통을 경험할 수 없다고 보았다. 따라서 죽음 이후에도 고통을 느낄 수 있다는 설명은 에피쿠로스의 입장과 맞지 않는다.

07 진정한 쾌락에 대한 에피쿠로스의 입장

밑줄 친 '이것'은 아타락시아이다. 에피쿠로스는 참된 쾌락을 감각적 자극을 끊임없이 누리는 상태가 아니라 욕구가 충족되고 고통과 불안이 사라져 마음이 평온한 상태로 보았으며, 이러한 평정의 상태를 아타락시아(ataraxia)라고 하였다.

바로 알기 ① 무명은 불교에서 세계와 존재의 참모습을 알지 못하는 무지의 상태를 의미하며, 욕망과 집착으로 인한 괴로움의 원인이 된다. ② 중도는 감각적 쾌락의 탐닉과 지나친 고행 어느 한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불교의 수행 태도이다. ③ 팔정도는 불교에서 욕망과 집착을 벗어나 고통을 소멸하고 깨달음에 이르기 위해 실천해야 하는 여덟 가지 올바른 길을 의미한다. ④ 니르바나는 불교에서 모든 고통과 번뇌가 사라져 완전한 평화와 해탈에 이른 상태를 의미한다.

08 고통과 쾌락에 대한 불교의 입장

불교에서는 생로병사와 같은 고통이 삶에서 피하기 어려우며, 변화하는 대상에 욕망과 집착을 가지면서 괴로움이 생긴다고 본다. ⑤ 불교의 입장에 따르면 모든 것이 변한다는 무상을 깨닫고 욕망과 집착에서 벗어나며, 쾌락의 탐닉과 지나친 고행이라는 두 극단을 피하는 중도와 팔정도를 실천하여 괴로움이 소멸한 열반에 이르러야 한다.

바로 알기 ① 불교에서는 생로병사와 같이 인간이 살아가면서 피하기 어려운 고통이 존재한다고 본다. ② 불교에 따르면 쾌락의 탐닉과 지나친 고행은 모두 피해야 할 극단이다. ③ 불교에 따르면 변화하는 대상에 대한 욕망과 집착은 괴로움이 발생하는 원인이 된다. ④ 불교에서는 감각적 쾌락을 무작정 추구하거나 이에 집착하지 말고, 필요한 욕구는 적절히 충족하면서 불필요한 욕구는 절제해야 한다고 본다.

STEP 2 내신 만점 공략하기 21~23쪽

01 ⑤ **02** ⑤ **03** ③ **04** ② **05** ② **06** ④ **07** ⑤
08 ② **09** ④ **10** ③ **11** ① **12** ⑤

01 삶의 주체로 살기 위한 방법

제시된 글에서는 삶의 주체로 살아가기 위해 자신의 욕망과 감정, 선택의 이유를 돌아보고, 자신을 둘러싼 상황과 조건이 삶에 미치는 영향까지 성찰해야 한다고 본다. 또한 고통과 쾌락의 경험을 통해 자신이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고 어떤 삶을 추구하는지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성찰을 바탕으로 자신의 삶의 방향을 스스로 정해 나가야 한다.

바로 알기 ① 자기 성찰은 자신의 내면만 살피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둘러싼 상황과 조건이 삶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돌아보는 과정이다. ② 자신이 어떤 이유로 선택했는지를 돌아보는 것은 자신의 욕망과 가치, 판단 기준을 이해하고 삶의 방향을 성찰하는 데 필요하다. ③ 고통과 쾌락에 대한 성찰은 단순히 현재의 감정을 해소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고 어떤 삶을 추구하는지 이해하는 데 활용되어야 한다. ④ 고통과 쾌락의 경험은 자신이 어떤 상황에서 만족과 괴로움을 느끼는지 돌아보게 하며, 자신의 욕망과 가치 및 추구하는 바를 이해하는 자기 성찰의 계기가 될 수 있다.

02 고통과 쾌락에 대한 에피쿠로스의 입장

⑤ 에피쿠로스는 인간이 고통과 불안을 피하고 쾌락을 추구하려는 성향을 지닌다고 보았으며, 쾌락은 욕구를 끊임없이 충족하여 자극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몸의 고통과 마음의 동요가 없는 평온한 상태에서 실현된다고 보았다.

바로 알기 ① 에피쿠로스는 이후의 더 큰 쾌락을 위해 고통을 감수할 수도 있다고 보았으므로 모든 고통을 피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② 에피쿠로스는 불필요한 욕구를 제거하여 고통이 없는 상태를 유지하는 정적 쾌락을 중시하였다. ③ 에피쿠로스는 고통이 없고 마음이 평온한 상태에 이르면 이미 참된 쾌락을 누리고 있는 것으로 보았다. ④ 에피쿠로스는 과욕과 불필요한 욕구를 절제하고 소박하고 자족적인 삶을 추구해야 한다고 보았다.

03 욕구에 대한 에피쿠로스의 입장

에피쿠로스는 욕구를 자연적이고 필수적인 욕구, 자연적이지만 필수적이지 않은 욕구, 자연적이지도 필수적이지도 않은 욕구로 구분하였다. 막대한 부를 소유하려는 욕구와 대중의 인기나 정치적 권력을 얻으려는 욕구는 '자연적이지도 필수적이지도 않은 욕구'에 해당한다. 따라서 1, 2에만 ✓를 표시한 병이 적절하다.

바로 알기 3. 생존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음식과 옷을 바라는 욕구는 인간에게 자연적으로 생기면서 충족되지 않으면 생존에 어려움을 줄 수 있으므로 자연적이고 필수적인 욕구에 해당한다. 4. 성대한 진수성찬이나 비싸고 화려한 옷을 바라는 욕구는 자연적인 욕구이기는 하지만 생존에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므로 자연적이지만 필수적이지 않은 욕구에 해당한다.

✦ 이건 꼭 알기! 에피쿠로스의 욕구 분류

- 생존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음식, 옷, 주거지 → **자연적이고 필수적인 욕구**
- 성대한 진수성찬, 값비싸고 화려한 옷 → **자연적이지만 필수적이지 않은 욕구**
- 명예욕, 재물욕, 권력욕 → **자연적이지도 필수적이지도 않은 욕구**

04 고통과 쾌락에 대한 두 입장

갑은 쾌락과 고통의 결과를 이성적으로 비교하여 무엇을 선택하고 피할지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을은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상황에 집착하지 않고 판단과 의지를 스스로 다스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ㄴ은 갑의 입장에, ㄷ은 을의 입장에 부합한다.

바로 알기 ㄱ. 갑은 참된 쾌락을 얻기 위해 어떤 쾌락을 선택하고 어떤 고통을 피할지를 이성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본다. 눈앞의 즐거움과 괴로움뿐만 아니라 그 선택이 가져올 결과까지 고려해야 한다. ㄹ. 갑은 선택과 회피의 결과를 따져 판단해야 한다고 보고, 을은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조건에 집착하지 않고 자신의 판단과 의지를 다스려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두 입장 모두 외부 조건을 적극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을 고통에서 벗어나는 방법으로 강조하지 않는다.

05 고통과 쾌락에 대한 불교의 입장

제시된 글을 주장한 사상가는 석가모니이다. 석가모니는 모든 존재와 현상이 끊임없이 변화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변화하는 대상에 집착하면 괴로움이 커진다고 보았다. ② A는 잃어버린 물건에 집착하고 있으므로, 석가모니의 입장에서 무상을 깨닫고 물건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도록 조언할 수 있다.

바로 알기 ① 석가모니는 감각적 쾌락을 추구하여 괴로움을 없애야 한다고 보지 않는다. 석가모니에 따르면 감각적 쾌락에 빠지거나 이에 집착하면 오히려 욕망과 괴로움이 커질 수 있다. ③ 석가모니의 입장에 따르면 새로운 물건을 얻어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은 잃어버린 대상에 대한 집착을 다른 욕망으로 바꾸는 것에 불과하므로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근본적인 방법이 아니다. ④ 석가모니는 괴로움의 원인을 외부 대상 자체가 아니라 세계의 참모습을 알지 못한 채 대상에 욕망과 집착을 갖는 데서 찾는다. ⑤ 석가모니는 생로병사와 같이 피하기 어려운 고통이 존재하더라도, 그 고통에 집착하지 않고 원인과 조건을 바르게 살펴 괴로움에서 벗어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보았다.

06 고통과 쾌락에 대한 석가모니의 입장

제시된 가상 편지를 쓴 사상가는 석가모니이다. ④ 석가모니는 감각적 쾌락에 빠지는 삶과 지나친 고행이라는 두 극단을 모두 경계하고, 어느 한쪽의 극단에도 치우치지 않고 욕망과 집착에서 벗어나는 태도를 강조하였다.

바로 알기 ① 석가모니는 욕망과 집착에서 벗어나 괴로움을 소멸하는 수행을 강조하였다. ②, ③ 석가모니는 모든 욕망을 억누르는 고행을 추구하지 않았으며, 중도를 쾌락과 고행을 적당한 수준으로 함께 실천하는 것으로 보지도 않았다. ⑤ 석가모니는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한 데서만 괴로움이 생긴다고 보지 않았으며, 변화하는 대상에 욕망과 집착을 가지는 것이 괴로움의 원인이 된다고 보았다.

07 고통과 쾌락에 대한 석가모니의 입장

제시된 글을 주장한 사상가는 석가모니이다. 석가모니는 생로병사와 같이 피하기 어려운 고통이 존재하지만, 모든 것이 변화한다는 무상을 깨닫고 죽음과 상실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 괴로움을 소멸시키기 위한 수행을 지속해야 한다고 보았다. 그는 특히 상실로 인한 슬픔과 비탄에 계속 매달리면 괴로움이 더욱 커질 수 있으므로 이를 내려놓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⑤ 석가모니의 입장에서는 피할 수 없는 고통을 겪더라도 그로 인한 괴로움에서는 벗어날 수 있다고 보았으므로 부정의 대답을 할 것이다.

바로 알기 ① 석가모니는 변화하는 대상에 대한 집착이 괴로움을 키울 수 있다고 보았으므로, 이별과 상실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보았다. ② 석가모니는 모든 것이 끊임없이 변화한다는 무상을 깨달아 변화하는 대상에 대한 욕망과 집착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보았다. ③ 석가모니는 감각적 쾌락의 탐닉과 지나친 고행이라는 두 극단을 모두 경계하고, 어느 한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중도를 실천해야 한다고 보았다. ④ 석가모니는 슬픔에 계속 집착하면 괴로움이 더욱 커질 수 있으므로, 비탄에 사로잡히지 않고 그 집착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보았다.

✦ 이건 꼭 알기! 석가모니가 강조한 연기와 자비

- 세상 모든 존재가 원인과 조건으로 긴밀하게 얽혀 있음 → **연기**
- 연기에 따라 모든 생명을 소중하게 여김 → **자비**

08 고통과 쾌락에 대한 석가모니의 입장

그림의 사상가는 석가모니이다. ② 석가모니는 괴로움이 진리를 알지 못하는 무명과 그에 따른 욕망과 집착에서 비롯된다고 보고, 괴로움의 원인을 깨달아 집착을 소멸해야 한다고 보았다.

바로 알기 ① 석가모니는 감각적 욕망과 집착에서 벗어나야 괴로움을 줄일 수 있다고 보았다. ③ 욕망의 대상을 얻으려는 노력은 욕망과 집착을 더욱 키울 수 있으므로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근본적인 방법이 될 수 없다. ④ 석가모니는 욕망과 집착이 괴로움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⑤ 석가모니는 괴로움의 근본 원인을 무명에 따른 욕망과 집착에서 찾았으므로, 주변 조건을 바꾸는 것만으로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보지 않았다.

09 에피쿠로스가 강조한 '사려 깊음'

에피쿠로스는 사려 깊음을 쾌락과 고통을 올바르게 분별하여 무엇을 선택하고 피할지를 판단하게 하는 실천적 지혜로 보았다. ㉠ 사려 깊음은 추구해야 할 쾌락과 피해야 할 고통을 올바르게 분별하게 하므로 옳다. ㉢ 에피쿠로스는 당장의 즐거움이나 고통만이 아니라 선택으로 발생할 이익과 손해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으므로 옳다. ㉣ 사려 깊음은 불필요한 욕망을 절제하도록 하여 몸의 고통과 마음의 동요가 없는 평온한 삶을 추구하게 하므로 옳다.

바로 알기 ㉡ 에피쿠로스는 고통이 본성상 나쁘더라도 이를 감수함으로써 더 큰 쾌락을 얻을 수 있다면 선택할 수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고통을 그 결과와 관계없이 언제나 피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에피쿠로스는 사려 깊고 훌륭하며 정의로운 삶과 참된 쾌락의 삶이 서로 긴밀하게 결합되어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미덕을 갖춘 삶과 참된 쾌락의 삶을 서로 분리하여 판단할 수 없다.

10 고통과 쾌락에 대한 석가모니의 입장

제시된 글을 주장한 사상가는 석가모니이다. 석가모니는 존재와 현상이 여러 원인과 조건에 따라 생겨나고 변화한다는 연기를 강조하였다. ① 고통과 쾌락도 저절로 생겨나는 것이 아니므로, 그 원인과 조건을 살펴 괴로움이 생겨나는 과정을 이해해야 한다고 보았다. ②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화하므로 대상을 영원한 것으로 여기며 집착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다. 자신의 욕망과 감정에 치우치면 현상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어렵다. ④ 욕망과 집착에서 벗어나 현상을 치우침 없이 바라보아야 하며, ⑤ 고통과 쾌락에 휘둘리지 않고 그것이 생겨나는 원인과 조건을 살피며 현상을 있는 그대로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바로 알기 ③ 석가모니는 존재가 원인과 조건에 상관없이 유지되는 고정된 본질을 지녔다고 보지 않았다. 모든 현상은 조건에 의존하여 생겨나고 변하므로 독립적인 실체가 아니다. 따라서 현상을 이해하려면 고정된 본질을 찾기보다 그것이 생겨나는 원인과 조건, 다른 존재와의 관계를 살펴야 한다. 이는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대상을 영원하고 독립된 실체로 여기는 집착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의미이다.

11 고통과 쾌락에 대한 에피쿠로스와 석가모니의 입장

에피쿠로스와 석가모니는 모두 지나친 욕망에 이끌리면 고통과 괴로움이 커질 수 있다고 보고, 욕망을 조절하여 평온한 삶을 추구해야 한다고 보았다. 에피쿠로스는 불필요한 욕망을 절제하여 몸의 고통과 마음의 불안을 없애고자 하였고, 석가모니는 욕망과 집착에서 벗어나 괴로움을 소멸하고자 하였다. ① 과도한 욕망을 경계하고 마음의 평온을 추구해야 한다는 점이 두 사상가의 공통된 입장이다.

바로 알기 ② 에피쿠로스와 석가모니는 사회적 의무나 명예의 추구를 행복에 이르는 핵심 방법으로 보지 않았으며, 오히려 지나치게 욕망을 추구하는 것을 경계하였다. ③ 두 사상가는 일시적인 감각적 쾌락을 극대화해야 한다고 보지 않았다. 에피쿠로스는 고통과 불안이 없는 평온을 추구하였으며, 석가모니는 감각적 쾌락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는 것을 중시하였다. ④ 팔정도를 실천하여 욕망과 집착에서 벗어나 열반에 이르는 것은 석가모니만의 입장이다. ⑤ 몸의 고통과 마음의 불안이 없는 상태를 참된 쾌락으로 보는 것은 에피쿠로스만의 입장이다. 석가모니는 이러한 상태를 '참된 쾌락'으로 규정하기보다 욕망과 집착에서 벗어나 괴로움을 소멸하고 열반에 이르는 것을 강조하였다.

12 죽음의 고통에 대한 에피쿠로스와 석가모니의 입장

에피쿠로스와 석가모니는 고통과 괴로움을 줄이고 평온한 삶을 추구했지만, 그 방법에는 차이가 있다. 에피쿠로스는 ㉠ 몸의 고통과 마음의 불안이 없는 평온을 참된 쾌락으로 보고, ㉡ 사려 깊음을 통해 필요한 욕구를 분별하고 불필요한 욕망을 절제해야 한다고 보았다. 한편 석가모니는 ㉢ 감각적 쾌락의 탐닉과 지나친 고행을 모두 피하는 중도를 강조하고, ㉣ 모든 것이 변화한다는 무상을 깨달아 욕망과 집착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보았다. 두 사상가는 지나친 욕망을 경계한다는 점에서는 공통되지만, 참된 쾌락의 의미와 괴로움을 소멸하는 수행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관점에서 설명하였다.

바로 알기 ㉤ 에피쿠로스는 죽음과 함께 감각이 소멸하므로 죽음 자체는 인간에게 고통이 될 수 없다고 보았다. 반면 석가모니는 죽음을 생로병사의 하나로서 피할 수 없는 고통으로 보았다. 두 사상가 모두 죽음에 대한 지나친 두려움과 집착에서 벗어나고자 했지만, 죽음 자체를 고통으로 보는지는 달랐다. 따라서 죽음을 누구나 피할 수 없는 고통이라고 보는 견해는 두 사상가의 공통 입장이 아니다.

STEP 3 서술형 도전하기 24쪽

01 주제: 쾌락의 역설에 대한 에피쿠로스의 입장

예시 답안 감각적 쾌락을 지나치게 추구할수록 더 강한 쾌락을 원하게 되어, 오히려 쾌락은 멀어지고 고통과 불안이 커지는 것을 의미한다.

채점 기준	
상	감각적 쾌락을 계속 추구할수록 더 강한 쾌락을 원하게 된다는 점과, 그 결과 오히려 고통이 커지거나 쾌락이 멀어진다는 점을 모두 정확하게 서술한 경우
하	쾌락을 지나치게 추구하면 오히려 고통이 커진다고 서술하였으나, 더 강한 쾌락을 계속 요구하게 되는 과정에 대한 설명이 부족한 경우

02 주제: 고통의 원인에 대한 석가모니의 입장

예시 답안 석가모니에 따르면 인간의 삶에는 생로병사(生老病死) 등 피하기 어려운 고통이 있으며, 이러한 고통은 무명(無明)으로 끊임없이 변화하는 대상에 대한 욕망과 집착으로 발생한다.

채점 기준	
상	생로병사와 같이 피할 수 없다는 고통이 있다는 특징과 무명으로 인한 욕망·집착이 괴로움을 낳는다는 점을 모두 서술한 경우
하	고통의 특징과 발생 원인 중 한 가지만 서술한 경우

03 주제: 에피쿠로스가 강조한 '사려 깊음'

(1) **답** 사려 깊음

(2) **예시 답안** 사려 깊음은 이성적 판단을 바탕으로 삶에서 무엇을 선택하고 피할지 결정하게 하며, 이를 통해 참된 쾌락을 추구할 수 있게 한다.

채점 기준	
상	핵심 어구를 모두 활용하여, 사려 깊음이 이성적 판단을 바탕으로 무엇을 선택하고 피할지 결정하게 하며 이를 통해 참된 쾌락에 이르게 한다는 역할을 정확하게 서술한 경우
하	핵심 어구를 일부만 활용하여, 사려 깊음이 이성적 판단을 바탕으로 올바른 선택을 하게 한다는 점이나 그러한 선택이 참된 쾌락에 이르게 한다는 점 중 일부를 정확하게 서술한 경우

04 주제: 고통과 쾌락에 대한 에피쿠로스의 입장

예시 답안 ㉠은 아포니아, ㉡은 아타락시아이다. 에피쿠로스는 자연적이고 필수적인 욕망은 적절히 충족하고, 필수적이지 않거나 헛된 욕망은 절제함으로써 몸의 고통과 마음의 동요가 없는 평온한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고 보았다.

채점 기준	
상	㉠을 아포니아, ㉡을 아타락시아라고 모두 정확히 쓰고, 자연적이고 필수적인 욕망은 적절히 충족하며 불필요하거나 헛된 욕망은 절제해야 한다는 방법을 모두 정확하게 서술한 경우
하	㉠과 ㉡ 중 하나의 용어만 정확히 쓰거나, 두 용어는 모두 정확히 썼으나 자연적이고 필수적인 욕망의 충족과 불필요하거나 헛된 욕망의 절제 중 한 가지 방법만 정확하게 서술한 경우

05 주제: 고통과 쾌락에 대한 석가모니의 입장

(1) **답** 중도

(2) **예시 답안** 석가모니는 모든 것이 끊임없이 변화한다는 무상을 깨닫지 못하고 변화하는 대상에 집착하면 고통이 커질 수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감각적 쾌락에 집착하거나 지나친 고행에 치우치지 않고 중도를 실천함으로써 고통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보았다.

채점 기준	
상	핵심어를 모두 활용하여, 무상한 대상에 집착할수록 고통이 생기거나 커질 수 있다는 관계를 정확히 설명하고 이를 중도를 실천해야 하는 이유와 연결하여 서술한 경우
하	핵심어를 일부만 활용하여, 집착에서 벗어나야 한다거나 고통을 줄이기 위해 중도를 실천해야 한다는 점은 서술하였으나, 무상·집착·고통의 관계를 충분히 연결하여 설명하지 않은 경우

STEP 4 1등급 정복하기 25쪽

01 ① **02** ⑤

01 죽음의 고통에 대한 입장 비교

자료 분석

갑은 죽음 자체뿐만 아니라 죽음에 대한 지나친 슬픔과 집착이 괴로움을 더 크게 만들 수 있다고 보고 있어.

갑: 죽음은 모든 생명체가 피하기 어려운 삶의 변화 중 하나이다.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채 지나치게 슬퍼하거나 집착하면 괴로움이 더욱 커질 수 있으므로, 죽음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 마음의 평온을 유지해야 한다.

을: 죽음에 이르면 감각 기능이 사라져 더 이상 고통을 느낄 수 없다. 따라서 죽음 자체를 인간에게 고통을 주는 대상으로 여기거나 이를 미리 걱정하며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

을은 고통을 느끼려면 감각이 있어야 하므로, 감각이 사라지는 죽음 자체는 고통이 될 수 없다고 보고 있어.

갑은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삶의 고통으로 보고, 죽음의 필연성을 받아들이면서 죽음에 대한 지나친 슬픔과 집착에서 벗어나야 마음의 평온을 유지할 수 있다고 본다. 반면 을은 죽음에 이르면 감각이 사라지므로 죽음 자체는 인간에게 고통을 줄 수 없으며, 이를 미리 걱정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① A는 갑이 을에게 제기하는 비판이므로, 갑은 을에게 죽음은 생로병사의 하나로서 피할 수 없는 고통임을 간과한다고 비판할 수 있다.

바로 알기 ② 죽음에 이르면 감각이 사라져 고통을 느낄 수 없다는 것은 을이 강조하는 입장이다. 따라서 갑이 을에게 이를 간과한다고 비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③ 을은 죽음에 대한 불안이 죽음 자체의 고통에서 생긴다고 보지 않는다. 을은 죽음을 감각이 사라진 상태로 간주하여 그 자체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④ 갑도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삶의 변화로 받아들이므로 죽음의 필연성을 간과하지 않는다. 또한 을이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 근거는 죽음의 필연성이 아니라 감각의 소멸이다. ⑤ 죽음을 삶의 변화로 받아들이고 집착에서 벗어나 마음의 평온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은 갑이 강조하는 입장이므로, 을이 갑에게 제기할 비판으로 적절하지 않다.

판서로 보는 고난도 개념 고통과 쾌락에 대한 석가모니와 에피쿠로스의 입장

석가모니	• 감각적 즐거움에 대한 집착: 무명에서 비롯되어 번뇌와 괴로움의 원인이 됨 • 과도한 욕망과 집착: 세상의 모든 것은 영원하지 않고 변하므로 영원한 것으로 착각하는 집착으로 인해 고통이 생김
에피쿠로스	• 일시적인 감각적 즐거움: 무분별하게 추구하면 더 큰 고통을 낳을 수 있음 • 과도한 욕망과 집착: 비자연적이고 필수적이지 않은 욕망인 사회적 명예, 권력을 추구한다면 불안과 고통이 생김

02 에피쿠로스가 강조한 '사려 깊음'

자료 분석

에피쿠로스는 잘못된 믿음과 불필요한 욕망이 마음의 불안을 일으키므로 이를 극복해야 한다고 보았어.

삶에서 가장 소중한 선은 사려 깊음이다. 사려 깊음은 그릇된 믿음이나 욕망에 휘둘리지 않고, 눈앞의 상황과 앞으로 일어날 일까지 차분히 헤아리게 한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쾌락이지만, 감각적 만족을 거듭하는 것만으로 행복한 삶에 이를 수는 없다. 참된 즐거움은 이성에 따라 자신의 삶을 신중하게 이끌어 갈 때 얻을 수 있다.

핵심 에피쿠로스가 추구한 참된 쾌락은 몸의 고통과 마음의 불안에서 벗어나 평온함을 누리는 상태를 뜻해.

제시된 글을 주장한 사상가는 에피쿠로스이다. 에피쿠로스는 사려 깊음을 올바른 선택을 가능하게 하는 실천적 지혜이자 다른 덕의 바탕으로 보았다. 그는 쾌락이 삶의 목적이지만 순간적인 즐거움을 무조건 좇는 것이 행복을 보장하지는 않는다고 보았다. 에피쿠로스의 입장에 따르면 인간은 사려 깊음을 통해 잘못된 믿음에 휘둘리지 않고 욕구의 필요성을 분별하며, 지금의 선택이 이후에 가져올 쾌락과 고통까지 고려하여 삶을 신중하게 이끌어야 한다. ⑤ 에피쿠로스는 사려 깊음이 여러 결과를 함께 따져 바람직한 선택을 하게 한다고 보았으며, 이 질문에는 '예'라고 답하므로 B에 들어갈 수 있다.

바로 알기 ① 에피쿠로스는 쾌락을 좋은 삶의 판단 기준이자 선택과 회피의 출발점으로 보았으므로 '예'라고 답할 것이다. 따라서 '아니요'의 경로에 놓이는 A에 들어갈 수 없다. ② 에피쿠로스는 현재의 고통을 수반하더라도 그 결과가 더 큰 만족이나 더 나은 삶으로 이어질 수 있다면 그러한 선택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이 질문에도 '예'라고 답할 것이므로 A에 들어갈 수 없다. ③ 에피쿠로스는 현재 느끼는 즐거움만을 기준으로 어떤 쾌락을 선택해야 한다고 보지 않았다. 선택이 가져올 이후의 고통과 만족까지 고려해야 하므로 이 질문에는 '아니요'라고 답한다. 따라서 '예'의 경로에 놓이는 B에 들어갈 수 없다. ④ 에피쿠로스는 고통 자체를 악으로 보았지만, 고통이 예상된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선택을 무조건 피해야 한다고 보지는 않았다. 더 큰 만족을 위해 감수할 수 있는 고통도 있으므로 이 질문에는 '아니요'라고 답한다. 따라서 B에 들어갈 수 없다.

I단원 실력 굳히기 28~31쪽

01 ⑤ **02** ① **03** ④ **04** ② **05** ⑤ **06** ④ **07** ⑤
08 ⑤ **09** ⑤ **10** ④ **11** ④ **12** ③ **13** ④ **14** ②
15 해설 참조 **16** (1) 구용(九容) (2) 해설 참조
17 해설 참조

01 인간과 우주의 관계에 대한 세이건의 입장

⑤ 세이건은 인간을 우주에서 비롯된 물질로 이루어진 생물학적 유기체이자 코스모스의 일부로 보았으며, 인간의 마음은 대뇌 피질에서 발현되는 사고 능력이라고 보았다. 이러한 사고 능력을 통해 인간은 자신을 인식할 뿐만 아니라 자신이 우주의 물질과 진화 과정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탐구하고 우주와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다.

바로 알기 ① 세이건은 몸과 독립하여 존재하는 정신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몸과 마음이 모두 우주의 진화 과정에서 비롯되어 서로 분리될 수 없다고 보았다. ② 세이건은 인간을 우주와 분리된 독립적 존재가 아니라 우주의 기원과 긴밀히 연결된 코스모스의 일부로 보았다. ③ 세이건은 인간이 자신의 물질적 기원을 벗어나야 참된 자아를 찾을 수 있다고 보지 않았다. 오히려 인간이 우주의 물질에서 비롯된 존재임을 강조하였다. ④ 세이건은 인간이 사고 능력을 통해 단순한 본능이나 유전적 행동 양식에만 얽매이지 않고 이를 넘어설 수 있다고 보았다.

02 몸과 마음의 관계에 대한 세이건의 입장

① 세이건은 인간의 마음이 대뇌 피질에서 발현되는 사고 능력에 바탕을 두며, 이러한 능력을 통해 인간이 단순한 본능이나 유전적 행동 양식에만 따르지 않고 자신을 인식하는 특별한 존재가 된다고 보았다.

바로 알기 ② 세이건은 몸을 마음의 명령을 수동적으로 수행하는 도구로 보지 않았다. 몸과 마음은 우주의 진화 과정에서 형성된 것으로 서로 분리될 수 없는 관계에 있다고 보았다. ③ 세이건은 정신이 신체와 독립된 실체로 존재한다고 보지 않았다. 마음의 사고 능력은 대뇌 피질의 물질적 작용에서 발현된다고 보았다. ④ 세이건은 정신 활동이 신체의 물질적 작용에서 벗어나 이루어진다고 보지 않았다. 오히려 대뇌 피질의 물질적 작용에서 의식과 사고 능력이 나타난다고 보았다. ⑤ 세이건은 신체적 조건을 초월해야 참된 정신을 실현할 수 있다고 보지 않았다. 인간의 마음 역시 신체와 분리된 것이 아니라 대뇌 피질의 작용을 바탕으로 형성된다고 보았다.

03 몸과 마음의 관계에 대한 이이의 입장

제시된 글을 주장한 사상가는 이이이다. 이이는 마음을 몸을 이끄는 주인으로, 몸을 마음이 드러나는 그릇으로 보아 내면의 마음과 외면의 몸가짐을 서로 떨어뜨려 수양할 수 없다고 보았다. ㄱ. 이이의 입장에 따르면 몸가짐을 바르게 하는 것은 마음에서 세운 도덕적 뜻을 실제 행동으로 드러내는 데 필요하다. ㄴ. 마음은 몸과 행동을 이끄는 근본이므로 자신의 생각과 욕망을 살피고

그릇된 마음을 바로잡아야 한다. ㄷ. 이이는 내면의 성찰과 외면의 실천이 함께 이루어져야 겉과 속이 한결같은 도덕적 주체로 성장할 수 있다고 보았다.

바로 알기 ㄹ. 이이는 마음을 바로잡는 내면의 수양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보았다. 마음을 성찰하는 것과 함께 몸가짐을 단속하고 바르게 실천해야 몸과 마음을 함께 수양할 수 있다.

04 몸과 마음의 관계에 대한 플라톤과 메를로퐁티의 입장

㉠은 플라톤, ㉡은 메를로퐁티의 입장이다. 플라톤은 몸과 영혼을 구별하고, 불완전한 육체보다 고귀하고 불멸하는 영혼을 중시하였다. 또한 영혼에서 이성이 욕구를 다스릴 때 조화로운 상태에 이를 수 있다고 보았으므로, ㄱ. 육체적 욕구는 영혼의 이성적 판단에 따라 조절되어야 한다고 볼 수 있다. 메를로퐁티는 몸과 마음을 분리된 것으로 보지 않고, 몸을 통해 세계를 경험하며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는다고 보았다. 따라서 ㄹ. 몸의 경험은 자신과 세계를 이해하고 타인과 관계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바로 알기 ㄴ. 플라톤은 영혼의 이성적 기능이 육체의 욕구에 종속되어야 한다고 보지 않았다. 오히려 이성이 욕구를 다스리고 조절해야 한다고 보았다. ㄷ. 메를로퐁티는 인간의 의식이 몸과 독립하여 세계를 경험한다고 보지 않았다. 그는 몸을 세계에 접근하고 소통하는 방식으로 보았으며, 몸을 통한 경험이 의식의 형성과 밀접하게 관련된다고 보았다.

05 이이가 주장한 도덕적 주체가 되기 위한 방법

자료 분석

도덕적 인격을 갖춘 성인이 되려면 일상에서 몸과 마음을 함께 바르게 다스려야 한다. 이이는 『격몽요결』에서 몸가짐을 바로잡는 실천 방법으로 구용(九容)을, 생각을 바르게 하는 방법으로 ㉠ 구사(九思)를 제시하며 그 실천을 강조하였다.
└ 마음가짐을 바르게 하기 위해 실천해야 하는 아홉 가지 생각을 말해.

이이는 구사를 몸가짐을 바로잡는 구용과 함께 지신의 구체적인 수양 방법으로 제시하였으며, 구사는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생각을 바르게 하여 배움을 진전시키고 지혜를 더하는 아홉 가지 생각의 방식을 뜻한다. ⑤ 구사는 마음을 바로잡아 지혜를 더하고 도리를 밝히는 자세이다.

바로 알기 ① 구사는 과거 시험을 위한 지식이나 기술을 습득하는 방법이 아니라 일상에서 생각과 마음을 바르게 하는 수양 방법이다. ② 신체의 자세와 행동을 바르게 하는 아홉 가지 방법은 구용에 해당한다. 구사는 생각을 바로잡고 지혜를 더하는 내면적 수양과 관련된다. ③ 구사는 외부 세계를 단순히 관조하는 방법이 아니다. 사물을 보고 듣는 태도부터 의문, 분노, 이익을 대하는 생각까지 스스로 살피고 바로잡도록 하므로 내면의 성찰과 밀접하게 관련된다. ④ 구사는 일상과 동떨어진 추상적인 학문적 경지가 아니라, 볼 때 밝게 보고 들을 때 분명하게 듣는 것처럼 일상에서 실천해야 하는 구체적인 생각의 방법이다.

✦ 이건 꼭 알기! 이이가 주장한 구용과 구사

- 외면의 태도를 엄숙하게 규율함으로써 내면의 경건함(敬)을 유지하는 방법 → **구용(九容)**
- 이성적 성찰을 통해 편견에 사로잡히지 않고 사리 분별을 명확히 하는 방법 → **구사(九思)**

06 이이가 주장한 도덕적 주체가 되기 위한 방법

제시된 글을 주장한 사상가는 이이이다. 이이는 성인이 되겠다는 뜻을 세운 뒤 수양을 방해하는 구습을 없애고, 일상에서 몸과 마음을 바르게 다스리며 의로움을 이익보다 앞세워야 한다고 보았다. ㄱ. 오래 몸에 밴 나쁜 습관은 학문과 수양을 방해하므로 혁구습을 통해 끊어 내야 한다. ㄴ. 도덕적 주체가 되려면 몸가짐과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평소에도 자신을 살피고 경계해야 한다. ㄹ. 이익을 얻을 상황에서는 그것이 의로운지 먼저 따져 이익보다 의로움을 우선해야 한다.

바로 알기 ㄷ. 이이가 강조한 신독은 홀로 있을 때 다른 사람의 평가나 시선을 의식하여 행동을 조심하는 것이 아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상황에서도 스스로 자신의 마음과 행동을 살피고 도리에 어긋나지 않도록 삼가는 태도를 뜻한다.

07 몸과 마음의 이상적인 관계

영화에서는 실제 몸과 가상 현실을 경험하는 의식이 분리된 상황을 통해 몸과 마음의 관계가 인간의 정체성과 삶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생각하게 한다. 또한 주인공이 자신의 실제 몸과 현실을 자각한 뒤 외부의 통제에서 벗어나 삶을 스스로 선택하는 모습은, 몸과 마음의 관계를 이해하고 성찰하는 일이 도덕적 주체로서 자신의 삶을 선택하는 데 중요함을 보여 준다. 따라서 ⑤ '도덕적 주체로 살아가기 위해 몸과 마음의 관계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가 핵심 탐구 주제로 가장 적절하다.

바로 알기 ① 영화의 핵심은 신체의 능력이나 외형을 인간 가치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가를 묻는 데 있지 않다. 실제 몸과 의식의 관계를 통해 인간의 정체성과 주체성을 성찰하는 데 초점이 있다. ② 영화에서는 기억이나 정보의 양이 인간의 정체성을 결정하는가보다 실제 몸과 의식이 어떤 관계를 맺으며 '나'를 이루는가가 핵심적인 문제로 제기된다. ③ 주인공이 추구하는 자유는 단순히 신체적 제약에서 벗어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자신의 현실을 자각하고 외부의 통제에서 벗어나 스스로 삶을 선택하는 주체성이 중요하게 제시된다. ④ 영화는 가상 현실과 현실에서 얻는 감각적 즐거움의 가치를 비교하려는 것이 아니다. 가상 경험과 실제 몸의 괴리를 통해 몸과 마음, 현실 인식과 주체성의 관계를 탐구하게 한다.

08 삶의 주체로서의 나에 대한 성찰

칼럼에서는 삶의 주체로 살아가기 위해 자신의 욕망과 감정, 선택의 이유를 돌아보아야 하고, 자신을 둘러싼 상황과 조건이 삶에 미치는 영향을 성찰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러한 성찰을 통해 자신이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와 목표를 파악해야 한다고 본다.

또한 삶의 방향을 스스로 정하며 자신의 선택에 책임질 수 있어야 한다. 칼럼에서는 자신의 경험과 삶의 조건을 성찰해 삶의 방향을 주체적으로 정해야 함을 강조한다.

바로 알기 ① 삶의 주체는 자신의 감정이나 사회가 제시하는 기준을 무조건 따르지 않고, 감정과 욕망을 성찰하여 자신이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와 목표를 스스로 정해야 한다. ② 주변의 상황과 조건은 선택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자신의 선택을 주변 상황에 맡겨서는 안 된다. 그 영향을 성찰한 뒤 삶의 방향을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 ③ 주어진 조건이 삶에 영향을 준다고 해서 삶의 방향까지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자신의 조건을 이해하면서도 삶의 의미와 방향을 주체적으로 설정해야 한다. ④ 삶의 주체로 살아간다는 것은 순간의 만족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치와 목표에 따라 선택하고 그 선택의 결과에 책임지는 것을 의미한다.

09 고통과 쾌락에 대한 에피쿠로스의 입장

제시된 글을 주장한 사상가는 에피쿠로스이다. 에피쿠로스는 쾌락을 행복한 삶의 기준으로 삼았지만, 감각적 즐거움을 무한히 늘리는 것이 참된 쾌락이라고 보지는 않았다. ㉠ 그는 몸의 고통과 마음의 불안이 사라진 평온한 상태를 추구해야 한다고 보았다. ㉡, ㉢ 그는 당장 고통스럽더라도 그 결과 더 큰 쾌락을 얻을 수 있다면 고통을 감수할 수 있으며, 실천적 지혜인 사려 깊음을 통해 욕구의 필요성과 선택이 가져올 결과를 따져 보아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그는 필요한 욕구가 충족되어 고통이 사라졌다면 쾌락을 더 크게 늘리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고 보았다. 고통이 사라진 뒤에는 쾌락의 양상만 달라질 뿐이고, 즐거움을 계속 좇으면 새로운 욕망과 불안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바로 알기 ㉤ 에피쿠로스는 자연적이지만 필수적이지 않은 욕구를 반드시 충족해야 한다고 보지 않았다. 그는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욕구는 충족하되, 그 밖의 욕구는 충족했을 때 생길 쾌락과 고통을 고려하여 선택하거나 절제해야 한다고 보았다. 자연적 욕구가 모두 필수적인 것은 아니며, 기본적인 필요를 넘어서는 욕구를 무조건 채우려 하면 오히려 더 큰 욕망과 고통이 생길 수 있다.

10 에피쿠로스가 강조한 '사려 깊음'

가상 편지를 쓴 사상가는 에피쿠로스이다. 에피쿠로스는 사려 깊음을 바탕으로 당장의 쾌락과 고통에만 따르지 않고, 선택이 가져올 결과까지 고려하여 무엇을 추구하고 피할지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다. ㄱ. 사려 깊음은 욕구를 분별하여 필요한 욕구와 불필요한 욕구를 가려내게 하므로 옳다. ㄷ. 자연적이고 필수적인 욕구는 적절히 충족하되 불필요한 욕망은 절제해야 몸의 고통과 마음의 불안을 줄일 수 있으므로 옳다. ㄹ. 어떤 쾌락이 이후 더 큰 고통을 가져온다면 피하고, 어떤 고통이 더 큰 쾌락으로 이어진다면 감수할 수 있다고 보았으므로 옳다. 따라서 ㄱ, ㄷ, ㄹ을 고른 ④가 정답이다.

바로 알기 ㄴ. 에피쿠로스는 고통 자체를 나쁜 것으로 보았지만, 그렇다고 모든 고통을 무조건 피해야만 한다고 본 것은 아니다. 에피쿠로스의 입장에 따르면 현재의 고통을 감수함으로써 이후 더 큰 쾌락을 얻거나 더 큰 고통을 피할 수 있다면 그 고통을 선택할 수도 있다.

11 고통과 쾌락에 대한 석가모니의 입장

자료 분석

첫 번째 화살로 인해 발생한 슬픔이나 분노에 갇혀, 원망하고 집착하며 스스로 고통을 증가시키는 것이야.

세상의 괴로움은 집착에서 비롯된다. 첫 번째 화살이 사건 자체로 생기는 고통이라면, 두 번째 화살은 그 고통에 매달려 스스로 괴로움을 더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현상이 원인과 조건에 따라 생겨난다는 연기법을 깨닫고,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아야 한다.

세상 모든 존재와 현상은 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무수한 원인과 조건이 상호 의존하며 상호 작용하여 발생한다는 법칙이야.

제시된 글을 주장한 사상가는 석가모니이다. 석가모니는 모든 존재와 현상이 원인과 조건에 따라 생겨나고 변화한다는 연기의 이치를 깨달아야 하며, 변화하는 대상에 대한 욕망과 집착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고 보았다. ㄱ, ㄷ. 석가모니의 입장에 따르면 무상한 대상에 욕망과 집착을 가지면 그 변화로 인해 괴로움이 생길 수 있고, 삶에서 피하기 어려운 고통이 있더라도 그 고통에 계속 매달리면 집착으로 인해 괴로움이 더욱 커질 수 있다. ㄹ. 고통과 쾌락 역시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원인과 조건에 따라 생겨나고 변화하는 현상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ㄱ, ㄷ, ㄹ을 고른 ④가 정답이다.

바로 알기 ㄴ. 석가모니는 쾌락과 고통을 독립적이고 고정된 실체로 보지 않았다. 모든 존재와 현상은 원인과 조건에 따라 생겨나고 변화하므로, 고통과 쾌락 역시 고정된 상태로 지속되는 것이 아니다.

12 고통과 쾌락에 대한 석가모니의 입장

그림의 사상가는 석가모니이다. 석가모니는 모든 것이 끊임없이 변화한다는 무상을 깨닫고 욕망과 집착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보았으며, 감각적 쾌락의 탐닉과 지나친 고행이라는 두 극단을 피하는 중도를 강조하였다. 또한 바르게 보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팔정도를 실천함으로써 괴로움에서 벗어나 열반에 이를 수 있다고 보았다. ③ 석가모니가 지지할 입장으로는 무상을 깨닫고 중도를 따르며 팔정도를 실천하여 집착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내용이 가장 적절하다.

바로 알기 ① 석가모니는 감각적 욕망을 충분히 충족하는 것을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길로 보지 않았다. 오히려 감각적 쾌락에 탐닉하면 욕망과 집착이 커질 수 있으므로 이를 경계해야 한다고 보았다. ② 석가모니는 육체를 지나치게 괴롭히는 고행 역시 바른 수행으로 보지 않았다. 쾌락의 탐닉과 극단적인 고행을 모두 피하는 중도를 실천해야 한다고 보았다. ④ 삶에는 생로병사처럼 피하기 어려운 고통이 있지만, 그렇다고 괴로움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을 포기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석가모니는 고통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수행함으로써 괴로움을 소멸할 수 있다고 보았다. ⑤ 석가모니는 괴로움의 근본 원인을 외부 환경에만 있다고 보지 않았다. 세계의 참모습을

알지 못하는 무명과 그로 인해 생기는 욕망·집착을 괴로움의 중요한 원인으로 보았다.

13 고통과 쾌락에 대한 에피쿠로스와 석가모니의 입장

갑은 에피쿠로스, 을은 석가모니이다. ① 에피쿠로스는 배고픔을 해소한다면 소박한 음식도 큰 쾌락을 줄 수 있다고 보았다. ② 에피쿠로스는 사려 깊음으로 당장의 쾌락과 고통뿐 아니라 이후의 결과를 살펴 무엇을 선택하고 피할지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③ 석가모니는 생로병사의 고통은 피하기 어렵지만, 이미 생긴 고통에 집착하면 괴로움이 커지므로 집착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보았다. ⑤ 두 사상가의 입장은 지나친 욕망을 경계하고 평온한 삶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에피쿠로스는 욕망의 절제로 고통과 불안을 없애려 했고, 석가모니는 욕망과 집착의 소멸을 강조하였다.

바로 알기 ④ 석가모니는 무명으로 인해 변화하는 대상에 욕망과 집착을 가지면 괴로움이 생긴다고 보았다. 그의 입장에 따르면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집착이 생길 수 있으며, 이를 유지하면 미움과 원망으로 괴로움이 깊어질 수 있다. 따라서 관계에서 겪는 괴로움을 극복하려면 상대방에게 집착하기보다 자신의 욕망과 감정을 성찰하며 집착에서 벗어나야 한다.

✦ 이건 꼭 알기! **고통에 대한 에피쿠로스와 석가모니의 입장**

- 명예욕이나 과도한 재물욕처럼 자연스럽지도 않고 필수적이지도 않은 공허한 욕구를 추구할 때 불행해지고 고통에 빠짐 → **에피쿠로스**
- 세상 모든 것이 영원하지 않은데 이에 집착하고 갈망하는 탐욕과 집착이 모든 괴로움의 원인임 → **석가모니**

14 고통과 쾌락을 대하는 바람직한 자세

제시된 가상 편지에서는 고통이나 쾌락에 즉각 반응하기보다 고통이 생긴 원인과 쾌락을 추구했을 때 나타날 결과를 성찰하고, 자신의 욕구를 분별하여 조절하는 태도를 강조한다. ② 필요한 욕구는 적절히 충족하면서 불필요한 욕구는 절제해야 고통과 쾌락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삶을 지혜롭게 이끌 수 있다. 따라서 고통과 쾌락을 성찰하며 욕구를 적절히 조절해야 한다는 내용이 가장 적절하다.

바로 알기 ① 고통은 무조건적으로 피해야만 하는 대상이 아니다. 고통을 무조건 피하려 하기보다 고통이 발생한 원인과 조건을 살펴 적절한 대처 방법을 찾는 태도가 필요하다. ③ 쾌락을 준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욕구를 충족해서는 안 된다. 쾌락이 가져올 결과를 살피고 필요한 욕구와 불필요한 욕구를 구분해야 한다. ④ 욕구를 많이 억제할수록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필요한 욕구는 적절히 충족하고 불필요한 욕구를 절제하는 것이 중요하다. ⑤ 순간적인 즐거움으로 고통을 덮거나 불쾌한 감정을 외면하기보다, 고통의 원인을 성찰하고 욕구를 적절히 조절해야 한다.

15 몸과 마음의 관계에 대한 데카르트의 입장

예시 답안 제시된 글을 주장한 사상가는 데카르트이다. 그는 마음은 생각을 본질로 하는 비물질적 실체, 몸은 공간을 차지하는 물질적 실체로 보고, 둘을 서로 구별되는 독립된 실체로 보았다.

채점 기준	
상	데카르트를 정확히 쓰고, 몸과 마음의 본질적 속성과 실체의 성격을 구분하여 설명하며, 두 실체의 독립성을 정확히 서술한 경우
하	데카르트를 정확히 썼으나, 몸과 마음의 본질적 속성이나 실체의 독립성에 대한 설명이 일부 부족한 경우

16 이이가 주장한 도덕적 주체가 되기 위한 방법

(1) 답 구용(九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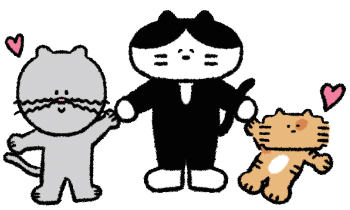
(2) 예시 답안 이이는 마음의 상태가 몸가짐과 행동에 드러나고, 몸가짐을 바로잡는 실천도 마음에 영향을 준다고 보았다. 따라서 어느 한쪽만 수양해서는 겉과 속을 모두 바르게 할 수 없으므로 몸과 마음을 함께 수양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채점 기준	
상	몸과 마음이 서로 영향을 준다는 특징을 근거로, 어느 한쪽만 수양해서는 충분하지 않으므로 함께 수양해야 한다는 이유를 정확히 서술한 경우
하	몸과 마음의 상호 영향이나 함께 수양해야 할 필요성 중 일부만 설명하여 그 이유를 충분히 서술하지 못한 경우

17 현대 소비 문제에 대한 에피쿠로스의 조언

예시 답안 에피쿠로스의 입장에서 A는 당장의 쾌락만 추구하고 그 결과로 생길 더 큰 고통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사려 깊음을 바탕으로 욕구를 분별하고 불필요한 욕구를 절제해야 한다.

채점 기준	
상	당장의 만족을 추구하는 행동이 더 큰 고통을 초래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사려 깊음에 따른 욕구의 분별과 절제라는 개선 방향을 정확히 설명한 경우
하	A의 행동에 대한 문제점이나 사려 깊음에 따른 욕구 조절 방법 중 일부만 설명한 경우



Ⅱ 타인과 관계 맺기

01 '관계 속의 나'로 살아간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

STEP 1 핵심 개념 확인하기 36쪽

01 연기 **02** (1) ㄴ (2) ㄷ (3) ㄱ **03** (1) 사회적 (2) 삼독
04 (1) ○ (2) ○ (3) × **05** ② **06** ⑤ **07** ④ **08** ⑤

04 관계 맺기에 대한 석가모니의 입장
(3) 석가모니는 모든 존재가 서로 의존하며 원인과 조건에 따라 변화한다고 보았다.

05 현대사회에서 관계 맺기가 어려운 이유
신념과 이익 차이는 갈등을 키우고, 독립 중시는 관계를 가볍게 한다. 온라인 연락은 교감을 줄이고, 비교는 불안을 키운다.

바로 알기 ②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생활을 우선하면 인간관계가 깊고 오래 지속되기보다 짧고 가벼운 만남이 늘어날 수 있다.

06 관계 맺기의 중요성
① 인간은 타인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사회적 존재이다. ②, ③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관계는 행복과 인간다움을 실현하는 바탕이 된다. ④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 함께 살아가는 삶의 가치도 경험할 수 있다.

바로 알기 ⑤ 관계 맺기는 자신의 욕구와 이익을 우선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타인을 존중하고 배려하며 함께 살아가기 위한 것이다.

07 상호성의 의미
밑줄 친 '이것'은 상호성이다. ④ 상호성은 각자의 이익을 넘어 서로 돕고 협력하는 관계에서 행복과 인간다움을 실현하게 한다.

바로 알기 ① 무명은 존재의 참된 모습을 알지 못하는 무지를 뜻한다. ② 자비는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고 덜어 주려는 태도이다. ③ 정의는 권리·의무·이익 등을 공정하게 다루는 것과 관련된다. ⑤ 개인주의는 개인의 자율성과 독립을 중시한다.

08 상호성의 가치
⑤ 상호성은 서로 의지하고 협력하는 과정에서 행복과 인간다움을 실현하고 사회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다.

바로 알기 ① 상호성은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협력하는 관계에서 실현된다. ② 타인과의 협력은 개인의 자립을 위한 일시적 수단이 아니라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관계의 바탕이다. ③, ④ 상호성은 개인의 행복이나 이익만을 앞세우기보다 공동의 번영을 추구하는 데 의의가 있다.

STEP 2 내신 만점 공략하기 37~39쪽

01 ① **02** ④ **03** ⑤ **04** ③ **05** ④ **06** ④ **07** ⑤
08 ④ **09** ④ **10** ⑤ **11** ④ **12** ⑤

01 관계 맺기의 어려움과 중요성
제시된 칼럼에서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과 비교·평가, 이해관계와 가치관의 차이 등으로 현대사회에서 관계 맺기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을 설명한다. 그러나 인간은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관계에서 인간다움과 행복을 실현할 수 있으므로, 건강한 관계를 형성하려는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한다는 내용이 칼럼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하다.

바로 알기 ② 타인과의 비교가 심해지면 오히려 자존감이 낮아지고 불안감이 커질 수 있다. ③ 인간의 행복은 타인과 맺는 건강한 관계와 밀접하게 관련된다. ④ 온라인에서 쉽게 관계를 맺으면 관계가 피상적이거나 불안정해질 수 있다. ⑤ 관계 속 갈등은 존중과 배려를 바탕으로 조정해야 하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서로의 관계를 더욱 깊게 만들 수 있다.

02 현대사회에서 관계 맺기가 어려운 이유
현대사회에서는 자신의 삶을 우선하면서 관계의 깊이가 약해질 수 있다. 연락이 쉬워져도 마음을 나눌 기회가 부족하면 사이가 멀어지기 쉽다. 또한 타인의 시선을 의식해 자신을 남과 비교하면 자존감이 낮아지고 불안해지며, 서로 다른 신념과 이해득실을 존중하지 못할 때 갈등이 커질 수 있다.

바로 알기 ㉣ 연결되는 사람이 많아져도 서로 이해하고 마음을 나누는 과정이 부족하면 관계가 깊어지지 않는다. 인맥이 넓어지는 것만으로 외로움이나 소외감이 저절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03 관계 맺기에 대한 석가모니의 입장
제시된 글을 주장한 사상가는 석가모니이다. 석가모니는 모든 관계가 원인과 조건에 따라 변화하며,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대상에 집착할수록 괴로움이 커진다고 보았다. ⑤ 석가모니의 입장에 따르면 상대방을 바로잡기보다 자신의 욕망과 집착을 성찰해야 한다.

바로 알기 ① 석가모니는 인간관계도 고정된 것이 아니므로 변화할 수 있음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보았다. ②, ④ 석가모니는 관계에서 겪는 괴로움의 원인을 자신의 욕망과 감정에서도 찾고 이를 성찰해야 한다고 보았다. ③ 석가모니는 싫어하는 사람을 만나더라도 미움과 집착에 지나치게 얽매이지 않아야 한다고 보았다.

04 관계 맺기에 대한 석가모니의 입장
제시된 글을 주장한 사상가는 석가모니이다. ㄴ. 석가모니는 '나'를 고정된 실체로 여기는 집착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ㄷ. 그는 모든 존재가 여러 원인과 조건에 따라 서로 의존하여 존재한다는 연기의 이치를 깨달아야 한다고 보았다.

바로 알기 ㄱ. 석가모니에 따르면 '나'는 다른 존재와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고정된 실체가 아니다. 모든 존재는 원인과 조건에 따라 서로 의존하며 끊임없이 변화한다. ㄹ. 석가모니에 따르면 나와 남을 차별하는 생각에서 벗어나는 것뿐 아니라 자신의 생명이 영원히 지속된다는 집착에서도 벗어나야 한다. 그는 모든 존재가 원인과 조건에 따라 변화하므로 고정된 실체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다.

✦ 이건 꼭 알기! **불교에서 말하는 집착을 낳는 네 가지 상(相)**

- '나'라는 존재의 생명이 조건이 변해도 한결같이 이어져 영원히 지속된다고 믿는 집착 → **수자상(壽者相)**
- 자신을 여러 관계 속에서 변하는 존재가 아닌 일정한 중생의 모습으로 규정하는 집착 → **중생상(衆生相)**
- 나와 타인을 각각 고정된 존재로 여기며 그 차이를 근거로 서로를 구분하고 차별하는 생각 → **인상(人相)**
- 다른 존재와의 관계를 무시한 채 자기를 독립적이고 변하지 않는 실체로 여기는 집착 → **아상(我相)**

05 관계 맺기에 대한 롤스의 입장

㉠의 사상가는 롤스이다. 1. 롤스는 인간이 스스로 삶의 목적을 정하고 이성에 따라 판단할 수 있는 존재라고 보았다. 2. 롤스는 사회를 구성원들이 협력하여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얻기 어려운 이익과 가능성을 함께 만들어 가는 협동 체제로 이해하였다. 3. 롤스는 사회 구조와 제도가 개인의 생활 여건과 기회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따라서 롤스가 지지할 의견을 모두 표시한 학생은 정이다.

바로 알기 4. 롤스는 협동을 통해 더 큰 이익을 얻는다는 점에서는 이해가 일치하더라도, 그 이익의 분배를 둘러싸고 구성원들의 요구가 충돌할 수 있다고 보았다.

06 관계 맺기에 대한 롤스의 입장

제시된 글에서는 롤스가 공정한 정의의 원칙을 선택하기 위해 원초적 입장과 무지의 베일을 설정하였음을 설명한다. 롤스는 자신의 사회적 지위나 재능 등을 알 수 없는 공정한 조건에서 정의의 원칙을 선택하여, 특수한 이해관계의 영향을 배제해야 한다고 보았다.

바로 알기 ④ 롤스는 자신의 사회적 지위와 타고난 능력을 고려해야 한다고 보지 않았다. 오히려 이러한 우연한 조건을 알 수 없게 해야 특정한 사람에게 유리한 원칙이 선택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보았다.

07 상호성의 필요성

제시된 사례는 각자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공동 자원을 과도하게 이용하여 결국 모두가 손해를 보는 '공유지의 비극'을 보여 준다. ⑤ 구성원들은 서로 의지하고 협력하는 상호성을 실천하여 공동 자원을 지키고 공동 번영을 추구해야 한다.

바로 알기 ①, ② 개인의 이익만을 앞세우면 공동의 이익이 커지기보다 모두에게 손해가 돌아갈 수 있다. ③ 공동 자원의 이용을 각자의 자율적 선택에만 맡기면 과도한 이용이 반복될 수 있다. ④ 공동 자원을 보전하려면 독립적으로 행동하기보다 서로 협력해야 한다.

08 자비의 실천에 대한 석가모니의 입장

제시된 가상 편지에는 석가모니의 입장이 드러난다. ④ 석가모니는 자기중심적인 집착에서 벗어나 타인의 고통을 헤아리고 자비를 실천해야 한다고 보았다.

바로 알기 ①, ③ 석가모니는 자신의 이익을 앞세우거나 타인과 거리를 두기보다 집착에서 벗어나 관계 속에서 타인을 배려해야 한다고 보았다. ②, ⑤ 석가모니는 타인의 고통을 외면하거나 자비를 가까운 사람에게만 한정하지 않고 모든 존재에게 자비를 실천해야 한다고 보았다.

09 상호성을 실현하는 방법에 대한 석가모니의 입장

제시된 가상 대화 속 스승은 석가모니의 입장을 나타낸다. ④ 석가모니는 보살이 자비를 실천하면서도 자신이 베풀었다는 생각이나 그에 대한 대가에 집착하지 않는 무주상보시를 실천해야 한다고 보았다.

바로 알기 ①, ⑤ 석가모니는 무주상보시를 실천할 때 보답이나 감사와 같은 대가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다. ②, ③ 석가모니는 자신의 선행이 알려지거나 공덕으로 남기를 바라는 것 역시 선행에 대한 집착이라고 보았다.

10 상호성을 실현하는 방법에 대한 석가모니의 입장

제시된 글을 주장한 사상가는 석가모니이다. 석가모니는 모든 존재가 서로 의존하고 연결되어 있음을 깨닫고 자기중심적인 생각과 집착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석가모니의 입장에서 A에게 이웃의 문제 행동을 개선하도록 요청하되, 분노와 원망에 집착하지 않고 상대방을 자비로운 태도로 대해야 한다고 조언할 수 있다.

바로 알기 ① 석가모니는 관계를 멀리하기보다 상호 의존성을 깨닫고 자비를 실천해야 한다고 보았다. ② 석가모니는 자연의 순리에 따르는 무위보다 욕망과 집착의 극복을 강조하였다. ③ 석가모니는 법과 형벌에 대한 두려움보다 분노와 집착에서 벗어나는 태도를 중시하였다. ④ 석가모니는 하늘의 이치보다 모든 존재의 상호 의존성을 설명하는 연기의 이치를 깨달아야 한다고 보았다.

11 상호성을 실현하는 방법에 대한 롤스의 입장

㉠의 사상가는 롤스이다. ㄱ. 롤스는 질서 정연한 사회에서 개인이 자신의 선을 추구하면서도 다른 사람들과 상호 의존하며 살아갈 수 있다고 보았다. ㄴ, ㄹ. 그는 사회적 협력이 공정한 제도와 원칙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그 과정에서 생기는 권리·의무와 협동의 성과도 정의의 원칙에 따라 정해져야 한다고 보았다.

바로 알기 ㄷ. 롤스는 구성원들이 서로 다른 능력과 역할을 지닐 수 있으며, 그러한 차이 속에서도 정의로운 제도 아래 협력할 수 있다고 보았다.

✦ 미건 꼭 맙기! 롤스의 질서 정연한 사회

- 정의의 원칙에 의해 규제되는 가상적이고 이상적인 사회 → **질서 정연한 사회의 성격**
- 평등한 자유의 원칙,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 차등의 원칙을 모두 충족하는 사회 → **정의의 원칙 실현**
- 천부적 재능이나 사회적 배경과 관계없이 모든 시민이 자유롭고 평등한 도덕적 인격체로서 지위를 보장받는 사회 → **시민의 평등한 지위**

12 상호성을 실현하는 방법

제시된 칼럼은 교육 기회의 격차를 롤스의 관점에서 바라본 것이다. 롤스는 공정한 원칙을 선택하려면 원초적 입장에서 무지의 베일을 통해 자신의 사회적 조건이나 이해관계에 치우치지 않아야 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자신의 사회적 조건에 치우치지 않고 교육 기회의 공정성을 판단해야 한다.

바로 알기 ① 칼럼은 교육 격차가 부모의 경제력과 같은 사회적 조건에서 비롯될 수 있음을 지적한다. ② 칼럼은 교육 기회의 공정성을 강조할 뿐,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결과를 보장해야 한다고 하지는 않는다. ③ 칼럼은 가정의 경제력에 따른 교육 기회의 차이가 공정한지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④ 칼럼은 자신의 사회적 조건을 알지 못하는 상황을 가정하므로, 이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과는 맞지 않는다.

STEP 3 서술형 도전하기 40쪽

01 주제: 관계 맺기의 어려움

예시 답안 현대인은 외모나 성과를 두고 남과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스스로를 낮게 보거나 불안을 느껴 관계 맺기를 어려워할 수 있다. 또한 이익이나 생각·신념이 서로 부딪치면서 갈등이 깊어지기도 한다.

채점 기준	
상	현대사회에서 관계 맺기가 어려운 이유를 두 가지 제시하고, 각각이 관계 맺기의 어려움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경우
하	현대사회에서 관계 맺기가 어려운 이유를 한 가지만 구체적으로 설명한 경우

02 주제: 상호성의 의미와 가치

예시 답안 상호성이란 서로 기대고 영향을 주고받으며 함께 잘 살아가고자 협력하는 것이다. 우리는 우정과 사랑 등 여러 관계에서 이를 실천하며 행복과 인간다움을 누리고, 사회가 건강하게 발전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다.

채점 기준	
상	상호성의 의미를 정확히 서술하고, 행복과 인간다움의 실현 및 사회의 건강한 발전이라는 가치를 모두 구체적으로 서술한 경우
하	상호성의 의미는 정확히 서술하였으나, 행복과 인간다움의 실현 및 사회의 건강한 발전이라는 가치 중 일부만 서술한 경우

03 주제: 상호성을 실현하는 방법에 대한 롤스의 입장

(1) 답 원초적 입장

(2) 예시 답안 무지의 베일은 정의의 원칙을 선택할 때 사회적·자연적 우연성이 누구에게도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한다. 이에 따라 자신에게 유리한 원칙을 선택할 수 없으며 모든 사람이 받아들일 수 있는 정의의 원칙에 합의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공정한 사회적 협동이 가능해지고, 이를 통해 상호성을 실현할 수 있다.

채점 기준	
상	핵심 어구를 모두 포함하여, 무지의 베일이 우연성으로 인해 누구도 유리하거나 불리하지 않게 정의의 원칙을 선택하도록 하며, 이를 통해 공정한 사회적 협동과 상호성의 실현이 가능함을 정확히 서술한 경우
하	핵심 어구를 일부 포함하여, 무지의 베일이 우연성으로 인한 유리함과 불리함을 배제하여 공정한 정의의 원칙을 선택하게 한다는 점은 정확히 서술하였으나, 이를 사회적 협동과 상호성의 실현까지 연결하여 서술하지 않은 경우

04 주제: 상호성을 실현하는 방법에 대한 석가모니의 입장

예시 답안 자신의 공덕을 내세우거나 보상을 바라며 선행을 베풀어야 한다는 주장은 석가모니의 입장과 맞지 않는다. 그는 자기중심성과 집착에서 벗어나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고 자비를 실천해야 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신이 베풀었다는 생각이나 그 대가에 집착하지 않는 무주상보시를 실천해야 한다.

채점 기준	
상	선행의 공덕이나 보상을 기대하는 마음이 집착에 해당함을 지적하고, 자기중심성과 집착에서 벗어나 자비와 무주상보시를 실천해야 한다는 점을 모두 정확히 서술한 경우
하	선행의 대가나 보상에 집착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 또는 자비를 실천해야 한다는 점은 서술하였으나, 이를 자기중심성과 집착에서 벗어난 무주상보시의 실천과 충분히 연결하지 못한 경우

✦ 미건 꼭 맙기! 석가모니가 제시한 상호성을 실현하는 방법: 무주상보시

- 자신이 누구에게 무엇을 베풀었는지 내세우거나 보상을 기대하지 않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베풂 → **무주상보시의 실천 태도**
- 베푸는 자, 받는 자, 베푸는 물건이라는 세 가지 관념이 모두 공(空)함을 깨달아야 함 → **무주상보시의 실천 조건**
- 모든 존재가 서로 의존한다는 연기의 이치를 깨닫고, 자신만의 깨달음에 머물지 않으며 중생의 고통에 공감하고 자비를 실천함 → **보살의 삶**

05 주제: 상호성을 실현하는 방법에 대한 롤스의 입장

(1) 답 질서 정연한 사회

(2) 예시 답안 롤스는 질서 정연한 사회에서 능력과 역할이 서로 다른 사람들이 각자의 선을 추구하며 서로 돕는다고 보았다. 이러한 협력은 부족한 부분을 함께 보완하고 상호성을 실현하게 한다.

채점 기준	
상	각자의 선 추구와 서로 다른 능력·역할을 인정하면서, 구성원 간 협력과 상호 의존을 통해 상호성이 실현되는 과정을 논리적으로 서술한 경우
하	협력과 상호 의존의 필요성은 서술하였으나, 개인의 선 추구 또는 서로 다른 능력·역할과 상호성의 관계를 충분히 연결하여 설명하지 못한 경우

STEP 4 1등급 정복하기 41쪽

01 ④ 02 ⑤

01 상호성을 실현하는 방법에 대한 롤스와 석가모니의 입장

자료 분석

타인을 돕고 해치지 않는 자연적 의무와 공정한 협동은 정의로운 사회의 바탕이 될 수 있어.

롤스 갑: 사람에게는 큰 희생을 치르지 않는 범위에서 곤경에 빠진 이를 돕고, 남을 해치지 않아야 할 기본적인 도덕적 의무가 있다. 또한 사회 구성원들은 서로의 권리와 이익을 존중하며 공정한 조건에서 협력해야 한다.

석가모니 을: 수행자는 어려운 사람을 돕더라도 자신이 선행을 했다는 생각이나 그 공덕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 또한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그 깨달음을 자신의 성취로 내세우거나 그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

석가모니는 선행과 깨달음을 자신의 성취로 여기며 집착하는 마음을 경계했어.

핵심 롤스는 타인을 도울 의무를 강조했지만, 석가모니는 도움을 실천할 때 지녀야 할 마음가짐을 중시했어.

갑은 롤스, 을은 석가모니이다. 롤스는 자신에게 지나친 손실이 없다면 어려움에 처한 타인을 돕고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을 자연적 의무가 있으며, 사회 구성원들이 공정한 조건에서 협력해야 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ㄱ은 롤스만의 입장인 A에 해당한다. 한편 롤스는 타인을 돕는 자연적 의무를 강조하였고, 석가모니도 자기중심적 태도에서 벗어나 어려운 사람을 도와야 한다고 보았으므로 ㄴ은 공통 입장인 B에 해당한다. ㄹ의 선행이나 공덕에 집착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은 무주상보시를 강조한 석가모니만의 입장이므로 C에 해당한다.

바로 알기 ㄷ. 석가모니는 진리를 깨달은 사람도 그 깨달음을 자신의 성취로 내세우거나 집착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다. 깨달음도 집착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이는 롤스와 석가모니의 공통 입장인 B가 아니라 석가모니만의 입장인 C에 해당한다.

판서로 보는 고난도 개념 상호성을 실현하는 방법에 대한 롤스와 석가모니의 입장

롤스	• 각자가 자신의 선을 추구하면서도 서로 협력하고 의지하며, 공정한 정의의 원칙에 따라 사회적 협동을 이루고 권리·의무와 협동의 이익을 배분해야 함 • 자신에게 지나친 손실이 없다면 어려움에 처한 타인을 돕고,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자연적 의무를 실천해야 함
석가모니	• 모든 존재가 원인과 조건에 따라 서로 의존한다는 연기설을 깨닫고, 자기중심적 집착에서 벗어나 타인의 고통을 헤아리며 자비를 실천해야 함 • 자신이 베풀었다는 생각이나 보상을 바라는 마음에 머물지 않는 무주상보시를 실천해야 함

02 상호성을 실현하는 방법에 대한 석가모니의 입장

자료 분석

보살 마하살은 모든 중생이 번뇌에서 벗어나 열반에 이르도록 돕겠다는 서원을 세워야 한다. 중생은 태어나는 방식도 모습도 한결같지 않다. 어미의 몸이나 알에서 태어나기도 하고, 습한 곳에서 생겨나거나 저절로 나타나기도 한다. 형상이 있는 존재와 없는 존재, 생각이 있는 존재와 없는 존재, 어느 쪽으로도 분명하게 구별하기 어려운 존재가 모두 여기에 속한다. 그러나 아무리 많은 중생을 구제하더라도 자신이 그들을 구제했다는 생각을 붙잡아서는 안 된다.

석가모니는 중생이 태어나는 방식이나 형상 등이 서로 다르더라도 그러한 차이가 구제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았어. 보살은 특정한 존재만을 선택하지 않고 모든 중생이 괴로움에서 벗어나도록 이끌겠다는 서원을 세워야 해.

핵심 석가모니는 중생을 돕는 행위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자신의 생각도 살펴야 한다고 보았어. 아무리 많은 중생을 구제하더라도 그 공을 자신의 성취로 여기면 집착이 남게 되므로, 베풀었다는 자의식에 머물지 않는 무주상보시의 태도가 필요해.

제시된 글을 주장한 사상가는 석가모니이다. 석가모니는 보살이 자신의 해탈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도록 자비를 실천해야 한다고 보았다. 이때 보살은 중생을 구제하면서도 자신이 베풀거나 공덕을 쌓았다는 생각에 집착하지 않는 무주상보시의 태도를 지녀야 한다.

바로 알기 ① 보살은 자신의 해탈을 먼저 완성한 뒤 중생을 구제하는 존재가 아니라, 깨달음을 추구하면서 모든 중생을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자비를 실천하는 존재이다. ② 모든 존재가 서로 의존하는 연기적 관계에 있다는 것은 모든 중생이 하나의 동일한 실체라는 뜻이 아니다. 불교는 각각의 존재를 고정불변한 실체로 보는 관점 자체를 경계한다. ③ 보살은 중생을 구제하면서 생긴 공덕을 자신의 수행 성취로 간직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선행했다는 생각이나 공덕에 대한 집착에서도 벗어나야 한다. ④ 보답만 바라지 않는 것으로 충분한 것이 아니다. 자신의 공덕을 중시하는 것도 선행에 대한 집착이므로 무주상보시의 태도와 맞지 않는다.



02 진정한 우정과 참된 사랑에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

STEP 1 핵심 개념 확인하기 44쪽

01 인(仁) **02** (1) × (2) ○ (3) ○ **03** (1) ㉠ (2) ㉡ (3) ㉢
04 (1) 스턴버그 (2) 아리스토텔레스 **05** ⑤ **06** ④ **07** ③
08 ①

02 진정한 우정에 대한 아리스토텔레스의 입장

(1) 아리스토텔레스는 진정한 우정이 서로의 좋은 성품을 충분히 알고 신뢰를 쌓는 관계이므로, 짧은 만남만으로는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보았다.

05 우정의 의미와 가치

우정은 서로 존중하며 삶을 나누는 관계이다. ①, ②, ③, ④ 우정은 친구에게 위안과 안정을 얻고, 함께 성장하면서 인격과 행복을 가꿀 수 있다. 또한 서로를 동등한 인격체로 대하며, 어려울 때 마음을 나누고 도움을 주고받는다.

바로 알기 ⑤ 우정은 한 사람만 도움을 주고 희생하는 관계가 아니다. 친구 사이에서는 서로의 어려움을 살피고, 상대의 삶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06 진정한 우정에 대한 공자의 입장

④ 공자는 친구와의 사귐을 통해 서로 인(仁)을 북돋우며 인격적으로 성장해야 한다고 보았다.

바로 알기 ①, ⑤ 공자는 이익이나 즐거움을 우정의 목적으로 보지 않았다. ② 공자는 존비친소에 따른 차등적 사랑을 강조하였다. ③ 공자는 친구가 잘못된 길로 갈 때에는 진심으로 충고해야 한다고 보았다.

07 진정한 우정에 대한 아리스토텔레스의 입장

아리스토텔레스는 상대방에게서 얻는 이익보다 그 사람 자체를 소중히 여기고 서로의 선을 추구하는 우정을 중시하였다.

바로 알기 ①, ② 아리스토텔레스는 보편적 사랑보다 좋은 성품을 바탕으로 한 친구 사이의 우정을 중시하였다. ④, ⑤ 자비는 중생에 대한 사랑, 효제는 부모와 형제를 사랑하고 공경하는 태도이다.

08 참된 사랑에 대한 공자의 입장

밑줄 친 '이것'은 서(恕)이다. 공자는 자신의 마음을 미루어 다른 사람의 처지를 헤아리고, 자신이 원하지 않는 일을 다른 사람에게도 하지 않는 태도를 통해 인(仁)을 실천할 수 있다고 보았다.

바로 알기 ② 예는 사람 사이에서 지켜야 할 규범을 뜻하며, 자신의 마음을 미루어 남을 헤아리는 태도와는 다르다. ③ 신의는 친구 사이의 믿음과 의리를 중시한다. ④ 연기는 모든 존재의 상호 의존성을 설명하는 불교의 개념이다. ⑤ 효제는 부모와 형제에 대한 사랑을 강조한다.

STEP 2 내신 만점 공략하기 45~47쪽

01 ⑤ **02** ⑤ **03** ② **04** ④ **05** ⑤ **06** ⑤ **07** ④
08 ③ **09** ⑤ **10** ② **11** ③ **12** ⑤

01 우정의 의미와 가치

제시된 칼럼에서는 우정이 어려운 순간 서로에게 힘이 되어 주고, 자신의 부족함을 성찰하여 성장하도록 돕는 관계임을 강조한다. ⑤ 칼럼에 따르면 친구와 마음을 나누며 서로를 존중하고 도울 때 삶의 행복과 안정감을 키울 수 있다.

바로 알기 ① 우정은 서로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면서 관계를 더욱 깊게 할 수 있다. ② 친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공감하고 도움을 주고받는 태도는 우정을 돈독하게 한다. ③ 우정은 우열을 전제로 하지 않고 서로를 동등한 인격체로 존중하는 관계이다. ④ 우정의 가치는 단순한 즐거움보다 상호 존중과 정서적 유대에서 찾을 수 있다.

02 진정한 우정에 대한 공자의 입장

제시된 글을 주장한 사상가는 공자이다. 공자는 친구와의 사귐이 인격을 닦고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데 중요한 영향을 준다고 보았다. ㄷ, ㄹ. 공자는 벗과 함께 배우며 서로 인(仁)을 기르는 관계를 중시하였고, 올바른 친구와의 교류가 자신의 인격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된다고 보았다.

바로 알기 ㄱ. 공자는 친구와의 사귐이 인격 형성과 무관하다고 보지 않았으며, 친구와 서로 격려하고 충고하며 함께 성장해야 한다고 보았다. ㄴ. 공자는 친구에게서 얻는 개인적 이익을 우정의 가치로 보지 않았으며, 서로 인을 실천하고 인격적으로 성장하는 관계를 중시하였다.

03 진정한 우정에 대한 공자의 입장

자료 분석

내가 이루고 싶은 바가 있다면 먼저 다른 사람도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돕고, 내가 발전하고자 한다면 남 역시 함께 성장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이처럼 자신의 마음을 미루어 타인의 처지를 헤아리고 실천하는 것이 곧 인(仁)을 실현하는 방법이다.

└ 공자는 자신의 진심을 다하는 충(忠)과 상대방의 처지와 마음을 헤아리는 서(恕)의 실천을 함께 강조하였어.

제시된 글을 주장한 사상가는 공자이다. 공자는 인(仁)을 실천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마음을 미루어 다른 사람의 처지와 마음을 헤아리는 서(恕)를 강조하였다. ② 공자의 입장에 따르면 친구와의 관계를 회복하려면 자신의 입장만 앞세우기보다 상대방의 감정과 처지를 살펴야 한다.

바로 알기 ① 공자는 가까운 사람에서부터 사랑을 넓혀 가는 차등적 사랑을 강조하였다. ③ 공자는 친구의 잘못을 무조건 모른 척하기보다 바른길로 이끌어 주는 관계를 중시하였다. ④ 공자는 상대의 처지를 헤아리지 않은 채 자신의 뜻을 강요하는 태도를 바람직하게 보지 않았다. ⑤ 공자는 우정을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지를 먼저 따지는 관계로 보지 않았다.

04 진정한 우정에 대한 아리스토텔레스의 입장

제시된 가상 편지에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입장이 드러나 있다. ④ 그는 좋음(덕)에 근거한 우정을 진정한 우정으로 보고, 상대방의 됨됨이 자체를 소중히 여기며 서로의 선을 바라는 상호적 관계를 강조하였다. 이러한 우정은 서로의 인격을 알아 가며 신뢰를 쌓는 지속적인 친교를 통해 형성된다.

바로 알기 ① 아리스토텔레스는 서로의 성품을 충분히 알고 신뢰를 쌓기 위해 오랜 친교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② 아리스토텔레스는 즐거움 때문에 맺어진 우정은 그 원인이 사라지면 약해질 수 있다고 보았다. ③ 아리스토텔레스는 진정한 우정에서는 친구에게서 얻는 유용성보다 그 사람의 좋은 성품과 인격 자체를 중시하였다. ⑤ 아리스토텔레스는 서로 상대방의 선을 바라는 상호적인 선의가 진정한 우정에 필요하다고 보았다.

05 진정한 우정에 대한 아리스토텔레스의 입장

그림의 사상가는 아리스토텔레스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덕을 지닌 사람들이 서로의 선을 바라며 오랜 친교로 신뢰를 쌓는 관계를 진정한 우정으로 보았다. ⑤ 아리스토텔레스는 친구들이 서로의 좋은 성품을 배우고 함께 올바른 삶을 가꾸도록 도와야 한다고 보았다.

바로 알기 ① 아리스토텔레스는 오랜 사귐 속에서 서로의 성품을 알고 신뢰를 쌓아야 한다고 보았다. ② 아리스토텔레스는 친애적 활동이 서로의 덕성을 북돋고 인격적 성장을 이끈다고 보았다. ③ 아리스토텔레스는 좋은 사람들의 우정을 진정한 우정으로 보았으므로 자신도 좋은 성품을 갖추어야 한다. ④ 아리스토텔레스는 친구가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갈 때 올바른 길로 돌아오도록 도와야 한다고 보았다.

✦ 이건 꼭 알기! **아리스토텔레스의 우정 분류**

- 서로에게 이익이나 쓸모가 되기 때문에 맺어지는 일시적 우정 → **이익에 근거한 우정**
- 기쁨이나 쾌락으로 인해 맺어지며 쉽게 변할 수 있는 우정 → **즐거움에 근거한 우정**
- 서로의 선함과 인격을 바탕으로 맺어지는 가장 완전하고 진정한 우정 → **덕에 근거한 우정**

06 진정한 우정에 대한 아리스토텔레스와 키케로의 입장

갑은 아리스토텔레스, 을은 키케로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친구의 덕을 존중하며 서로의 선을 바라는 우정을 중시하였고, 키케로는 신뢰를 토대로 애정을 나누는 우정을 강조하였다. ⑤ 아리스토텔레스와 키케로는 친구의 행복을 바라며 서로 돕는 우정을 중시하였으므로 이 질문에 긍정할 것이다.

바로 알기 ① 아리스토텔레스와 키케로는 이익만을 위한 우정을 경계하였다. ② 아리스토텔레스는 우정이 행복한 삶에 필요하다고 보았고, 키케로도 우정이 삶을 풍요롭게 한다고 보았다. ③ 아리스토텔레스와 키케로는 친구의 성품을 중시하였다. ④ 아리스토텔레스는 즐거움에 근거한 우정과 진정한 우정을 구분하였고, 키케로도 진정한 우정을 단순한 즐거움에 의존하는 관계로 보지 않았다.

07 사랑의 의미와 가치

(가)는 사랑이다. 사랑은 어떤 사람이나 존재를 아끼고 소중하게 여기며, 단순한 호감을 넘어 상대방을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하는 마음이다. ㄱ, ㄴ, ㄹ. 사랑은 상대방이나 존재를 귀하게 여기고, 사람들 사이의 유대를 깊게 하여 삶을 풍요롭게 하며,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고 서로의 삶에 관심을 기울이는 태도로 나타날 수 있다.

바로 알기 ㄷ. 사랑은 상대방을 자신의 뜻대로 변화시키거나 소유하려는 태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고유한 인격과 삶을 존중하며 관계를 맺는 마음을 말한다.

08 사랑의 의미와 종류

㉠ 사랑은 친밀한 관계에서 기쁨과 심리적 안정감을 느끼게 하는 경험이 될 수 있다. ㉡ 낭만적 사랑은 감각과 본능에 이끌리는 성적 끌림과 관련이 있다. ㉢ 인격적 사랑은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고 서로에 대한 신뢰를 중시하는 이타적 사랑을 의미한다. ㉣ 신적 사랑은 대가를 바라지 않고 자신을 희생하며 헌신하는 사랑을 의미한다.

바로 알기 ㉢ 인격적 사랑은 즐거움이나 이익을 얻으려는 마음이 아니라, 상대방의 인격을 소중히 여기고 신뢰하는 태도에 바탕을 둔다.

09 사랑에 대한 스턴버그의 입장

제시된 글을 주장한 사상가는 스턴버그이다. ⑤ 스턴버그는 사랑을 이루는 핵심 요소로 친밀감·열정·헌신을 제시하고, 세 요소가 균형 있게 조화를 이룰 때 성숙한 사랑이 형성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바로 알기 ① 스턴버그는 친밀감을 정서적 유대와 가까움을 형성하는 사랑의 핵심 요소로 보았으며, 사랑의 시작에만 필요한 것으로 한정하지 않았다. ② 스턴버그는 강한 감정인 열정만으로 성숙한 사랑이 이루어진다고 보지 않았다. ③ 스턴버그에 따르면 헌신은 관계를 지속하려는 의지로, 성숙한 사랑을 이루는 핵심 요소이다. ④ 스턴버그는 사랑을 구성하는 친밀감·열정·헌신의 구성 요소 중 어느 한 요소의 강도보다 각 요소들이 균형을 이루는 것을 중시하였다.

10 참된 사랑에 대한 나딩스의 입장

제시된 글에서 설명하는 사상가는 나딩스이다. 나딩스는 참된 사랑이 한쪽의 일방적인 배려만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배려자와 피배려자가 각자의 방식으로 관계에 참여할 때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ㄱ, ㄷ. 나딩스의 입장에 따르면 배려자는 상대방에게 전념하여 그 요구와 감정에 응답해야 하며, 피배려자는 받은 배려를 수용하고 인정함으로써 배려 관계의 완성에 참여해야 한다.

바로 알기 ㄴ. 나딩스는 배려자의 일방적인 헌신만으로 배려 관계가 완성된다고 보지 않았으며, 피배려자의 수용과 인정도 필요하다고 보았다. ㄹ. 나딩스는 피배려자가 같은 방식으로 배려를 되돌려주어야 한다고 보지 않았으며, 배려를 수용하고 인정함으로써 관계에 참여한다고 보았다.

11 참된 사랑에 대한 공자의 입장

㉠, ㉡ 공자는 인(仁)을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고, 자신의 마음을 미루어 상대방의 처지를 헤아리는 서(恕)를 실천해야 한다고 보았다. ㉢, ㉣ 공자는 가까운 가족에 대한 사랑에서 출발해 그 범위를 넓혀 가되, 관계의 친밀함에 따라 사랑의 정도를 달리하는 차등적 사랑을 강조하였다.

바로 알기 ㉤ 공자는 자신이 원하지 않는 일을 다른 사람에게도 하지 않는 것이 서를 실천하는 방법이라고 보았다.

✦ 이건 꼭 알기! **공자의 인(仁)과 그 실천 방법**

- 다른 사람을 아끼고 사랑하며, 인간다운 삶을 이루기 위한 핵심 덕목 → **인(仁)**
- 자신의 마음을 미루어 타인의 처지를 헤아리고, 자신이 원하지 않는 일을 남에게도 하지 않음 → **서(恕)**
- 부모와 형제를 사랑하고 공경하는 데서 시작하여 그 사랑을 이웃과 사회로 넓혀 감 → **효제(孝悌)와 차등적 사랑**
- 자신의 인격을 먼저 수양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른 사람을 편안하게 하는 삶을 추구함 → **수기안인(修己安人)**

12 참된 사랑에 대한 아리스토텔레스의 입장

제시된 대화 속 스승은 아리스토텔레스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덕을 갖춘 사람은 자신의 삶과 인격을 귀하게 여기며 자신의 행복을 바란다고 보았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올바른 자기 사랑이 이익만 추구하는 이기심과 달리 타인의 존재를 소중히 여기는 태도로 이어진다고 설명하였다. ⑤ 아리스토텔레스의 입장에 따르면 자신을 바르게 사랑하는 사람은 타인을 존중하며 상대방의 행복을 바랄 수 있다.

바로 알기 ① 아리스토텔레스는 올바른 자기 사랑이 타인 존중의 바탕이 된다고 보았다. ② 아리스토텔레스는 자신을 무조건 희생해야 타인을 사랑할 수 있다고 보지 않았다. ③ 아리스토텔레스는 자신에게 좋은 것을 바라는 태도 자체를 부정하지 않았다. ④ 아리스토텔레스는 참된 사랑을 이익이나 즐거움보다 상대방 자체를 소중히 여기는 관계로 보았다.

STEP 3 서술형 도전하기 48쪽

01 주제: 진정한 우정에 대한 아리스토텔레스의 입장

예시 답안 아리스토텔레스는 진정한 우정을 이익이나 즐거움 때문이 아니라 상대방의 됨됨이 자체를 사랑하고 서로가 잘되기를 바라는 관계라고 보았다. 이러한 우정을 형성하려면 오랜 시간 지속적으로 친교를 나누며 서로 좋은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야 한다.

채점 기준	
상	진정한 우정의 의미와 형성 방법을 모두 정확하게 서술한 경우
하	진정한 우정의 의미와 형성 방법 중 한 가지만 정확하게 서술한 경우

02 주제: 참된 사랑에 대한 공자의 입장

예시 답안 자신의 마음을 미루어 다른 사람의 처지를 헤아리는 서(恕)를 실천해야 하고, 효제(孝悌)를 바탕으로 가까운 사람에 대한 사랑에서 시작하여 그 범위를 점차 넓혀 가야 한다.

채점 기준	
상	서의 실천과 효제를 바탕으로 사랑의 범위를 넓혀 가야 한다는 내용을 모두 정확하게 서술한 경우
하	서를 실천하는 방법 또는 효제를 바탕으로 사랑의 범위를 넓혀 가야 한다는 내용 중 한 가지만 정확하게 서술한 경우

03 주제: 참된 사랑에 대한 나딩스의 입장

(1) 답 전념

(2) 예시 답안 나딩스는 참된 사랑을 실현하려면 배려자가 상대방의 요구에 전념하여 응답하고, 피배려자는 그 배려를 수용하고 인정하는 반응을 보여야 한다고 보았다.

채점 기준	
상	핵심어를 모두 포함하여, 배려자는 상대방의 요구에 전념하여 응답하고 피배려자는 그 배려를 수용·인정하는 반응을 보여야 한다고 정확하게 서술한 경우
하	핵심어를 일부 포함하여 전념과 피배려자의 수용·인정의 관계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배려자와 피배려자가 모두 관계에 참여해야 한다고만 서술한 경우

04 주제: 진정한 우정에 대한 아리스토텔레스의 입장

예시 답안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익이나 즐거움에 근거한 우정은 그것을 얻는 것이 더 이상 가능하지 않게 되면 끝날 수 있으므로 진정한 우정과 구별하였다. 진정한 우정은 상대방에게서 얻는 이익이나 즐거움 때문이 아니라 상대방의 됨됨이 자체를 사랑하고 서로가 잘되기를 바라는 관계이다. 따라서 진정한 우정의 가치를 상대방이 제공하는 이익이나 즐거움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채점 기준	
상	이익이나 즐거움에 근거한 우정은 그 원인이 사라지면 끝날 수 있고, 진정한 우정은 상대방의 됨됨이 자체를 사랑하는 관계임을 모두 서술한 경우
하	진정한 우정이 이익이나 즐거움이 아니라 상대방의 됨됨이 자체를 사랑하는 관계임을 서술하였으나, 이익이나 즐거움에 근거한 우정의 한계를 설명하지 못한 경우

05 주제: 참된 사랑에 대한 공자와 묵자의 입장

(1) 답 갑: 공자, 을: 묵자

(2) 예시 답안 공자는 가까운 사람에 대한 사랑에서 시작하여 관계의 친소를 고려하면서 사랑의 범위를 점차 넓혀 가는 차등적 사랑을 강조하였다. 반면 묵자는 혈연이나 친소를 구별하지 않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며 서로 이롭게 하는 보편적 사랑을 강조하였다.

채점 기준	
상	공자는 차등적 사랑을, 묵자는 보편적 사랑을 강조한다는 점과 그 구체적인 실천 방식의 차이를 모두 정확하게 비교하여 서술한 경우
하	공자와 묵자의 사랑의 범위는 비교하였으나, 구체적인 실천 방식의 차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 경우

STEP 4 1등급 정복하기 49쪽

01 ⑤ **02** ①

01 진정한 우정에 대한 아리스토텔레스와 공자의 입장

자료 분석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익과 즐거움을 목적으로 하는 우정은 진정한 우정이 아니라고 보았고, 진정한 우정은 상대방의 사회적 지위나 직업보다 그 사람의 좋은 성품을 소중히 여기는 관계임을 강조하였어.

아리스토텔레스 갑: 진정한 우정은 이익이나 즐거움 때문이 아니라 상대방의 됨됨이 자체를 사랑하고 서로가 잘되기를 바라는 관계이다. 이러한 우정을 이루려면 오랜 시간 친교를 나누며 서로의 성품을 알아 가야 한다.

공자 을: 친구와 학문을 나누며 서로 인(仁)을 더욱 키워 갈 수 있다. 친구 사이에는 서로 신의를 지키고 함께 발전하도록 힘쓰며, 친구가 잘못된 길로 갈 때에는 진실한 마음으로 충고해야 한다.

공자는 친구에게 바른길을 권하고 진심으로 충고하되, 상대가 받아들이지 않을 때에는 자신의 뜻을 억지로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어.

핵심 아리스토텔레스와 공자는 모두 진정한 우정을 서로의 성장을 돕는 관계로 보았어. 다만 아리스토텔레스는 서로의 좋음을 바라는 선의를, 공자는 신의와 진실한 충고를 통한 실천을 강조했어.

갑은 아리스토텔레스, 을은 공자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우정이 성립하는 근거를 이익·즐거움·덕으로 구분하고, 그중 좋은 성품을 지닌 사람들 사이의 우정을 진정한 우정이라고 보았으므로 ㄱ은 적절하다. 공자와 아리스토텔레스 모두 벗과의 교류가 자신의 성품을 가꾸고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하는 데 기여한다고 보았으므로 ㄷ은 적절하다. 공자는 인(仁)과 신의를 바탕으로 서로 권면하며 바른길로 나아가도록 돕는 사귐을 강조하였으므로 ㄹ은 적절하다.

바로 알기 ㄴ. 아리스토텔레스는 진정한 우정의 가치를 상대에게서 얻는 유용성에 두지 않았다. 이익이 관계의 이유가 되면 그 조건이 사라질 때 우정도 약해질 수 있으며, 좋은 사람 사이의 우정은 상대방의 덕과 됨됨이 자체를 이유로 지속된다고 보았다.

판서로 보는 고난도 개념 진정한 우정에 대한 아리스토텔레스와 공자의 입장

아리스토텔레스	• 조건적 우정의 한계: 이익이나 쾌락에 기반한 우정은 쉽게 소멸함 • 진정한 우정: 서로의 선함과 미덕을 바라보며, 대가 없이 상대방의 인격을 사랑하는 우정
공자	• 진정한 우정: 단순한 이익이나 재미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도덕적 학문과 뜻을 함께 공부하는 동반자 • 진정한 우정을 실현하는 방법: 타인과의 우정 이전에 가족 안에서 부모에게 효도하고 형제간의 우애를 다지는 효제(孝悌)가 근본임

02 참된 사랑에 대한 공자와 아리스토텔레스의 입장

자료 분석

자신의 마음과 처지를 바탕으로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 보는 서(恕)의 태도를 뜻해.

공자 갑: 인(仁)은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바를 다른 사람도 이룰 수 있도록 돕고, 자신이 발전하고자 하듯 다른 사람도 발전할 수 있도록 힘쓰는 데서 드러난다. 또한 자신의 마음을 미루어 다른 사람의 처지와 바람을 헤아려야 한다.

아리스토텔레스 을: 좋은 사람은 자기 자신을 올바르게 사랑하고 자신에게 좋은 것을 바란다. 이러한 자기 사랑을 바탕으로 타인의 존재와 인격도 소중히 여기며, 상대방이 잘되기를 바라는 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

자신을 올바르게 사랑하고 존중하는 태도가 타인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바탕이 된다는 뜻이야.

갑은 공자, 을은 아리스토텔레스이다. 공자는 인(仁)을 실천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처지와 바람을 헤아리고,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것을 다른 사람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보았다. 아리스토텔레스도 참된 사랑에서는 타인의 존재를 소중히 여기고 상대방이 잘되기를 바라야 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①과 같이 두 사상가는 모두 상대방이 잘되기를 바라야 하느냐는 질문에 긍정의 대답을 할 것이다.

바로 알기 ② 공자는 모든 사람을 똑같은 정도로 사랑해야 한다고 보지 않았다. 공자는 가까운 사람에 대한 사랑에서 시작하여 관계의 친소를 고려하면서 사랑의 범위를 넓혀 가야 한다고 보았으므로 '아니요'라고 대답할 것이다. ③ 공자는 자신의 마음을 미루어 다른 사람의 처지와 바람을 헤아리는 서(恕)를 실천해야 한다고 보았으므로 '예'라고 대답할 것이다. ④ 아리스토텔레스는 자신을 올바르게 사랑하고 존중하는 태도가 타인을 사랑하는 바탕이 된다고 보았으므로 '예'라고 대답할 것이다. ⑤ 아리스토텔레스는 참된 사랑이란 상대방에게서 얻는 이익보다 상대방 자체와 상대방의 좋음을 소중히 여긴다고 하였으므로 '아니요'라고 대답할 것이다.



Ⅱ단원 실력 굳히기 52~55쪽

01 ③ 02 ③ 03 ④ 04 ⑤ 05 ④ 06 ⑤ 07 ④
08 ⑤ 09 ④ 10 ⑤ 11 ④ 12 ⑤ 13 ④ 14 ①
15 (1) 연기 (2) 해설 참조 16 해설 참조 17 해설 참조

01 관계 맺기의 어려움에 대한 석가모니의 입장

제시된 글을 주장한 사상가는 석가모니이다. 석가모니는 모든 존재가 인연에 따라 서로 의존하며 성립한다고 보고, 괴로움의 원인을 자기중심적인 욕망과 집착에서 찾았다. ③ 그는 인간관계에서도 상대방만을 탓하기보다 자신의 욕심과 집착을 돌아보고, 타인과의 관계를 성찰하는 태도를 강조하였다.

바로 알기 ① 석가모니는 물질적 이익과 자신의 가치만을 우선해야 한다고 보지 않았다. ②, ⑤ 석가모니는 자신과 타인을 독립된 고정적 존재로 보거나 상호 의존성을 부정해야 한다고 보지 않았다. ④ 석가모니가 강조한 자비는 우월한 위치에서 타인을 동정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는 태도이다.

02 상호성을 만끽하는 삶에 대한 석가모니의 입장

(가)는 무주상보시이다. 석가모니가 강조한 무주상보시는 자신이 베풀었다는 생각이나 베푼 대상·결과에 집착하지 않고 행하는 보시로, 보살이 실천해야 할 자비의 한 모습이다. ㄴ. 석가모니는 나와 남의 구분에 집착하지 않고 자비의 마음으로 베풀어야 한다고 보았다. ㄷ. 가족을 돌보거나 이웃에게 작은 배려를 실천할 때에도 대가나 보답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음으로써 무주상보시를 실천할 수 있다.

바로 알기 ㄱ. 무주상보시는 대가만 바라지 않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선행을 하거나 베풀었다는 생각에도 집착하지 않는 실천이다. ㄹ. 무주상보시는 행위의 결과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에 기여하는지를 계산하여 실천하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판단은 공리주의적 관점에 가깝다.

03 상호성을 만끽하는 삶에 대한 석가모니의 입장

제시된 대화의 스승은 석가모니의 입장을 나타낸다. 석가모니는 보살이 자신의 깨달음만을 추구하지 않고 중생의 괴로움을 덜기 위해 자비를 함께 실천해야 한다고 보았다. 이때 보살은 깨달음을 추구하며, 선행을 실천하면서도 자신이 베풀었다는 생각이나 그로 인해 얻게 될 공덕에 집착하지 않는다. ④ 중생을 돕더라도 이를 자신의 성취로 여기지 않는 태도는 이러한 무집착의 자비를 나타낸다.

바로 알기 ① 석가모니는 보살이 자신의 해탈만을 우선하기보다 깨달음의 추구와 중생 구제를 함께 실천해야 한다고 보았다. ② 석가모니는 선행으로 얻는 공덕에도 집착하지 않아야 한다고 보았다. ③ 석가모니는 자신의 평안만을 추구하기보다 타인의 고통에 자비로 응답해야 한다고 보았다. ⑤ 석가모니는 중생을 구제하려는 마음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구제한다.'라는 생각에 집착하지 않아야 한다고 보았다.

04 공정한 관계 맺기에 대한 롤스의 입장

롤스는 공정한 정의의 원칙에 합의하기 위한 가상적 상황으로 원초적 입장을 설정하였다. 이때 합의 당사자들은 무지의 베일을 통해 자신의 사회적 지위나 천부적 능력 등을 알 수 없으며, 이러한 조건과 이해관계가 정의의 원칙을 판단하는 데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 롤스는 이를 통해 누구에게도 치우치지 않는 공정한 합의가 가능하다고 보았다.

바로 알기 ㉣ 롤스는 원초적 입장의 당사자가 자신의 구체적인 처지를 알지 못하게 함으로써 특정한 조건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이용할 수 없도록 하였다. 따라서 개인의 이익에 맞춘 원칙을 선택하는 것은 공정한 합의의 취지에 어긋난다.

05 공정한 관계 맺기에 대한 롤스의 입장

㉠의 사상가는 롤스이다. 롤스는 질서 정연한 사회에서 개인이 자신의 선을 추구하면서도 다른 사람들과 협력하고 서로 의지할 수 있다고 보았다. 롤스의 입장에 따르면 사회적 협력은 개인의 목적 추구와 양립할 수 있으며, 이는 정의의 원칙을 통해 협동의 조건과 성과를 공정하게 조정해야 한다. 또한 구성원들의 능력과 성향의 차이를 인정하고, 각자의 역할을 통해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야 한다.

바로 알기 2. 롤스는 상호성을 실현하기 위해 모두가 동일한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보지 않았다. 롤스는 서로 다른 능력과 성향을 지닌 사람들이 다양한 역할을 맡으면서 협력할 수 있다고 보았다.

06 진정한 우정에 대한 공자의 입장

제시된 글을 주장한 사상가는 공자이다. ㄱ, ㄷ, ㄹ. 공자는 효를 단순히 물질적으로 부모를 부양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부모를 공경하고 그 뜻을 헤아리는 마음까지 갖추어야 하는 것으로 보았다. 또한 그는 친구와의 올바른 사귐을 통해 인(仁)을 더욱 기르고 자신의 성품을 바로 세울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공자의 입장에 따르면 친구가 잘못된 길로 나아갈 때에는 진심으로 충고하여 바로잡도록 도와야 하고, 서로 권면하며 함께 인격적으로 성장하는 관계를 형성해야 한다.

바로 알기 ㄴ. 공자는 친구의 잘못을 무조건 감싸 주는 것을 진정한 우정이라고 보지 않았다. 친구가 잘못된 길로 나아갈 때에는 진실한 마음으로 충고하여 바른길로 나아가도록 도와야 한다고 보았다.

07 진정한 우정에 대한 공자의 입장

㉠, ㉤ 공자는 친구끼리 배움을 나누고 서로 인(仁)을 기르며 함께 성장하는 관계를 중시하였다. ㉡ 공자는 친구 사이에 신의를 지키고 함께 발전하도록 격려해야 한다고 보았다. ㉢ 공자는 친구가 잘못된 길로 나아갈 때 진실한 마음으로 충고해야 한다고 보았다.

바로 알기 ㉣ 공자는 친구가 잘못된 길로 나아갈 때 진심으로 충고해야 하지만, 친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자신의 뜻을 계속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다.

✦ 이건 꼭 알기! **공자가 강조한 진정한 효와 우정**

- 부모를 물질적으로 봉양하는 데 그치지 않고, 늘 부모를 염려하며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공경의 태도를 갖춤 → **진정한 효**
- 친구의 잘못을 무조건 감싸기보다 서로 학문과 덕을 닦고, 진심 어린 충고와 격려를 통해 함께 성장하는 관계 → **진정한 우정**

08 진정한 우정에 대한 아리스토텔레스의 입장

자료 분석

사람들은 이익이나 즐거움을 얻으려고 친구를 사귀기도 하지만, 그 목적이 사라지면 관계도 약해지기 쉽다. 반면 덕을 갖춘 사람들은 서로의 좋은 성품을 존중하며 오랜 시간 친교를 나눈다. 그들은 친구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며 함께 훌륭한 삶을 가꾸어 간다. 인간은 다른 이들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존재이므로, 이러한 우정은 행복한 삶을 이루는 데 중요한 바탕이 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외적인 좋음 중 가장 큰 가치인 우정이 필수적이라고 보았으며 특히 상대방의 조건이 아닌 인품을 사랑하는 우정을 진정한 우정이라고 보았어.

제시된 글을 주장한 사상가는 아리스토텔레스이다. 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익보다 친구의 덕을 중시하며, 서로의 선을 바라며 함께 좋은 삶을 가꾸는 관계를 진정한 우정으로 보았다.

바로 알기 ①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한 삶을 위해 친구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② 아리스토텔레스는 진정한 우정에는 오랜 시간의 지속적인 친교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③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익이나 즐거움에 근거한 우정을 진정한 우정과 구별하였다. ④ 아리스토텔레스는 친구의 모든 선택을 무조건 존중해야 한다고 보지 않았으며, 서로 좋은 삶을 추구하도록 도와야 한다고 보았다.

09 참된 사랑에 대한 공자의 입장

제시된 글을 주장한 사상가는 공자이다. 공자는 인(仁)을 다른 사람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고, 인간다운 삶을 이루는 핵심 덕목으로 강조하였다. 이러한 사랑은 가장 가까운 관계에서부터 구체적으로 실천되어야 하므로, 부모와 형제를 사랑하고 공경하는 효제(孝悌)를 인을 실천하는 출발점으로 보았다. 또한 가까운 사람에게서 시작한 사랑을 점차 더 넓은 관계로 확장하되, 자신의 마음을 미루어 상대방의 처지와 마음을 헤아리는 서(恕)를 실천해야 한다고 보았다.

바로 알기 ㄷ. 공자는 사랑의 범위를 넓혀 가더라도 모든 사람을 친소의 구별 없이 똑같이 사랑해야 한다고 보지 않았다. 공자는 관계의 친소를 고려하면서 사랑을 점차 확대하는 차등적 사랑을 강조하였다.

10 참된 사랑에 대한 공자의 입장

제시된 가상 편지는 공자의 입장을 나타낸다. 공자는 인(仁)을 사람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고, 이를 실천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마음을 미루어 타인의 처지를 헤아리는 서(恕)를 강조하였다. 또한 사랑은 가까운 관계에서 출발하되 점차 그 범위를 넓혀 가야 한다고 보았다. ⑤ 공자의 입장에 따르면 자신의 마음을 바탕으로 상대를 헤아리고 사랑의 범위를 넓혀 가는 과정에서 인을 실천할 수 있다.

바로 알기 ①, ③ 공자는 사랑을 가까운 사람에게만 한정하거나 모든 사람을 똑같이 사랑해야 한다고 보지 않았으며, 가까운 관계에서 시작하여 사랑을 점차 넓혀 가는 차등적 사랑을 강조하였다. ② 공자는 상대방을 위한다는 이유로 자신의 판단을 끝까지 따르도록 강요해야 한다고 보지 않았다. ④ 공자는 자신의 이해관계를 우선하기보다 상대방의 처지와 바람을 헤아려야 한다고 보았다.

11 진정한 우정에 대한 아리스토텔레스의 입장

(가)를 주장한 사상가는 아리스토텔레스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진정한 우정을 이익이나 즐거움 때문이 아니라 상대방의 좋은 성품과 됨됨이 자체를 사랑하고 서로가 잘되기를 바라는 관계로 보았다. (나)에서 윤동주와 송몽규는 다른 방식으로 삶을 살아갔더라도 서로에게 영향을 주며 더 나은 삶과 올바른 가치를 추구하였다. 따라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입장에서는 ④와 같이 삶의 방식이 달라도 서로 좋은 삶을 추구하도록 돕는 진정한 우정으로 평가할 수 있다.

바로 알기 ①, ②, ⑤ 아리스토텔레스는 친구가 같은 선택을 하거나 같은 방식으로 살아야 진정한 우정이 성립한다고 보지 않았다. 서로의 좋음을 바라며 좋은 삶을 추구하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③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익을 진정한 우정의 기준으로 보지 않았으며, 상대방의 됨됨이 자체를 사랑해야 한다고 보았다.

12 참된 사랑에 대한 아리스토텔레스의 입장

그림의 강연자는 아리스토텔레스이다. ⑤ 아리스토텔레스는 부모와 자식의 사랑이 서로 같은 방식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각자가 관계 속에서 주어진 의무를 다할 때 가족 간의 친애가 오래 지속되고 훌륭해질 수 있다고 보았다.

바로 알기 ①, ② 아리스토텔레스는 부모와 자식의 사랑이 같은 방식으로 나타나거나 언제나 같은 모습으로 유지된다고 보지 않았다. ③ 아리스토텔레스는 가족 간의 친애가 의무와 무관하게 지속된다고 보지 않았다. ④ 아리스토텔레스는 부모와 자식의 사랑이 서로에게서 얻는 이익에 따라 형성된다고 보지 않았다.

13 참된 사랑에 대한 아리스토텔레스의 입장

제시된 글을 주장한 사상가는 아리스토텔레스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사람들이 존경받을 때 다른 사람의 평가를 통해 자신의 선함을 확인하고 기뻐하지만, 사랑받는 기쁨은 타인의 평가가 아니라 사랑 자체에서 비롯된다고 보았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익이나 즐거움에 근거한 우정이 그 목적이 사라지면 약해질 수 있지만, 진정한 우정은 친구의 좋은 성품을 소중히 여기며 오랜 친교를 통해 신뢰를 쌓는 관계라고 보았다. ④ 아리스토텔레스의 입장에 따르면 사랑이 다른 목적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로 추구할 만한 가치를 지닌다.

바로 알기 ① 아리스토텔레스는 존경보다 사랑을 더 좋은 것으로 보았다. ② 아리스토텔레스는 존경받는 기쁨은 타인의 평가에서 비롯되는 것이지만, 사랑받는 기쁨은 타인의 평가와 관계없이 사랑 자체에서 나온다고 보았다. ③ 아리스토텔레스는 진정한 우정이 오랜 시간 친교를 나누며 서로의 성품을 알아 가고 신뢰를 쌓을 때 형성된다고 보았다. ⑤ 아리스토텔레스는 진정한 우정 관계에서 이익이나 즐거움보다 친구의 좋은 성품과 됨됨이를 중시하였다.

✦ 이건 꼭 알기! **아리스토텔레스가 강조한 사랑의 특징**

- 타인의 판단을 통해 자신의 선함을 확인하며 얻는 기쁨 → **명예·존경**
- 상대방의 좋은 성품과 됨됨이 자체를 사랑하고 서로가 잘되기를 바라는 관계 → **진정한 우정**

14 참된 사랑에 대한 나딩스의 입장

㉠의 사상가는 나딩스이다. 나딩스는 상대방에게 자연스럽게 마음을 기울이는 자연적 배려를 윤리적 배려의 토대로 보았으며, 의무감에 따라 이루어지는 윤리적 배려보다 자연적 배려를 더 바람직한 상태로 보았다. 따라서 나딩스는 의무에 따른 행위를 중시한 칸트에게 ①과 같이 자연적 배려의 가치와 우선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다고 비판할 수 있다.

바로 알기 ② 나딩스는 자연적 배려가 윤리적 배려의 토대가 된다고 보았다. ③, ④, ⑤ 나딩스는 의무나 보편적 도덕 법칙보다 자연스럽게 상대방에게 마음을 기울이는 배려의 가치를 중시하였다.

✦ 이건 꼭 알기! **나딩스와 칸트의 도덕적 행위에 대한 입장 비교**

- 상대방에게 관심과 애정이 자연스럽게 생겨나 의무감에 얽매이지 않고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배려 → **나딩스의 자연적 배려**
- 자발적인 배려의 마음이 생기지 않더라도 의무감을 바탕으로 타인을 돌보며, 자연적 배려를 유지하거나 회복하려는 실천 → **나딩스의 윤리적 배려**
- 배려자가 상대방의 감정과 필요에 관심을 기울여 적절히 응답하고, 피배려자가 그 관심을 받아들이고 인정할 때 성립하는 관계 → **나딩스가 강조한 배려 관계**
- 개인적인 감정이나 성향이 아니라 도덕 법칙에 대한 존중에서 비롯된 의무를 행위의 도덕적 근거로 중시하는 입장 → **칸트의 의무 윤리**
- 인간관계에서 상대방의 상황과 필요를 중시하는 관점과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보편적 도덕 법칙을 중시하는 관점 → **나딩스와 칸트의 도덕적 판단 기준 차이**

15 상호성을 만끽하는 삶에 대한 석가모니의 입장

(1) 답 연기

(2) 예시 답안 석가모니는 참된 자비를 실천하려면 자신이 베풀었다는 생각이나 그에 따른 대가와 공덕에 집착하지 않고 베풀어야 한다고 보았다.

채점 기준	
상	석가모니의 입장에 따라 자신이 베풀었다는 생각과 대가나 공덕에 대한 집착을 모두 버리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베풀어야 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서술한 경우
하	석가모니의 입장에서 자신이 베풀었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는 점이나 대가와 공덕에 집착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 중 한 가지만 서술한 경우

16 공정한 관계 맺기에 대한 롤스의 입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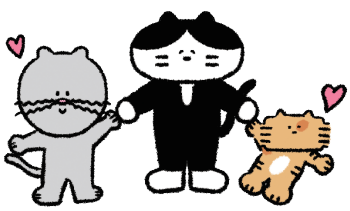
예시 답안 롤스는 원초적 입장에서 무지의 베일을 설정하여 자신의 사회적 지위, 천부적 재능, 경제적 조건 등 우연하게 주어진 조건을 알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보았다. 이를 통해 자신의 특수한 이해관계에 치우치지 않고 누구에게도 편파적이지 않은 공정한 원칙을 선택함으로써 공정한 관계를 형성해야 한다.

채점 기준	
상	원초적 입장에서 무지의 베일을 통해 개인의 우연한 조건과 특수한 이해관계가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고, 누구에게도 치우치지 않는 공정한 원칙을 선택해야 함을 논리적으로 서술한 경우
하	개인의 우연한 조건이나 이해관계를 배제해야 한다는 점은 서술하였으나, 이것이 공정한 관계를 위한 원칙의 선택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충분히 서술하지 않은 경우

17 진정한 우정에 대한 아리스토텔레스의 입장

예시 답안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을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적 존재로 보았으며, 좋은 친구와 함께 살아가며 서로 좋은 삶을 추구하는 것이 행복한 삶을 이루는 데 필요하다고 보았다.

채점 기준	
상	인간이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적 존재라는 점과, 좋은 친구와 함께 서로 좋은 삶을 추구하는 것이 행복한 삶에 필요하다는 점을 모두 정확하게 서술한 경우
하	인간이 사회적 존재라는 점이나 좋은 친구와 함께하는 삶이 행복에 필요하다는 점 중 한 가지만 정확하게 서술한 경우



Ⅲ 자유와 평등

01 우리는 자유롭고 평등한 존재일까?

STEP 1 핵심 개념 확인하기 60쪽

01 소요유 **02** (1) ㄱ (2) ㄴ (3) ㄷ **03** (1) × (2) ○ (3) ○
04 (1) 심재 (2) 무조건적 **05** ② **06** ① **07** ⑤ **08** ⑤

03 장자의 도(道)

(1) 장자에 따르면 만물은 모두 도(道)를 품고 있으므로, 귀천이나 우열을 구별해서는 안 된다.

05 자유와 평등에 대한 장자의 입장

장자는 인간의 기준에 따라 만물을 귀천, 유용과 무용, 우열 등으로 구분하는 태도를 비판하며 인위적인 분별과 차별에서 벗어나 만물을 평등하게 바라볼 것을 강조하였다.

바로 알기 ① 장자는 인위적인 분별과 차별에서 벗어날 것을 강조하였다. ③ 장자는 인간의 기준에 따라 만물의 가치를 판단하는 것을 비판하였다. ④ 장자는 신분과 지위, 부와 명예 등 외물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야 진정한 자유에 이를 수 있다고 보았다. ⑤ 장자는 만물이 지닌 차이를 인정하더라도 인간의 관점에서 특정한 기준으로 만물의 우열을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았다. 도의 관점에서 보면 만물은 모두 평등하므로, 인간의 편협한 기준에 따라 만물의 가치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

06 장자의 제물(齊物)

밑줄 친 '이것'은 ① 제물이다. 장자는 하찮게 여겨지는 것에도 모두 도(道)가 있다고 보았으며, 도의 관점에서는 만물이 모두 평등한 존재라고 하였다.

바로 알기 ② 외물(外物): 자기 자신에게서 비롯되지 않은 외부의 모든 것으로, 신분과 지위, 부와 명예뿐만 아니라 마음에 영향을 미쳐 감정을 일으키는 대상도 포함한다. ③ 준칙(準則): 개인이 특정한 상황에서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 스스로 정한 주관적인 행동 원칙이다. ④ 선의지: 도덕 법칙에 따라 옳은 일을 행하려는 의지로, 칸트는 선의지를 그 자체로 선한 것으로 보았다. ⑤ 정언 명령: 행위의 결과나 목적과 관계없이 그 자체로 도덕적 의무이므로 무조건적으로 따라야 하는 도덕적 명령을 뜻한다.

07 칸트가 본 자유로운 사람의 모습

칸트에게 자유란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본능과 욕망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이성에 따라 스스로 도덕 법칙을 세우고 따르는 '자율(自律)'을 의미한다. ⑤ 칸트의 입장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자신의 행위 원칙이 보편적 법칙이 될 수 있는지를 판단하여 행동한다. 또한 자신과 타인이 모두 이성을 지닌 자율적인 존재임을 인정하므로, 모든 인간을 목적 그 자체로 대우하고 타인의 인격적 존엄성을 존중한다.

바로 알기 ① 칸트는 욕망이 아니라 이성에 따라 도덕 법칙을 스스로 세우고 따르는 것을 자유로 보았다. ② 칸트는 행위의 결과보다 도덕 법칙에 대한 존경에서 비롯된 동기와 준칙을 중시하며, 인간을 단순한 수단으로 대우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다. ③, ④ 칸트는 개인의 이익이나 욕망, 타인의 평가가 아니라 이성에 따른 보편적 도덕 법칙을 따라야 한다고 보았다.

08 책임 있는 삶의 자세에 대한 장자의 입장

①, ②, ③, ④ 장자는 외부의 기준이나 사회적 가치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의 본성에 따라 자연스럽게 살아가며 자연의 이치에 어긋나지 않게 살아야 한다고 보았다. 또한 자연 만물이 각자의 본성과 모습에 따라 살아가는 것을 긍정하고, 자신과 타인의 다름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며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삶을 강조하였다.

바로 알기 ⑤ 장자는 사회적 지위나 명예와 같은 외부의 가치에 집착하는 것을 경계하였다. 따라서 외부의 가치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의 본성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살아가야 한다.

STEP 2 내신 만점 공략하기 61~63쪽

01 ⑤ **02** ① **03** ④ **04** ② **05** ④ **06** ① **07** ⑤
08 ⑤ **09** ④ **10** ⑤ **11** ③ **12** ⑤

01 자유에 대한 장자의 입장

제시된 글은 『장자』「응제왕」에 나오는 내용으로, ⑤ 사사로운 욕망과 집착에서 벗어나 자연의 흐름에 따라 살아가는 삶을 강조하고 있다. 장자는 '자기 생각에 얽매이거나 무엇인가를 얻으려 하지 말고 마음을 비워라.'라고 하여 사사로운 욕망과 집착에서 벗어날 것을 강조하고, '변화하는 사물들과 하나가 되어 자취를 남기지 않은 채 노닐어라.'라고 하여 만물의 변화에 순응하며 자유롭게 살아갈 것을 강조하였음을 알 수 있다.

바로 알기 ① 장자는 자신의 욕망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며 살아가기보다 사사로운 욕망과 집착에서 벗어나 자연의 흐름에 따라 살아가야 한다고 보았다. ② 장자는 외부의 기준에 맞추어 삶을 결정하기보다 외부의 기준과 구속에서 벗어나 자신의 본성에 따라 살아가야 한다고 보았다. ③ 장자는 자신의 판단으로 사물의 가치를 인위적으로 구분하기보다 만물이 하나임을 깨닫고 사물을 자연스러운 상태에 맡겨야 한다고 보았다. ④ 장자는 사회적 규범에 따라 행동을 엄격하게 통제하기보다 인위적인 규범과 구속에서 벗어나 자연스럽게 살아가야 한다고 보았다.

02 자유에 대한 장자의 입장

자료 분석

장자가 말한 이상적 인간으로, 자연의 흐름에 따르며 외물에 얽매이지 않는 사람이야.

진인(眞人)은 삶에 집착하거나 죽음을 꺼리지 않고, 태어남과 죽음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다. 도를 저버리지 않고 인위적으로 자연을 거스르지 않는 사람이 바로 진인이다.

장자가 강조한 무위(無爲)와 관련있어. '무위'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인위적인 행동을 삼가고 자연의 흐름에 따르는 것이야.

제시된 글은 『장자』「대종사」에 나오는 내용으로, 진인은 삶과 죽음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인위적으로 자연을 거스르지 않는다고 하였다. 진인은 장자가 말하는 이상적 인간으로, 외물과 삶과 죽음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살아간다. 따라서 이 글은 외부의 변화나 조건에 집착하지 않고 자연의 흐름에 따르는 삶을 강조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대회 수상 여부와 주변의 평가에만 집착하는 A에게 ① 타인의 평가나 외부 조건, 즉 외물에 얽매이지 말고 자유로운 삶을 추구하라고 조언할 수 있다.

바로 알기 ② 목표 달성을 강조하는 것은 결과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장자의 입장과 맞지 않는다. ③ 주변 사람의 평가를 행동의 기준으로 삼는 것은 타인의 평가라는 외물에 얽매이는 것이므로 장자의 입장과 맞지 않는다. ④ 삶의 목적을 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자신의 의지와 목적에 집착하는 태도이므로 장자의 입장과 맞지 않는다. ⑤ 삶의 변화와 결과를 자신의 의지로 통제하려는 것은 자연의 흐름에 따르기보다 인위적으로 자연을 거스르는 태도이므로 장자의 입장과 맞지 않는다.

03 장자의 제물(齊物)

제시된 가상 대화에는 장자의 제물 사상이 나타나 있다. ④ 장자는 도가 특정한 존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땅강아지나 개미와 같은 작은 생물부터 똥과 오줌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물에 있다고 보아, 사물을 귀하고 하찮음으로 차별하지 않고 동등하게 바라보아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바로 알기 ① 장자는 인간의 관점이나 가치 기준에 따라 사물을 차별적으로 판단하는 것을 경계하였다. ② 장자는 인간이 자연의 사물보다 본질적으로 우월하다고 보지 않고, 만물을 동등하게 바라보아야 한다고 보았다. ③ 장자는 사물의 유용성이나 가치에 따라 그 존재를 차등적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다. ⑤ 장자는 인간에게 이로운지를 기준으로 사물의 가치를 차등화하지 않고, 모든 사물을 평등하게 바라보아야 한다고 보았다.

04 자유로운 삶의 자세에 대한 장자의 입장

장자는 외부의 기준이나 인위적인 분별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의 본성에 따라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것을 자유로운 삶으로 보았으며, 심재와 좌망을 통해 마음을 비우고 사물에 대한 집착과 분별에서 벗어날 것을 강조하였다. ② 마음을 비우고 사물에 대한 집착과 분별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갑과, 자신의 본성을 따르고 자연의 흐름에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병의 대답이 장자의 입장에 부합한다.

바로 알기 을. 외부의 평가와 명예를 적극적으로 추구해야 한다고 하였지만, 장자는 외부의 명예나 욕망에 집착하지 않고 외물의 구속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을의 답변은 장자의 입장에 어긋난다. 정. 삶은 기뻐하고 죽음은 두려워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태도라고 하였지만, 장자는 삶과 죽음 중 어느 한쪽에 집착하거나 다른 한쪽을 두려워하지 않고 생사의 변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정의 답변은 장자의 입장에 어긋난다.

미간 꼭 맘기! 장자의 수양을 통한 자유의 실현

- 수양 방법
  - 마음을 비우고 감각과 지식에 얽매이지 않음 → **심재(心齋)**
  - 조용히 앉아서 자신을 구속하는 모든 것을 잊음 → **좌망(坐忘)**
- 이상적 경지
  - 만물을 차별하지 않고 도(道)의 관점에서 동등하게 바라봄 → **제물(齊物)**
  - 어떠한 외물에도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노님 → **소요유(逍遙遊)**

05 칸트의 자율성과 인간의 존엄성

제시된 글을 주장한 사상가는 칸트이다. ㄱ, ㄴ, ㄹ. 칸트는 모든 이성적 존재가 스스로 도덕 법칙을 세우고 이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자율적 존재이며, 이러한 자율적 존재인 인간은 동등한 존엄성을 지닌다고 보았다.

바로 알기 ㄷ. 칸트는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한 조건에 근거하여 행위하도록 요구하는 가언 명령과, 조건 없이 따라야 하는 정언 명령을 구분한다. 특정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조건에 따라 행위하는 것은 도덕 법칙 자체를 따르는 것이 아니므로 순수한 도덕적 행위가 될 수 없다.

06 칸트의 정언 명령

제시된 글을 주장한 사상가는 칸트이다. 1, 2. 칸트는 정언 명령이 특정한 목적의 달성을 조건으로 하지 않으며, 도덕 법칙은 개인의 욕구나 이해관계와 관계없이 모든 이성적 존재에게 보편적으로 타당해야 한다고 보았다.

바로 알기 3, 4. 개인의 관심이나 이해관계 및 자연적 경향성에 근거한 준칙은 모든 이성적 존재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무조건적 도덕 법칙의 근거가 될 수 없다.

미간 꼭 맘기! 칸트가 본 도덕적 행위의 기준

- 도덕 법칙에 대한 존경에서 비롯된 행위 → **도덕적 가치가 있음**
- 동정심, 욕구, 행복 추구 등 경향성에서 비롯된 행위 → **그 자체로 도덕적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없음**

07 칸트의 인간관과 자유·평등에 대한 입장

제시된 글을 주장한 사상가는 칸트이다. ㉠, ㉣ 인간을 도덕적 주체이자 그 자체로 존중받아야 할 존엄한 존재라고 보는 칸트의 인간관에 부합한다. ㉡, ㉢ 칸트는 인간이 이성에 따라 도덕 법칙을 스스로 따르는 자율적 존재이며, 도덕적 행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았다.

바로 알기 ㉤ 모든 인간을 평등하게 대우한다는 것은 개인의 조건과 관계

없이 인간의 존엄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뜻이지, 사회적 지위나 보상을 모두 똑같이 나누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08 칸트의 자율적 자유와 외부 간섭이 없는 자유의 비교

갑은 자유가 스스로 행위의 원리를 정하고 도덕적으로 실천하는 데서 실현된다고 본 칸트이다. 반면 을은 외부의 간섭 없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선택하고 실행하는 것을 자유의 핵심으로 본다. 따라서 갑은 을에게 ⑤ 자유는 단순히 외부의 간섭 없이 원하는 것을 선택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성에 따라 스스로 행위의 기준을 세우고 도덕 법칙을 따르는 것임을 간과한다고 비판할 수 있다.

바로 알기 ① 칸트는 도덕 법칙을 개인의 행복을 위한 수단으로 보지 않았다. 오히려 도덕 법칙은 이성적 존재자가 자율적으로 따라야 할 보편적 원칙이다. ② 칸트는 외부의 간섭이 없는 상태만으로 자유가 실현된다고 보지 않았다. 자유를 실현하려면 이성에 따라 도덕 법칙을 따르는 자율적 의지가 중요하다. ③ 칸트는 자율이 단순히 자신이 세운 원칙을 따르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지 않았다. 자율적 의지는 보편적으로 타당한 도덕 법칙에 따라야 한다. ④ 칸트는 욕망에 따른 선택을 이성적 존재의 자유로 보지 않았다. 이성에 따라 도덕 법칙을 따르는 자율적 의지를 자유의 근거로 보았다.

09 장자가 강조한 삶의 태도

제시된 글은 노나라 임금과 바닷새에 관한 이야기로, 장자의 관점을 보여 준다. 노나라 임금은 바닷새를 귀한 손님으로 여기고 자신이 좋다고 생각한 음악과 음식을 제공했지만, 바닷새는 낯선 환경에서 먹이와 물을 먹지 못하고 결국 죽고 말았다. 이는 각 존재가 자신의 본성에 맞는 방식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ㄴ을 뒷받침한다. 또한 임금이 인간의 관점에서 바닷새에게 좋은 것이라고 판단한 것을 강요한 결과 바닷새에게 해가 되었으므로, 각 존재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해야 한다는 ㄹ을 알 수 있다.

바로 알기 ㄱ. 장자는 모든 존재를 인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기보다, 각 존재의 본성과 방식에 맞게 대해야 한다고 보았다. ㄷ. 장자는 인간의 기준에 따라 사물의 가치를 일률적으로 구분하는 것을 경계하였다. 또한 이 이야기는 유용성과 무용성의 구분보다는 각 존재의 본성에 맞게 대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10 장자의 자유롭고 평등한 삶의 자세

그림의 사상가는 장자이다. 장자는 우물 안 개구리와 여름벌레의 비유를 통해 자신의 경험과 관점에 얽매이면 사물을 제한적으로 이해하게 된다고 보았다. 따라서 자신의 관점의 한계를 깨닫고 더 넓은 관점에서 사물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⑤를 지지할 것이다.

바로 알기 ① 장자는 자신의 관점과 경험에 따라 사물의 가치를 판단하기보다 도의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한다고 보았다. ② 장자는 자신의 판단과 다른 견해를 무조건 배척하기보다 관점의 한계를 깨달아야 한다고 보았다. ③ 장자는 자신의 경험으로 알 수 있는 것만 참된 지식으로 인정하는 태도를 경계하였다. ④ 장자는 사물의 차이를 구분하는 절대적 기준을 찾기보다 도의 관점에서 사물을 바라보아야 한다고 보았다.

11 장자의 만물 평등

제시된 칼럼은 같은 대상에 대한 판단이 존재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고 본 장자의 입장과 연결된다. 모장과 여희에 대한 사람과 동물의 판단이 서로 다르다는 점에서 대상에 대한 판단은 존재의 본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③ 대상을 바라볼 때에는 자신의 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보다 각 존재의 본성을 고려해야 한다.

바로 알기 ① 칼럼은 개인의 취향을 바탕으로 대상의 가치를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하지 않는다. 자신의 취향만을 기준으로 삼으면 다른 존재의 관점에서 대상을 바라보기 어렵다. ② 칼럼은 아름다움과 추함을 구분하는 객관적 기준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하지 않는다. 같은 대상도 존재에 따라 다르게 받아들여질 수 있으므로 하나의 기준으로 판단하기 어렵다. ④ 칼럼은 자신과 다른 대상을 낯설다는 이유로 부정적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하지 않는다. 사람과 동물이 대상을 다르게 받아들이는 것은 각 존재의 특성에 따른 차이이므로 이를 부정적으로 볼 이유는 없다. ⑤ 칼럼은 인간에게 유용한 정도를 기준으로 자연과 사물의 가치를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하지 않는다. 인간에게 유용한지를 중심으로 판단하면 다른 존재의 관점과 본성을 충분히 고려하기 어렵다.

12 장자의 상대적 분별과 칸트의 선의지

자료 분석

사물의 크고 작음이나 귀하고 천함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비교 대상이나 관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해.

장자 갑: 드넓은 천지도 더 큰 우주 속에서는 하나의 작은 점에 지나지 않지만, 미세한 털끝도 그보다 작은 것에 견주면 거대한 존재가 될 수 있다. 이처럼 인간의 분별은 일정한 관점에서 생겨난 것이므로, 도의 관점에서는 어느 사물도 본래 귀하거나 천하다고 할 수 없다.

칸트 을: 선의지는 그것을 통해 얻은 결과 때문이 아니라 선을 의욕한다는 점에서 그 자체로 선하다. 최대한 노력했음에도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하고 선의지만 남는다고 하더라도, 선의지는 그 자체로 온전한 가치를 지닌다.

도덕적 가치의 근거는 행위의 결과가 아니라 선을 의욕하는 의지에 있다고 보았어.

갑은 장자, 을은 칸트이다. ⑤ 장자는 사물의 크고 작음이 무엇과 비교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며 사물의 귀천에 대한 판단도 특정한 관점에서 이루어진 상대적인 분별이라고 본다. 따라서 도의 관점에서는 어느 사물도 본래 귀하거나 천하다고 할 수 없다. 칸트는 행위의 결과나 성취 여부와 관계없이 선을 의욕하는 선의지는 그 자체로 선하며 온전한 가치를 지닌다고 보았다.

바로 알기 ① 장자는 도의 관점에서 보면 사물의 귀천을 절대적으로 구분할 수 없다고 보았다. ② 장자는 인간의 관점에서 만물의 가치를 판단하는 태도에서 벗어나, 도의 관점에서 만물을 평등하게 바라보아야 한다고 보았다. ③ 칸트는 행위의 결과가 아니라 선의지 자체의 선함을 강조하였다. 결과가 성취되지 않더라도 선의지는 그 자체로 가치를 지닌다. ④ 칸트는 행위의 도덕적 가치는 결과나 성취 여부가 아니라 선의지에 달려 있다고 보았다.

STEP 3 서술형 도전하기 64쪽

01 주제: 장자의 자유

예시 답안 장자는 인간이 인위적인 분별과 차별에 얽매일 때 자유를 잃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채점 기준	
상	인위적인 분별과 차별에 얽매이는 것이 인간의 자유를 잃게 하는 원인임을 정확하게 서술한 경우
하	인위적인 분별과 차별을 언급하였으나 이것이 자유 상실의 원인임을 명확하게 서술하지 못한 경우

02 주제: 칸트가 본 인간의 자유와 자율

예시 답안 칸트는 인간이 자연적 경향성이나 외부의 명령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이성에 따라 스스로 보편적인 도덕 법칙을 세우고 이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자율적 존재이기 때문에 자유로운 존재라고 보았다.

채점 기준	
상	인간이 자연적 경향성이나 외부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 이성에 따라 스스로 도덕 법칙을 세워 이에 따른다는 두 가지 내용을 모두 근거로 들어 인간이 자유로운 존재임을 서술한 경우
중	위 두 가지 내용 중 한 가지만 근거로 들어 인간이 자유로운 존재임을 서술한 경우
하	자율을 단순히 스스로 행동하거나 선택하는 것 정도로만 서술한 경우

03 주제: 칸트의 자율적 인간과 도덕적 책임

(1) 답 선의지

(2) 예시 답안 칸트는 자율적인 인간이 개인의 욕구나 경향성이 아니라 스스로 세운 보편적인 도덕 법칙에 따라 의무를 다하고, 자신과 타인을 목적 그 자체로 존중하여 인간의 존엄성을 지켜야 할 책임을 지닌다고 보았다.

채점 기준	
상	핵심어를 모두 포함하여 자율적인 인간이 지녀야 할 책임을 구체적으로 서술한 경우
중	핵심어 중 두 가지를 포함하여 자율적 인간의 책임을 부분적으로 서술한 경우
하	핵심어 중 한 가지만 포함하여 자율적 인간의 책임을 단편적으로 서술한 경우

04 주제: 장자의 유용과 무용에 대한 관점

예시 답안 사물의 유용함과 무용함을 구분하는 것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관점에 따라 달라지는 상대적인 것이라네. 따라서 무용하다고 여겨지는 사물도 다른 관점에서는 유용할 수 있으므로 특정한 기준으로 사물의 가치를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네.

채점 기준	
상	'무용, 유용, 상대적'을 모두 포함하고, 유용함과 무용함의 구분이 관점에 따라 달라지는 상대적인 것임을 정확하게 서술한 경우
중	'무용, 유용, 상대적' 중 두 가지를 포함하고 유용함과 무용함의 구분이 관점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을 서술했으나, 그 의미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 경우
하	'무용, 유용, 상대적' 중 한 가지만 포함하고, 사물의 유용함이나 무용함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음을 구체적으로 서술하지 못한 경우

05 주제: 행위의 도덕적 가치에 대한 칸트의 입장

예시 답안 칸트는 동정심과 같은 자연적 경향성이 아니라 도덕 법칙에 대한 존경에서 비롯된 의무에 따라 행한 행위가 도덕적 가치를 지닌다고 보았다.

채점 기준	
상	동정심과 같은 자연적 경향성이 아니라 도덕 법칙에 대한 존경에서 비롯된 의무에 따라 행한 행위가 도덕적 가치를 지닌다는 점을 정확하게 서술한 경우
중	의무에 따라 행한 행위가 도덕적 가치를 지닌다는 점을 서술하였으나, 동정심과 같은 자연적 경향성에서 비롯된 행위만으로는 도덕적 가치를 지닐 수 없다는 점을 언급하지 않은 경우
하	동정심과 같은 자연적 경향성에서 비롯된 행위만으로는 도덕적 가치를 지닐 수 없다는 점을 서술했으나, 의무에 따른 행위의 도덕적 가치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

STEP 4 1등급 정복하기 65쪽

01 ④ 02 ①

01 장자의 자유와 평등

자료 분석

핵심 장자는 인간 중심적 잣대와 분별을 비판하고 만물을 있는 그대로 긍정하는 제물(齊物)을 강조했어.

사람에게는 물기 많은 곳이 편안한 삶의 자리가 되기 어렵지만, 물속에서 살아가는 미꾸라지에게도 그러하겠는가? 살아가기에 알맞은 곳은 존재마다 서로 다르니, 어느 하나만을 기준으로 바른 거처를 정할 수 있겠는가?

장자는 인간 중심의 기준이 절대적이지 않으며, 만물이 각기 다른 자연스러운 본성을 지니고 있음을 비유적으로 역설했어.

(가)의 사상가는 장자이다. ㄴ. 장자는 각 존재가 자신의 본성에 따라 자연스럽게 살아가야 하며, 인위적인 기준에 따라 본성을 바꾸거나 억지로 자신을 교정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다. 따라서 자연스러운 본성을 따르기보다 사회가 정한 기준에 맞게 자신을 교정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아니요'라고 답할 것이다. ㄹ. 장자는 좋고 싫음, 옳고 그름 등의 인위적인 분별에 얽매이지 않고 만물을 바라볼 것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좋고 싫음과 옳고 그름에 대한 분별을 할수록 도(道)와 하나 되는 삶에서 멀어지느냐는 질문에 '예'라고 답할 것이다.

바로 알기 ㄱ. 장자는 존재마다 본성과 삶의 방식이 다르다고 보았다. 따라서 존재마다 살아가기에 알맞은 환경이나 방식이 서로 다를 수 있느냐는 질문에 '예'라고 답할 것이다. ㄷ. 장자는 인간의 관점에서 만물의 우열을 구분하는 것을 경계하고, 각 존재의 본성에 따라 만물을 바라보아야 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자유롭고 평등한 사람은 만물의 우열을 인정하는 사람이냐는 질문에 '아니요'라고 답할 것이다.

02 자유와 평등에 대한 장자와 칸트의 입장

자료 분석

핵심 장자는 자신과 다른 존재를 차별하고 우열을 가르는 인위적인 분별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보았어.

장자 갑: 사람들은 자신과 비슷한 이를 가까이하고, 그렇지 않은 이는 멀리하려 한다. 모두가 자신과 같아야 한다고 여기는 태도에는 스스로를 다른 이들보다 우월하게 보는 마음이 숨어 있다. 자신을 남보다 높이 여기며 다른 이를 낮추는 사람이 진정 더 나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칸트 을: 이성적 존재는 자신의 행위를 스스로 결정하는 자율적 주체이다. 따라서 다른 힘에 끌려가기보다 자신의 이성에 따라 행위의 기준을 세우고 따라야 한다. 이러한 능력이 자유의 근거이다.

핵심 칸트는 자율을 외부의 영향이나 강제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이성에 따라 스스로 도덕 법칙을 세우고 따르는 것으로 보았어.

갑은 인간을 포함한 만물의 귀천을 구분하지 않고 평등하게 바라보아야 한다고 본 장자이다. 을은 이성을 지닌 인간을 목적 그 자체로 존중하고 존엄성을 지닌 존재로 본 칸트이다. ① 갑은 을이 이성적 존재인 인간에 한정하지 않고 만물을 평등하게 대해야 한다는 점을 간과한다고 비판할 수 있다.

바로 알기 ② 을은 이성에 따라 스스로 보편적인 도덕 법칙을 세우고 이에 따라 행동하는 것을 자유의 실현으로 보므로, 갑은 을이 자유를 실현하려면 보편적인 도덕 법칙을 따라야 한다는 점을 간과한다고 비판할 수 없다. ③ 을은 행위의 결과보다 도덕 법칙에 대한 존경과 의무에서 비롯된 행위인지를 중시하여 결과가 나쁘더라도 의무에 따른 행위가 도덕적 가치를 지닐 수 있다고 보므로, 갑은 을이 결과가 나쁘더라도 의무감에 따르는 행위가 도덕적 행위임을 간과한다고 비판할 수 없다. ④ 을은 이성적 존재인 인간을 목적 그 자체로 보고 특별한 도덕적 존엄성을 지닌 존재로 보므로, 갑에게 모든 존재의 가치를 인간과 동일한 도덕적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비판할 수 없다. ⑤ 을은 이성적 존재인 인간을 목적 그 자체로 존중하지만 자연 만물까지 인간과 동일한 도덕적 존엄성을 지닌 존재로 보지는 않으므로, 갑에게 인간과 자연 만물을 동등하게 대우해야 한다고 비판할 수 없다.

판서로 보는 고난도 개념 자유와 평등에 대한 장자와 칸트의 입장

구분	장자	칸트
인간관	인간은 도의 관점에서 만물과 평등함	인간은 이성적 존재이며 존엄성을 지님
자유	인위적인 규범이나 외물에 얽매이지 않고, 자연의 흐름에 순응하며 노니는 절대 자유(소요유)	자연적 경향성(본능, 욕망)을 극복하고, 이성에 따라 스스로 세운 도덕 법칙을 따르는 자율
평등	만물은 도의 관점에서 귀천·우열 없이 평등함	모든 이성적 존재는 목적으로 대우되어야 함
비판 대상	인간 중심적 기준으로 만물을 차별하는 태도	인간을 수단으로만 대하는 태도

02 능력에 따른 불평등은 정당한 것일까?

STEP 1 핵심 개념 확인하기 70쪽

01 (1) × (2) × (3) ○ 02 (1) ㄴ (2) ㄱ (3) ㄷ 03 원초적 입장
04 (1) ㉢ (2) ㉡ (3) ㉠ 05 ④ 06 ① 07 ③ 08 ①

01 능력에 따른 분배에 대한 순자의 입장

(1) 순자는 예가 욕구를 조절하고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기준이라고 보았다. (2) 순자에게 공정함이란 덕과 능력에 걸맞게 사람마다 적절한 몫을 나누는 것이다.

05 불평등의 원인과 문제점

④ 사회적 불평등이 심해지면 소득 격차가 커지고 계층 간 장벽이 높아져 사회적 이동의 기회가 제한될 수 있다.

바로 알기 ① 개인의 능력과 소질 등의 차이는 불평등을 발생시키는 개인적 원인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개인의 능력 차이에서 비롯된 모든 불평등을 부당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② 개인의 특성이나 성취에 따른 자원과 보상의 차이는 개인적 원인에 해당한다. ③ 가정의 경제적 여건이나 부모의 지원 등 성장 환경의 차이는 사회적 원인에 해당한다. 이러한 차이는 교육이나 직업 등의 기회 차이로 이어져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 ⑤ 불평등에 따른 경쟁이 심화되면 계층 간 갈등이 커지고 사회 구성원 간의 신뢰와 연대가 약화되어 사회 통합이 저해될 수 있다.

06 분배에 대한 순자의 입장

순자는 사람마다 지위와 역할이 다르므로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몫을 나누는 것이 공정한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① 순자는 각자의 지위와 역할 등에 따라 재화와 보상에 차이를 두어야 사회의 질서를 유지할 수 있다고 보았다.

바로 알기 ② 순자는 예에 따라 욕구를 조절하고 재화를 분배해야 한다고 보았다. ③ 순자는 개인의 능력과 역할에 따른 차등적 분배를 인정하므로, 경제적 평등을 우선해야 한다고 보지 않았다. ④ 순자는 사회적 질서와 조화를 위해 구성원의 지위와 역할을 구분하고 그에 맞게 분배해야 한다고 보았다. ⑤ 순자는 재화를 무제한으로 분배하기보다 구성원의 욕구를 조절하고 지위와 역할에 따라 분배해야 한다고 보았다.

07 롤스의 정의론

①, ②, ④, ⑤ 롤스는 다수의 이익을 위해 소수의 기본적 자유를 희생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다. 또한 정의의 원칙은 원초적 입장에서 공정하게 합의되어야 하며, 개인의 능력이나 사회적 지위는 우연적 조건의 영향을 받으므로 이를 근거로 이익을 독점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였다.

바로 알기 ③ 롤스는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의 이익이 되고, 공정한 기회 균등의 원칙을 충족하는 불평등은 허용될 수 있다고 보았다.

08 롤스의 원초적 입장과 정의의 원칙

① 롤스는 원초적 입장에서 다수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개인의 기본적 자유와 권리가 희생되는 것을 막고자 공리의 원칙을 배제하였다.

바로 알기 ② 원초적 입장에서는 무지의 베일을 통해 개인의 사회적 지위나 능력 등을 알 수 없도록 하므로, 공정한 조건에서 정의의 원칙을 선택할 수 있다. ③ 원초적 입장의 개인은 타인의 이익을 자신의 이익보다 우선하는 존재가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 정의의 원칙을 선택한다. ④ 원초적 입장의 개인은 자신의 사회적 지위나 재능·능력 등을 알 수 없으므로, 자신의 조건에 유리한 정의의 원칙을 선택할 수 없다. ⑤ 원초적 입장에서는 모두가 최대의 이익을 얻는 방향으로 정의의 원칙을 도출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 자유의 평등한 보장과 공정한 기회균등을 전제로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의 이익이 돌아가도록 하는 차등의 원칙 등을 포함한 정의의 원칙을 선택한다.

STEP 2 내신 만점 공략하기 71~73쪽

01 ① 02 ⑤ 03 ⑤ 04 ④ 05 ⑤ 06 ④ 07 ②
08 ② 09 ⑤ 10 ⑤ 11 ⑤ 12 ⑤

01 불평등의 발생 원인

불평등은 사람마다 타고난 재능과 소질, 신체적·정신적 특성 및 능력이나 노력, 성취 정도가 다르거나, 가정환경과 성장한 사회·환경에 따라 사회적 자원과 희소가치를 얻을 기회가 다르게 주어지는 경우 발생할 수 있다. 갑과 을은 불평등의 개인적 원인에 해당하는 내용을 제시하였다.

바로 알기 병. 사회적 희소가치를 획득할 기회가 모든 사람에게 똑같기 때문이 아니라 기회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불평등이 발생할 수 있다. 정. 신체적·정신적 특성이 비슷해졌기 때문이 아니라 개인마다 이러한 특성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불평등이 발생할 수 있다.

02 루소가 본 사회적 불평등의 발생 원인

제시된 연설문은 사유 재산의 등장과 소유를 둘러싼 경쟁을 불평등의 원인으로 보는 루소의 입장과 연결된다. ⑤ 사유 재산의 등장과 소유를 둘러싼 경쟁은 사람들 사이의 격차를 낳고 지배와 종속 관계를 형성하여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켰다.

바로 알기 ① 루소는 인간의 능력 차이를 사회적 불평등의 근본 원인으로 보지 않고, 사유 재산의 등장과 소유를 둘러싼 경쟁을 그 원인으로 보았다. ② 루소는 사회가 발전하면서 사유 재산과 소유를 둘러싼 경쟁이 심화되어 인간 사이의 불평등이 확대되었다고 보았다. ③ 루소는 자연 상태의 인간이 자유롭고 평등하다고 보았으므로, 사회적 지위에 따른 불평등이 자연 상태부터 존재했다고 보지 않는다. ④ 루소는 지배와 종속의 관계가 인간의 자연적 본성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사유 재산의 등장과 경쟁의 심화로 형성되었다고 보았다.

03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와 분배의 기준

그림의 사상가는 아리스토텔레스이다. ㄷ, ㄹ. 아리스토텔레스는 서로 같은 경우에는 동일하게 대우하고,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차이에 맞게 대우해야 한다고 보았다.

바로 알기 ㄱ. 아리스토텔레스는 사람들 사이의 차이에 따라 몫을 다르게 분배해야 한다고 보았다. ㄴ. 아리스토텔레스는 개인의 차이를 고려하여 각자에게 그에 합당한 몫을 분배하는 것이 정의롭다고 보았다.

04 순자의 예와 분배

제시된 칼럼에는 순자의 입장이 나타나 있다. ㄴ, ㄹ. 순자는 개인의 덕과 능력을 고려하여 사회적 지위와 역할을 정해야 하며, 후천적인 노력을 통해 덕과 능력을 기르면 사회적 역할과 지위가 달라질 수 있다고 보았다.

바로 알기 ㄱ. 순자는 예가 욕망을 무제한적으로 충족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욕망을 적절하게 조절하고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았다. ㄷ. 순자는 타고난 신분에 따라 귀천이 결정된다고 보지 않았으며, 후천적인 노력에 따라 사회적 지위와 역할이 달라질 수 있다고 보았다.

05 순자의 분배와 등용

제시된 글을 주장한 사상가는 순자이다. 1. 순자는 예에 따라 사람들의 역할과 지위를 구분함으로써 사회 질서를 유지해야 한다고 보았다. 3. 순자는 타고난 신분이나 출신에 관계없이 예에 맞게 행동하고 덕과 능력을 갖추면 높은 관직에 등용될 수 있으며, 예에 어긋나면 지위가 낮아질 수 있다고 보았다.

바로 알기 2. 순자는 사회적 지위가 타고난 신분에 따라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예에 어긋나면 낮아질 수 있고 덕과 능력을 갖추면 높은 관직에 등용될 수도 있다고 보았다. 4. 순자는 인간의 본성이 본래 악하다고 보았으며, 예와 스승의 가르침을 통해 본성을 교화하고 선을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06 롤스의 우연성의 유형과 의미

(가) 가정의 사회적·경제적 환경과 부모의 양육 방식에 따른 차이에서 비롯되는 것은 사회적 우연성, (나) 개인이 선천적으로 지닌 재능과 소질에 따른 차이에서 비롯되는 것은 자연적 우연성, 살아가면서 마주하는 행운과 불운, 질병과 사고, 사회적·경제적 구조 등에 따른 차이에서 비롯되는 것은 우발적 우연성이다.

07 롤스의 우연성과 정의

제시된 가상 대화의 사상가는 롤스이다. ①, ③, ④, ⑤ 롤스는 개인의 능력과 성취에 자연적·사회적 우연성이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우연성 자체가 아니라 그에 따른 분배가 정의의 원칙에 부합하는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다.

바로 알기 ② 롤스는 천부적 재능이나 사회적 지위와 같은 자연적·사회적 조건 자체를 정의롭거나 부정의한 것으로 보지 않았으며, 이러한 조건의 차이를 공동의 이익을 높이는 방향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보았다.

✦ 이건 꼭 알기! **롤스의 정의론**

- 평등한 기본적 자유의 원칙 +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 + 차등의 원칙 → **정의의 원칙**
- 우연적으로 주어진 조건 자체 → **정의롭거나 부정의하지 않음**
- 우연적 조건에 따른 불평등 → **공정한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최소 수혜자에게 이익이 되도록 조정**

08 실질적 기회균등의 구현에 대한 롤스의 입장

롤스는 실질적 기회균등을 위해 사회적·자연적 우연성에서 비롯되는 불리함을 완화해야 한다고 보았다. ㉠, ㉢, ㉣, ㉤ 롤스는 우연히 주어진 조건이 개인의 능력과 삶의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해 제도적 조정과 적극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바로 알기 ㉡ 롤스는 서로 다른 사회적 배경을 지닌 사람들에게 똑같은 기회만 제공하는 것은 형식적 기회균등에 그치며, 실질적 기회균등을 위해서는 사회적 배경에 따른 불리함을 완화해야 한다고 보았다.

✦ 이건 꼭 알기! **형식적 기회균등과 실질적 기회균등**

- 법적으로 누구에게나 기회를 개방 → **형식적 기회균등**
- 사회적 배경과 관계없이 비슷한 능력과 의지를 지닌 사람에게 비슷한 기회를 보장 → **실질적 기회균등**

09 롤스의 절차적 공정성

㉠, ㉡, ㉢, ㉣ 롤스는 정의의 원칙 자체에 대한 합의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원칙을 정하는 절차의 공정성을 중시하였다. 이를 위해 개인의 능력이나 지위 등에 관계없이 동등한 조건에서 정의의 원칙을 정하는 과정에 참여하도록 하며, 공정한 절차를 통해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적용될 수 있는 정의의 원칙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았다. 또한 케이크를 공정하게 나누는 사례처럼 절차의 공정성이 결과의 공정성을 보장할 수 있다고 보았다.

바로 알기 ㉤ 롤스는 정의의 원칙을 정하는 과정에서 개인이 자신의 능력이나 지위 등에 따라 자신에게 유리한 원칙을 선택하지 못하도록 하여 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보았다.

10 롤스의 원초적 입장

자료 분석

롤스는 자연적·사회적 우연성을 배제하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정의의 원칙을 도출해야 한다고 보았어.

롤스 — 갑: 원초적 입장에 놓인 사람들은 자신의 사회적 위치나 타고난 능력, 삶의 가치관 등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알 수 없다. 따라서 자신에게 특별히 유리한 기준을 선택할 수 없으며,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적용될 수 있는 원칙을 선택하게 된다.

을: 타고난 재능과 가정환경이 다르더라도, 경쟁에서 이긴 사람이 더 많은 몫을 차지하는 것은 언제나 정당하다.

우연적 조건(재능, 환경)에 의한 결과적 차이를 모두 정당한 것으로 긍정하는 극단적인 능력주의의 입장이야.

갑은 원초적 입장에서 사람들은 자신의 사회적 위치나 타고난 능력 등 우연적 조건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공정한 원칙을 선택하게 된다고 보는 롤스이다. 을은 경쟁 결과에 따른 차등 분배는 타고난 재능과 환경의 차이와 관계없이 정당하다고 보는 입장이다. ⑤ 롤스는 사회적 우연성이 분배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하고 실질적 기회균등을 보장해야 한다고 보았으므로, 경쟁의 결과에 따른 분배를 언제나 정당하다고 보는 을에게 사회적 우연성으로 인한 불평등을 완화하고 실질적 기회균등을 보장해야 한다고 비판할 수 있다.

바로 알기 ① 롤스는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을 조건 없이 허용하지 않았으며, 공정한 기회균등과 같은 정의의 원칙에 따라 그 정당성을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다. ② 롤스는 타고난 재능 자체를 정의롭거나 부정의한 것으로 보지 않았으며, 재능이 뛰어난 사람이 그에 따른 이익을 독점하는 것을 정당화하지 않았다. ③ 롤스는 개인의 사회적 지위나 타고난 재능과 같은 우연적 조건이 분배에 그대로 반영되어서는 안 되며, 정의의 원칙에 따라 그 영향을 조정해야 한다고 보았다. ④ 롤스는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이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의 이익이 될 때 정당화될 수 있다고 보았다.

11 롤스의 정의의 원칙

㉠은 '평등한 기본적 자유의 원칙', ㉡은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 ㉣은 '차등의 원칙'이다. ㉠, ㉡, ㉢, ㉣ 롤스는 평등한 기본적 자유의 원칙이 제2원칙에 우선하므로 더 큰 사회·경제적 이익을 위해 기본적 자유를 제한할 수 없다고 보았다. 또한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에 따라 사회적 배경 등에 따른 차이가 진로와 직위에 대한 접근 기회를 좌우하지 않도록 실질적인 기회를 보장해야 하며, 차등의 원칙에 따라 능력이나 재능의 차이에 따른 불평등을 일정 부분 인정하되, 그로 인한 이익이 최소 수혜자의 처지를 개선하도록 해야 한다고 보았다.

바로 알기 ㉤ 최소 수혜자는 기본적 자유와 공정한 기회를 보장받지만, 사회적·경제적으로 가장 열악한 처지에 놓인 사람을 의미한다.

12 롤스가 제시한 정의의 원칙과 우선순위

제시된 정책은 가정환경이나 사회적 배경에 따른 기회의 차이를 완화하지 않은 채 경제적 불평등의 결과만 조정하려고 한다. ⑤ 롤스는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을 허용하기에 앞서 공정한 기회균등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바로 알기 ① 최소 수혜자의 이익이 증가하더라도 공정한 기회균등을 제한할 수는 없다. 롤스는 최소 수혜자에게 이익이 된다는 이유만으로 공정한 기회균등을 희생할 수 있다고 보지 않았다. ② 타고난 능력의 차이가 있더라도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 롤스는 타고난 능력의 차이를 인정하면서도 그 차이가 기회의 차이로 이어지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보았다. ③ 최소 수혜자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것만으로 경제적 불평등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 롤스는 경제적 불평등을 허용하기에 앞서 공정한 기회균등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④ 롤스는 공정한 기회균등이 보장된 후에야 차등의 원칙에 따라 경제적 불평등을 허용할 수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경제적 불평등을 줄이는 것이 공정한 기회균등을 보장하는 것보다 우선하지 않는다.

STEP 3 서술형 도전하기 74쪽

01 주제: 불평등이 가져오는 문제점

예시 답안 소득 격차가 커지면 계층 간 장벽이 높아지고 사회적 이동의 기회가 제한될 수 있다. 사회 구성원 사이의 지위 격차와 불안이 커지면 개인 간 신뢰와 사회적 결속력이 약화될 수 있다.

채점 기준	
상	소득 격차에 따른 계층 간 장벽의 심화와 사회적 이동 기회의 제한, 개인 간 신뢰와 사회적 결속력의 약화, 계층 간 경쟁 심화, 경제적 부담 증가 등 불평등이 가져오는 문제점을 두 가지 정확하게 서술한 경우
하	불평등이 가져오는 문제점을 한 가지만 정확하게 서술한 경우

02 주제: 순자의 입장에서 능력에 따른 분배와 관련한 예(禮)의 필요성

예시 답안 순자는 인간이 기준과 한계 없이 욕망을 추구하면 다툼과 사회의 혼란이 발생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욕망을 조절하고 능력과 역할에 따라 각자의 몫을 분별하여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예(禮)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채점 기준	
상	'인간의 욕망 조절'과 '능력과 역할에 따라 각자의 몫을 분별하여 사회 질서 유지'라는 두 가지 내용을 모두 포함하여 정확하게 서술한 경우
중	'욕망 조절'과 '능력과 역할에 따라 각자의 몫을 분별하여 사회 질서 유지'라는 두 가지 내용 중 한 가지만 서술한 경우
하	'욕망 조절'과 '능력과 역할에 따라 각자의 몫을 분별하여 사회 질서 유지'라는 두 가지 내용과 관계없이, 단순히 예가 없으면 사회가 혼란하기 때문이라고만 서술한 경우

03 주제: 롤스의 무지의 베일

(1) 답 무지의 베일

(2) 예시 답안 롤스는 타고난 재능이나 사회적 지위와 같은 우연적 조건이 정의의 원칙을 선택하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무지의 베일을 설정하였다. 이를 통해 특정한 사람에게 유리한 원칙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공정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정의의 원칙에 합의하도록 하였다.

채점 기준	
상	핵심 어구를 모두 포함하여 우연적 조건이 정의의 원칙 선택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무지의 베일을 설정하였다고 서술한 경우
중	핵심 어구 중 두 가지를 포함하고, 무지의 베일을 설정한 이유를 서술한 경우
하	핵심 어구 중 한 가지를 포함하였으나, 무지의 베일을 설정한 이유를 충분히 서술하지 못한 경우

04 주제: 롤스의 공리주의에 대한 반론

예시 답안 공리주의는 사회 전체의 이익을 극대화한다는 이유로 개인의 기본적 자유와 권리를 희생시킬 수 있다. 그러나 정의로운 사회에서는 모든 사람의 평등한 기본적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며, 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해 이를 제한하거나 희생해서는 안 된다.

채점 기준	
상	'공리주의, 정의로운 사회, 사회 전체의 이익'을 모두 포함하여 공리주의가 개인의 기본적 자유와 권리를 희생할 수 있음을 지적하고, 모든 사람의 평등한 기본적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롤스의 입장을 서술한 경우
중	'공리주의, 정의로운 사회, 사회 전체의 이익' 중 두 가지를 포함하여 공리주의의 문제점이나 그에 대한 롤스의 입장 중 한 가지만 서술한 경우
하	'공리주의, 정의로운 사회, 사회 전체의 이익' 중 한 가지만 포함하여 롤스가 공리주의를 비판한다는 정도만 단편적으로 서술한 경우

05 주제: 롤스의 정의의 원칙

(1) 예시 답안 (가)에 들어갈 원칙은 '평등한 기본적 자유의 원칙'이며, 그에 해당하는 자유로는 양심의 자유, 사상의 자유, 정치적 자유 등을 들 수 있다.

채점 기준	
상	(가)에 들어갈 원칙의 명칭을 '평등한 기본적 자유의 원칙'이라고 쓰고, 그에 해당하는 자유를 세 가지 모두 서술한 경우
중	(가)에 들어갈 원칙의 명칭을 쓰고, 그에 해당하는 자유를 두 가지 서술한 경우
하	(가)에 들어갈 원칙의 명칭만 쓰거나, 그에 해당하는 자유를 한 가지만 서술한 경우

(2) 예시 답안 롤스는 기본적 자유의 보장을 정의로운 사회의 필수 조건으로 보았다. 따라서 기본적 자유는 더 큰 사회적·경제적 이익을 위해 희생될 수 없다고 보았으며, 이를 제1원칙으로 제시하였다.

채점 기준	
상	기본적 자유가 정의로운 사회의 필수 조건이며, 더 큰 사회적·경제적 이익을 위해서도 희생될 수 없기 때문이라는 점을 명확히 서술한 경우
중	기본적 자유가 정의로운 사회에 필수적이라는 점과 기본적 자유를 우선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점 중 한 가지만 서술한 경우
하	기본적 자유가 중요하다는 정도만 단편적으로 서술한 경우

STEP 4 1등급 정복하기 75쪽

01 ② 02 ④

01 능력에 따른 분배에 대한 롤스와 순자의 입장

갑은 롤스, 을은 순자이다. ② 롤스는 자연적 재능 자체를 정의롭거나 부정의한 것으로 판단하지 않지만, 재능의 차이에서 비롯된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은 정의의 원칙에 따라 조정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특히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은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의 이익이 되는 경우에 정당화될 수 있다.

바로 알기 ① 분배 결과의 총효용(공리)을 강조하는 것은 공리주의의 입장이다. ③ 순자는 덕과 능력에 따른 차등적 대우를 사회 질서 유지의 핵심으로 보았다. ④ 순자는 인간의 본성을 악하다고 보았다(성악설). 따라서 욕망을 그대로 따르는 행위를 도덕적으로 정당하다고 보는 것은 순자의 입장과 맞지 않는다. ⑤ 롤스는 형식적으로 동일한 기회만으로는 실질적 기회균등

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사회적 배경의 차이가 개인의 성공 가능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보았다.

판서로 보는 고난도 개념 순자와 롤스의 분배관

구분	순자	롤스
분배 기준	예에 따른 분별, 덕과 능력	정의의 원칙에 따른 공정한 분배
차등 인정 여부	덕과 능력에 따른 차등 인정	조건부 차등 인정
핵심 관점	욕망 조절과 사회 질서 유지	공정한 절차와 정의의 원칙,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이익
주의할 점	타고난 신분에 따른 신분 주의가 아님	능력주의 결과를 그대로 정당화하지 않음

02 공정한 분배에 대한 롤스와 노직의 입장

자료 분석

무지의 베일

갑(롤스): 정의의 원칙을 정하는 상황에서 사람들이 자신의 사회적 지위나 계층, 타고난 재능과 같은 구체적인 조건을 알 수 없도록 해야 한다. 이를 통해 특정한 사람이나 집단에게 유리한 원칙이 선택되는 것을 막고, 모든 사람에게 공정하게 적용될 수 있는 정의의 원칙을 합의할 수 있다.

공정으로서의 정의

을(노직): 개인이 정당한 절차를 거쳐 소유물을 취득하고, 정당하게 소유한 사람에게서 적법한 방식으로 양도받았다면 그 소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따라서 소유물이 현재 누구에게 얼마나 분배되어 있는지를 따지기보다, 그 소유가 정당한 취득과 양도의 과정을 거쳐 형성되었는지가 중요하다.

노직은 정당한 취득과 양도에 따른 개인의 소유권을 중시하며, 분배 결과보다 소유가 형성된 과정의 정당성을 중시해.

갑은 롤스, 을은 노직이다. 롤스는 정의로운 분배를 위해 사회적·경제적 조건을 고려해야 한다고 보는 반면, 노직은 정당한 취득과 양도의 과정을 거쳐 형성된 개인의 소유권을 중시하였다. ④ 노직은 롤스에게 개인의 재산권에 분배의 정의와 같은 사회적 판단 기준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간과한다고 비판할 수 있다.

바로 알기 ① 롤스는 노직에게 소유의 자격만으로 분배의 정의가 모두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비판할 수 있다. ② 노직은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보므로, 롤스가 노직에게 이를 간과한다고 비판할 수 없다. ③ 롤스는 사회의 기본 구조가 개인의 삶과 기회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므로, 노직이 롤스에게 이를 간과한다고 비판할 수 없다. ⑤ 롤스는 정의로운 사회에서 기본적 자유의 보장이 사회적·경제적 이익 증대보다 우선한다고 보므로, 노직이 롤스에게 이를 간과한다고 비판할 수 없다.

Ⅲ단원 실력 굳히기 78~81쪽

01 ④	02 ④	03 ⑤	04 ④	05 ⑤	06 ①	07 ③
08 ⑤	09 ②	10 ③	11 ②	12 ⑤	13 ④	14 ③

15 도(道)

16 (1) 선의지 (2) 해설 참조

17 해설 참조

01 장자의 제물(齊物)

제시된 글을 주장한 사상가는 장자이다. 장자는 인간의 관점에서 이루어진 귀천과 대소 등의 구별은 상대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보았다. ④ 장자는 도의 관점에서 만물을 평등하게 바라보고, 인위적인 분별과 차별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바로 알기 ① 장자는 세속적인 명예와 지위에 얽매이지 않고 이를 초월할 때 참된 자유에 이를 수 있다고 보았다. ② 장자는 인간에게 유용한지 여부에 따라 만물의 가치를 판단하는 것을 비판했다. ③ 장자는 효용의 관점에서 보면 무엇이 유용하고 무용한지는 사람의 판단 기준에 따라 상대적으로 달라진다고 보았다. 따라서 쓸모 있는 것만 보존하고 쓸모없는 것을 배척해야 한다는 것은 장자의 입장에 어긋난다. ⑤ 장자는 자신의 관점에 얽매여 만물의 가치를 판단하기보다, 자신의 기준을 절대시하지 않고 만물을 평등하게 바라보아야 한다고 보았다.

02 장자의 제물과 만물 평등

(가)에 들어갈 용어는 '제물'이다. 제물은 도의 관점에서 만물 사이의 차별적 구분을 넘어 모든 존재를 평등하게 바라보는 것을 의미한다. ㄴ. 장자는 제물의 경지를 통해 만물을 평등하게 바라볼 수 있다고 보았다. ㄹ. 장자는 제물을 통해 만물 사이의 구별과 차별이 상대적임을 깨달을 수 있다고 보았다.

바로 알기 ㄱ. 장자는 만물의 귀천이 유용성에 따라 결정된다고 보지 않았다. ㄷ. 장자는 만물이 도를 품고 있다는 점에서 가치의 차이가 있다고 보지 않았다.

03 장자의 참된 자유와 무기·무공·무명

제시된 글을 주장한 사상가는 장자이다. ⑤ 장자는 자연의 본성에 따르고 만물의 변화에 순응하며, 자기 자신이나 공적·명예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날 때 참된 자유를 얻을 수 있다고 보았다.

바로 알기 ① 장자는 타인의 인정과 같은 외부의 평가에 의존하기보다 자신을 구속하는 집착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보았다. ② 장자는 명예를 추구하기보다 자신의 공을 내세우거나 이름을 드러내려는 집착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보았다. ③ 장자는 사회적 지위를 얻기 위해 인위적으로 자신을 변화시키기보다 자연의 본성에 따르는 삶을 중시했다. ④ 장자는 외부의 평가와 인정에 의존하는 삶에서 벗어나 어떤 것에도 의존하지 않는 자유로운 삶을 추구했다.

04 칸트의 정언 명령

①, ②, ③, ⑤ 가언 명령은 특정한 목적을 이루기 위한 조건에서 행위를 명령하므로, 그 행위는 목적이나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칸트는 이성적 존재인 인간을 다른 목적을 위한 수단이 아닌 목적 그 자체로 보았으며,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기 위해 자신과 타인을 단순한 수단으로만 대하지 말아야 한다고 보았다. 또한 정언 명령은 개인의 욕구나 경향성에 좌우되지 않고 모든 이성적 존재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도덕 법칙이다.

바로 알기 ④ 칸트는 정언 명령이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다른 목적을 전제로 하지 않고 그 자체로 따라야 할 행위를 명령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정언 명령에 따른 도덕 원리가 어떠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된다는 진술은 칸트의 입장에 부합하지 않는다.

05 칸트의 자율과 자유

제시된 일기에는 인간이 이성을 통해 스스로 도덕 법칙을 세우고 그에 따라 행위할 수 있는 자율적인 존재라는 칸트의 입장이 나타나 있다. ⑤ 칸트의 입장에서 인간의 자율성은 외부의 명령이나 자연적 경향성에 좌우되지 않고 이성에 따라 도덕적으로 행위할 수 있는 데서 성립한다.

바로 알기 ① 칸트는 자연적 경향성에 따르는 행위가 아니라 이성에 따라 도덕 법칙을 따르는 행위에서 자유가 실현된다고 보았다. ② 칸트는 외부의 명령에 따르는 것을 자율이 아니라 타율로 보았다. ③ 칸트는 인간이 이성을 통해 스스로 행위의 원칙을 세울 수 있다고 보았다. ④ 칸트는 외부에서 주어진 규범이 아니라 스스로 세운 도덕 법칙에 따라 행위하는 것을 자율로 보았다.

✦ 이건 꼭 알기! **칸트의 자유**

- 이성에 따라 스스로 세운 도덕 법칙을 따르는 자율 → **자유**
- 조건에 따른 명령이 아닌 무조건적 명령(정언 명령) → **도덕 법칙**

06 장자의 좌망(坐忘)과 심재(心齋)

②, ③, ④, ⑤ 장자는 좌망을 통해 자신을 구속하는 모든 것을 잊고 도(道)와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보았으며, 심재를 통해 마음을 비워 세속적 욕망과 분별적 판단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보았다. 장자에 따르면 이러한 수양을 통해 인위적인 분별과 집착에서 벗어나 만물을 평등하게 바라보고, 자연에 따르는 참된 자유를 얻을 수 있다.

바로 알기 ① 좌망은 조용히 앉아서 자신을 구속하는 모든 것을 잊어버리는 수양법이다.

07 장자와 칸트의 자유·평등

갑은 장자, 을은 칸트이다. ③ 장자는 만물이 서로 관계를 맺으며 존재하므로 어느 하나의 기준만으로 만물을 구분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다. 따라서 '모든 사물이 서로 관계를 맺고 의존하고 있음을 깨달아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할 것이다.

바로 알기 ① 장자와 칸트 모두 자신의 자유뿐만 아니라 타인의 자유를 존중하는 태도를 중시하므로, 갑, 을 모두 '예'라고 답할 것이다. ② 장자는 인간의 관점에 따른 인위적인 구분과 차별에서 벗어나 만물을 평등하게 바라보아야 한다고 보므로, '아니요'라고 답할 것이다. ④ 칸트는 인간을 다른 존재의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만 대우해서는 안 된다고 보므로, '아니요'라고 답할 것이다. ⑤ 칸트는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고 보지 않으므로 '아니요'라고 답할 것이다.

08 순자의 능력에 따른 공정한 분배

제시된 칼럼은 순자의 입장을 보여 준다. ⑤ 제시된 칼럼에서는 개인의 덕과 능력에 따라 사회적 역할과 몫을 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인재를 선발해야 한다고 보았으므로 '능력과 역할에 따른 분배,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가 칼럼 제목으로 가장 적절하다.

바로 알기 ① 제시된 칼럼은 사유 재산의 발생이나 불평등의 기원을 다루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② 제시된 칼럼은 능력 계발 기회의 차이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능력과 역할에 따른 분배를 강조하므로 적절하지 않다. ③ 제시된 칼럼은 타고난 능력의 차이 자체를 논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과 역할에 따른 분배와 인재 선발을 다루므로 적절하지 않다. ④ 제시된 칼럼은 개인의 덕과 능력에 따른 분배와 인재 등용을 강조하므로, 신분에 따른 역할과 책임의 결정 기준을 다루는 제목은 적절하지 않다.

09 아리스토텔레스의 분배적 정의

질문에 답변한 사상가는 아리스토텔레스이다. ①, ③, ④, ⑤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의로운 분배가 각자의 자격이나 가치에 따른 몫의 배분과 관련된다고 보았다. 따라서 동등한 사람은 동등하게, 동등하지 않은 사람은 관련된 차이에 비례하여 다르게 대우해야 한다. 또한 동등한 사람에게 서로 다른 몫을 주거나 동등하지 않은 사람에게 같은 몫을 주는 것은 정의에 어긋난다.

바로 알기 ② 아리스토텔레스는 모든 사람에게 언제나 같은 몫을 주는 것이 정의로운 것은 아니며, 각자의 가치와 차이에 비례하여 몫을 배분해야 한다고 보았다.

✦ 이건 꼭 알기! **아리스토텔레스의 분배적 정의**

- 각자에게 마땅한 몫을 주는 것 → **정의**
- 각자의 가치에 비례하여 차등적으로 분배하는 것 → **분배적 정의**
- 각자의 가치에 비례하여 차등적으로 분배 → **비례적 평등**
- 동등한 사람 → **동등하게 대우**
- 동등하지 않은 사람 → **관련된 차이에 비례하여 다르게 대우**
- 모두에게 같은 몫을 주는 것(산술적 평등) → **분배적 정의가 아님**

10 롤스의 실질적 기회균등과 능력주의 비판

제시된 글을 주장한 사상가는 롤스이다. 롤스는 타고난 능력이나 사회적 배경과 같은 우연적 조건이 개인의 성공 가능성을 결정해서는 안 되며, 형식적 기회균등만으로는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따라서 능력의 차이만을 근거로 한 분배는 정의의 원칙에 어긋날 수 있고, 우연적 조건이 삶의 결과를 결정해서는 안 된다는 1과 2에만 'V'를 표시한 병이 옳다.

바로 알기 3. 롤스는 유리한 운으로 얻은 이익 자체를 모두 부정한 것이 아니라,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과 차등의 원칙을 충족하는 범위에서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을 허용할 수 있다고 보았다. 4. 롤스는 법적으로 동일한

기회를 보장하는 형식적 기회균등만으로는 사회적 배경에 따른 출발점의 차이를 해소할 수 없다고 보았다.

11 타고난 조건에 따른 차별과 불평등의 정당성

② 『멋진 신세계』에서는 개인이 선택할 수 없는 출생 조건에 따라 사회적 계급과 역할이 결정되고, 이에 따라 교육과 사회적 기회에도 차이가 생긴다. 이는 개인이 통제할 수 없는 사회적·자연적 우연성이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과 그러한 불평등의 정당화 조건을 탐구하는 주제로 이어질 수 있다.

바로 알기 ① 사회적 역할의 분화 자체는 『멋진 신세계』의 설정과 관련되지만, 제시된 글은 역할 분화의 효율성이 아니라 출생 조건에 따른 불평등을 다루므로 적절하지 않다. ③ 개인의 자유와 사회의 안정 및 질서의 관계는 작품과 관련된 탐구 주제이지만, 『멋진 신세계』의 핵심인 사회적 우연성에 따른 불평등과는 초점이 다르다. ④ 인간의 능력과 특성을 사회적 필요에 따라 조절하는 문제는 작품의 설정과 관련되지만, 『멋진 신세계』는 이러한 조절의 정당성보다 출생 조건에 따른 사회적 기회와 불평등을 다루므로 적절하지 않다. ⑤ 『멋진 신세계』는 사회적 계급의 구분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보다, 개인이 선택할 수 없는 출생 조건에 따라 계급과 사회적 기회가 달라지는 문제를 다루고 있다.

12 롤스의 공리주의 비판

갑은 공리주의자의 입장이고 을은 롤스이다. ⑤ 롤스는 기본적 자유의 침해는 더 큰 사회적·경제적 이득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보았다.

바로 알기 ① 순수 절차적 정의와 원초적 입장에서의 공정한 합의는 롤스의 입장이므로 갑만의 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롤스는 다수의 이익을 위하더라도 소수의 기본적 자유는 제한될 수 없다는 데 동의하지만, 공리주의자인 갑은 사회 전체의 이익이나 행복을 위해 소수의 기본적 자유가 제한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갑과 을의 공통 입장이 아니다. ③ 정의의 원칙은 사회 전체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이어야 한다는 내용은 공리주의의 입장에 해당한다. 롤스는 사회 전체의 이익 극대화가 아니라 공정한 조건에서 선택된 정의의 원칙을 중시하므로 갑과 을의 공통 입장이 아니다. ④ 롤스는 개인의 능력 형성에 가정환경이나 사회적 배경 등의 우연적 요인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므로 을만의 입장이 아니다.

13 롤스와 순자의 정의관

갑은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이 가장 불리한 사람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에만 허용될 수 있다고 본 롤스이다. 을은 사람마다 덕과 능력에 차이가 있으므로 후천적인 노력과 수양을 통해 이를 기르고, 그 차이에 따라 지위와 역할을 정해야 한다고 본 순자이다. ㄴ. 롤스는 정의의 원칙이 정의감을 지닌 합리적인 인간들이 공정한 조건에서 선택할 수 있는 원칙이어야 한다고 보았다. ㄹ. 순자는 인간의 욕망을 예와 교육을 통해 조절하고 덕을 쌓음으로써 바람직한 인격을 형성할 수 있다고 보았다.

바로 알기 ㄱ. 차등의 원칙은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보다 우선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 비해 후순위로 적용되는 원칙이다. ㄷ. 순자는 덕과 능력의 차이에 따라 지위와 역할, 몫을 달리 정해야 한다고 보았다.

14 적극적 우대 정책

(가)는 적극적 우대 정책이다. ③ 적극적 우대 정책은 단순히 형식적으로 같은 기회를 주는 것을 넘어, 과거의 차별 등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인 집단에 제도적 배려를 제공하여 실질적 기회균등을 보장하려는 제도이다.

바로 알기 ① 자연적 우연성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타고난 조건이나 사회적 배경에 따른 불리함을 완화하려는 제도이다. ② 기회의 평등을 보완하는 것이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려는 제도는 아니다. ④ 형식적 기회균등만으로는 출발선의 차이를 해소하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⑤ 타고난 우연적 조건이나 사회적 배경이 개인의 성공 가능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15 장자의 도(道)와 만물의 평등

장자는 도의 관점에서 만물을 바라보면 인간의 주관적인 기준에 따른 차별적 판단에서 벗어나 만물을 평등하게 인식할 수 있다고 보았다.

16 칸트의 선의지와 도덕적 행위

(1) 답 선의지

(2) 예시 답안 동정심이나 타인의 인정을 얻으려는 마음에서 비롯된 행위는 자연적 경향성에 따른 행위이므로 의무로부터 비롯된 행위가 아니며, 의무로부터 비롯된 행위만이 도덕적 가치를 지니기 때문이다.

채점 기준	
상	㉠과 같은 행위가 자연적 경향성에 따른 행위이므로 의무로부터 비롯된 행위가 아니라는 점을 포함하여 서술한 경우
하	㉠과 같은 행위가 의무로부터 비롯된 행위가 아니라는 점만 서술한 경우

17 롤스의 공정한 기회균등과 사회적 우연성 완화

예시 답안 (가)는 사회적·경제적 배경과 같은 우연적 조건이 개인의 사회적 지위와 기회를 결정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가)의 입장에서는 A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정의 경제적 여건에 따른 교육 기회의 차이를 완화하여 실질적 기회균등을 보장해야 한다고 조언할 수 있다.

채점 기준	
상	우연적 조건이 사회적 지위와 기회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가)의 입장을 제시하고, 가정의 경제적 여건에 따른 교육 기회의 차이를 완화하여 실질적 기회균등을 보장해야 한다고 서술한 경우
중	(가)의 입장과 실질적 기회균등의 필요성 중 한 가지만 서술한 경우
하	A 사회에서 나타나는 교육 기회의 차이를 완화해야 한다는 정도로만 서술한 경우

Ⅳ 다양성과 포용성

01 서로 다른 의견을 어떻게 포용할 수 있을까?

STEP 1 핵심 개념 확인하기 86쪽

01 (1) ○ (2) ○ (3) × **02** (1) 생각 (2) 개별성 **03** 다수의 횡포
04 (1) ㉢ (2) ㉠ (3) ㉡ (4) ㉣ **05** ⑤ **06** ③ **07** ④ **08** ③

01 서로 다른 의견이 발생하는 이유

(3) 정보 통신 기술의 발달로 여러 정보와 관점을 접할 수 있으므로, 사람들 사이에 다양한 의견이 나타나 생각의 차이가 더욱 뚜렷하게 드러날 수 있다.

05 서로 다른 의견의 발생과 충돌

사람마다 성장 환경과 경험이 다르므로 같은 사안에 대해서도 서로 다른 가치관과 판단이 형성될 수 있다. 이러한 의견 차이는 ⑤ 정치적 이념에 따른 갈등, 개인·집단·지역 간 이해관계의 충돌, 공익과 사익의 충돌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바로 알기 ① 서로 다른 가치관은 의견 차이를 일으킬 수 있으며, 의견 충돌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② 정보 통신 기술의 발달로 다양한 의견이 빠르게 공유되면서 의견 차이가 드러나거나 갈등이 심화될 수도 있다. ③ 서로 다른 의견은 개인의 성장 환경이나 경험 등에 영향을 받아 형성될 수 있다. ④ 의견 차이는 개인이나 집단의 이해관계와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이해관계의 충돌로 이어질 수 있다.

06 표현의 자유

밑줄 친 '이것'에 해당하는 용어는 ③ 표현의 자유이다. 밀은 다양한 의견의 자유로운 표현과 토론이 진리 발견과 사회 발전에 기여한다고 보고,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07 다양한 의견을 포용하는 태도

①, ②, ③, ⑤ 다양한 의견을 포용하려면 자신의 판단이 항상 옳다고 단정하지 않고 다른 관점에도 타당한 근거가 있을 수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소수의 의견의 자유로운 표현을 존중하고, 서로 다른 의견을 존중하고 합리적으로 검토·조율하는 과정은 다양한 관점을 이해하고 더 나은 결론을 찾는 데 도움이 된다.

바로 알기 ④ 다양한 의견을 포용하려면 다수의 의견만을 옳다고 여기지 않고 소수의 의견도 존중해야 한다.

08 하버마스의 담론 윤리

③ 하버마스는 담론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이 강제 없이 평등하게 의사소통하고, 제시된 의견의 타당성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여 합리적 합의에 도달해야 한다고 보았다.

바로 알기 ① 담론은 특정 전문가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된 사람들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참여해야 한다. ② 신속한 합의를 위해 소수 의견을 배제하는 것은 자유롭고 평등한 의사소통에 어긋난다. ④ 담론의 참여자들은 기존의 관습이나 권위도 비판적으로 검토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비판 없이 따라서는 안 된다. ⑤ 담론 참여자들이 제시된 의견의 타당성을 자유롭게 검토하고 비판할 수 있어야 합리적인 합의에 도달할 수 있다.

STEP 2 내신 만점 공략하기 87~89쪽

01 ④ **02** ⑤ **03** ⑤ **04** ⑤ **05** ⑤ **06** ④ **07** ④
08 ⑤ **09** ⑤ **10** ① **11** ⑤ **12** ②

01 현대사회에서 다양한 의견이 발생하는 이유

갑, 병, 정. 현대사회에서 다양한 의견이 발생하는 이유에는 서로 다른 환경과 문화 속에서 성장한 경험, 정보 통신 기술의 발달에 따른 다양한 정보의 습득과 공유, 표현의 자유 보장, 세대 간 가치관 차이 등이 있다.

바로 알기 을. 경제 성장이나 산업화 등으로 세대 간 가치관의 차이가 줄어든 것이 아니라, 세대마다 경제 성장이나 산업화 등을 경험한 시기와 방식이 달라 서로 다른 가치관과 의견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02 의견의 다양성에 대한 밀의 입장

제시된 글을 주장한 사상가는 밀이다. ㄷ, ㄹ. 밀은 사람마다 서로 다른 환경과 경험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형성할 수 있으며, 다양한 의견을 검토하고 토론하는 과정에서 오류를 수정하고 진리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다고 보았다.

바로 알기 ㄱ. 자신이 속한 집단의 의견을 강하게 믿을수록 다른 의견을 수용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 ㄴ. 진리를 탐구하려면 자신과 같은 의견뿐만 아니라 자신과 다른 의견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

03 밀이 강조한 개별성

(가) 사상가는 밀이다. ①, ②, ③, ④ 밀은 다른 사람의 생각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다양한 의견을 검토하며 자신만의 가치관을 형성하는 것을 중시하였다. 또한 자신의 성향에 따라 삶의 방향을 주체적으로 결정하고 발전시켜 나갈 자유가 필요하다고 보았으며, 이러한 개별성의 발달이 개인의 행복에 기여한다고 보았다.

바로 알기 ⑤ 밀은 타인의 의견과 동일한 생각을 가져야 한다고 본 것이 아니라, 다양한 의견을 검토하고 스스로 판단하여 자신만의 가치관을 형성해야 한다고 보았다.

04 다양한 의견을 존중하는 태도

그림의 강연자는 인간이 오류를 저지를 수 있으므로 다수의 의견이나 관습도 비판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본 밀의 입장과 연결된다. ①, ②, ③, ④ 자신의 생각이 틀릴 수 있음을 인정하고 다른 의견을 검토·수용하는 태도이므로 다양한 의견을 존중하는 태도이다.

바로 알기 ⑤ 다수의 의견이나 사회적 관습을 절대적으로 옳다고 여기며 비판 없이 수용한다는 점에서 밀의 주장에 어긋난다.

05 의견의 다양성을 방해하는 요소

갑은 과거에는 종교가 다르다고 사람들을 박해하는 일이 정당화되기도 했지만 지금은 부당한 것으로 평가되므로 다수의 의견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을에게 ⑤ 다수의 의견과 다른 의견이 항상 잘못된 것은 아님을 간과한다고 비판할 수 있다.

바로 알기 ① 사회의 안정을 위해 다수의 의견을 무조건 우선하기보다 소수 의견도 존중하고 검토해야 함을 간과한다고 비판할 수 있다. ② 소수의 의견이 항상 공동체의 질서를 해치는 것은 아니며,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도 있음을 간과한다고 비판할 수 있다. ③ 다수결로 결정된 사항도 잘못될 수 있으므로 필요에 따라 재검토할 수 있음을 간과한다고 비판할 수 있다. ④ 다수의 의견과 다른 주장도 기존의 생각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으므로 수용할 필요가 있음을 간과한다고 비판할 수 있다.

06 다양한 의견을 대하는 자세

제시된 글을 주장한 사상가는 밀이다. ④ 밀은 자신의 의견에 대한 비판을 받아들이고 반대 의견을 공정하게 검토하는 과정에서 오류를 수정하고 다양한 관점에서 문제를 이해할 수 있다고 보았다.

바로 알기 ① 사회적 관습도 오류일 수 있으므로 비판과 토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② 기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양한 의견이 자유롭게 표현되고 검토될 수 있도록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 ③ 다수의 의견이라고 해서 항상 진리에 가까운 것은 아니므로 비판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⑤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하는 데 그치지 않고 반대 의견의 근거와 타당성도 공정하게 검토해야 한다.

07 공자가 강조한 주체적 판단

그림의 사상가는 공자이다. ①, ②, ③, ⑤ 공자는 다른 사람의 의견을 무조건 배척하거나 따르기보다, 그 안에서 배울 점을 찾고 자신의 생각을 돌아보며 더 나은 앎을 얻어야 한다고 보았으므로 긍정의 대답을 할 것이다.

바로 알기 ④ 공자는 다른 사람의 생각과 행동을 살펴 배울 점을 찾고, 자신과 다른 의견도 좋은 것은 가려 받아들여 자신의 앎을 보완해야 한다고 보았으므로 부정의 대답을 할 것이다.

08 공자의 화이부동(和而不同)

제시된 글은 공자의 화이부동(和而不同)과 연결된다. ⑤ 화이부동의 관점에서 A에게 다른 사람과 조화를 이루면서도 자신의 판단을 버리고 남의 의견에 무조건 따르지 말아야 한다고 조언할 수 있다.

바로 알기 ① 자신의 판단을 버리고 사회의 관습과 권위에 순응하는 것은 공자의 입장에 어긋난다. ② 타인과 갈등을 피하기 위해 자신의 주장을 온전히 포기하는 것은 진정한 화합이 아니다. ③ 많은 사람이 동의하는 의견이라고 해서 항상 합리적인 것은 아니다. 공자는 다른 사람과 조화를 이루되 자신의 올바른 판단을 유지해야 한다고 보았다. ④ 다른 사람의 의견을 배척하는 것은 서로 조화를 이루는 공자의 입장에 어긋난다.

✦ 이건 꼭 암기! **공자가 강조한 서로 다른 의견을 포용하는 방법**

- 서로 화합하되 서로의 다름을 인정함 → **화이부동(和而不同)**
- 타인을 존중하고 배려하며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림 → **서(恕)**

09 서로 다른 의견을 포용하는 방법

갑은 자신의 의견에 대한 반론·비판을 열린 마음으로 검토하고, 다른 의견을 살펴 더 올바른 판단에 이를 수 있다고 한 점에서 밀의 입장과 연결된다. 을은 한쪽 입장만 고집하거나 성급하게 판단하지 않고 올바른 도리[義]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한 점에서 공자의 입장과 연결된다. ⑤ 갑과 을은 공통적으로 자신의 판단을 되돌아보고 다른 의견을 참고하여 올바른 판단에 이르려는 태도를 중요하게 여긴다.

바로 알기 ① 밀은 개인이 공동체의 판단에 무조건 따르기보다 자신의 판단에 따라 자유롭게 삶을 선택해야 한다고 보았다. ② 밀은 진리를 발견하기 위해 전문가의 의견만 따르기보다 다양한 의견을 자유롭게 듣고 검토해야 한다고 보았다. ③ 공자와 밀은 서로 다른 의견을 통해 자신의 생각을 돌아보거나 진리를 탐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④ 공자와 밀은 자신의 견해가 옳다고 판단하더라도 다른 의견을 배척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다.

10 하버마스의 담론 윤리

1. 하버마스는 담론에 참여한 모든 사람이 동의할 수 있어야 규범의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았다. 2. 하버마스는 자유롭고 평등한 담론 참여는 합리적 의사소통을 위한 전제라고 보았다.

바로 알기 3. 하버마스는 규범의 타당성을 전문가들의 합의에 맡기기보다, 관련된 모든 사람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참여하는 담론을 통해 검토해야 한다고 보았다. 4. 하버마스는 합의에 도달하는 것만으로 규범의 타당성이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담론을 통해 지속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11 하버마스의 합리적 의사소통

(가)에는 공론장에서 제시하는 주장이 갖추어야 할 타당성 조건에 관한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 ⑤ 하버마스는 공론장에서 제시하는 주장을 무조건 받아들이기보다, 사실에 부합하는지, 규범적으로 정당한지 등을 비판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보았다.

바로 알기 ① 사회적 지위나 권위가 아니라 누구나 자유롭고 평등하게 참여하는 담론을 통해 타당성을 검토해야 한다. ② 규범적 정당성뿐만 아니라 사실에 부합하는지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③ 논리적 근거뿐만 아니라 이해 가능성도 갖추어야 한다. ④ 사실에 부합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규범적 정당성도 갖추어야 한다.

12 밀과 하버마스가 강조한 바람직한 의사소통

갑은 밀, 을은 하버마스이다. ② 밀은 다수의 의견과 다르다는 이유로 소수의 의견을 표현하지 못하게 해서는 안 되며, 잘못된 의견에도 타당한 내용이 담겨 있을 수 있으므로 자유롭게 검토할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고 보았다.

바로 알기 ① 밀은 자신의 의견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개인의 의견 표현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다. ③, ④ 하버마스는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통해 서로의 주장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며 상호 이해와 합리적 합의를 추구해야 한다고 보았다. ⑤ 밀은 다수의 지지를 받는 의견이라도 자유롭게 검토해야 한다고 보았으며, 하버마스는 자유롭고 평등한 의사소통과 비판적 검토를 통해 합리적 합의를 지향해야 한다고 보았다.

STEP 3 서술형 도전하기 90쪽

01 주제: 다양한 의견이 발생하는 이유

예시 답안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드러낼 수 있게 되었고, 정보 통신 기술의 발달로 다양한 정보와 여러 관점을 손쉽게 접하고 공유할 수 있게 되면서 다양한 의견이 나타나게 되었다.

채점 기준	
상	표현의 자유 보장, 정보 통신 기술의 발달, 세대 간 가치관 차이 등 다양한 의견이 발생하는 이유 중 두 가지를 정확하게 서술한 경우
하	다양한 의견이 발생하는 이유 중 한 가지만 정확하게 서술한 경우

02 주제: 의견의 다양성이 중요한 이유에 대한 밀의 입장

예시 답안 서로 다른 관점을 검토하며 기존 견해의 한계를 발견하고 새로운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어 사회가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채점 기준	
상	다양한 의견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기존 견해의 오류를 바로잡거나 부족한 점을 보완하여 사회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구체적으로 서술한 경우
하	의견의 다양성이 사회 발전에 기여한다는 점은 서술했으나,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서술하지 못한 경우

03 주제: 하버마스의 담론 윤리

(1) 답 (가): 실천적 담론, (나): 보편화

(2) 예시 답안 모든 참여자가 평등하고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해야 다양한 의견과 이해관계를 포용하고 제시된 의견과 규범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합리적 합의에 이를 수 있기 때문이다.

채점 기준	
상	핵심어를 모두 포함하여 ㉠과 같이 주장한 이유를 다양한 의견의 포용과 타당성 검토, 합리적 합의의 측면에서 모두 정확하게 서술한 경우
중	핵심어 중 두 가지만 포함하여 세 가지 측면 중 두 가지를 서술한 경우
하	핵심어 중 한 가지만 포함하여 세 가지 측면 중 한 가지를 서술한 경우

04 주제: 공자의 화이부동(和而不同)

예시 답안 (가)에 들어갈 용어는 화이부동이다. 화이부동은 다른 사람과 어울리면서도 자신의 판단을 유지하는 태도이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고 경청하되, 그 의견에 무조건 동조하지 않고 스스로 타당성을 검토하여 판단해야 한다.

채점 기준	
상	(가)에 들어갈 용어가 '화이부동(和而不同)'임을 쓰고, 그 의미와 일상생활에서의 실천 방법을 한 가지 이상 구체적으로 서술한 경우
중	(가)에 들어갈 용어가 '화이부동(和而不同)'임을 쓰고, 그 의미와 일상생활에서의 실천 방법을 서술하였으나 그 내용의 구체성이 부족한 경우
하	(가)에 들어갈 용어가 '화이부동(和而不同)'임을 썼으나, 그 의미와 일상생활에서의 실천 방법을 모두 정확하게 서술하지 못한 경우

05 주제: 밀이 강조한 토론의 중요성

(1) 답 토론

(2) 예시 답안 밀은 인간이 오류를 범할 수 있는 존재이며 자신과 다른 의견에도 진리의 일부가 포함될 수 있으므로, 다양한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토론하며 검토해야 진리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채점 기준	
상	다양한 의견에 진리의 일부가 포함될 수 있다는 점과 다양한 의견을 검토하여 진리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다는 점을 모두 정확하게 서술한 경우
하	두 가지 측면 중 한 가지만 정확하게 서술한 경우

STEP 4 1등급 정복하기 91쪽

01 ③ 02 ③

01 의견의 다양성에 대한 공자와 밀의 입장

자료 분석

핵심 공자는 화이부동(和而不同)을 강조하며 다른 사람과 조화를 이루면서도 자신의 올바른 판단을 유지해야 한다고 보았어.

공자: 군자는 다른 사람과 조화를 이루면서도 자신의 올바른 판단을 유지하지만, 소인은 겉으로만 남들과 같아지려 할 뿐 진정한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

밀: 을: 사람들은 자신이 살아온 사회의 관습과 환경을 자연스러운 기준으로 여기기 쉽다. 그러나 시대와 사회에 따라 가치 판단의 기준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인의 생각과 삶의 방식을 하나의 기준에 맞추도록 강요해서는 안 된다.

핵심 밀은 사회적 관습이나 다수의 기준이 개인의 생각과 삶의 방식을 획일적으로 규정해서는 안 되며, 개인의 개별성과 다양한 삶의 방식을 존중해야 한다고 보았어.

갑은 공자, 을은 밀이다. ③ 밀은 다수의 관습이나 획일적인 기준에

개인의 생각과 삶의 방식을 맞추도록 강요해서는 안 되며, 각자의 개별성을 존중해야 한다고 보았다. 공자도 다른 사람과 조화를 이루면서도 자신의 올바른 판단을 유지해야 한다고 보았다.

바로 알기 ① 서(恕)의 정신은 자신의 마음을 미루어 타인의 마음을 헤아리고 배려하는 태도로, 자신의 의견을 타인에게 일방적으로 강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갑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다. ② 공자는 군자가 다른 사람과 조화를 이루면서도 자신의 올바른 판단을 유지하는 사람이라고 보았다. 홀로 앎을 깨우치는 것이 군자의 특징이라고 본 것은 아니다. ④ 밀은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경우에는 개인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고 보았으므로, 개별적인 의견이 어떠한 경우에도 제지되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은 밀의 입장에 맞지 않는다. ⑤ 밀은 다수의 의견이라고 해서 항상 옳다고 보지 않았으며, 소수의 의견을 포함한 다양한 의견을 자유롭게 검토하고 논쟁해야 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다수의 의견에 따라야 한다는 주장은 밀의 입장에 어긋난다.

판서로 보는 고난도 개념 의견의 다양성 존중에 대한 공자와 밀의 입장

구분	공자	밀
다름을 바라보는 관점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음을 인정하고 화합하되 같아지려고 하지 않음	사람마다 경험과 관점이 다르므로 다양한 의견과 삶의 방식을 존중함
핵심 개념	화이부동(和而不同)	개별성·의견의 자유
경계 대상	다수의 평가에 맹목적으로 따르는 태도	다수의 의견에 의한 사상·표현의 억압
바람직한 태도	타인과 조화를 이루면서도 자신의 올바른 판단을 유지함	서로 다른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검토·논쟁함
공통점	획일적인 기준에 따라 개인의 생각을 강요하는 태도를 경계함	

02 하버마스의 담론 윤리

제시된 글을 주장한 사상가는 하버마스이다. 1, 2, 4는 옳은 내용이고 3은 옳지 않은 내용이다. 학생은 1, 2, 3을 옳게 판단하고 4를 잘못 판단하였으므로 7점을 받는다.

바로 알기 3. 하버마스는 원만한 합의를 위해 특정 의견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참여자가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고 서로의 주장을 검토해야 한다고 보았다.

02 가상 세계와 현실 세계의 구분은 가능할까?

STEP 1 핵심 개념 확인하기 94쪽

01 메타버스 02 (1) ○ (2) × (3) ○ 03 (1) ㄱ (2) ㄷ (3) ㄴ
04 (1) 사생활 침해 (2) 알고리즘 05 ⑤ 06 ② 07 ② 08 ⑤

02 가상 세계의 특징

(2) 가상 세계에서는 현실의 물리적·사회적 제약을 벗어나 자신을 표현할 수 있다.

05 가상 세계의 특징

①, ②, ③, ④ 가상 세계는 현실의 시공간을 확장하고 필요에 따라 가상 환경을 재구성할 수 있으며, 아바타를 통해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다. 또한 기술적 특성이 잘못된 행동을 유발할 수 있다.

바로 알기 ⑤ 가상 세계는 현실 세계와 분리된 별개의 공간이 아니라 현실과 상호 작용하며 사회·경제·문화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06 가상 세계와 현실 세계의 관계에 대한 장자의 입장

장자는 '나비의 꿈'을 통해 꿈과 현실이 서로 다른 것으로 여겨지더라도 그 구분이 절대적이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 준다. 이를 가상 세계와 현실 세계의 관계에 적용하면 ② 두 세계가 서로 연결되어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로 이해할 수 있다.

07 가상 세계에서 발생하는 윤리적 문제

①, ③, ④, ⑤ 디지털 발자국에 따른 사생활 침해, 가상 세계의 접근 및 활용 격차에 따른 불평등, 알고리즘에 의한 편향과 차별, 디지털 과몰입에 따른 자아 상실 등 가상 세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 문제를 설명하고 있다.

바로 알기 ② 가상 세계에서는 익명성으로 자신의 정체를 숨길 수 있어 잘못된 행동에 대한 책임을 가볍게 여기거나 책임 의식이 약화될 수 있다.

08 메타버스 윤리 원칙

메타버스 윤리의 8대 실천 원칙에는 진정성, 자율성, 호혜성, 사생활 존중, 공정성, 개인 정보 보호, 포용성, 책임성이 있다.

바로 알기 ⑤ '지속 가능한 번영'은 메타버스 윤리의 3대 지향 가치 중 하나이다.

STEP 2 내신 만점 공략하기 95~97쪽

01 ⑤ 02 ① 03 ④ 04 ⑤ 05 ③ 06 ④ 07 ⑤
08 ⑤ 09 ④ 10 ⑤ 11 ③ 12 ③

01 아바타와 아바타 리터러시

(가)에는 아바타, (나)에는 아바타 리터러시가 들어가야 한다. 가상 세계에서 아바타로 자신을 드러내고 다른 사람과 어울리는 일이 많아지면서 아바타를 적절하게 활용하는 능력인 아바타 리터러시가 더욱 필요해졌다.

02 가상 세계와 현실 세계의 특징

가상 세계의 특징에는 시공간의 확장, 물리적·사회적 제약에서 탈피, 가상 환경의 재구성 가능, 익명성에 따른 자기 절제와 책임감 약화 등이 있다. 갑, 을. 가상 세계와 현실 세계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가상 세계에서는 현실의 물리적·사회적 제약을 넘어 새로운 시공간과 자아를 경험할 수 있다.

바로 알기 병. 가상 세계에서의 자아는 현실 세계의 물리적·사회적 제약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다. 정. 가상 세계는 사용자의 의지에 따라 환경을 자유롭게 재구성할 수 있다.

03 가상 세계와 현실 세계의 관계

그림에서 발표하는 내용은 메타버스 안에서 유포되는 바이러스가 현실 세계의 사용자에게도 심각한 피해를 준다는 내용이다. 발표 내용을 통해 ㄱ, ㄴ, ㄷ. 가상 세계와 현실 세계가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 영향을 주고받으며, 가상 세계의 위험이나 사고, 오류가 현실 세계에 피해를 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바로 알기 ㄹ. 발표에서 메타버스 안의 바이러스로 현실 세계의 사용자가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하였으므로, 메타버스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현실 세계의 안전과 별개로 볼 수 없다.

04 메타버스의 주요 특성

⑤ 제시된 사례에서 여러 이용자가 같은 가상 공간에 동시에 참여하여 공연을 함께 관람하고 실시간으로 소통하는 모습은 메타버스의 동시성을 보여 준다.

✦ 이건 꼭 알기! **메타버스의 주요 특성**

- 다양한 경험 + 지속적으로 연결 → **연속성**
- 사회적 상호 작용 + 공간적 몰입 → **실제감**
- 아바타를 통한 자신 표현 + 자신의 정체성 표현 → **정체성**
-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의 데이터·재화·콘텐츠 연계 + 서로 다른 플랫폼 간 상호 연결·활용 → **상호 운용성**
- 여러 이용자가 같은 시간에 함께 상호 작용 + 실시간 공동 경험 → **동시성**
- 창작과 거래를 통한 새로운 가치 형성 + 경제 활동 → **가상 경제**

05 가상 세계와 현실 세계의 관계

제시된 사례에서는 가상 공간의 콘텐츠가 현실 세계에서 문화유산에 대한 관심과 방문으로 이어지고, 현실에서 얻은 의견과 자료가 다시 가상 공간의 콘텐츠 제작에 활용되었다. 이를 통해 ③ 가상 세계와 현실 세계가 사회적·문화적 측면에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한 세계의 활동이 다른 세계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바로 알기 ① 가상 세계는 현실 세계의 경험을 반영할 뿐만 아니라 현실 세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② 두 세계의 상호 작용은 현실의 정보를 가상 공간에 반영하는 과정뿐만 아니라 가상 공간의 활동이 현실 세계에 영향을 주는 과정에서도 나타난다. ④ 두 세계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사회적·문화적 측면에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⑤ 두 세계가 상호 작용하며 연결되어 있지만,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의 차이를 구분하는 것이 무의미해지는 것은 아니다.

06 장자의 물화(物化)

제시된 글은 『장자』의 '나비의 꿈'으로, 꿈과 현실을 사물의 변화(물화)라는 관점에서 이해하도록 한다. ㄴ. 장자는 존재 사이의 구별이 있더라도 이를 고정적이고 절대적인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고 보았다. ㄹ. 장자는 존재는 서로 관계를 맺으며 변화하므로 개별 존재를 서로 완전히 분리하여 이해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바로 알기 ㄱ. 장자는 존재의 구별을 인정하지만, 각각을 독립된 존재로 이해해야 한다고 보지 않았으며, 존재 사이의 구별은 관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보았다. ㄷ. 장자는 사물의 변화 속에서 존재의 구별이 고정되어 있지 않다고 보았다.

07 가상 세계의 윤리적 문제

제시된 일기의 주인공은 가상 세계에 지나치게 몰입하고 가상 세계의 자아를 실제 자신처럼 느끼고 있다. 이는 가상 세계의 윤리적 문제 중 ⑤ 현실 회피와 자아 상실과 관련 있다.

바로 알기 ① 디지털 격차는 경제적·사회적 여건이나 정보 통신 기술에 대한 접근성의 차이로 인해 가상 세계의 이용 기회나 정보 활용 능력에 차이가 발생하는 문제이다. ② 개인 정보 침해는 가상 세계에서 이용자의 개인 정보가 수집·유출되거나 사생활이 침해되는 문제이다. ③ 가상 세계에서의 범죄는 가상 공간에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범죄나 불법 행위가 발생하는 문제이다. ④ 알고리즘에 의한 편향은 알고리즘이 기존의 편견이나 차별을 반영하여 편향된 결과를 나타내는 문제이다.

08 메타버스의 장점과 한계

⑤ 갑은 메타버스에서 현실의 제약을 넘어 평등한 경험을 할 수 있다고 보므로 긍정의 대답을 할 것이다. 반면 을은 현실의 경제력과 기술 접근성의 차이가 가상 세계에서도 불평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므로 부정의 대답을 할 것이다.

바로 알기 ①, ②, ③ 갑과 을 모두 긍정의 대답을 할 수 있는 질문이다. ④ 을은 메타버스에서의 경험이 경제력과 기술 접근성의 차이에 영향을 받는다고 보므로 긍정의 대답을 할 것이다.

09 가상 세계에서 필요한 태도

제시된 글을 주장한 사상가는 장자이다. 장자는 도구 자체보다 도구에 대한 지나친 의존과 집착이 인간의 본래 마음과 정신적 평온을 해칠 수 있음을 경계하였다. 따라서 장자는 A에게 ④ 메타버스에 대한 의존과 집착이 자신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돌아보고 성찰하도록 조언할 것이다.

바로 알기 ① 게임을 즐기면서 현실의 문제에도 관심을 가지는 것만으로는 메타버스에 대한 지나친 의존과 집착을 돌아보는 태도가 충분히 드러나지 않는다. ② 메타버스의 편리한 기능을 활용해 다양한 경험을 하는 것은 도구의 편리성을 활용하는 데 초점을 둔 것으로, 메타버스에 대한 지나친 의존과 집착을 경계하는 입장과 맞지 않는다. ③ 게임을 통해 얻는 성취를 현실보다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만으로는 메타버스에 대한 의존과 집착이 자신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성찰하는 태도가 충분히 드러나지 않는다. ⑤ 메타버스를 활용해 현실에서 얻기 어려운 성취를 추구하는 것은 메타버스에 대한 집착을 줄이기보다 가상 세계에 대한 몰입을 지속시킬 수 있다.

10 가상 세계에서 필요한 태도

갑은 가상 세계에서도 모두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규칙이 필요하다고 보고, 을은 인위적인 규칙 없이 개인의 자유로운 결정과 표현을 중시한다. ⑤ 갑은 을에게 규칙이 자유를 제한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의 자유를 보장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한다고 비판할 수 있다.

바로 알기 ① 갑은 가상 세계에도 현실과 같은 제도적 규율이 필요하다고 보므로, 현실과 다른 규칙을 마련해야 한다고 비판할 수 없다. ② 을도 이용자의 자유로운 표현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간과한다고 볼 수 없다. ③ 을은 이용자가 자신의 행위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므로, 을이 이용자의 자율적 판단이 존중되어야 함을 간과한다고 볼 수 없다. ④ 을은 인위적인 규칙 없이 개인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용자의 합의에 따라 질서를 형성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으므로, 이를 근거로 을을 비판하기 어렵다.

11 가상 세계에서 필요한 태도

㉠, ㉡, ㉣, ㉤ 가상 세계는 정보 통신 기술을 활용하여 현실과 다른 디지털 환경을 구현한 공간이며, 가상 세계에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고 현실 세계의 본질적 가치도 성찰하면서 두 세계를 조화롭게 활용해야 한다. 또한 가상 세계에서도 타인을 배려하고 권리와 자유를 존중해야 하며, 메타버스에서는 온전한 자아·안전한 경험·지속 가능한 번영을 지향하고 이를 위해 8대 실천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바로 알기 ㉢ 디지털 시민성은 표현의 자유를 무조건 우선시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존중하고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면서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 태도를 포함한다.

12 장자의 관점과 디지털 시민성

제시된 칼럼은 '이것'과 '저것'이 서로 관계를 맺으며 성립하고, 대상을 판단할 때 자신의 기준만을 절대적인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는 장자의 관점과 연결된다. ③ 자신의 생각을 점검하고 다른 사람의 관점을 고려하며 소통하는 태도는 이러한 관점을 디지털 공간에 적용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바로 알기 ① 디지털 기기 사용이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성찰하는 것은 디지털 기기 사용을 관리하는 태도와 관련되지만, 칼럼에서 강조한 대상에 대한 판단과는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는다. ② 다양한 정보를 자신의 기준에 따라 비교하여 활용하는 것은 자신의 기준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태도이므로, 자신의 기준만을 절대적인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는 칼럼의 관점과 맞지 않는다. ④ 타인의 권리와 개인 정보를 보호하는 것은 디지털 공간에서 필요한 태도이지만, 칼럼에서 강조한 대상에 대한 구분과 판단이 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관점과는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는다. ⑤ 자신의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것은 디지털 공간에서 권리를 실현하는 태도와 관련되지만, 칼럼에서 강조한 자신의 기준을 절대적인 것으로 여기지 않는 태도와는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는다.

STEP 3 서술형 도전하기 98쪽

01 주제: 현실 세계와 구분되는 가상 세계의 특징

예시 답안 가상 세계에서는 현실의 시간과 공간을 넘어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으며, 현실의 신체적 조건이나 사회적 지위에 구애받지 않고 새로운 자아를 경험할 수 있다. 또한 사용자의 선택에 따라 가상 환경을 재구성할 수 있고, 익명으로 활동할 수 있다는 특성 때문에 자기 절제와 책임 의식이 약해질 수 있다.

채점 기준	
상	현실 세계와 구분되는 가상 세계의 특징을 두 가지 정확하게 서술한 경우
하	현실 세계와 구분되는 가상 세계의 특징을 한 가지만 정확하게 서술한 경우

02 주제: 디지털 격차

예시 답안 가상 세계를 이용하는 데 필요한 기기와 통신 환경을 충분히 갖추지 못한 사람은 관련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채점 기준	
상	기기나 통신 환경의 차이로 가상 세계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음을 서술한 경우
하	가상 세계 이용 환경의 차이만 언급하고, 그로 인한 어려움을 서술하지 못한 경우

03 주제: 장자의 관점에서 본 가상 세계와 현실 세계의 관계

(1) 답 도의 지도리(도추)

(2) 예시 답안 가상 세계와 현실 세계를 이분법적으로 나누어 보지 않고, 두 세계가 서로 연결되어 상호 의존하는 관계임을 인식하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

채점 기준	
상	핵심 어구를 모두 포함하였으며, 가상 세계와 현실 세계를 이분법적으로 나누지 않으며 두 세계가 상호 의존하는 관계임을 인식해야 한다는 내용을 정확하게 서술한 경우
중	핵심 어구를 일부 포함하였으며, 가상 세계와 현실 세계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정도로만 서술한 경우
하	핵심 어구를 하나도 포함하지 않고 가상 세계와 현실 세계가 서로 관계있다는 정도로만 서술한 경우

04 주제: 알고리즘의 공정성에 대한 반론

예시 답안 알고리즘은 인간이 만든 자료와 기준을 바탕으로 작동하므로 기존의 편견이나 차별을 반영할 수 있다. 따라서 알고리즘의 판단이 항상 공정하다고 볼 수 없으며, 그 결과가 특정 집단에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는지 비판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채점 기준	
상	알고리즘의 판단이 항상 공정하지 않은 이유와 알고리즘의 판단 결과에 대한 바람직한 태도를 모두 정확하게 서술한 경우
하	알고리즘의 판단이 항상 공정하지 않은 이유와 알고리즘의 판단 결과에 대한 바람직한 태도 중 한 가지만 서술한 경우

05 주제: 가상 세계에서의 아바타 활용과 디지털 시민성

예시 답안 (가)에 들어갈 용어는 디지털 시민성이다. 이를 함양하기 위해서는 가상 세계에서 타인의 아바타를 단순한 놀이 도구나 데이터로 취급하지 않고, 아바타를 사용하는 타인을 인격적으로 존중하며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한다.

채점 기준	
상	(가)에 들어갈 용어를 디지털 시민성이라고 쓰고, 아바타를 사용하는 타인을 인격적으로 존중하며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서술한 경우
하	(가)에 들어갈 용어를 디지털 시민성이라고 썼으나, 아바타를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는 정도로만 서술한 경우

STEP 4 1등급 정복하기 99쪽

01 ② 02 ②

01 가상 세계와 현실 세계의 관계

자료 분석

이 소설은 가상 세계에서의 경험과 문제가 현실 세계의 삶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있어.

갑: 메타버스를 다룬 한 소설에서는 가상 공간에서 발생한 위험이 현실 세계의 사용자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 상황을 보여 준다. 가상 공간에서 시작된 문제가 현실의 인간에게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가상 세계에서 발생한 일은 현실 세계와 무관하다고 보기 어렵다.

을: 장자는 꿈속에서 자신과 나비의 구별이 모호해지는 경험을 예로 들어, 모든 존재는 서로 관계를 맺으며 변화하므로 현실과 꿈, 이것과 저것을 절대적으로 구분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그는 대상을 고정된 기준으로 나누기보다 서로 연결된 관계 속에서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장자의 '호접지몽'은 꿈(가상)과 깨어 있음(현실)의 경계가 고정되어 있지 않고 서로 넘나들며 상호 영향을 미친다는 통찰을 담고 있어.

갑은 가상 세계에서 발생한 문제가 현실 세계의 사용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두 세계의 상호 작용을 강조한다. 을은 대상에 대한 구분이 절대적이지 않으며, 대상을 다른 대상과의 관계 속에서 이해해야 한다고 본다. ② 갑과 을은 대상이나 영역을 이해할 때 다른 대상이나 영역과 맺는 관계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보는 점에서 공통된다.

바로 알기 ① 갑은 가상 세계에서 발생한 문제가 현실 세계의 사용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고 보므로, 두 세계의 문제를 각 세계의 규범에 따라 독립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과 다르다. ③ 을은 대상에 대한 구분이 관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보지만, 개별 대상의 고유한 특성보다 관계 자체를 우선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아니다. ④ 을은 대상에 대한 구분이 관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보므로, 올바른 판단을 위해 보편적인 기준이 필요하다는 입장과 다르다. ⑤ 을은 현실과 꿈의 구분이 절대적이지 않다고 보므로, 서로 다른 영역을 각자의 특성에 따라 명확히 구별해야 한다는 입장과 다르다.

02 메타버스의 발전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입장

갑은 메타버스가 현실의 물리적 한계를 넘어 다양한 활동을 가능하게 하고, 이용자의 활동 데이터를 활용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본다. 을은 메타버스 이용 환경의 차이에 따른 격차와 기업의 데이터 독점으로 인한 개인의 주체성 약화 및 새로운 지배 관계를 우려한다. ㄱ. 갑은 메타버스가 현실의 물리적 한계를 넘어 새로운 정체성을 표현하고 다양한 활동을 경험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다고 보았다. ㄷ. 을은 경제력이나 기술적 환경의 차이로 메타버스에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는 기회에 격차가 생길 수 있다고 보았다.

바로 알기 ㄴ. 갑은 데이터 활용을 통한 맞춤형 서비스의 가능성을 제시했을 뿐, 데이터 활용 범위가 넓을수록 개인의 사생활을 통제할 수 있다고 보지는 않았다. ㄹ. 을은 기업의 데이터 독점과 통제의 문제를 지적했지만, 기업의 데이터 활용을 전면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는 않았다.

판서로 보는 고난도 개념 메타버스와 데이터 활용의 양면성

구분	데이터 활용의 긍정적 측면	데이터 활용에 따른 윤리적 쟁점
수집·분석	이용자의 성향과 필요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방대한 데이터의 수집·분석으로 개인 정보 침해와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행동 데이터	이용자의 활동을 분석하여 서비스의 편의성과 상호 작용을 높일 수 있음	행동·생체 정보 등을 바탕으로 프로파일링과 지속적인 감시가 이루어질 수 있음
데이터의 집중·통제	축적된 데이터를 활용해 서비스를 정교하게 발전시킬 수 있음	데이터가 특정 플랫폼에 집중되면 이용자에 대한 통제력이 커지고 자율성이 위협받을 수 있음
핵심 관점	데이터 활용을 통해 편리함과 새로운 가능성을 확대함	편리함만 강조하지 않고 개인 정보 보호·자율성·책임성을 함께 고려해야 함

– OECD(2024)·KISA(2022)

Ⅳ단원 실력 굳히기 102~105쪽

01 ④ **02** ⑤ **03** ① **04** ② **05** ⑤ **06** ④ **07** ③
08 ③ **09** ⑤ **10** ③ **11** ④ **12** ⑤ **13** ④ **14** ②
15 (1) 갑: 공자, 을: 밀 (2) 해설 참조
16 (가): 화이부동(和而不同), (나): 서(恕) **17** 해설 참조

01 밀의 표현의 자유

자료 분석

밀은 어떤 의견이든 반대 의견과 끊임없이 대립하고 토론해야만 진리로서 생명력을 얻는다고 보았어.

(가)	로마 가톨릭교회는 교회 가운데서도 타협을 꺼리는 곳으로 알려져 있지만, 어떤 인물을 성인으로 선포할 때에는 해당 인물에 대한 비판적 견해에도 귀를 기울이고 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다. 이는 어떤 인물이나 주장에 대해서도 비판과 검증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 타당한 판단에 이르는 데 중요함을 보여 준다.
(나)	A국은 최근 다수 국민의 정서와 전통적 관습에 어긋나는 특정 사상의 유포 및 표현을 법으로 금지하였다. A국의 지도자는 "국민 대다수가 불쾌하게 여기는 행동은 제한하는 것이 사회적 행복을 높인다."라고 주장하였다.

다수의 불쾌감을 이유로 소수 의견을 억압하는 전형적인 '다수의 횡포' 상황이야.

(가)는 어떤 주장이나 인물에 대해서도 비판과 검증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보는 입장으로, 밀의 입장과 연결된다. ④ (가)의 입장에서는 A국의 조치에 대해 다수의 정서에 반하는 의견이라도 억압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가질 것이다.

바로 알기 ① 밀은 확정된 진리라 하더라도 토론을 거쳐야 한다고 보았다. 토론을 금지하면 기존의 진리도 '죽은 독단'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 ② 밀은 보편적 관습이라도 무비판적으로 수용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다양한 의견을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③ 밀은 개인의 자유가 타인에게 해악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보장되어야 하므로, 타인에게 해악을 주는 행위는 개인의 자유라는 이유로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다. ⑤ 밀은 다수의 이익을 이유로 개인의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제한해서는 안 되며, 다수의 의견으로 소수의 의견이 억압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보았다.

✦ 이건 꼭 알기! 밀이 반대 의견을 중시한 이유

- 인간은 오류를 범할 수 있음 → **반대 의견이 진리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억압해서는 안 됨
- 틀린 의견에도 진리의 일부가 포함될 수 있음 → 반대 의견과의 논쟁을 통해 **진리를 더 온전하게 이해**할 수 있음
- 기존의 통설도 토론이 필요함 → 통설이 전적으로 진리라 하더라도 토론을 거치지 않으면 사람들이 그 근거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채 받아들이게 되어 **'죽은 독단'**이 될 수 있음

02 의견의 다양성이 중요한 이유에 대한 밀의 입장

제시된 가상 편지를 쓴 사상가는 밀이다. ⑤ 밀은 인간이 판단에서 오류를 범할 수 있으므로 다양한 의견을 자유롭게 제시하고 서로 검토하는 과정을 통해 진리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다고 보았다.

바로 알기 ① 밀은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한 개인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보았으므로, 개인의 이익을 위해 타인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는 주장은 적절하지 않다. ② 밀은 관습이나 다수의 의견만을 근거로 개인의 행동을 억압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다. ③ 밀은 개인의 경험과 다양한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서로 논쟁하는 과정이 사회적 사안을 이해하고 진리에 접근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보았다. ④ 밀은 다수의 의견도 오류일 수 있으므로, 다수의 행복을 이유로 소수의 의견을 억압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다.

03 의견의 다양성이 중요한 이유에 대한 공자의 입장

그림의 사상가는 공자이다. ① 공자는 다른 사람의 말과 행동에서 배울 점을 찾고, 이를 자신의 생각을 돌아보고 배움을 넓히는 데 활용해야 한다고 보았다.

바로 알기 ② 공자는 다른 사람에게서 배울 점을 찾는 것을 중시했으므로, 자신의 경험과 판단을 다른 사람의 경험보다 우선해야 한다고 보지는 않았다. ③ 자신의 기준에 맞는 의견만을 중심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서 배울 점을 폭넓게 찾으려는 공자의 입장과 맞지 않는다. ④ 다수가 옳다고 여기는 생각을 따르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서 배울 점을 가려 받아들이라는 공자의 입장과 맞지 않는다. ⑤ 다른 사람에게서 배운 내용을 자신의 판단과 비교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좋은 점을 가려 받아들이라는 공자의 입장과 맞지 않는다.

04 서로 다른 의견에 대한 밀과 공자의 입장

자료 분석

'다수의 횡포'를 경계하고 소수 의견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역설한 밀의 입장이야.

갑: 다수의 생각과 다르다는 이유로 소수의 의견을 억압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으며, 다양한 의견을 표현할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

을: 군자는 다른 사람들과 조화를 이루지만 무조건 따르지는 않으며, 소인은 다른 사람의 의견에 쉽게 휩쓸리면서도 진정한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

남과 어울리되 자신의 주관을 잃지 않는 '화이부동(和而不同)'을 강조한 공자의 입장이야.

갑은 모든 사람이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더라도 다른 의견을 제시한 사람에게 침묵을 강요해서는 안 되며, 소수의 의견을 억압해서는 안 된다고 본 밀과 연결된다. 을은 다른 사람들과 조화를 이루면서도 무조건 따르지는 않는 태도를 강조한 공자와 연결된다. ② 밀은 다수의 의견이라도 오류일 수 있으므로 다양한 의견의 자유로운 표현을 보장해야 한다고 보았다.

바로 알기 ① 밀은 다수의 의견이 옳다고 여겨지더라도 소수 의견을 억압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다. ③ 공자는 다른 사람과 조화를 이루되 자신의 올바른 판단을 버리고 무조건 그 사람의 의견에 따르는 것은 경계하였다. ④ 공자는 서로 다른 의견을 인정하면서도 조화를 이루는 태도를 중요하게 여겼다.

따라서 의견이 다르면 진정한 조화를 이루기 어렵다는 주장은 공자의 화이부동에 어긋난다. ⑤ 밑은 다양한 의견의 표현을, 공자는 서로 다름을 인정하면서 이루는 조화를 중시한다. 따라서 두 사상가 모두 구성원들이 서로 다른 의견을 버리고 하나의 의견으로 통일해야 한다고 보았다는 주장은 옳지 않다.

05 공자의 화이부동과 의(義)

공자는 군자가 의(義)를 기준으로 올바름을 추구해야 하며, 사사로운 이익에 따라 행동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다. ⑤ 『논어』의 관점에서는 다수의 의견이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하면서도 친구들의 불만을 줄이기 위해 다수의 의견에 따르려 하는 A에게 사사로운 이익을 버리고 의(義)를 기준으로 올바른 판단을 내리라고 조언할 수 있다.

바로 알기 ① 다수의 의견이라는 이유만으로 그에 따르는 것이 올바른 판단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② 학급의 화합도 중요하지만, 관계의 유지를 위해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을 바꾸어서는 안 된다. ③ 자신의 불이익을 피하려는 것은 사사로운 이익을 따르는 것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④ 갈등을 줄이는 것을 우선하여 결정하는 것은 무엇이 옳은지를 판단하기보다 상황의 편의를 중시하는 것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06 하버마스의 담론 윤리

그림의 사상가는 하버마스이다. 하버마스는 사회적 공론장에서의 평등한 대화와 타당성 검증을 강조하였다. 또한 인간이 '의사소통 이성'을 지니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토론과 상호 이해, 그리고 합리적인 합의 도출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신뢰하였다. ④ 하버마스는 모든 참여자가 자유롭고 평등하게 의견을 제시하고 타당성을 검토하는 의사소통을 중시하므로 긍정의 대답을 할 것이다.

바로 알기 ① 하버마스는 관련된 모든 사람이 자유롭게 참여하는 의사소통 과정을 중시하므로 부정의 대답을 할 것이다. ② 하버마스는 다수의 판단만으로 합의의 정당성이 확보된다고 보지 않으며, 소수의 의견을 포함하여 모든 참여자가 자유롭고 평등하게 의견을 제시하고 검토할 수 있는 의사소통 절차를 중요시하므로 부정의 대답을 할 것이다. ③ 하버마스는 합의의 정당성을 개인의 이해관계를 배제하는 데서 찾기보다, 참여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고 서로의 주장을 검토하여 타당한 합의에 이르는 과정에서 찾으므로 부정의 대답을 할 것이다. ⑤ 하버마스는 힘이나 권위, 권력의 차이에 따라 발언 기회를 달리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논거에 따라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므로 부정의 대답을 할 것이다.

✦ 이건 꼭 알기! 하버마스의 담론 윤리

- 담론에 참여할 동등한 기회 보장 → **모든 관련 당사자 참여**
-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고 비판 → **주장·질문·비판의 자유**
- 내적·외적 강제 없이 자유롭게 참여 → **강제 없는 의사소통**
- 상대방의 의견을 왜곡하지 않고 이해 → **상호 이해 추구**
- 발언의 진리성·정당성·진실성 검토 → **타당성 검토**
- 자신의 견해를 수정할 가능성 열어 두기 → **합리적 비판 수용**
- 권력이나 지위가 아닌 더 나은 논거에 따라 합의 → **더 나은 논증의 힘**

07 하버마스의 담론 윤리

제시된 글은 하버마스의 의사소통 행위 이론에 해당한다. 2, 3, 4. 하버마스는 담론 참여자들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제시하고, 서로의 주장에 대한 비판과 검토를 통해 합리적인 합의에 도달해야 한다고 보았다.

바로 알기 1. 하버마스는 상대방의 주장에 대한 비판을 지양해야 한다고 보지 않았으며, 담론 참여자들이 자유롭게 의문을 제기하고 서로의 주장을 비판·검토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

08 장자의 도의 지도리

제시된 글을 주장한 사상가는 장자이다. ㄴ. 장자는 도(道)의 지도리[道樞]에 근거하여 사물의 옳고 그름을 고정적으로 구분하는 데 얽매이지 않고, 밝은 지혜로 사물을 전체적으로 바라보아야 한다고 보았다. ㄷ. 장자는 만물이 서로 연관되어 있음을 깨닫고, '이것'과 '저것'을 고정적으로 구분하는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보았다.

바로 알기 ㄱ. 장자는 사물을 쓸모 있음과 쓸모없음으로 나누어 판단하고, 쓸모 있는 것만 취하려는 태도를 경계하였다. ㄹ. 장자는 자신의 관점만을 옳다고 여기며 다른 관점을 배척하는 등 한쪽에 치우치는 태도를 경계하였다.

09 장자의 호접지몽

제시된 글은 꿈과 현실의 경계가 모호함을 표현한 장자의 '나비의 꿈(호접지몽)' 이야기이다. 이 이야기에서 장자는 만물이 서로 의존하며 끊임없이 변화한다는 '물화(物化)' 사상을 통해, 현실과 비현실(가상 세계)을 엄격하게 나누는 이분법적 사고를 비판하고 두 세계의 관계와 변화를 고려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⑤ 가상 세계와 현실 세계 중 어느 한쪽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아 다른 쪽을 판단하지 않아야 한다.

바로 알기 ① 가상 세계의 경험을 현실의 경험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가상 세계를 우선적인 기준으로 삼는 것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② 현실 세계의 기준으로 가상 세계의 문제를 판단하는 것은 한쪽의 관점만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는 것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③ 가상 세계와 현실 세계의 경험을 각각 독립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두 세계의 관계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는 것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④ 가상 세계와 현실 세계를 서로 완전히 다른 것으로 구분하는 것은 두 세계를 엄격하게 나누는 이분법적 사고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10 가상 세계에서 필요한 윤리적 태도

㉠, ㉡, ㉣, ㉤ 가상 세계에서는 현실 세계와의 균형을 유지하고, 디지털 역량을 바탕으로 타인을 배려·존중하며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는 디지털 시민성을 길러야 한다. 또한 모두가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윤리적 규범과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준수하며, 온전한 자아·안전한 경험·지속 가능한 번영을 지향하고 이를 위한 윤리 원칙을 실천해야 한다.

바로 알기 ㉢ 가상 세계에서 상호 작용하는 타인도 현실의 사람과 마찬가지로 존중해야 하므로, 이들을 현실의 사람과 구분하여 대하는 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니다.

11 가상 세계의 윤리적 문제

제시된 영화는 암울한 현실을 도피하여 가상 세계(오아시스)의 쾌락에만 빠져 지내는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 기술 과몰입의 부작용을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④ 가상 세계의 성취와 만족만으로는 진정한 행복을 이루기 어려우며, 가상 세계와 현실 세계의 균형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바로 알기 ① 영화는 가상 세계의 경험이 현실의 경험보다 항상 가치 있다고 보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② 영화에서 일부 사람들은 오아시스에 지나치게 의존하며 현실의 관계와 삶의 의미를 잃어 가므로 적절하지 않다. ③ 영화는 가상 세계의 성취와 만족뿐만 아니라 현실의 관계와 경험도 중요하게 다루므로 적절하지 않다. ⑤ 영화는 가상 세계에 몰입하는 삶이 현실의 삶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 주므로 적절하지 않다.

12 디지털 격차

㉠은 정보 통신 기술에 대한 접근과 활용에서 나타나는 차이인 '디지털 격차'를 의미한다. ⑤ 디지털 격차는 정보와 서비스 이용의 차이를 발생시키고,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

바로 알기 ① 알고리즘 편향에 대한 설명이다. ② 개인 정보 침해와 디지털 감시에 대한 설명이다. ③, ④ 가상 세계에서의 정체성 문제와 관련된 내용이다.

13 메타버스와 디지털 시민성

제시된 신문 기사에서는 메타버스의 익명성으로 발생하는 언어폭력과 과도한 몰입 문제를 지적하였다. ㄴ, ㄹ. 가상 세계에서도 아바타 뒤에 있는 실제 사용자를 존중하고 책임 있는 디지털 시민으로 행동해야 함을 알 수 있다.

바로 알기 ㄱ. 메타버스에서 아바타를 대상으로 한 언어폭력도 실제 사용자의 감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가상 세계에서의 행위가 현실과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 ㄷ. 메타버스가 현실 도피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되지만, 자료에서는 장기간 접속을 법으로 금지해야 한다고 제시하지 않았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14 디지털 문해력

(가)는 디지털 정보를 이해하고 활용하며 비판적으로 판단하고 표현하는 능력인 디지털 문해력이다. ①, ③, ④, ⑤ 디지털 문해력은 기능적·비판적·사회적 문해력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다른 사람과 소통하고 상호 작용할 수 있다. 또한 가상 세계에서도 디지털 문해력을 바탕으로 타인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갖춰야 한다.

바로 알기 ② 디지털 문해력은 디지털 지식과 정보를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를 비판적으로 판단하고 표현하는 능력도 포함한다.

15 공자와 밀이 강조한 의견의 다양성

(1) 답 갑: 공자, 을: 밀

(2) 예시 답안 다른 사람의 의견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자신의 생각을 돌아보거나 발전시키는 태도가 필요하다.

채점 기준	
상	다른 사람의 의견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자신의 생각을 돌아보거나 발전시켜야 한다는 내용을 정확하게 서술한 경우
하	다른 사람의 의견을 살펴보아야 한다는 내용이나 자신의 생각을 돌아보거나 발전시켜야 한다는 내용 중 한 가지만 서술한 경우

16 공자의 화이부동(和而不同)과 서(恕)

공자는 화이부동의 태도로 다른 사람과 조화를 이루면서도 자신의 원칙을 지키고 맹목적으로 동조하지 않아야 한다고 보았다. 또한 서의 정신에 따라 자신의 마음을 미루어 타인의 마음을 헤아리고, 자신이 바라지 않는 것을 남에게 강요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17 가상 세계에서 나타나는 윤리적 문제

예시 답안 (가)와 같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특정 메타버스 플랫폼 기업에 집중될 경우, 기업이 이용자의 개인 정보를 광범위하게 수집·관리하여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다. 또한 축적된 정보가 기업의 이익을 위해 활용되면 이용자의 행동이 감시되거나 자유로운 판단과 선택이 제한되는 등 주체성이 약화될 수 있다.

채점 기준	
상	데이터가 특정 메타버스 플랫폼 기업에 집중될 때 발생할 수 있는 사생활 침해, 행동 감시, 자유로운 판단과 선택의 제한 등의 문제 중 한 가지 이상을 구체적으로 서술한 경우
하	데이터가 특정 메타버스 플랫폼 기업에 집중되는 현상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만 서술하고, 그 결과 발생하는 구체적인 문제점을 제시하지 못한 경우

V

공존과 지속 가능성

01 삶의 방식으로서 소유와 존재란 무엇일까?

STEP 1 핵심 개념 확인하기 112쪽

01 (가): 소유적, (나): 존재적 **02** 수기치인 **03** (1) × (2) ○ (3) ○
04 (1) 경쟁자 (2) 자기애 **05** ④ **06** ⑤ **07** ① **08** ④

03 정약용의 직업관

(1) 정약용에 따르면 직업 활동은 단순한 생계유지의 수단을 넘어 사회 발전에 공헌하며 자아를 실현하는 과정이다.

05 직업의 조건

ㄴ. 행한 일에 대한 적절한 대가를 제공받는 것은 직업의 조건 중 경제성에 해당한다. ㄹ. 일이 일정하게 반복되거나 이어져야 하는 것은 직업의 조건 중 계속성에 해당한다.

바로 알기 ㄱ. 사회성은 직업 활동을 통해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와 국가에도 일정하게 기여해야 한다는 의미이며, 사회를 위해 직업 선택의 자유를 포기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ㄷ. 자율성은 원하기만 하면 실제로 그 직업을 가질 권리까지 보장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직업을 선택할 때 외부의 강요가 아닌 자율적인 선택에 기반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06 프롬이 제시한 바람직한 직업관

프롬은 직업을 소유의 대상으로 바라보기보다 자신의 내적 가치와 재능을 능동적으로 발휘하는 자아실현의 과정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보았다. ⑤ 프롬에 따르면 인간은 직업 활동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실현할 수 있으므로 개인과 직업의 바람직한 관계를 위해서는 존재적 실존 양식의 관점이 필요하다.

바로 알기 ① 프롬은 직업 활동을 자신의 잠재력과 내적 가치를 발현하는 자아실현의 과정으로 보았다. ② 소비와 소유를 자신과 동일시할수록 오히려 소유물에 얽매여 자신의 정체성을 온전히 실현하기 어렵다. ③ 소유적 실존 양식에 따를 경우 직업을 소유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외적 조건을 중시하므로 직업인으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실현하기 어렵다. ④ 존재적 실존 양식에 따를 경우 직업의 외적 조건보다 자신의 내적 가치와 재능의 발현을 중시한다.

07 정약용이 강조한 목민관의 바람직한 덕목

정약용은 수기치인을 중심으로 목민관이 갖추어야 할 자세를 제시하였다. ②, ⑤ 정약용은 상관의 부당한 지시에 굴하지 않고 자신의 원칙과 신념을 지키는 소신과 용기를 강조하였다. ③, ④ 정약용에 따르면 목민관은 사적인 욕심을 버리고 백성을 위한 공적인 자세로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바로 알기 ① 정약용은 공직 수행에 장애가 생기거나 상관의 명령이 공법에 어긋나 민생에 해를 끼친다면 자신의 원칙을 지키고 필요할 경우 직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

08 나와 타인의 이익을 조화롭게 추구하는 바람직한 방법

나와 타인의 이익을 조화롭게 추구하기 위해서는 더불어 사는 삶을 실천해야 한다. ①, ⑤ 자신과 타인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 의존하고 보완하는 존재임을 인식하고 서로 존중해야 한다. ②, ③ 소유욕과 과도한 소비를 절제하고 인간의 성장과 삶의 질에 도움이 되는 나눔을 실천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바로 알기 ④ 타인에 대한 나눔과 베풂은 경제적·시간적 여유가 생긴 뒤로 미루기보다 평소에도 기꺼이 실천하며 꾸준히 덕을 쌓아 가야 한다.

STEP 2 내신 만점 공략하기 113~115쪽

01 ② **02** ③ **03** ② **04** ⑤ **05** ④ **06** ③ **07** ②
08 ① **09** ⑤ **10** ⑤ **11** ③ **12** ①

01 직업 선택의 기준

직업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경제적 수단이면서 자신의 능력과 재능을 발휘하여 삶의 의미와 가치를 실현하는 과정이 될 수 있다. (가)는 경제적 능력과 보상을 통해 생활에 필요한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강조하므로 생계유지와 관련된다. (나)는 자신의 능력과 재능을 발휘하면서 성취감과 보람을 얻고 삶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는 것을 강조하므로 자아실현과 관련된다.

02 노동의 다양한 동기

제시된 글에서는 경제적 이익, 사회적 인정, 명예, 의무감 등 노동의 동기는 다양하다는 내용을 보여 준다. 이는 프롬의 의견과 맞닿아 있는데, 프롬은 노동이 단순히 경제적 보상을 얻기 위한 수단을 넘어 인간이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고 삶의 의미를 실현하는 활동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③ 물질적 보상은 노동과 노력의 유일한 동기가 아니며, 자부심이나 일의 즐거움과 같은 다양한 원인이 노동의 중요한 동기가 될 수 있다.

바로 알기 ① 물질적 보상은 노동의 중요한 동기 중 하나이지만 유일한 동기는 아니다. ② 제시된 글은 경제적 보상을 비롯한 많은 요소들이 노동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일 뿐, 경제적 보상이 존재하지 않을 때 노동의 의욕이나 강도가 더 강해진다고 보지 않는다. ④ 사람마다 직업과 노동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동기는 다양할 수 있다. ⑤ 낮은 봉급과 높은 청렴성 사이에 필연적인 비례 관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03 존재적 실존 양식에 따른 바람직한 직업관

제시된 글을 주장한 사상가는 프롬이다. 프롬은 소유에 집착하기보다 자유롭고 주체적으로 자신의 가능성을 발휘하는 존재적 실존 양식을 강조하였다. ㄱ. 존재적 실존 양식의 삶에서는 사랑과 공유, 생산적 활동을 통해 행복을 추구한다. ㄷ. 존재적 실존 양식에서 직업은 직업 역시 단순한 생계유지의 수단을 넘어 자신의 능력과 재능을 발휘하여 자아를 실현하는 활동이 될 수 있다.

바로 알기 ㄴ. 프롬은 존재적 실존 양식에서 외적 소유나 사회적 지위를 확보하는 것을 중시하지 않으며,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고 성장하는 과정에서 삶의 의미를 찾는다고 보았다. ㄹ. 프롬은 가진 것을 확대하는 소유적 실존 양식과 달리, 존재적 실존 양식에서는 소유보다 사랑하고 나누며 생산적으로 활동하는 삶을 중시하였다.

✦ 이건 꼭 알기! **프롬이 구분한 실존 양식에 따른 직업관**

- 소유물을 통해 자신을 규정하고 직업의 외적 조건과 소비에 집착하여 자신의 정체성 실현에 실패함 → **소유적 실존 양식**
- 직업 활동을 자아실현의 과정으로 인식하고 내적 가치와 재능을 능동적으로 발휘하여 자신의 정체성을 실현함 → **존재적 실존 양식**

04 정약용이 강조한 바람직한 직업 생활의 자세

그림의 사상가는 정약용이다. ⑤ 정약용에 따르면 자신의 직업을 공적 역할로 인식하고 이를 성실히 수행할 때 사회 발전에 공헌하며 자신의 존재 가치를 실현할 수 있다. 그는 자신의 몸과 마음을 올바르게 닦는 수기를 바탕으로 타인을 돌보는 치인을 실천해야 한다고 보았다.

바로 알기 ① 정약용은 직업 생활을 경제적 재화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만 보지 않았다. ② 정약용은 자기 수양과 타인을 위한 봉사 가운데 하나만을 더 중시한 것이 아니라 두 가지를 함께 실천해야 한다고 보았다. ③ 정약용은 자신을 수양하는 일과 타인을 위해 봉사하는 일을 서로 분리된 것으로 보지 않았다. ④ 정약용은 타인의 삶에 무관심하기보다 공동체에 기여하는 자세를 강조하였다.

05 정약용이 제시한 직업인의 공적 책임

제시된 글을 주장한 사상가는 정약용이다. 정약용은 맡은 일을 처리할 때 사적인 욕심을 버리고 공적인 기준에 따라 판단하며 자신의 직분에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보았다. 또한 정약용은 목민관의 덕목으로 백성의 삶을 살피고 자신의 행동에 책임지는 자세를 강조하였다. ④ 정약용이 강조한 목민관의 덕목은 공직자뿐만 아니라 모든 직업인이 갖추어야 할 태도와 마음가짐에 해당된다.

바로 알기 ① 정약용은 사욕을 따르기보다 공적인 기준에 따라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고 보았다. ② 회사의 이익만을 극대화하기보다 직업 활동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공적 책임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③ 사기업의 직업인도 자신의 업무에 책임을 지고 공적인 가치를 고려해야 한다. ⑤ 사기업에서 일하는 사람도 책임감을 가지고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며 자아를 실현할 수 있다.

06 목민관이 갖추어야 할 태도에 대한 정약용의 입장

제시된 글을 주장한 사상가는 정약용이다. 3, 4. 정약용에 따르면 목민관이 자신의 올바른 신념을 지키는 것, 백성에 대한 책임을 지는 태도를 유지하는 것, 이를 기반으로 한 성실한 직업 활동이 곧 자아실현으로 이어질 수 있다.

바로 알기 1. 정약용은 직업 활동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자신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는 것이 자아실현과 연결될 수 있다고 보았다. 2. 정약용은 사적인 이익과 물질적 욕망에 치우치지 않는 태도를 강조하였다.

✦ 이건 꼭 알기! **정약용이 강조한 목민관의 덕목**

- 사익과 사욕을 버리고 공적인 자세를 유지함 → **청렴**
- 몸과 마음을 바르게 닦고 이를 바탕으로 백성을 돌봄 → **수기치인**
- 부당한 지시에 굴하지 않고 자신의 원칙과 신념을 지킴 → **소신**
- 필요하다면 직을 내려놓을 수 있는 당당함을 지님 → **용기**

07 정약용과 프롬이 강조한 바람직한 직업 생활과 자아실현

갑은 정약용이고 을은 프롬이다. ① 정약용은 자신의 삶의 태도를 성찰하며 맡은 직분을 성실히 수행할 때 공동체에 기여하면서 자아실현도 이룰 수 있다고 보았다. ③, ④, ⑤ 프롬은 소유적 삶에서 벗어나 존재적 실존 양식의 관점에서 자신의 능력을 생산적으로 발휘할 때 정체성을 확립하고 진정한 자아실현에 이를 수 있다고 보았다.

바로 알기 ② 정약용은 자아실현과 공동체적 가치를 서로 배타적인 것으로 보지 않았으며, 자신의 직분을 성실히 수행하는 과정에서 개인의 덕을 실현하고 공동체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보았다.

08 정약용의 애민(愛民) 정신

제시된 글을 쓴 사상가는 정약용이다. ㄱ, ㄴ. 정약용은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애민 정신을 강조하였으며, 공동체의 관점에서 타인의 고통을 헤아리고 경제적 약자와 신분이 낮은 사람까지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보살펴야 한다고 보았다.

바로 알기 ㄷ. 정약용은 자신의 손익을 기준으로 타인의 고통을 판단하기보다 공동체의 관점에서 어려움을 헤아려야 한다고 보았다. ㄹ. 정약용은 신분의 높고 낮음에 따라 사람을 차별하기보다 신분이 낮은 사람도 존중하고 배려해야 한다고 보았다.

09 프롬이 바라본 타인과의 갈등 발생 원인

교사의 질문은 프롬이 바라본 타인과의 갈등 발생 원인을 묻고 있다. 병. 프롬은 소유를 지향하는 삶과 존재를 지향하는 삶처럼 서로 다른 가치관을 가질 수 있다고 보았다. 정. 프롬은 타인과의 관계를 소유적 관점에서 바라볼 때 더 많은 것을 차지하기 위해 서로를 경쟁자로 여기면서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았다.

바로 알기 갑. 프롬은 타인을 경쟁자로 규정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소유에 집착하여 타인을 경쟁자로 규정할 때 갈등이 발생한다고 보았다. 을. 프롬은 모든 사람이 소유 지향적 삶을 추구한다고 보지 않았으며, 소유 지향적 삶과 존재 지향적 삶의 차이가 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10 타인과의 조화로운 삶에 대한 공자와 프롬의 입장

갑은 공자, 을은 프롬이다. ① 공자가 바라본 대동 사회에서는 모든 사람이 존중받으며 서로 돌보고 함께 살아간다. ②, ③, ④ 프롬은 소유에 집착하는 태도에서 벗어나 타인을 존중하고 사랑하며 존재적 양식의 관점에서 관계를 맺어야 한다고 보았다.

바로 알기 ⑤ 프롬은 이해 충돌 자체가 없어야 한다고 본 것이 아니라, 갈등이 발생하더라도 타인을 존중하고 열린 태도로 이해를 조정해야 한다고 보았다.

11 프롬이 강조한 삶에 대한 사랑

프롬은 갈등 해결을 위해 사랑과 감수성을 키워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① 프롬은 인간에게 생명을 사랑하려는 욕구와 이를 파괴하려는 욕구가 공존하고 있다고 보았다. ② 프롬은 인간을 수동적으로 만드는 나쁜 욕망에서 벗어나 좋은 욕망을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④, ⑤ 좋은 욕망을 추구함으로써 인간 생명력과 감수성을 키울 수 있으며 이같은 자신에 대한 사랑을 바탕으로 타인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연대감을 형성할 수 있다고 보았다.

바로 알기 ③ 프롬은 자신에 대한 사랑을 멈추어야 한다고 보지 않았다. 그는 건강한 자기 사랑을 바탕으로 이기주의를 극복하고 타인과 공감하며 연대해야 한다고 보았다.

12 정약용과 프롬이 강조한 인간에 대한 사랑의 실천

갑은 정약용, 을은 프롬이다. ① 정약용은 자신의 형편을 따지며 베풂을 미루지 말고 일상에서 타인을 배려하고 나누는 삶을 실천해야 한다고 보았다. 프롬은 타인의 고통을 자신과 무관한 일로 여기지 말고 인간에 대한 사랑과 공감을 바탕으로 이기주의를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바로 알기 ② 두 사상가는 타인의 물질적 욕구를 충족하는 것 자체보다 인간에 대한 사랑과 배려를 실천하는 태도를 중시하였다. ③ 정약용은 경제적 여유가 생길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평소에도 기꺼이 베풀어야 한다고 보았다. ④ 프롬은 자신과 타인이 서로 무관한 독립적 존재가 아니라 공감하고 연대하며 살아가야 하는 존재라고 보았다. ⑤ 두 사상가는 갈등을 피하기 위해 자신의 의견을 숨기기보다 타인을 존중하고 조화로운 관계를 형성하는 태도를 중시하였다.

STEP 3 서술형 도전하기 116쪽

01 주제: 정약용이 강조한 목민관의 덕목

예시 답안 정약용은 목민관의 덕목으로 백성의 삶을 위해 사익을 버리는 청렴, 부당한 지시에 굴하지 않는 소신과 용기를 강조하였다.

채점 기준	
상	청렴, 소신(용기), 수기치인 중 두 가지 덕목을 정확하게 서술한 경우
하	청렴, 소신(용기), 수기치인 중 한 가지 덕목만을 서술한 경우

02 주제: 프롬이 비판한 소유 중심의 직업 인식

예시 답안 직업을 소유의 대상으로 인식하여 외적 조건을 중시하면 자신의 소비와 소유를 자신의 가치와 동일시하게 된다. 그러나 소유와 소비를 통해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려 할수록 오히려 그 대상에 얽매여 자신의 정체성을 잃게 된다.

채점 기준	
상	직업의 외적 조건과 소유·소비에 집착하게 되는 문제와, 그 결과 자신의 정체성을 잃게 된다는 점을 모두 정확하게 서술한 경우
하	소유·소비에 대한 집착 또는 정체성 상실의 문제 중 한 가지만 정확하게 서술한 경우

03 주제: 정약용이 강조한 수기치인과 직업적 자아실현

(1) 답 (가): 수기(修己), (나): 치인(治人)

(2) 예시 답안 정약용은 직업 활동에서 먼저 자신을 수양하는 수기를 실천하여 사욕을 절제하고 공적인 자세를 갖추어야 한다고 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백성의 삶을 돌보고 이롭게 하는 치인을 실천함으로써 공직자로서 자신의 가치를 실현하고 자아실현에 이를 수 있다고 보았다.

채점 기준	
상	세 가지 핵심어를 모두 포함하여 정약용이 수기와 치인을 중요하게 여긴 이유를 정확하게 서술한 경우
중	세 가지 핵심어 중 두 가지를 포함하여 정약용이 수기와 치인을 중요하게 여긴 이유를 서술한 경우
하	세 가지 핵심어 중 한 가지만 활용하여 정약용이 수기와 치인을 중요하게 여긴 이유를 서술한 경우

04 주제: 프롬이 강조한 삶에 대한 사랑의 회복

(1) 답 프롬

(2) 예시 답안 프롬은 삶에 대한 사랑을 잃으면 인간이 전쟁과 파괴에 무감각해지고, 개인과 사회가 파괴로 나아갈 수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프롬에 따르면 삶 자체를 소중히 여기고 생명에 대한 감수성과 활력을 회복하여 파괴적인 태도에서 벗어나야 하기 때문에 삶에 대한 사랑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채점 기준	
상	삶에 대한 사랑의 회복이 인간과 사회의 지속을 위해 필요한 이유를 정확하게 서술한 경우
중	삶에 대한 사랑의 회복이 인간과 사회의 지속에 필요하다는 점을 서술하고, 그 이유를 일부 제시한 경우
하	삶에 대한 사랑의 회복이 필요하다는 점만 언급하고, 그 이유를 서술하지 못한 경우

05 주제: 프롬의 소유적 실존 양식과 존재적 실존 양식

예시 답안 윗글은 현대사회에서 인간이 소비와 소유를 통해 자신의 존재를 규정하려는 태도가 만연함을 보여 준다. 이에 대해 프롬은 인간의 참된 실존은 소유가 아니라 존재에 있으며, 소비와 소유에 집착하는 소유적 실존에서 벗어나 존재적 실존을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할 것이다.

채점 기준	
상	글의 핵심 내용을 정리하고, 핵심어를 모두 포함하여 소유가 아닌 존재에 참된 실존의 의미가 있음을 밝히는 프롬의 입장을 정확하게 서술한 경우
중	글의 핵심 내용을 정리하고, 세 가지 핵심어 중 두 가지 핵심어를 포함하여 소유가 아닌 존재에 참된 실존의 의미가 있음을 밝히는 프롬의 입장을 서술한 경우
하	세 가지 핵심어 중 한 가지 핵심어를 포함하여 존재와 실존의 관계에 대한 프롬의 입장을 서술한 경우

STEP 4 1등급 정복하기 117쪽

01 ① **02** ②

01 정약용의 직업관

자료 분석

핵심 정약용은 목민관이 업무를 시작하기에 앞서 자신의 마음가짐을 바로잡고, 맡은 일을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어.

(가) 날이 밝기 전에 일어나 세수를 한 뒤, 옷을 단정히 갖추어 입고 띠를 매고 바르게 앉아 조용히 마음을 가다듬는다. 생각을 정리하여 오늘 해야 할 일의 순서를 정하고, 가장 먼저 처리할 공문과 다음에 내릴 명령을 마음속에 분명히 한다. 첫 번째 일의 처리 방법을 검토하고 다음 일의 방법을 차례로 생각하되, 사욕을 끊고 오로지 천리를 따르도록 힘쓴다.

정약용

정약용은 개인의 이익보다 공적인 기준을 우선하는 목민관의 청렴한 태도를 강조하였어.

(가)를 주장한 사상가는 정약용이다. (나)의 가로 낱말 (A)는 '자율성', 가로 낱말 (B)는 '고아', 가로 낱말 (C)는 '실존 양식'이므로 세로 낱말 (A)는 '자아실현'이다. 정약용은 직업 활동은 자신의 직분을 성실하게 수행하고 맡은 역할에 책임을 다하는 과정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정약용에 따르면 직업을 선택하고 수행할 때에는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과 책임이 무엇인지 살피고,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려는 태도가 중요하다. 이러한 직업 활동은 개인의 삶을 안정시키는 데 그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삶과 공동체의 발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① 정약용에 따르면 직업 활동은 단순한 생계 수단을 넘어 자신의 능력과 가치를 실현하고 사회 발전에도 기여하는 과정이 될 수 있다.

바로 알기 ② 정약용은 상사의 부당한 지시에 굴하지 않고 자신의 신념과 소신을 지켜야 한다고 보았다. ③ 정약용은 공적인 자세를 견지하기 위해 사적인 욕심과 이익을 버릴 수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 ④ 정약용은 죄수와 같은 어려운 처지의 사람에게도 연민과 배려를 보여야 한다고 보았다. ⑤ 정약용은 자신을 수양하는 수기를 바탕으로 백성을 돌보는 치인을 실천해야 한다고 보았다.

02 프롬이 강조하는 존재적 실존 양식의 관점

자료 분석

- 존재적 실존 양식은 독립성과 자유, 비판적 이성을 전제로 하며, 인간의 능동성을 통해 자신의 잠재력을 생산적으로 발현하는 삶을 의미한다. 이는 자기를 성장시키고 타인과 관계 맺으며 자기중심성을 넘어서는 경험으로 나타나지만, 이러한 체험은 언어로 완전히 설명될 수 없다.
- 최소한의 사랑마저 잃은 사람은 무너지거나 스스로를 파괴하며, 희망을 잃은 채 중독에 빠지기도 한다. 삶에 대한 사랑이 사라지고 파괴성만 남은 사회도 몰락으로 치닫는다.

프롬은 소유에 집착하지 않고 자신의 능력을 능동적으로 펼치는 존재적 실존 양식을 강조하였어.

제시된 글을 주장한 사상가는 프롬이다. ㄴ. 프롬은 현대사회의 위기를 소유 중심의 삶과 삶에 대한 사랑의 결핍에서 찾고 소유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 자신의 잠재력을 능동적으로 발현하는 존재적 실존 양식을 강조하였다. ㄷ. 프롬의 입장에서는 삶에 대한 사랑이란 생명을 존중하고 긍정하며, 인간의 생명과 성장에 관심을 기울이는 태도이다. 따라서 타인의 죽음이나 고통에 무관심한 것은 생명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태도로서, 삶에 대한 사랑이 결여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바로 알기 ㄱ. 프롬은 건강한 자기 사랑을 바탕으로 자기중심적인 이기주의를 극복하고 타인과 공감하며 연대할 수 있다고 보았다. ㄹ. 프롬은 현대사회에서 인간이 소유의 도구로 전락하는 현상을 비판하며 경제보다 인간을 우선해야 한다고 보았다.

판서로 보는 고난도 개념 프롬이 바라본 현대사회의 문제와 해결 방향

구분	문제	해결 방향
소유 중심의 삶	소유와 소비에 집착하며 자신과 타인을 소유의 관점에서 바라봄	소유욕을 절제하고 존재적 실존 양식을 지향함
이기주의	타인의 고통과 죽음을 자신과 무관한 일로 여김	건강한 자기 사랑을 바탕으로 타인과 공감하고 연대함
삶에 대한 사랑의 결핍	무력감과 파괴성이 커져 개인과 사회가 위기에 처함	삶 자체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태도를 회복함

02 인간과 자연이 어떻게 상생할 수 있을까?

STEP 1 핵심 개념 확인하기 122쪽

01 (1) ○ (2) × (3) ○ **02** (1) ㄷ (2) ㄱ (3) ㄴ **03** (1) ㉡ (2) ㉢ (3) ㉠ **04** (1) 이분법적 (2) 생태 **05** ① **06** ① **07** ④ **08** ⑤

01 기후 위기의 실태

(2) 현재 지구상의 공기와 바다는 이미 무분별한 화학 물질의 사용으로 인해 오염되었다.

05 기후 위기의 원인

인간의 사상과 태도는 기후 위기의 원인이 될 수 있다. ②, ④ 인간이 자연을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다고 보는 인간 중심적 관점은 생태계의 자정력을 약화시키고 환경 파괴를 심화하는 원인이 된다. ③, ⑤ 기후 위기는 화석 연료의 지속적인 사용과 자연에 대한 과도한 개발, 그리고 기술 발전에 비해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 데에서 비롯될 수 있다.

바로 알기 ① 기후 위기의 원인은 경제 발전을 고려하지 않은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 이익과 발전을 지나치게 우선하여 자연을 무분별하게 개발한 데에서 찾을 수 있다.

06 노자가 강조한 지속 가능한 삶의 태도

ㄱ. 노자는 인간의 지나친 욕심과 인위적 개입을 경계하고 자연의 순리에 따르는 소박한 삶을 강조하였다. ㄴ. 또한 명예와 재물을 지나치게 탐하거나 축적하기보다 만족할 줄 알고 멈출 줄 아는 절제의 태도를 지녀야 한다고 보았다.

바로 알기 ㄷ. 노자는 만족하고 멈출 줄 아는 태도가 위태로움을 피하고 지속 가능한 삶을 가능하게 한다고 보았다. ㄹ. 노자는 도를 극복해야 한다고 보지 않았으며, 인간이 도와 자연의 흐름을 따르는 무위자연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07 인간과 자연의 상생에 대한 사상가들의 관점

장자는 도의 관점에서 인간과 자연을 비롯한 만물을 우열로 구분하는 태도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보았으며 카슨은 인간과 자연이 생태계의 연결망 속에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고 강조하였다. ④ 레오폴드는 인간을 생명 공동체의 한 구성원으로 보고 생명 공동체의 통합성과 안정성 그리고 아름다움을 보전하는 행위를 옳다고 보았다.

바로 알기 ① 장자는 도의 관점에서 모든 존재를 우열로 구분할 수 없다고 보았다. ② 카슨은 생명체를 위계적으로 구분하기보다 생태계 속에서 서로 연결된 존재로 바라보았다. ③ 카슨은 인간의 건강이 자연환경의 상태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보았다. ⑤ 장자는 인간 중심의 분별과 차별에서 벗어나 만물을 함께 살아가는 존재로 바라보아야 한다고 보았다.

08 인간과 자연의 상생을 위한 개인적 실천 방법

①, ② 자연과의 상생을 위해 인간은 친환경적 소비와 자원 순환을 실천해야 한다. ③ 생물과의 교감 등을 통해 생태 감수성을 늘려야 한다. ④ 생활 속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것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바로 알기 ⑤ 생활 지역에서 가까운 곳에서 생산된 먹거리를 소비해야 운송과 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다.

STEP 2 내신 만점 공략하기 123~125쪽

01 ② **02** ⑤ **03** ⑤ **04** ② **05** ③ **06** ⑤ **07** ④ **08** ⑤ **09** ① **10** ② **11** ② **12** ⑤

01 지구 온난화로 나타나는 기후와 생태계의 변화

세계 곳곳에서는 이미 기후 변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갑. 극지방의 빙하가 감소하면서 해수면의 온도가 올라감과 동시에 생물종이 감소하고 있다. 병. 지구 온난화가 심해지면서 폭염과 산불이 더욱 자주 발생하게 되었다.

바로 알기 을. 지구 온난화의 가속화로 해수면의 온도가 상승하여 엘니뇨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정. 열대림과 숲의 면적은 점점 줄어들어 사막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02 생태계 보전을 위해 카슨이 강조한 인간의 태도

그림의 사상가는 카슨이다. 카슨은 인간이 자연을 마음대로 통제하고 이용할 수 있다는 인간 중심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자연과의 상생을 도모하기 위해 화학 물질의 위험성에 대해 인지하고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또한 생태계의 연결성과 균형을 존중해야 한다고 보았다. 카슨은 인간이 자연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태도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보았으므로, ⑤의 질문에 긍정의 대답을 할 것이다.

바로 알기 ① 카슨은 인간이 자연을 완벽하게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다고 보지 않았다. ② 카슨은 살충제가 먹이 사슬을 통해 다양한 생물과 인간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았다. ③ 카슨은 첨단 과학기술에만 의존하기보다 화학 물질의 위험성을 점검하고 인간의 과도한 자연 개입을 줄여야 한다고 보았다. ④ 카슨은 생태계의 균형을 지키기 위한 인간의 책임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므로 미래 세대의 희생을 주장하지 않았다.

03 카슨이 비판한 화학 물질의 무분별한 사용

제시된 글을 주장한 사상가는 카슨이다. ⑤ 카슨은 해충 제거를 위해 사용한 화학 물질이 익충과 다른 생물까지 해치고 토양과 생태계를 오염시키며 그 피해가 먹이 사슬을 거쳐 인간에게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인간의 편의를 위한 무분별한 화학 물질 사용이 생태계 전체에 연쇄적인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경고하였다.

바로 알기 ① 카슨은 실생활에 편의를 준다는 이유만으로 화학 제품의 사용을 정당화할 수 있다고 보지 않았다. ② 카슨은 새로운 기술 개발 자체보다 화학 물질의 위험성을 점검하고 더 안전한 물질과 비화학적 방제 방법을 활용해야 한다고 보았다. ③ 카슨은 잡초와 해충 자체가 아니라 이를 제거하기 위해 무분별하게 사용한 화학 물질이 토양과 생태계를 오염시킨다고 보았다. ④ 카슨은 자연에 가한 피해가 생태계의 연결망을 통해 인간에게도 되돌아올 수 있다고 보았다.

04 카슨과 굴슨이 강조한 환경 위기에 대한 인간의 인식 전환

자료 분석

갑(카슨): 1900년대를 전후하여 북극의 기후는 빠르게 따뜻해지기 시작했고, 그에 따라 빙하의 규모도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빙하가 감소하고 있다는 사실은 기후가 점차 온난화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을(굴슨): 곤충은 꽃가루받이와 유기물 분해에 관여하고, 다른 생물의 먹이가 되면서 생태계의 순환과 균형을 유지한다. 따라서 곤충의 수가 급격히 줄어들면 먹이망이 흔들리고 생태계가 제 기능을 유지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

└ 굴슨은 자연을 인간의 필요를 위한 수단으로만 바라보는 태도가 생태계의 기반을 위협할 수 있음을 지적하였어.

갑은 카슨, 을은 굴슨이다. ㄱ. 두 사상가는 자연을 인간과 분리하거나 지배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태도에서 벗어나 자연 파괴의 심각성을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ㄷ. 카슨은 인간이 살충제 등을 사용하면서 자연 파괴와 생물의 죽음을 초래하면서도 그 위험성과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하였고, 굴슨도 인간이 해충이라고 부르는 존재들이 자연과 인간의 삶에 필요한 존재임을 인식하지 못한다고 보았다.

바로 알기 ㄴ. 두 사상가는 자연의 질서가 인간의 삶을 결정하기 때문에 환경 위기가 발생한다고 보지 않았으며, 인간의 자연 지배와 파괴적 개입을 문제로 보았다. ㄹ. 굴슨은 곤충이 생태계의 순환과 균형을 유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무분별하게 제거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다.

05 도가와 불교에서 강조한 인간과 자연의 상호 의존적 관계

갑은 노자, 을은 불교 사상가의 입장이다. ③ 노자는 인간의 인위적 개입을 줄이고 자연의 흐름과 질서에 따르는 삶을 강조하였으며, 불교에서는 모든 존재가 수많은 조건과 관계 속에서 서로 의존하며 존재한다고 보았다. 두 사상가는 인간을 자연과 분리된 존재로 보지 않고 자연과의 조화로운 관계를 중시하였다.

바로 알기 ① 노자는 만물이 인간의 개입이 아니라 도의 자연스러운 흐름에 따라 스스로 생성되고 변화한다고 보았다. ② 노자의 무위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인위적으로 억지로 개입하지 않고 자연의 흐름에 따르는 태도를 의미한다. ④ 두 사상가는 자연을 인간이 통제하고 관리해야 할 대상으로 보지 않았다. ⑤ 불교에서는 종이가 자연 요소뿐만 아니라 인간의 노동과 활동을 포함한 다양한 조건의 상호 의존을 통해 만들어진다고 보았다.

✦ 이건 꼭 알기! 자연과의 상생에 대한 노자의 입장

- 인간의 지나친 욕심과 인위적 개입을 줄이고 자연의 순리에 따라 살아야 함 → **무위자연**
- 명예와 재물을 지나치게 탐하지 않고 만족할 줄 알며 멈출 줄 알아야 함 → **절제**
- 물처럼 만물을 이롭게 하면서도 다투지 않고 낮은 곳에 머무는 태도를 지향해야 함 → **상선약수**

06 기후 위기와 사회적 불평등

⑤ 제시된 칼럼은 기후 변화에 대한 책임과 피해가 사회 구성원에게 공평하게 분배되지 않는 현실을 보여 준다. 즉 탄소세 부담과 기후 위기의 피해가 소득 수준과 사회적 취약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 주며, 기후 위기의 영향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사회적 불평등은 기후 위기의 피해를 심화시킬 수 있다.

바로 알기 ① 제시된 칼럼은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에게 더 많은 탄소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방안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탄소세 부담과 기후 피해가 계층에 따라 불평등하게 나타날 수 있음을 지적한다. ② 탄소세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정책 시행 과정에서 계층 간 부담의 불평등을 고려해야 함을 보여 준다. ③ 교육 수준과 경제 수준의 차이를 기후 위기의 근본 원인으로 제시하지 않았다. ④ 기후 위기의 불평등을 극복하려면 모든 집단의 피해 수준을 동일하게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에게 집중되는 피해와 부담을 줄여야 한다.

07 동서양 사상가들이 강조한 인간과 자연의 상생을 위한 태도

노자는 인간의 욕망과 인위적인 개입을 줄이고 자연의 순리에 따르는 무위의 삶을 강조하였다. 장자는 인간의 고정된 분별에서 벗어나 만물을 도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태도를 강조하였다. 카슨은 자연을 인간의 필요를 충족하기 위한 대상으로만 바라보지 않고 생태계의 연결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 노자는 인간의 지나친 욕망과 인위적 개입을 절제하고 자연의 흐름에 따르는 무위의 삶을 강조하였다. ㉢ 장자는 인간 중심의 분별에서 벗어나 도의 관점에서 만물을 차별 없이 바라보아야 한다고 보았다. ㉣ 카슨은 인간이 과학기술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생태계의 연결성과 균형을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바로 알기 ㉤ 카슨은 과학기술을 충분히 발전시켜 자연을 지배해야 한다고 보지 않았다. 오히려 인간이 자연을 통제할 수 있다는 생각과 과도한 개입을 비판하고 자연의 견제와 균형을 존중해야 한다고 보았다.

08 레오폴드의 대지 윤리에 따른 생명 공동체의 보전

제시된 글을 주장한 사상가는 레오폴드이다. 레오폴드는 인간을 자연의 정복자가 아니라 토양·물·식물·동물과 함께 살아가는 생명 공동체의 한 구성원으로 보았다. ⑤ 레오폴드는 윤리적 고려의 범위를 생명 공동체 전체로 확장하고 그 통합성·안정성·아름다움을 보전에 이바지하는 행위가 옳은 행위라고 주장하였다.

바로 알기 ① 레오폴드는 인간이 자연을 지배해야 한다고 보지 않고 생명 공동체의 한 구성원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보았다. ② 레오폴드는 자연뿐만 아니라 인간을 포함한 생명 공동체 전체를 존중해야 한다고 보았다. ③ 레오폴드는 기존 윤리가 주로 인간과 인간의 관계에 한정되어 있었다고 비판하며 윤리의 범위를 자연으로 확장해야 한다고 보았다. ④ 대지 윤리는 토양을 세계의 주인으로 삼는 이론이 아니라 인간을 포함한 생명 공동체 전체를 윤리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09 카슨이 강조한 인간과 자연의 상생을 위한 태도

제시된 글을 주장한 사상가는 카슨이다. 1. 카슨은 인간의 오만함과 자연을 지배하려는 태도에서 벗어나 자연의 견제와 균형을 존중해야 한다고 보았다. 2. 카슨은 자연이 서로 긴밀하게 연결된 생태계를 이루고 있으며 오염 물질은 이 연결망에 연쇄적인 피해를 줄 수 있다고 보았다.

바로 알기 3. 카슨은 인간이 자연과 생태계에 큰 영향을 끼친다는 점에서 많은 책임과 의무를 지닌다고 보았다. 4. 카슨에 따르면 인간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연과의 상생을 고려하여 자원을 개발하고 자연에 끼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한다.

10 카슨이 강조한 화학 물질의 위험에 대한 인식과 책임

제시된 글을 주장한 사상가는 카슨이다. ㄱ. 카슨은 화학 물질이 의도한 대상뿐만 아니라 다양한 생명체와 생태계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그 위험성을 정확히 알고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ㄷ. 카슨은 화학 물질의 안전성과 위험성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생태계에 미칠 영향을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바로 알기 ㄴ. 카슨은 환경 문제의 위험을 과학적 지식을 통해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 결과를 사회에 알려야 한다고 보았다. ㄹ. 카슨은 비화학적 방법을 활용하는 등 해충을 조절하는 새로운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보았다.

11 인간과 자연의 상생을 위한 개인적·사회적 실천

자연과 인간의 상생을 위해 ㉠, ㉤ 개인은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친환경적 소비와 탄소 배출 감축을 실천해야 하며 ㉡, ㉣ 국가와 국제 사회는 환경 보호를 위한 법과 제도를 마련하고 기후 위기 해결을 위해 협력해야 한다.

바로 알기 ㉡ 자연 분해가 불가능한 상품보다 자연 분해가 가능한 친환경적 상품을 이용하여 환경 오염을 줄여야 한다.

12 요나스가 강조한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

제시된 글을 주장한 사상가는 요나스이다. 요나스에 따르면 현재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을 자발적, 비호혜적, 무조건적으로 감당해야 한다. ⑤ 요나스는 현재 세대의 행위가 미래 세대의 삶과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아직 태어나지 않은 미래 세대의 권리와 삶의 조건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다.

바로 알기 ① 요나스는 현재 세대의 행위가 미래 세대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았다. ②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은 관광객 수나 경제적 이익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살아갈 환경과 삶의 조건을 보전하는 데 있다. ③ 요나스는 단기적 이익이 언제나 장기적 손해로 이어진다고 보지 않았으며 행위가 초래할 미래의 결과를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다. ④ 요나스는 모든 인위적 개입을 금지한 것이 아니라 미래 세대의 생존과 삶의 조건을 위협할 수 있는 행위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았다.

STEP 3 서술형 도전하기 126쪽

01 주제: 기후 위기의 원인이 되는 인간 중심적 자연관

예시 답안 이분법적 세계관은 인간과 자연을 분리하여 인간을 인식의 주체, 자연을 인식과 이용의 대상으로 보는 관점이다. 도구적 자연관은 자연을 인간의 생존과 풍요를 위한 수단으로 보고, 인간의 필요와 목적에 따라 이용하고자 하는 관점이다.

채점 기준	
상	이분법적 세계관과 도구적 자연관의 의미를 모두 정확하게 서술한 경우
하	두 관점 중 한 가지의 의미만 서술한 경우

02 주제: 노자가 강조한 자연관과 무위자연의 태도

예시 답안 노자는 자연이 인위적인 개입 없이 스스로의 질서에 따라 운행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인간은 지나친 욕심과 자연에 대한 인위적 개입을 줄이고, 자연의 순리를 따르는 무위자연의 태도로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야 한다.

채점 기준	
상	자연의 자율적 질서와 욕심·인위적 개입의 절제 및 무위자연의 태도를 모두 정확하게 서술한 경우
하	노자의 자연관 또는 자연과 상생하기 위한 인간의 태도 중 한 가지만 정확하게 서술한 경우

03 주제: 카슨이 비판한 인간 중심적 태도

(1) 예시 답안 해충을 없애기 위해 살충제를 무분별하게 사용하면 생태계의 먹이 사슬과 생태계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채점 기준	
상	화학 제품의 사용이 생태계의 먹이 사슬에 의해 생태계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내용을 정확하게 서술한 경우
하	화학 제품의 사용이 생태계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만 서술한 경우

(2) 예시 답안 인간이 자연을 통제의 대상으로 여기고, 자신의 이익을 우선하는 선택을 하기 때문

채점 기준	
상	핵심어를 모두 포함하여 (가)에 들어갈 내용을 정확하게 서술한 경우
중	핵심어를 일부 포함하여 (가)에 들어갈 내용을 서술한 경우
하	핵심어를 하나도 포함하지 않고 '인간은 어리석기 때문이다.' 등과 같이 서술한 경우

04 주제: 노자가 강조한 인간과 자연의 상생

(1) 답 상선약수

(2) 예시 답안 노자에 따르면 물과 같은 태도는 만물을 이롭게 하면서도 다투지 않는 태도이므로, 인간이 자연을 지배하거나 훼손하려는 욕심을 줄이고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도록 한다. 이를 통해 인간과 자연의 상생을 실현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채점 기준	
상	상선약수의 태도가 인간의 자연 지배와 훼손을 줄여 자연과 조화롭게 공존하게 한다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서술한 경우
하	상선약수의 태도가 자연과의 상생에 도움이 된다는 점만 서술한 경우

05 주제: 자연을 통제하려는 인간의 태도에 대한 카슨의 입장

예시 답안 (가)의 관점에서 볼 때, (나)의 선택은 화학 물질을 이용해 자연을 인위적으로 통제하려는 태도라는 점에서 비판받을 수 있다. 특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화학 물질을 사용하더라도 예상하지 못한 생태계의 교란과 피해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인간은 화학 물질이 생태계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여 신중하게 행동해야 한다.

채점 기준	
상	화학 물질을 통한 자연 통제를 비판하고 생태계의 상호 연관성으로 인해 예상하지 못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구체적으로 서술한 경우
중	화학 물질을 통한 자연 통제를 비판하고 생태계에 예상하지 못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서술한 경우
하	화학 물질을 이용한 자연 통제가 문제라는 점만 서술한 경우

STEP 4 1등급 정복하기 127쪽

01 ③ **02** ①

01 자연과 인간의 상생에 대한 노자와 카슨의 입장

자료 분석

카슨은 과학적 지식을 활용하되 생태계의 안전과 영향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어.

갑(카슨): 살충제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더 안전한 화학 물질, 특히 자연에서 추출한 성분을 활용하여 위험을 줄여야 하며, 시중에 유통되는 화학 물질의 위험성과 안전성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다. 나아가 저위험 농약 개발과 비화학적 방제 방법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을(노자): 도는 언제나 이름이 없고 자연 그대로 소박하다. 작아 보이지만 세상에서 이를 지배할 수 있는 것은 없다. 하늘과 땅이 조화를 이루면 단 이슬이 내리고, 백성들은 스스로 고르게 다스려진다.

노자는 인간의 인위적 개입을 절제하고 자연의 질서에 따르는 무위자연을 강조하였어.

갑은 카슨, 을은 노자이다. ㄴ. 카슨은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화학 물질의 위험성을 과학적으로 파악하고 안전성 교육과 대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았다. 반면 노자는 무위를 강조하며 인위적인 교육이나 지식의 확대를 강조하지 않았다. ㄷ. 카슨에 따르면 인간이 자연을 이용하여 단기적인 이익을 보려는 태도는 지양해야 하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인간과 자연의 상생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바로 알기 ㄱ. 카슨은 자연을 통제하려는 인간의 태도를 비판하였고, 노자는 지나친 욕망과 인위적 개입을 경계하였다. ㄹ. 노자에 따르면 무위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자연의 순리에 따르는 것이다.

판서로 보는 고난도 개념 자연과의 상생에 대한 카슨과 노자의 입장

구분	카슨	노자
문제 원인	무분별한 화학 물질 사용과 자연 통제	지나친 욕심과 인위적 개입
해결 방법	위험성 검토·교육과 안전한 대안 모색	무위자연과 욕망의 절제
자연에 대한 태도	생태계의 연결성과 균형을 존중함	자연의 자율적 질서와 흐름을 따름
공통점	인간 중심의 과도한 자연 개입을 경계하고 자연과의 상생을 추구함	

02 카슨이 강조한 자연에 대한 인간의 책임

제시된 글을 주장한 사상가는 카슨이다. 카슨은 생태계의 모든 존재가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인간의 과도한 개입이 자연의 견제와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보았다. 또한 환경 오염 물질은 생물의 세포와 조직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인간은 자신의 행위가 자연에 미칠 결과를 완전히 예측할 수 없다고 보았다. 학생은 (1)과 (2)만 옳게 판단하였으므로 총 3.5점을 받는다.

바로 알기 (1) 카슨은 해충을 제거하기 위해 생태계를 희생하기보다, 자연의 견제와 균형을 존중하고 인간의 개입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보았다. (4) 카슨은 인간의 개입은 예상하지 못한 생태계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그 영향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다.

V단원 실력 굳히기 130~133쪽

01 ④ **02** ⑤ **03** ③ **04** ⑤ **05** ④ **06** ⑤ **07** ②
08 ④ **09** ③ **10** ④ **11** ③ **12** ② **13** ④ **14** ③
15 해설 참조 **16** 무위자연(無爲自然)
17 (1) 화학 물질(제품) (2) 해설 참조

01 직업이 갖추어야 할 조건

㉠ 직업의 조건 중 계속성에 대한 설명이다. ㉡ 직업의 조건 중 경제성에 대한 설명이다. ㉢ 직업의 조건 중 사회성에 대한 설명이다. ㉣ 직업의 조건 중 자율성에 대한 설명이다.

바로 알기 ㉤ 직업의 조건 가운데 하나인 윤리성에 어긋난다. 직업은 생계 유지를 위한 활동이라도 비도덕적이거나 반사회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02 정약용이 강조한 공직자의 바람직한 업무 태도

제시된 글을 주장한 사상가는 정약용이다. ⑤ 정약용은 관리가 사사로운 이익을 경계하고 자신을 엄격히 다스리며, 공적인 원칙과 올바른 도리에 따라 맡은 일을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고 보았다.

바로 알기 ① 정약용은 업무를 처리하기 전에 일의 순서와 방법을 미리 살펴야 한다고 보았다. ② 정약용은 상관의 명령이라도 공적인 원칙에 어긋난다면 무조건 따라서는 안 된다고 보았다. ③ 정약용은 높은 지위와 명예보다 맡은 직분에 충실하고 공적인 자세를 지키는 것을 중시하였다. ④ 정약용은 결과만이 아니라 업무를 판단하고 수행하는 과정에서도 올바른 원칙과 도리를 지켜야 한다고 보았다.

03 자아실현을 중시하는 직업 선택

그림의 학생은 직업을 통해 자신의 능력과 가능성을 발견하고 성취감과 자부심을 느끼며 성장하는 삶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③ 이는 직업 활동의 의미를 단순한 생계 수단을 넘어 자신의 잠재 능력과 존재 가치를 실현하는 자아실현의 과정으로 바라보는 입장이다.

04 존재 양식에 따라 달라지는 삶의 지향점

갑은 소유적 양식, 을은 존재적 양식을 중시하는 입장이다. 소유 양식은 지식과 성과를 축적하고 자신의 것으로 확보하는 데 가치를 두는 반면 존재 양식은 경험을 통해 배우고 변화하며 타인과 열린 관계를 맺는 과정을 중시한다. ⑤ 을은 갑에게 지식이나 자신의 생각을 소유하려는 데 집착하여 다른 사람의 의견을 열린 태도로 받아들이지 못할 수 있다고 비판할 수 있다.

바로 알기 ①, ② 소유와 성과에 집착하여 삶의 의미나 변화의 과정을 놓친다는 비판은 을이 갑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이다. ③, ④ 경험과 변화의 과정만을 중시하여 객관적 성취나 구체적인 결과를 소홀히 할 수 있다는 비판은 갑이 을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이다.

05 정약용이 강조한 수기치인의 의미

(가) 사상가는 정약용이다. ④ 정약용의 관점에서 볼 때, (나) 영화 속 관료들의 행동은 국민과 공동체의 이익보다 다른 가치를 앞세운 것으로, 수기치인에 부합하지 않는다. 따라서 정약용은 국민과 공동체의 이익을 고려해야 한다고 볼 것이다.

바로 알기 ① 공동체에 이바지해야 한다는 정약용의 입장에 부합하지 않는다. ② 정약용에 따르면 공직자는 국가의 이익을 고려하여 사건의 실상을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정약용은 공동체의 이익과 권리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⑤ 수기는 사적인 욕심을 절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를 바탕으로 자신의 직분을 다하고 공동체에 이바지하는 치인으로 이어져야 한다.

✦ 이건 꼭 암기! **정약용이 강조한 수기치인**
- 사사로운 욕심을 절제하고 자신의 몸과 마음을 바르게 닦음 → **수기(修己)**
- 수기를 바탕으로 다른 사람을 돌보고 공동체에 이바지함 → **치인(治人)**

06 정약용의 애민 정신

제시된 글을 주장한 사상가는 정약용이다. ㄷ. 정약용은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지 않고 공동체의 관점에서 어려운 사람의 고통을 살펴야 한다고 보았다. ㄹ. 사궁과 같이 의지할 곳 없는 사람도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보살펴야 한다고 보았다.

바로 알기 ㄱ. 정약용은 부당한 상황을 바로잡고 자신의 원칙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고 보았다. ㄴ. 정약용은 백성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재화를 공정하게 나누는 것을 중시하였다.

07 정약용과 프롬이 바라본 바람직한 삶

갑은 정약용, 을은 프롬이다. ② 프롬은 모든 시민이 공공복리에 관심을 가지며 참여하는 존재 지향적 사회를 추구해야 한다고 보았다. 정약용은 가진 것을 나누고 덕을 실천하는 목민관의 태도를 강조하였지만 모든 사람이 공적인 일에 직접 참여해야 한다고 보지는 않았다.

바로 알기 ① 프롬도 타인에게 관심을 가지고 공감과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고 보았다. ③ 프롬은 재물을 많이 소유하는 것이 가치 있는 삶을 보장한다고 보지 않았다. ④ 프롬은 건강한 자기 사랑을 바탕으로 이기주의를 극복하고 타인에 대한 사랑과 연대로 나아가야 한다고 보았다. ⑤ 정약용은 자신의 이익에만 머무르지 않고 타인을 배려하며 나눔과 베풂을 실천해야 한다고 보았다.

08 기후 변화로 나타나는 생태계의 변화

제시된 글은 기후 변화로 인해 세계 곳곳의 자연환경과 생태계에 다양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 준다. ①, ③, ⑤ 지구 온난화가 지속되면서 빙하와 해빙이 감소하고 해수면 온도가 상승하며 폭염과 산불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 ② 열대림의 축소와 야생 동물 개체군의 감소 등 생태계의 변화도 나타나고 있다.

바로 알기 ④ 지구 온난화와 산불 및 사막화 등의 영향으로 아마존과 동남아시아의 열대림은 확대되는 것이 아니라 축소되는 경향이 나타난다.

09 인간 중심적 자연관과 생태 중심적 자연관의 비교

갑은 인간 중심적·도구적 자연관, 을은 생태 중심적 자연관을 지닌다. ㄴ, ㄷ. 갑은 자연을 인간의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보고 인간이 자연을 인식하고 관리할 수 있다고 본다. 한편 을은 인간과 자연의 상호 의존성을 강조하며 인간의 이익뿐만 아니라 생태계의 균형과 지속 가능성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본다.

바로 알기 ㄱ. 갑과 을 모두 인간이 자연과 자원에 의존하며 살아야 한다고 본다. ㄹ. 을은 인간과 자연의 상호 의존성을 강조하지만, 자연이 인간보다 우월한 존재라고 인식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10 기후 정의가 필요한 이유

제시된 글은 기후 변화에 대한 책임과 그로 인한 피해가 공평하게 분배되지 않는 현실에서 기후 정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④ 개발 도상국과 사회적 약자가 오히려 더 큰 피해와 부담을 떠안을 수 있으므로 이를 공정하게 조정하기 위해 기후 정의를 실현해야 한다.

바로 알기 ① 기후 위기의 피해는 계층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며 사회적 약자가 더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 ② 기후 정의는 모든 국가의 대응 능력을 동일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책임과 피해 및 대응 부담을 공정하게 나누는 것을 의미한다. ③ 온실가스는 일반적으로 개발 도상국보다 선진국이 더 많이 배출해 왔다. ⑤ 미래 세대도 살아갈 환경과 삶의 조건에 관한 권리를 고려해야 한다.

11 노자가 강조한 무위자연과 상선약수의 태도

제시된 글을 주장한 사상가는 노자이다. 3. 노자는 인간의 인위적 욕망과 자연에 대한 억지스러운 개입을 줄이고 자연의 질서를 따르는 무위자연의 삶을 강조하였다. 4. 노자는 물처럼 만물을 이롭게 하면서도 다투지 않는 상선약수의 태도를 이상적으로 보았다.

바로 알기 1. 노자가 강조한 무위자연에 따르면 자연을 지배하거나 통제하려는 인위적인 욕망을 줄여야 한다. 2. 노자는 인간과 자연은 도의 질서 속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기에 우열을 가리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보았다.

12 자연에 대한 무분별한 개입을 경계하는 태도

제시된 글을 주장한 사람은 자연에 대한 인간의 무분별한 개입을 경계하는 입장을 취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A는 살충제를 살포하기 전에 주변 생명체와 환경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검토하고 신중하게 사용해야 한다. 인간의 편의를 위한 개입이 생태계 전체에 예상하지 못한 피해를 일으키고 결국 인간에게도 되돌아올 수 있기 때문이다.

바로 알기 ① 살충제 사용 여부를 경제적 이익만으로 결정해서는 안 되며 생태계 전체에 미칠 영향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③ 환경 문제가 발생한 뒤 기술로 해결하려 하기보다 사전에 위험성을 충분히 검토하고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 ④ 인간에게 이익이 된다는 이유만으로 자연에 대한 피해를 정당화해서는 안 된다. ⑤ 해충도 생태계의 구성원이므로 인간의 편의를 위해 무조건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고 볼 수 없다.

13 인간과 자연의 상생을 위한 바람직한 태도

을. 인간과 자연의 상생을 위해서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행동을 평상시에도 지속적으로 실천해야 한다. 정. 자연을 개발이나 소유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삶의 터전이라고 여기며 공존하려 노력해야 한다.

바로 알기 갑. 인간의 편의를 위해 자연을 최대한 개발하는 태도는 자연을 인간의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보는 인간 중심적 자연관에 해당한다. 병. 환경 문제는 과학기술의 발전만으로 모두 해결할 수 없으며 인간의 자연관과 생활 방식의 변화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14 미래 세대에 대한 요나스의 책임 윤리

제시된 글을 주장한 사상가는 요나스이다. ㄴ. 요나스는 미래 세대가 현세대에게 보답할 수 없더라도 현세대는 그들의 생존과 삶의 조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았다. ㄷ. 요나스는 현대 과학기술의 영향력이 커진 만큼 현재의 행위가 미래에 초래할 장기적이고 누적적인 결과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바로 알기 ㄱ. 요나스는 현세대의 행복과 번영보다 미래 세대의 생존과 삶의 조건까지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다. ㄹ. 미래 세대는 현세대에게 보답할 수 있는지와 관계없이 책임의 대상이 된다.

15 프롬이 제시한 이기주의의 극복 방법

예시 답안 상대를 소유하거나 지배하려 하기보다, 타인을 독립적인 존재로 존중하고 사랑과 이해를 바탕으로 관계를 맺어야 한다. 또한 건강한 자기 사랑을 바탕으로 이기주의를 극복하고, 타인의 처지에 공감하며 서로 연대해야 한다.

채점 기준	
상	존재적 실존 양식을 강조하며 건강한 자기 사랑을 바탕으로 이기주의를 극복하고 타인과 공감·연대해야 한다는 점을 모두 서술한 경우
하	자신에 대한 사랑을 언급하지 않고 타인에게 공감하거나 연대해야 한다는 점만 서술한 경우

16 노자의 무위자연

노자는 자연을 억지로 변화시키려 하지 않고 만물이 본래의 모습에 따라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무위자연을 강조하였다.

17 카슨이 자연에 대한 인간의 개입을 반대한 이유

(1) 답 화학 물질(제품)

(2) 예시 답안 자연의 생물들은 먹이 관계와 상호 작용을 통해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므로, 인간이 한 생물이나 환경에 지나치게 개입하면 그 영향이 생태계 전체로 확산되어 자연의 균형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이다.

채점 기준	
상	생태계의 상호 연결성과 인간의 과도한 개입이 생태계와 인간에게 연쇄적인 피해를 준다는 점을 모두 서술한 경우
하	자연에 대한 과도한 개입이 생태계에 피해를 준다는 점만 서술한 경우

VI 삶의 의미에 대한 물음

01 종교는 우리 삶에 윤리적 기준을 제시할 수 있을까?

STEP 1 핵심 개념 확인하기 140쪽

01 (1) ㄴ (2) ㄱ (3) ㄷ **02** (1) ㉢ (2) ㉠ (3) ㉡ **03** (1) 이전 (2) 종교적 **04** 황금률 **05** ① **06** ③ **07** ① **08** ③

05 인간이 불안을 겪는 원인

인간은 신체적으로 유한하고 불완전한 존재이며, 참과 거짓을 정확히 판단하지 못할 수 있는 지적 불완전성과 옳고 그름을 알면서도 잘못된 행동을 할 수 있는 윤리적 불완전성을 지닌다. 또한 전염병과 같은 사회적 악재나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걱정도 인간의 불안을 심화할 수 있다.

바로 알기 ① 인간은 신체적으로 완전한 존재가 아니라 불완전하고 유한한 존재이므로, '신체적 완전성과 지적 불완전성의 불균형'은 인간이 불안을 겪는 이유로 보기 어렵다.

06 종교의 역할과 가치

ㄴ. 종교는 인간이 자신의 불완전성과 불확실한 현실에서 비롯되는 불안을 극복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ㄷ. 인간은 초월적 존재와 종교적 세계를 통해 위로와 희망을 얻고, 자신의 삶에 의미와 방향을 부여함으로써 불안한 현실을 견디고 극복할 수 있다.

바로 알기 ㄱ. 종교의 역할은 현실을 외면하게 하거나 초월적 세계에 빠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불안한 현실 속에서도 삶의 의미와 방향을 찾도록 돕는 데 있다. ㄹ. 종교는 자연 현상을 객관적으로 설명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기보다 인간에게 삶의 의미와 윤리적 가치를 제시하고 마음의 안정과 위로를 제공한다.

07 종교의 가르침

②, ③ 종교는 인간에게 삶의 의미와 희망을 제시하고, 사랑과 자비를 바탕으로 타인과 약자를 돌보며 자선과 나눔을 실천할 것을 강조한다. ④ 종교는 정의와 관용을 통해 개인과 공동체의 평화를 이루도록 가르친다. ⑤ 이슬람교는 신에게 순종하고 그 가르침을 따르는 삶을 강조한다.

바로 알기 ① 종교는 보복을 우선시하기보다 사랑과 자비, 용서와 관용을 통해 갈등을 줄이고 평화를 이루는 태도를 강조한다.

08 종교 간 대화와 평화

③ 퀑은 종교 간의 평화가 세계 평화의 중요한 조건이며, 종교 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서로 다른 종교와 전통을 이해하기 위한 지속적인 대화와 관용의 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바로 알기 ① 퀑은 종교가 인간의 정체성 형성과 삶의 의미 및 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았다. ② 종교적 분쟁과 대립은 화합에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극복해야 할 문제이다. ④ 퀑은 유일신 사상 자체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종교만을 절대화하고 다른 종교를 배척하는 태도를 경계하였다. ⑤ 퀑은 특정 종교를 최고의 종교로 선택해야 한다고 보지 않고, 여러 종교가 각자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공존하고 협력해야 한다고 보았다.

STEP 2 내신 만점 공략하기 141~143쪽

01 ④ **02** ⑤ **03** ② **04** ① **05** ① **06** ⑤ **07** ④ **08** ③ **09** ② **10** ② **11** ② **12** ②

01 종교의 역할과 가치

제시된 글은 인간이 자신의 한계와 불완전성을 자각하면서 삶의 의미와 방향을 고민하게 되고, 종교가 이러한 상황에서 인간이 자신을 성찰하고 삶을 새롭게 이해하도록 돕는다는 내용이다. ④ 종교는 인간이 불안한 현실 속에서 마음의 안정과 위로를 얻고 삶의 의미와 방향을 찾도록 도움을 줄 수 있다.

바로 알기 ① 인간은 신체적·지적·윤리적으로 불완전한 존재이므로 종교가 필요하지 않다고 볼 수 없다. ② 종교의 역할은 인간 자체를 완전한 존재로 만드는 데 있지 않고 불안을 극복하고 삶의 의미와 방향을 찾도록 돕는 데 있다. ③ 종교를 통해 마음의 평안을 얻는 것은 자신을 성찰하고 삶을 새롭게 이해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⑤ 인간은 윤리적으로도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못하거나 욕심 때문에 잘못을 저지를 수 있는 불완전한 존재이다.

✦ 이건 꼭 암기! 종교의 역할

- 불안한 상황에서 종교와 초월적 존재에 의지하며 마음의 안정과 위로를 얻을 수 있음 → **인간의 불안 극복**
- 믿음, 사랑, 배려와 같은 가치를 통해 타인에 대한 존중과 연대를 강화하고, 공동체의 공존과 평화에 기여할 수 있음 → **윤리적 가치 제공**

02 예수가 강조한 삶의 태도

그림의 사상가는 예수이다. ⑤ 예수는 인간이 먹고사는 문제나 미래에 대한 불안에 지나치게 얽매이기보다, 인간의 생명을 귀하게 돌보는 초월적 섭리를 신뢰해야 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예수와 그리스도교에 따르면 세속적 염려에 사로잡히지 않고 신의 돌봄을 믿는 태도가 중요하다.

바로 알기 ① 예수는 물질적 풍요보다 인간의 생명을 더 소중한 가치로 보았다. ② 미래에 대한 염려를 반드시 감수해야 할 의무로 보지 않았다. ③ 자신의 생존 능력만을 신뢰하기보다 초월적 섭리를 신뢰할 것을 강조하였다. ④ 예수는 세속적 염려에 지나치게 얽매이지 말 것을 강조하였다.

03 현대사회의 유동성과 불안

ㄱ. 제시된 글에서는 현대사회를 끊임없이 변화하는 유동적인 세계로 규정하고 있다. ㄷ. 현대인은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압박감과 변화에 뒤처질 수 있다는 불안을 경험한다고 보고 있다.

바로 알기 ㄴ. 사회의 유동성은 개인에게 안정된 미래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미래를 예측하기 어렵게 하여 불안을 높일 수 있다. ㄹ. 현대인의 불안은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하는 사회 구조와도 관련되어 있다.

04 현대사회의 성과 중심적 삶과 불안

1. 제시된 글을 주장한 사람은 현대인이 스스로 성과를 내야 한다는 압박 속에서 자신을 과도하게 몰아붙인다고 보았다. 3, 4. 성과 중심의 삶이 무력감·우울증과 같은 병리적 현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제시된 글을 주장한 사람은 강조하고 있다.

바로 알기 2. 제시된 글을 주장한 사람은 시대에 따라 질병이 존재한다고 보았다. 현대의 질병은 자기 착취와 긍정성의 과잉으로 인한 자학이지만, 과거에도 그 시대만의 문제가 있었다고 볼 것이다.

05 엘리아데의 종교관

제시된 글을 주장한 사상가는 엘리아데이다. ㄱ. 엘리아데는 종교적 인간이 성스러움과 관련된 경험을 통해 세계를 이해한다고 보았다. ㄴ. 엘리아데는 인간은 오래전부터 다양한 형태의 성현을 경험하며 종교적 삶을 이어 왔음을 강조하였다.

바로 알기 ㄷ. 엘리아데에 따르면 돌이나 나무 자체가 성스럽기 때문에 숭배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대상이 성스러움을 드러내는 매개이기 때문에 의미를 지닌다. ㄹ. 엘리아데는 종교적 의미를 잃은 일상의 반복이 두려움과 비관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았다. 그는 종교와 의례를 통해 성스러운 시간에 참여할 수 있고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보았다.

✦ 이건 꼭 알기! 엘리아데의 종교관

- 세계를 이루는 서로 다른 두 가지 존재 방식 → **성스러움과 속됨**
- 일상적인 사물이나 존재를 통해 성스러운 것이 드러나는 현상 → **성현(聖顯)**
- 의례를 통해 반복적으로 되돌아가 초월적 존재와 연결되는 시간 → **성스러운 시간**

06 엘리아데의 성스러운 시간

제시된 글을 주장한 사상가는 엘리아데이다. ①, ② 엘리아데는 종교적 인간은 의례를 통해 신성한 사건이 반복되는 성스러운 시간을 경험하며 이 안의 질서를 경험한다고 보았다. ③, ④ 종교적 경험은 인간의 삶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으며, 반대로 이러한 의미를 잃은 시간의 단순한 반복은 인간에게 불안을 가져다줄 수 있다.

바로 알기 ⑤ 엘리아데는 종교적 인간이 현재의 역사적 시간 속에서만 살아간다고 보지 않았다. 종교적 인간은 의례를 통해 성스러운 시간으로 되돌아가 초월적 질서와 연결되고 삶의 의미를 발견한다고 보았다.

07 그리스도교와 이슬람교의 공통적 가르침

제시된 가르침을 강조하는 두 종교는 그리스도교와 이슬람교이다. ④ 두 종교에서는 타인의 잘못에 보복하기보다 사랑과 자비를 바탕으로 상대를 용서하는 태도를 강조한다.

바로 알기 ① 같은 방식으로 되갚는 것은 보복을 자제하고 관용과 자비를 실천하라는 두 종교의 가르침에 어긋난다. 상대방에게 받은 피해를 그대로 돌려주는 것은 갈등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으므로, 원한을 보복으로 갚기보다 사랑과 자비를 실천하려는 태도가 필요하다. ② 두 종교에서는 타인이 일으킨 피해의 책임을 피해자 자신에게 돌리라고 가르치지는 않는다. ③ 두 종교는 모든 불의를 무조건 참고 견뎌야 한다고 보지 않는다. 잘못이나 갈등에 대응할 수 있지만, 그 과정에서도 지나친 보복을 삼가고 상대방에 대한 관용과 자비를 잃지 않는 태도가 중요하다. ⑤ 두 종교에서는 잘못을 저지른 사람을 엄격하게 다스리기보다 사랑과 자비로 대하고 용서할 것을 강조한다.

✦ 이건 꼭 알기! 그리스도교와 이슬람교의 공통적 가르침

- 불안과 고통을 겪는 인간에게 삶의 궁극적인 의미와 목적을 제시하고, 어려움을 견디고 극복할 수 있는 희망을 제공함 → **긍정적인 삶의 태도**
-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지 않고 이웃과 약자를 사랑하며, 잘못한 사람에게도 용서와 관용을 베풀 것을 강조함 사랑과 → **자비의 실천**
-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긍휼의 마음으로 돌보고 자신이 가진 것을 나눌 것을 요구함 → **약자 보호와 나눔**
- 증오와 보복을 줄이고 정의, 사랑, 자비, 황금률을 실천함으로써 개인과 공동체의 평화를 이루도록 가르침 → **평화와 공존의 추구**

08 이슬람교의 가르침

㉠, ㉡ 이슬람의 어원은 순종이나 복종을 의미하며, 생활 속에서도 교리와 가르침에 절대적으로 따르는 것을 중시한다. 즉 이슬람교에서는 신에게 순종하고 그의 가르침에 따라야 개인과 사회의 평화가 실현될 수 있다고 본다. ㉢, ㉣ 이슬람교에서는 자선을 일상에서 실천할 것을 강조한다.

바로 알기 ㉤ 이슬람교에서는 신에게 순종하고 그의 가르침에 따라야 개인과 사회의 평화가 실현될 수 있다고 본다. 또한 약자에게 자신이 가진 좋은 것을 나누는 자선을 강조한다.

09 종교와 윤리의 관계

갑. 윤리는 인간의 양심·감정·이성 등을 바탕으로 도덕적 판단의 근거를 제시하는 반면, 종교는 초월적 존재에 대한 믿음과 종교적 교리를 바탕으로 도덕적 삶의 방향을 제시한다. 병. 종교는 도덕적 의무를 지속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동기를 제공하고, 윤리는 종교적 가르침이 현실에서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탐구한다.

바로 알기 을. 초월적 존재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도덕적 삶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은 종교이다. 정. 종교는 종교적 가르침을 통해 도덕적 의무를 제시하고, 윤리는 그러한 가르침의 보편적인 도덕적 기준을 탐구하고 정당화한다는 점에서 두 요소는 상호 보완적 관계를 맺고 있다. 그러므로 종교와 윤리는 도덕적 삶에 함께 기여한다고 볼 수 있다.

10 종교를 초월한 보편적 도덕성

ㄱ. 라마는 보편적 가치를 특정 종교의 신앙에 한정된 가치로 보지 않는다. ㄷ. 또한 라마는 이러한 보편적 가치를 통해 모든 사람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올바른 방향과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강조한다.

바로 알기 ㄴ. 라마는 종교의 보편적 가치는 종교를 넘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된다고 본다. ㄹ. 라마에 따르면 바람직한 삶을 위해서는 외적인 종교 의례를 우선하기보다 자신의 마음을 세심하게 살피고 행동을 조절하는 태도가 중요하다.

11 퀑의 참된 종교

제시된 글을 주장한 사상가는 퀑이다. ② 퀑은 바람직하고 참된 종교란 인간성에 긍정적으로 기여하고, 교리·윤리·의례·제도를 통해 인간의 정체성, 삶의 의미와 가치를 심화해야 한다고 보았다.

바로 알기 ① 퀑은 다른 종교의 신앙과 전통을 인정하고 종교 간 대화를 강조하였다. ③ 퀑은 종교 간의 교리 차이를 없애거나 줄이기보다 서로의 차이와 정체성을 존중하면서 대화해야 한다고 보았다. ④ 퀑은 새로운 종교를 만들어야 한다고 본 것이 아니라, 기존의 여러 종교가 보편적 윤리적 가치를 중심으로 공존하고 협력해야 한다고 보았다. ⑤ 퀑은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적 가치를 존중하고 참된 인간성을 실현하는 데 기여하는 것을 바람직한 종교의 기준으로 제시하였다.

12 퀑의 종교 간 대화와 세계 평화

제시된 글을 주장한 사상가는 퀑이다. ㄱ. 퀑에 따르면 종교가 사람들의 정체성이나 가치관 등에 많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종교 간 평화는 인류의 지속적인 평화에 반드시 필요하다. ㄷ. 퀑은 종교가 사랑과 평화, 인간 존엄성과 같은 보편적 가치를 찾으면서도 각 종교의 고유한 정체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보았다.

바로 알기 ㄴ. 퀑에 따르면 종교적 편견과 갈등은 사회적 갈등을 심화하여 세계 평화를 위협할 수 있다. ㄹ. 퀑은 종교의 사회적 역할을 없애야 한다고 본 것이 아니라, 종교 간 대화와 협력을 통해 보편적·윤리적 가치를 실현해야 한다고 보았다.

STEP 3 서술형 도전하기 144쪽

01 주제: 퀑이 본 현대사회의 불안과 위기

예시 답안 과학기술과 제국주의를 중심으로 한 근대 문명이 세계대전과 경제 대공황을 겪었고,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 문명이 파국에 이르면서 인류는 삶의 방향과 공동의 가치 기준을 상실하였다.

채점 기준	
상	근대 문명의 파국으로 인류가 삶의 방향과 공동의 가치 기준을 상실하였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서술한 경우
하	인류 공동의 가치 기준을 상실하였다는 내용만 서술한 경우

02 주제: 종교와 윤리가 도덕적 삶의 실천에 끼치는 영향

예시 답안 종교는 종교적 가르침을 통해 도덕적 의무를 제시하고 실천의 동기를 제공하며, 윤리는 옳고 그름에 관한 보편적인 도덕적 기준을 탐구하고 정당화한다.

채점 기준	
상	종교가 도덕적 의무와 실천의 동기를 제공하고, 윤리가 도덕적 기준을 탐구하고 정당화한다는 각각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서술한 경우
하	종교와 윤리의 기능 중 한 가지만 서술한 경우

03 주제: 엘리아데가 바라본 종교의 가치

(1) 답 성스러움

(2) 예시 답안 엘리아데는 인간이 성현을 통해 일상 속에서 성스러움을 경험하며 세계의 질서와 삶의 의미를 발견한다고 보았다. 또한 의례를 통해 성스러운 시간에 참여함으로써 반복되는 속된 일상에서 벗어나 불안을 극복하고 삶의 방향을 찾을 수 있다고 보았다.

채점 기준	
상	핵심 어구를 모두 포함하여 종교가 성스러운 시간을 통해 인간의 불안을 극복하고 삶의 의미와 방향을 찾도록 돕는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서술한 경우
중	네 가지 핵심 어구를 모두 포함하였으나 성현과 성스러운 시간이 불안 극복과 삶의 의미 발견으로 이어지는 관계를 구체적으로 서술하지 못한 경우
하	네 가지 핵심 어구 중 일부를 포함하여 종교가 인간의 불안을 극복하고 삶의 의미를 찾도록 돕는다는 점을 서술한 경우

04 주제: 그리스도교와 이슬람교의 공통적 가르침

예시 답안 (가)는 그리스도교, (나)는 이슬람교이다. 두 종교는 이웃에게 사랑과 자비를 베풀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돌보며 나눔을 실천해야 한다고 본다.

채점 기준	
상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반영하여 이웃에게 사랑과 자비를 베풀고 나눔을 실천해야 한다는 태도를 서술한 경우
중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반영하였으나 '이웃을 사랑하고 자비를 베푼다.' 등과 같이 간단히 서술한 경우
하	두 종교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윤리적 태도를 밝히지 못하고 (가), (나)에 해당하는 종교만을 서술한 경우

05 주제: 종교적 배타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퀑의 입장

예시 답안 ㉠은 종교적 배타주의이다. 퀑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 각 종교가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도 서로 대화하고 이해하며, 사랑·평화·인간 존엄성과 같은 보편적 가치를 중심으로 공존하고 협력해야 한다고 보았다.

채점 기준	
상	㉠을 정확히 쓰고, 각 종교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대화와 협력을 통해 보편적 가치를 추구해야 한다는 태도를 구체적으로 서술한 경우
중	㉠을 정확히 쓰고, 종교 간 대화와 이해의 필요성을 제시했지만 정체성 유지와 보편적 가치에 따른 공존·협력 중 일부만 서술한 경우
하	㉠을 정확히 썼으나, 종교 간 갈등을 줄이기 위해 서로를 인정해야 한다는 일반적 태도만 서술한 경우

STEP 4 1등급 정복하기 145쪽

01 ③ 02 ②

01 그리스도교와 이슬람교에서 강조하는 삶의 태도

자료 분석

그리스도교
- 내가 너희에게 새로운 규범을 명하노니,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품은 그윽한 자애로움 그대로 너희 역시 서로를 품어 안아라.

타인에 대한 사랑의 실천을 강조하는 그리스도교의 가르침임을 알 수 있어.

이슬람교
- 무고한 한 사람을 해치는 것은 모든 인류를 해치는 것과 같으며,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것은 모든 인류를 구하는 것과 같은 가치가 있다.

인간 생명의 존엄성과 생명 존중을 강조하는 이슬람교의 가르침임을 알 수 있어.

제시된 두 종교는 그리스도교와 이슬람교이다. ㄷ. 두 종교는 신에 대한 믿음이 타인에 대한 사랑과 자비, 생명 존중과 같은 윤리적 실천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본다. ㄹ. 타인을 사랑하고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태도는 개인적인 덕목에 그치지 않고 공동체의 구성원을 존중하고 보호해야 할 책임으로 확장될 수 있으며, 신앙의 가치는 실제 삶에서의 도덕적 실천을 통해 드러날 수 있다. 특히 그리스도교에서는 이웃을 사랑하고 타인에게 선을 베푸는 태도를 강조하며, 이슬람교에서도 인간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자선을 베푸는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 따라서 두 종교의 가르침은 신앙을 개인의 내면적 믿음에만 한정하지 않고 타인을 대하는 구체적인 행동과 연결하고 있다.

바로 알기 ㄱ. 두 종교는 인간 생명의 가치를 공동체 전체의 행복에 대한 기여 정도에 따라 판단하지 않고, 생명 자체를 소중히 여긴다. ㄴ. 두 종교는 신에 대한 믿음이 인간 상호 간의 사랑과 자비, 생명 존중과 같은 도덕적 실천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본다.

판서로 보는 고난도 개념 그리스도교와 이슬람교에서 강조하는 가르침

그리스도교	• 신의 사랑을 강조하며, 예수에 의해 인간이 원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음 • 이웃뿐만 아니라 원수에게도 조건 없는 사랑과 용서를 실천해야 함
이슬람교	• 신에게 순종하고 그 가르침을 따르는 삶을 강조함 • 인내와 자선, 정의로운 행동을 통해 개인과 공동체의 평화를 실현해야 함
공통적 가르침	• 불안과 고통을 겪는 인간에게 삶의 궁극적인 의미와 목적을 제시하고, 어려움을 견디고 극복할 수 있는 희망을 제공해야 함 •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지 않고 이웃과 약자를 사랑하며, 잘못한 사람에게도 용서와 관용을 베풀어야 함 •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긍휼의 마음으로 돌보고 자신이 가진 것을 나누어야 함 • 황금률을 실천함으로써 개인과 공동체의 평화를 이루어야 함

02 퀑이 바라본 종교와 도덕의 바람직한 관계

자료 분석

퀑은 종교는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적 가치를 존중하고 참된 인간성을 실현해야 함을 강조하였어.

참된 인간성은 참된 종교의 전제이다. 즉, 인간적인 것(인간의 존엄성과 근본 가치에 대한 존중)은 모든 종교가 실현해야 할 최소한의 요구이다. …… 절대적이고 보편적인 요구로서의 참된 인간성을 실현하고 구체화하기 위해서 종교가 존재해야 한다. 종교 간의 평화 없이는 세계의 평화도 없다. 또 종교 간의 대화 없이는 종교 간의 평화도 있을 수 없다.

제시된 글의 사상가는 퀑이다. ㄴ. 퀑에 따르면 종교는 세계 윤리와 보편적 가치를 추구해야 하며 각자의 정체성을 유지해야 한다. ㄷ. 퀑은 참된 종교란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실현하는 데 기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종교 간 평화와 대화를 통해 세계 평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보았다.

바로 알기 ㄱ. 퀑이 '예'라고 답할 질문이다. 퀑은 자신의 종교만을 절대화하고 다른 종교를 배척하는 배타적 태도가 종교 간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보고, 이를 극복해야 한다고 보았다. ㄹ. 퀑이 '아니요'라고 답할 질문이다. 퀑은 종교 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종교를 만들어야 한다고 보지 않았으며, 각 종교가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보편적 가치를 추구해야 한다고 보았다.

판서로 보는 고난도 개념 퀑의 종교관

구분	퀑의 입장
참된 종교의 기준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적 가치를 존중하고 참된 인간성을 실현해야 함
종교 간 관계	각 종교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서로 이해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대화해야 함
세계 평화의 실현	종교 간 대화 → 종교 간 평화 → 세계 평화



02 유한한 인생에서 나는 어떤 삶을 살 수 있을까?

STEP 1 핵심 개념 확인하기 148쪽

01 죽음 **02** (1) × (2) ○ (3) × **03** (1) 본질 (2) 책임
04 (1) ㄱ (2) ㄷ (3) ㄴ **05** ③ **06** ① **07** ① **08** ②

02 인간의 유한성에 대한 사상가들의 입장

(1) 사르트르에 따르면 인간에게는 태어나는 시대, 지역, 자연재해 등 피할 수 없는 조건이 있다.
(3) 야스퍼스는 죽음이나 고통과 같은 한계 상황은 인간의 노력으로 완전히 없앨 수 없으며, 인간이 자신의 존재와 한계를 돌아보는 계기를 마련한다고 보았다.

05 불교에서 바라보는 죽음

① 불교에서는 죽음을 윤회의 과정 속에 있는 하나의 변화로 보았다. ② 불교에 따르면 죽음은 인간의 고통에 해당하는 생로병사 중 하나에 불과하다. ④ 불교의 관점에서 죽음에 대한 성찰은 중생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든다. ⑤ 불교에서는 인간의 삶을 오온의 일시적인 결합으로 보았으며, 반대로 죽음은 그러한 오온의 흩어짐으로 간주한다.

바로 알기 ③ 불교에서는 죽음을 존재의 완전한 소멸로 보지 않고, 오온이 흩어지는 것이자 윤회의 과정으로 본다.

06 삶의 유한성 자각의 의미

② 삶의 유한성을 직면하는 것에 해당한다. ③ 삶의 유한성을 자각하면 현재의 삶과 타인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더욱 충실하게 살아가게 될 수 있다. ④ 유한한 삶의 시간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성찰하는 것은 현재의 삶을 가치 있게 살아가는 태도를 지니게 한다. ⑤ 삶의 유한성을 자각한다는 것은 죽음을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성찰하는 것을 의미한다.

바로 알기 ① 삶의 유한성을 자각하는 것은 허무주의에 빠지게 하는 근거가 아니라, 오히려 현재의 삶을 소중히 여기고 가치 있게 살아가도록 하는 계기가 된다.

07 사르트르의 실존주의

ㄱ. 사르트르는 인간이 본질에 앞서 존재하며 스스로 자신의 의미를 만들어 가는 존재라고 보았고, ㄴ. 인간은 아무런 목적 없이 우연히 세상에 던져진 존재라고 이해하였다.

바로 알기 ㄷ. 사르트르는 인간이 삶의 의미를 절대자에게 의지하여 찾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하고 만들어 가야 한다고 보았다. ㄹ. 인간은 주어진 사회적·자연적 조건을 완전히 뛰어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조건 속에서 자유롭게 선택하고 그 결과에 책임을 져야 한다.

08 자유와 책임에 대한 사르트르의 입장

사르트르에 따르면 인간은 원하는 만큼 삶을 선택할 자유를 가지지만,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져야만 한다. 즉 사르트르는 타인이나 사회적 조건에 자신의 선택에 대한 책임을 돌리지 않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보았다.

STEP 2 내신 만점 공략하기 149~151쪽

01 ⑤ **02** ③ **03** ③ **04** ④ **05** ② **06** ⑤ **07** ①
08 ③ **09** ④ **10** ⑤ **11** ⑤ **12** ②

01 지눌의 삶의 유한성에 대한 태도

그림의 사상가는 지눌이다. ⑤ 지눌은 불교 수행에서 마음을 바르게 다스리고 탐욕과 욕망을 경계해야 한다고 보았다. 또한 인간의 삶이 덧없고 무상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수행자는 순간순간 자신의 마음을 성찰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지눌은 특히 수행자란 삶의 무상함을 자각하고 현재의 마음과 행동을 끊임없이 살피며 수행에 힘쓰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깨달음에 이를 수 있는 존재라고 보았다.

바로 알기 ① 지눌은 늙음 자체를 피해야 한다고 본 것이 아니라 삶의 무상함을 자각하고 수행해야 한다고 보았다. ② 불교에서는 인간의 출생이 연기에 따라 수많은 인연과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고 본다. ③ 삶의 무상함을 깨닫는 것은 삶을 허무하게 여기기 위한 것이 아니라 현재의 삶을 소중히 여기고 수행을 게을리하지 않기 위한 것이다. ④ 연기는 모든 존재가 독립적으로 존재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서로 의존적인 관계 속에서 존재한다는 의미이다.

02 삶과 죽음에 대한 불교의 이해

제시된 글을 주장한 사상가는 지눌이다. 지눌은 자신의 마음에서 부처를 찾아야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보았다. ㄴ, ㄷ. 불교에서는 인간의 죽음을 오온의 흩어짐으로 이해하고, 중생은 윤회 속에서 삶과 죽음을 반복한다고 본다.

바로 알기 ㄱ. 지눌의 관점에서 볼 때 깨달음을 얻는다고 해서 인간이 죽음 자체를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ㄹ. 불교에서는 인간의 삶이 외부 요인에 의해 전적으로 결정된다고 보지 않으며, 여러 원인과 조건의 상호 의존적인 관계인 연기에 따라 이루어진다고 본다.

✦ 이건 꼭 알기! **불교에서 바라본 인간의 삶**

- 연기에 따라 수많은 인연과 관계 속에서 시작됨 → **출생**
- 인간이라면 피할 수 없는 고통인 생로병사 중 하나, 존재의 완전한 소멸이 아니라 삶과 죽음이 이어지는 윤회의 한 과정, 인간을 구성하는 다섯 가지의 구성 요소인 오온의 흩어짐 → **죽음**
- 삶의 무상함과 유한성을 자각하고 현재의 삶을 소중히 여기며 수행에 힘써야 함 → **삶의 유한함을 깨달은 자의 태도**

03 자유에 대한 사르트르의 입장

대화 속 선생님은 사르트르이다. ③ 사르트르는 인간이 유한한 존재이지만, 그 한계를 자각할 때 자유를 획득하고 실존을 회복할 수 있다고 보았다. 또한 그는 인간은 주어진 삶의 조건 속에서만 자유로운 선택을 내릴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바로 알기 ① 사르트르는 인간에게 주어진 조건은 피할 수 없으며 인간은 어려운 역경에 직면하는 존재라고 보았다. ② 인간의 자유는 아무런 조건이나 한계도 없는 무한한 자유가 아니다. ④ 인간은 자신의 유한성을 자각하고 그 속에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⑤ 자유로운 선택은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형성하고 실존을 드러내는 것과 관련된다.

04 죽음에 대한 하이데거의 입장

제시된 글을 주장한 사상가는 하이데거이다. ① 하이데거는 인간을 '현존재'로 보며, 인간은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존재라고 보았다. ②, ③, ⑤ 그는 인간이 삶의 유한성을 받아들일 때 실존을 자각하고 보다 진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보았다.

바로 알기 ④ 하이데거는 죽음의 불가피성을 자각하고 이를 자신의 존재 가능성으로 받아들일 때 자신의 고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보았다. 즉 이러한 자각을 통해 삶을 주체적으로 성찰할 수 있다.

05 한계 상황에 대한 야스퍼스의 입장

제시된 글을 주장한 사상가는 야스퍼스이다. ㄱ, ㄷ. 야스퍼스는 투쟁, 고통, 죽음과 같은 한계 상황은 제거하거나 변화시킬 수 없는 조건이지만, 이를 자각하고 직면하는 과정에서 인간은 자신의 실존을 자각할 수 있다고 보았다.

바로 알기 ㄴ. 야스퍼스에 따르면 한계 상황은 인간이 임의로 변화시킬 수 있는 상황이 아니며, 이를 변화시키기 위해 죽음에 이르는 고통을 겪어야 하는 것도 아니다. ㄹ. 야스퍼스는 한계 상황은 인간을 무기력하게 만들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유한성과 실존을 자각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보았다.

06 주체적 삶에 대한 사르트르의 입장

제시된 글을 주장한 사상가는 사르트르이다. ⑤ 사르트르는 인간이 자신의 선택과 행위를 통해 스스로를 형성하는 존재이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 또한 전적으로 자신에게 있다고 보았다.

바로 알기 ① 사르트르는 다른 사람의 의견을 무조건 배척해야 한다고 본 것이 아니라 자신의 선택에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고 보았다. ② 인간은 자신의 선택과 행동을 통해 스스로를 형성할 수 있다. ③ 인간에게 미리 정해진 본질은 없으며 선택과 행동을 통해 자신의 본질을 만들어 간다. ④ 사르트르가 강조한 것은 가장 좋은 결과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선택을 주체적으로 내리고 그 결과에 책임지는 태도이다.

✦ 이건 꼭 암기! **사르트르의 실존주의**

- 인간에게 미리 정해진 본질이나 삶의 목적은 없음 → **실존이 본질에 앞섬**
- 주어진 삶의 조건 속에서 인간은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함 → **자유로운 선택**

07 사르트르의 주체적인 삶

사르트르는 인간이 우연히 존재하게 되었으며, 본질이 존재에 앞서는 것이 아니라 존재가 본질에 앞선다고 보았다. ㉡ 사르트르는 인간이 자유로운 선택을 통해 자신을 형성하는 주체적 존재라고 보았다. ㉢ 사르트르에 따르면 인간은 자신의 선택과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지는 도덕적 주체로 살아가야 한다. ㉣ 사르트르는 인간의 모든 선택과 행동이 자신을 형성하는 과정이므로 자신의 행동을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사르트르는 인간이 자유롭게 선택하는 존재인 동시에 자신의 선택과 그 결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는 존재라고 보았다.

바로 알기 ㉠ 사르트르는 인간은 먼저 우연히 존재하게 되었고, 자신의 선택과 행위를 통해 스스로의 본질을 형성해 나가는 존재라고 보았다. 따라서 그에 따르면 본질이 존재에 앞서는 것이 아니라 존재가 본질에 앞선다.

08 삶의 의미에 대한 지눌과 사르트르의 입장

갑은 지눌, 을은 사르트르이다. 지눌은 자신의 마음을 돌이켜 본래의 성품을 깨닫고 지속적으로 수행해야 한다고 보았으며, 사르트르는 자신의 선택과 행동을 통해 스스로 삶의 의미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보았다. ③ 두 사상가 모두 삶의 의미를 외부에서 찾기보다 자신을 성찰하고 주체적으로 삶을 만들어 가는 태도를 강조하였다.

바로 알기 ① 지눌은 죽음을 존재의 완전한 끝이 아니라 윤회의 과정으로 본다. ② 지눌은 오랜 습기를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본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수행을 통해 제거해야 한다고 보았다. ④ 두 사상가는 현재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 의미 있게 살아가는 태도를 강조한다. ⑤ 사르트르는 인간에게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삶의 목적이 있다고 보지 않았다.

09 사르트르의 실존주의

제시된 글을 주장한 사상가는 사르트르이다. 1, 3. 사르트르는 인간이 미리 정해진 본질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선택과 행동을 통해 스스로를 만들어 가는 도덕적 존재라고 보았다. 2. 사르트르는 인간은 주체적으로 자신의 삶을 선택하고 성찰하며, 그 선택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았다.

바로 알기 4. 사르트르는 주체적인 삶을 위해 타인을 배제해야 한다고 보지 않았으며, 자신의 선택과 행동을 통해 스스로 삶의 의미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보았다. 이를 통해 타인의 시선이나 사회적 기준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삶에 대해 주체적으로 선택하고 책임지는 태도를 강조하였다.

10 지눌의 정혜쌍수

지눌은 선정과 지혜를 함께 닦는 정혜쌍수를 수행의 중요한 방법으로 보았다. 병. 지눌은 선정과 지혜를 함께 닦는 수행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지속적으로 살피고 깨달음에 이르고자 하였다. 정. 정혜쌍수는 선정과 지혜를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함께 닦아야 한다는 지눌의 수행 방법이다.

바로 알기 갑. 세상의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한다는 불교의 가르침은 제행무상에 해당한다. 을. 지눌은 인간의 본성이 부처와 다르지 않음을 깨닫고 지속적으로 수행해야 한다고 보았다.

11 지눌의 돈오점수

제시된 글은 지눌의 입장이다. ⑤ 지눌은 '돈오점수(頓悟漸修)'를 주장하며, 한순간 자신의 본성이 곧 부처임을 깨닫는 돈오 이후에도 점진적인 수행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는 오랜 습기를 제거하고 자비와 지혜를 완성하기 위한 과정이다.

바로 알기 ① 지눌은 자신의 내부를 깨닫는 것에서 부처의 마음을 찾을 수 있다고 보았다. ② 지눌에 따르면 오랜 습기는 유지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인 수행을 통해 제거해야 한다. ③ 지눌은 진정한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 습기를 없애려 노력해야 한다고 보았다. ④ 지눌에 따르면 돈오가 이루어졌더라도 오랜 습기가 남아 있으므로 지속적인 수행이 필요하다.

✦ 이건 꼭 알기!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한 지눌의 수행법**

- 자신의 본성이 본래 부처와 다르지 않음을 단박에 깨달음 → **돈오(頓悟)**
- 돈오 이후에도 남아 있는 오랜 습기와 번뇌를 없애기 위해 점진적으로 수행함 → **점수(漸修)**
- 마음을 고요히 집중하고 흐트러짐을 다스림 → **선정(禪定)**
- 대상과 마음의 참된 모습을 바르게 통찰함 → **지혜(智慧)**
- 선정과 지혜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함께 닦으며 지속적으로 자신의 마음을 살핌 → **정혜쌍수(定慧雙修)**

12 지눌의 일심 사상

제시된 글은 지눌의 권수정혜(勸修定慧)와 일심(一心) 사상을 설명한 자료이다. ㄱ, ㄷ. 제시된 글의 핵심은 일심을 깨닫는 것이 번뇌에서 벗어나 부처가 되는 길이며, 불교의 근본은 마음에 있다는 것이다.

바로 알기 ㄴ. 지눌은 자유와 용기의 관계가 아니라 일심에 대한 깨달음과 마음의 수양을 강조한다. ㄹ. 상황에 따라 비겁하거나 용기 있는 태도를 취해야 한다는 내용은 제시된 글의 입장과 관련이 없다.

STEP 3 서술형 도전하기 152쪽

01 주제: 불교에서 바라보는 죽음

예시 답안 죽음은 오온이 일시적으로 결합하였다가 흩어지는 것이며, 삶과 죽음의 세계를 그치지 않고 돌아가는 윤회의 과정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

채점 기준	
상	필연적인 생로병사 중 하나, 오온의 흩어짐, 윤회의 과정이라는 죽음의 의미 중 두 가지를 정확히 서술한 경우
하	필연적인 생로병사 중 하나, 오온의 흩어짐, 윤회의 과정이라는 죽음의 의미 중 한 가지만을 서술한 경우

02 주제: 물건과 인간의 본질에 대한 사르트르의 입장

예시 답안 사르트르에 따르면 망치와 같은 물건은 본질이 존재보다 앞선다. 즉, 망치는 만들기 전에 이미 '못을 박는 도구'라는 목적과 기능이 정해져 있다. 반면 인간은 실존이 본질에 앞서는 존재로, 미리 정해진 본질 없이 태어나 자신의 선택과 행동을 통해 스스로 본질을 만들어 간다.

채점 기준	
상	물건은 본질이 존재에 앞서고, 인간은 실존이 본질에 앞서며 선택과 행동으로 본질을 형성한다는 차이를 서술한 경우
하	물건의 경우 본질이, 인간의 경우 실존이 앞선다는 내용을 정확히 비교하지 못하고 인간은 실존이 본질에 앞선다고만 서술한 경우

03 주제: 지눌이 강조한 제행무상

(1) 답 제행무상

(2) 예시 답안 지눌은 제행무상을 통해 모든 것이 끊임없이 변한다는 사실과 삶의 유한성을 자각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를 통해 현재의 삶을 소중히 여기고, 자신의 마음을 닦는 수행을 지속함으로써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보았다.

채점 기준	
상	핵심 어구를 모두 포함하여 삶의 유한성을 자각하고 현재의 삶을 소중히 여기며 수행을 미루지 않아야 한다는 의의를 서술한 경우
중	핵심 어구를 모두 포함하였으나 삶의 유한성에 대한 자각이 수행으로 이어지는 관계를 구체적으로 드러내지 못하고 서술한 경우
하	핵심 어구 중 일부를 포함하여 삶의 유한성 자각이나 수행의 필요성만 서술한 경우

04 주제: 지눌의 돈오점수

(1) 답 (가): 돈오, (나): 점수

(2) 예시 답안 지눌은 돈오를 통해 자신의 본성이 본래 부처와 다르지 않음을 깨닫더라도, 오랜 시간 형성된 습기(習氣)와 번뇌는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고 보았다. 따라서 깨달음 이후에도 지속적인 수행을 통해 번뇌를 제거하고 깨달음을 삶 속에서 실천해 나가는 점수(漸修)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채점 기준	
상	돈오 이후에도 습기와 번뇌가 남아 있어 지속적인 수행을 통해 이를 제거해야 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서술한 경우
하	습기, 습관, 번뇌 등의 구체적인 내용 없이 돈오 이후에도 지속적인 수행이 필요하다고만 서술한 경우

05 주제: 책임에 대한 사르트르의 입장

예시 답안 사르트르는 인간이 주어진 환경에 의해 수동적으로 결정되는 존재가 아니라, 자신의 선택과 행동을 통해 스스로를 만들어 가는 존재라고 보았다. 따라서 다른 사람이나 알고리즘을 핑계로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것은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이므로, 인간은 자신이 선택한 행동과 그 결과에 대해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

채점 기준	
상	자신의 선택과 행동에 책임져야 하므로 타인이나 알고리즘에 책임을 돌리는 태도가 잘못임을 구체적으로 서술한 경우
하	자신의 선택과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지려는 자세가 부족했다는 내용을 서술하지 않고 악성 댓글을 쓴 부분만 단순히 지적하여 서술한 경우

STEP 4 1등급 정복하기 153쪽

01 ① **02** ①

01 인간의 유한성과 삶의 의미에 대한 지눌과 사르트르의 입장

자료 분석

지눌 갑: 수행의 길을 걷는 이들이여, 마음을 바르게 다스리고 탐욕과 욕망에 얽매이지 말아야 한다. 세월은 덧없이 빠르게 흐르고, 우리의 몸은 아침 이슬처럼 순간적이며, 생명 또한 저무는 해와 같이 곧 사라진다. 오늘 살아 있음이 내일에도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다. 그러므로 깊이 새기고 또 새겨야 한다.

윤회에 따라 현재의 삶이 다음 생과 이어진다는 불교적 관점과 연결해 볼 수 있어.

사르트르 을: 인간은 자신이 계획하고 선택한 바에 의해 규정된다. 인간은 스스로를 실현하는 과정 속에서만 존재하며, 자신의 행위와 삶 전체가 곧 자신이다. 인간은 자신의 삶 속에서 스스로를 형성하고 표현하며, 그 결과로 드러난 모습 이외의 다른 본질은 존재하지 않는다.

인간에게 미리 정해진 본질은 없으며 선택과 행동을 통해 스스로를 형성한다는 실존주의를 강조하였어.

갑은 지눌, 을은 사르트르이다. ① 지눌에 따르면 중생의 삶은 삶과 죽음의 세계를 그치지 않고 돌아가는데, 이때의 죽음을 통해 현재의 삶과 다음번의 생을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사르트르는 삶의 유한성과 주체성의 관계에 주목할 뿐, 죽음 뒤의 현상이나 세계에 대해 긍정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지눌의 입장에서는 죽음 이후의 삶을 고려하지 않고 현재의 유한한 삶에만 주목하는 사르트르의 관점을 비판할 수 있다. 또한 죽음과 삶의 관계를 바라보는 두 사상가의 관점에는 죽음 이후의 세계를 바라보는 데 있어 뚜렷한 차이가 있다. 이러한 차이를 고려하면 지눌은 인간의 삶을 단순히 현재의 삶에서 그치지 않고 윤회라는 보다 넓은 맥락에서 이해해야 한다고 비판할 수 있다.

바로 알기 ② 사르트르 역시 선택과 실천을 통해 자신의 삶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가야 한다고 보므로,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가기 위한 지속적인 실천 자체를 간과한다고 비판하기 어렵다. ③ 인간에게 미리 정해진 목적이 없다고 보는 것은 사르트르의 입장이므로 지눌이 사르트르에게 제기할 비판으로 적절하지 않다. ④ 사르트르는 주체적인 선택과 실천을 통해 삶의 의미를 만들어 가는 것을 중시하므로, 삶의 의미와 실존의 회복이 무관하다고 보지 않는다. ⑤ 지눌 역시 지속적으로 자신의 마음을 살피고 수행할 것을 강조하므로 사르트르가 지눌에게 제기할 비판으로 적절하지 않다.

판서로 보는 고난도 개념 삶과 죽음에 대한 지눌과 사르트르의 입장

구분	지눌	사르트르
죽음	생로병사 중 하나, 윤회의 한 과정, 오온의 분리	인간이 피할 수 없는 유한한 조건
죽음 이후	현재의 삶이 다음 생과 연결됨	죽음 이후의 세계를 긍정하지 않음
삶의 태도	삶의 무상함을 자각하고 자신의 마음을 닦는 수행을 이어 감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고 그 선택의 결과에 책임짐

02 바람직한 삶의 자세에 대한 지눌의 조언

자료 분석

진리를 외부에서 찾기보다 자신의 마음을 돌이켜 살피며 수행해야 한다는 지눌의 입장이 드러나.

수행자들은 게으르지 말고, 탐욕적이지 말고, 머리의 불을 끄듯 돌이켜 살펴야 부처가 될 수 있다. 내가 지금까지 수행하도록 한 존재는 무엇인가? 망망대해에서 거북이가 나무를 만나는 것과 같은 이 다행함을 어떻게 다 표현하겠는가?

제시된 글을 주장한 사상가는 지눌이다. (1) 지눌은 자신의 본성이 본래 부처와 다르지 않음을 깨달은 돈오 이후에도 점수가 필요하다고 보았으며, 일심을 통해 진리를 외부에서 찾는 것을 비판하였다. (2) 지눌은 성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을 따르거나 외부의 지식과 진리를 찾는다고 해서 진정한 깨달음에 다다를 수 없다고 보았다. 오히려 자신의 본성이 부처와 다르지 않음을 깨닫는 것이 진정한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길이라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학생은 (1), (2)를 맞혔으므로, 3.5점을 받는다.

바로 알기 (3) 지눌은 유한한 삶의 모든 순간은 중요하며 중생은 이를 소중히 여기고 수행을 지속해야 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학생은 'O'표를 답안으로 제출했어야 한다. (4) 지눌이 강조한 정혜쌍수는 마음을 집중하는 선정(禪定)과 대상을 바르게 통찰하는 지혜(智慧)를 함께 닦으며 지속적으로 자신의 마음을 살펴야 함을 보여 준다. 따라서 학생은 'O'표를 답안으로 제출했어야 한다.



VI 단원 실력 굳히기 156~159쪽

01 ①	02 ⑤	03 ②	04 ①	05 ③	06 ②	07 ⑤
08 ⑤	09 ⑤	10 ②	11 ⑤	12 ③	13 ③	14 ③

15 (1) 황금률 (2) 해설 참조 16 해설 참조 17 정혜쌍수

01 인간의 불완전성

② 인간은 욕심에 이끌려 옳지 않은 행동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윤리적으로 불완전한 존재이다. ③ 인간은 참과 거짓을 정확히 구분하지 못하거나 사실을 잘못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적으로 불완전하다. ④ 인간은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유한한 존재라는 점에서 신체적으로 불완전하다. ⑤ 인간은 태어난 뒤 오랫동안 타인의 돌봄에 의존해야 하므로 신체적으로 불완전한 존재이다.

바로 알기 ① 다양한 감정을 느끼는 것 자체는 인간의 신체적·지적·윤리적 불완전성을 보여 주는 근거라고 보기 어렵다.

✦ 이건 꼭 알기! 인간의 불완전성

- 인간은 오랫동안 타인의 돌봄이 필요하고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유한한 존재임 → **신체적 불완전성**
- 참과 거짓을 정확히 구분하지 못하거나 사실을 잘못 파악할 수 있음 → **지적 불완전성**
-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못하거나 잘못임을 알면서도 욕심에 따라 행동할 수 있음 → **윤리적 불완전성**

02 현대사회의 유동성과 불안

제시된 글은 현대사회를 액체에 비유하면서 그 유동성에 적응하고, 경쟁해야 하는 현대인의 어려움을 강조한다. 다만 현대인은 과거에 비해 훨씬 다양한 경험을 하며 많은 문명의 혜택을 받고 있다는 점도 제시한다.

바로 알기 ㄱ. 끊임없이 변화하는 현대사회에서는 제도와 규범 역시 안정적으로 유지되기 어려우므로 개인에게 확고한 삶의 방향을 제공한다고 보기 어렵다. ㄴ. 현대인의 불안은 개인의 성향에서만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의 유동성과도 관련되어 있다.

03 한병철의 성과 사회 비판

(가)를 주장한 사상가는 한병철이다. ② 한병철은 현대인이 외부의 강제보다 스스로 세운 목표와 성과에 대한 요구에 따라 자신을 끊임없이 몰아붙인다고 보았다. 이는 '할 수 있다.'라는 긍정성이 오히려 더 많은 성과를 요구하는 압박으로 작용하여 자발적인 자기 착취로 이어지는 모습이다.

바로 알기 ① 긍정성의 과잉은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기보다 스스로를 끊임없이 몰아붙이게 할 수 있다. ③ 한병철은 긍정성의 과잉이 초래하는 문제를 비판하였다. ④ 긍정성의 과잉은 실패의 책임을 공동체보다 개인이 스스로 떠안게 만드는 경향과 관련된다. ⑤ '할 수 있다.'라는 긍정의 언어는 오히려 더 높은 성과를 내야 한다는 부담과 압박으로 이어질 수 있다.

04 종교의 역할과 가치

갑. 종교는 힘든 현실에서 의지할 대상을 제공하고 공동체의 윤리적 가치를 제공한다. 을. 종교는 사랑, 평화 등과 같은 윤리적 가치를 강화하면서 공동체의 연대감을 키울 수 있다.

바로 알기 병. 종교는 인간이 현실의 책임을 회피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배려·연대와 같은 가치를 통해 공동체의 공존과 평화에 기여할 수 있다. 정. 종교의 역할은 현재의 삶을 버리고 사후 세계만을 추구하게 하는 데 있지 않고, 삶의 의미와 방향을 찾도록 돕는 데 있다.

05 엘리아데의 종교관

제시된 글을 주장한 사상가는 엘리아데이다. 3. 엘리아데는 종교가 인간이 일상 속에서 성스러운 의미를 발견한다고 주장하였다. 4. 종교는 초월적 질서와 연결됨으로써 불안을 극복하고 삶의 의미와 방향을 찾도록 돕는다고 보았다.

바로 알기 1. 엘리아데는 종교적 인간이란 의례를 통해 성스러운 시간에 참여한다고 보았다. 2. 엘리아데에 따르면 자연물은 그 자체가 아니라 성스러움을 드러내는 매개이기 때문에 의미를 지닌다.

06 그리스도교와 이슬람교의 공통적 가르침

(가)는 이슬람교, (나)는 그리스도교이다. 두 종교에서는 신앙이 단순한 내면적 믿음에 머무르지 않고 타인에 대한 사랑·자비·나눔과 같은 윤리적 실천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본다. 또한 이러한 실천을 타인에게까지 확장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바로 알기 ㄴ. 두 종교는 신앙이 개인의 내면적 믿음에만 머물러야 한다고 보지 않고 윤리적 실천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본다. ㄹ. 사랑과 자비는 같은 종교를 믿는 사람에게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타인에게까지 확장되어야 한다.

07 퀑이 강조한 종교 간 대화

그림의 사상가는 퀑이다. ⑤ 퀑은 역사·전통·신앙·구원관이 다른 종교를 억지로 하나로 통합하면 오히려 새로운 갈등이 생길 수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그는 각 종교가 고유한 정체성을 유지하면서도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공통의 윤리적 가치를 바탕으로 평화를 추구해야 한다고 보았다.

바로 알기 ① 퀑은 자신의 종교만이 유일한 진리라고 여기며 다른 종교를 배척하는 태도를 경계하였다. ② 종교 간 가치의 우열을 가리기보다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공통의 윤리적 가치를 찾아야 한다고 보았다. ③ 종교 간 평화를 위해 각 종교의 고유한 신념과 정체성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유지하며 조화롭게 공존해야 한다고 보았다. ④ 세계 평화를 위해 정치적·법적 강제력보다 종교 간 대화와 보편적 윤리의 형성을 강조하였다.

08 죽음과 자유에 대한 사르트르의 입장

제시된 글을 주장한 사상가는 사르트르이다. ⑤ 사르트르는 인간이 죽음과 같은 현실적 한계를 피할 수는 없지만, 그 안에서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책임지는 데 진정한 자유가 있다고 보았다.

바로 알기 ① 사르트르는 죽음 때문에 삶의 결말이 이미 정해진다고 보지 않았다. ② 죽음이 불가피하더라도 현재의 선택과 행동을 통해 삶의 의미를 만들어 갈 수 있다고 보았다. ③ 자신의 삶에 관한 선택과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맡겨서는 안 된다고 보았다. ④ 인간의 자유는 죽음과 같은 현실적 한계를 완전히 제거하는 자유가 아니라, 주어진 조건 속에서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자유이다.

09 불교의 출생과 죽음

㉠ 불교에서는 인간의 삶과 존재는 독립적으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원인과 조건에 의존하여 이루어진다고 본다. ㉡ 불교는 모든 존재가 서로 인연을 맺고 영향을 주고받으며 존재한다고 본다. ㉢ 불교에서는 생로병사를 인간이 겪는 고통으로 보며, 죽음은 그 가운데 하나이다. ㉣ 불교에서는 인간을 오온의 일시적인 결합으로 이해하며, 죽음은 인간을 구성하던 오온이 흩어지는 과정으로 본다.

바로 알기 ㉤ 죽음은 윤회의 굴레에서 자동으로 벗어나는 과정이 아니며, 번뇌와 집착을 끊고 깨달음에 이를 때 윤회에서 벗어나 해탈할 수 있다.

10 죽음에 대한 야스퍼스와 하이데거의 입장

갑은 야스퍼스, 을은 하이데거이다. ㄱ, ㄷ. 두 사상가는 모두 인간이 죽음을 외면하지 않고 자신의 유한성을 자각할 때 일상적인 삶에서 벗어나 참된 자기 자신을 발견할 수 있다고 보았다.

바로 알기 ㄴ. 두 사상가는 죽음을 실제로 경험한 뒤에야 자신의 존재 가능성을 이해할 수 있다고 보지 않았다. 죽음을 미리 의식하고 자신의 유한성을 자각하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ㄹ. 죽음은 인간이 과학과 이성의 발달을 통해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 한계가 아니라 피할 수 없는 조건이다.

11 삶의 유한성에 대한 지눌의 입장

그림의 사상가는 지눌이다. ㄷ, ㄹ. 지눌은 모든 것이 끊임없이 변한다는 제행무상의 이치를 깨닫고, 유한한 삶을 헛되이 보내지 않도록 탐욕을 버리며 수행에 힘써야 한다고 보았다.

바로 알기 ㄱ. 지눌은 삶이 덧없다는 이유로 감각적 욕망을 충족해야 한다고 보지 않고, 오히려 탐욕과 욕망을 경계해야 한다고 보았다. ㄴ. 삶의 유한성을 의식하는 것은 수행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삶을 소중히 여기고 수행을 미루지 않게 하는 계기가 된다.

12 주체적인 삶에 대한 사르트르의 입장

제시된 글을 주장한 사상가는 사르트르이다. ③ 사르트르는 인간이 자신의 선택과 행위를 통해 스스로를 형성하므로, 그 선택과 결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았다.

바로 알기 ① 사르트르는 인간에게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본질이 있다고 보지 않았다. ② 사르트르에 따르면 인간의 존엄성이 사회적 지위나 능력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 존재한다. ④ 사르트르는 자유로운 선택에는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이 뒤따른다고 보았다. ⑤ 사르트르에 따르면 중요한 선택은 자신이 주체적으로 선택하여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해야 한다.

13 사르트르와 지눌의 입장

갑은 사르트르, 을은 지눌이다. ③ 지눌은 흔들리거나 고요한 마음을 모두 있는 그대로 살펴 자신의 참된 본성을 깨닫고, 욕망과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주체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고 보았다.

바로 알기 ① 사르트르는 인간에게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본질이나 목적이 있다고 보지 않았다. ② 인간은 외부 환경에 의해 전적으로 결정되는 존재가 아니며 자신의 선택과 행동에 책임져야 한다. ④ 지눌은 인간에게 본래의 마음이 없다고 본 것이 아니라 자신의 본래 성품을 깨달아야 한다고 보았다. ⑤ 두 사상가 모두 외부 조건이 인간의 삶을 전적으로 결정한다고 보지 않았다.

14 지눌의 일심 사상

제시된 글은 지눌의 일심 사상을 바탕으로 한다. ③ 지눌은 중생과 부처가 서로 다른 마음을 지닌 것이 아니라, 일심을 깨달았는지에 따라 구분되며 일심을 깨달을 때 한없는 지혜와 능력을 드러낼 수 있다고 보았다.

바로 알기 ① 지눌에 따르면 중생과 부처는 본질적으로 같은 마음을 지녔다. ② 깨달음은 외부의 절대적 존재가 아니라 자신의 마음에서 찾아야 한다. ④ 부처가 되기 위해 본래의 마음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일심을 깨달아야 한다. ⑤ 일심은 중생과 부처에게 서로 다르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15 황금률의 의미와 종교적 가치

(1) 답 황금률

(2) 예시 답안 그리스도교와 이슬람교는 모두 신의 뜻에 따라 이웃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삶을 중시하기 때문에 황금률을 강조하였다. 자신이 대접받고 싶은 방식으로 타인을 대함으로써 공동체의 평화와 조화를 이루고자 한 것이다.

채점 기준	
상	사랑과 존중을 바탕으로 이기심과 보복을 줄이고 공동체의 평화를 이루기 위해 황금률을 강조하였음을 구체적으로 서술한 경우
하	종교에서 황금률을 강조한 내용 없이 황금률의 정의만 서술한 경우

16 사물과 인간의 본질에 대한 사르트르의 입장

예시 답안 망치와 같은 도구는 미리 정해진 목적과 본질에 따라 일정한 쓰임을 수행하는 도구로 존재하는 반면, 인간은 미리 정해진 목적과 본질 없이 존재하며 자신의 선택과 행동에 따라 앞으로의 모습을 스스로 형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채점 기준	
상	사물은 미리 정해진 목적과 본질에 따라 존재하지만, 인간은 선택과 행동을 통해 자신의 본질을 형성한다는 차이를 서술한 경우
하	본질과 관련하여 사물이나 인간 중 한 대상만을 서술한 경우

17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한 지눌의 수행법

마음을 고요히 하는 선정과 사물과 마음의 참된 모습을 통찰하는 지혜를 함께 닦아 깨달음에 이르는 것이 정혜쌍수이다.

부록

완자 중간·기말고사 풀이

완자 중간고사

02~07쪽

01 ③ 02 ④ 03 ④ 04 ⑤ 05 ⑤ 06 ② 07 ⑤
08 ⑤ 09 ③ 10 ⑤ 11 ① 12 ⑤ 13 ④ 14 ③
15 ④ 16 ⑤ 17 ⑤ 18 ⑤ 19 ③ 20 ②
21 이이 22 사려 깊음 23 연기 24 전념 25 소요유
26 무지의 베일 27 (1) 아리스토텔레스 (2) 해설 참조
28 (1) 롤스 (2) 해설 참조

01 몸과 마음에 대한 세이건의 입장

③ 세이건은 인간이 본능을 지니더라도 그것이 행동 전체를 결정한다고 보지 않았다. 대뇌 피질의 사고 능력은 충동을 평가하고 행동의 결과를 가늠하게 하므로, 인간은 반응을 돌아보고 필요할 때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다.

바로 알기 ① 세이건은 마음을 몸과 독립된 실체로 보지 않았다. ② 세이건은 인간이 사고 능력으로 본능적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보았다. ④ 세이건은 인간도 다른 생명체처럼 우주의 물질에서 비롯되었다고 보았다. ⑤ 세이건은 감정과 습관이 다른 동물에게도 나타나므로, 이것만으로 인간 고유의 특징을 설명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02 이이가 주장한 도덕적 주체가 되기 위한 방법

제시된 글을 주장한 사상가는 이이이다. ① 이이는 입지를 도덕적 수양의 목표와 방향을 정하는 출발점으로 보았다. ② 혁구습은 자신을 변화시키기 위해 습관부터 바로잡는 실천이다. ③ 이이는 구용과 구사를 꾸준히 실천하여 몸가짐과 생각을 바르게 하는 지신을 강조하였다. ⑤ 이이는 견리사의와 의주리종의 자세로 이익을 마주하면 의로운지 먼저 살피고, 이로움보다 의로움을 앞세워야 한다고 보았다.

바로 알기 ④ 이이는 몸과 마음이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보았다. 그는 마음의 수양이 행동으로 드러나야 하므로 생각을 바르게 하고 몸가짐을 삼가는 일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이는 이러한 수양을 통해 겉과 속이 한결같아져야 한다고 보았다.

03 몸과 마음의 관계에 대한 사상가들의 입장

① 순자는 마음이 도리를 판단하여 몸의 감각적 욕구를 다스릴 수 있다고 보았다. ② 이이는 몸과 마음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므로 함께 바르게 수양해야 한다고 보았다. ③ 플라톤은 불멸하는 영혼이 육체와 구별되며 독립하여 존재한다고 보았다. ⑤ 메를로퐁티는 몸과 마음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인간의 삶과 경험을 이룬다고 보았다.

바로 알기 ④ 데카르트는 물질로 이루어진 몸과 사유하는 정신을 서로 구별되는 독립된 실체로 보았다. 그는 정신이 육체가 없어도 존재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04 삶의 주체로서의 나에 대한 성찰

제시된 글은 자기 성찰을 바탕으로 잘못된 습관을 개선하고 도덕적 가치를 삶에서 구현하는 태도를 강조한다. 도덕적 주체는 스스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도덕적 기준에 따라 행동하는 존재이다. ⑤ 개인적 손익에 좌우되지 않고 도덕적 판단을 우선하며, 자신의 선택에 따른 책임을 다해야 한다.

바로 알기 ① 삶의 주체는 충동적인 판단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 살피고, 자신의 가치와 맞는 선택인지 따져 보아야 한다. ② 삶의 주체는 상황과 조건이 삶에 미치는 영향을 살피면서도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해야 한다. ③ 삶의 주체는 타인의 평가나 기대보다 자신이 중시하는 가치와 목표를 바탕으로 행동해야 한다. ④ 도덕적 목표를 세우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이를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

05 에피쿠로스가 강조한 욕구의 분류와 사려 깊음

에피쿠로스는 마음이 평온한 상태를 참된 쾌락으로 보고, 사려 깊음을 통해 욕구를 분별해야 한다고 보았다. ⑤ 에피쿠로스의 입장에서는 A가 타인의 인정과 명예에 대한 불필요한 욕구를 절제하여 마음의 평온을 추구해야 한다고 조언할 수 있다.

바로 알기 ① 에피쿠로스는 타인의 반응에 따라 얻는 만족은 불안정해 마음을 흔들 수 있으므로, 그런 욕구를 절제해야 한다고 보았다. ② 에피쿠로스는 자연적이고 필수적인 욕구는 고통이 사라질 만큼 충족하고 불필요한 욕구는 절제해야 한다고 보았다. ③ 에피쿠로스는 욕구의 종류를 구분하고, 사려 깊음을 바탕으로 쾌락과 고통이 가져올 결과를 살펴야 한다고 보았다. ④ 에피쿠로스는 타인에게 인정받아 유명해지려는 욕구를 자연적이지도 필수적이지도 않은 욕구로 보아 절제해야 한다고 보았다.

06 고통과 쾌락에 대한 에피쿠로스의 입장

㉠은 에피쿠로스이다. 그는 쾌락을 행복한 삶의 목표로 보면서도 불필요한 욕망을 절제해 마음의 평온을 추구해야 한다고 보았다. ㄱ. 에피쿠로스는 욕망을 무분별하게 충족하면 결핍이 생기므로 고통을 줄이는 삶을 추구하였다. ㄹ. 에피쿠로스는 감각적 즐거움은 불안을 남길 수 있어 지속적인 평온을 주는 정적 쾌락을 중시하였다.

바로 알기 ㄴ. 에피쿠로스는 고통이 본성상 나쁘더라도 그 고통을 감수한 결과 더 큰 쾌락을 얻는다면 고통을 선택할 수 있다고 보았다. ㄷ. 에피쿠로스는 강렬한 감각적 쾌락을 무작정 추구하면 오히려 고통이 커질 수 있으므로, 욕구를 분별하고 절제하여 평온한 삶을 추구해야 한다고 보았다.

07 고통과 쾌락에 대한 석가모니의 입장

제시된 글을 주장한 사상가는 석가모니이다. ⑤ 석가모니는 무명에서 비롯된 욕망과 집착이 괴로움의 원인이 된다고 보고, 모든 것이 변화한다는 무상을 깨달아 대상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보았다. 그는 쾌락에 빠지는 삶과 지나친 고행이라는 두 극단을 경계하고, 어느 한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중도를 실천하여 괴로움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보았다.

바로 알기 ① 석가모니는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 그 발생 원인을 바르게 알아야 한다고 보았다. ② 석가모니는 모든 것이 끊임없이 변한다는 무상을 깨닫고 대상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보았다. ③ 석가모니는 감각적 쾌락의 탐닉과 지나친 고행을 모두 경계하고 어느 한쪽에도 치우치지 않아야 한다고 보았다. ④ 석가모니는 자신의 욕망과 집착을 성찰하고 이를 내려놓음으로써 괴로움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보았다.

08 현대사회의 관계 맺기의 어려움

제시된 사례는 연락이 많더라도 신뢰와 공감을 나누는 관계는 부족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사람들과 계속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는 압박은 관계를 돌볼 여유까지 줄일 수 있다. ⑤ 온라인 연결의 편리함과 친밀한 관계의 형성은 별개의 문제이며, 잦은 연락은 피로를 낳을 수 있다.

바로 알기 ① 친밀성은 연결된 사람의 수보다 깊이 있는 대화와 정서적 교류를 통해 높아진다. ② 관계 맺기의 어려움에는 개인의 성격뿐 아니라 디지털 소통 환경 등 다양한 요인이 작용한다. ③ 온라인 소통은 연락을 편리하게 하지만, 깊은 감정 교류를 위해서는 진솔한 대화와 공감이 필요하다. ④ 온라인에서도 상대방의 상황을 고려해 소통해야 하며, 모든 연락에 즉시 답장할 필요는 없다.

09 관계 맺기에 대한 석가모니의 입장

제시된 글을 주장한 사상가는 석가모니이다. ③ 석가모니는 모든 존재가 원인과 조건에 따라 서로 의존하여 생겨나고 변화한다는 연기의 이치를 강조하였다. 석가모니의 입장에 따르면 인간 역시 독립된 고정적 실체가 아니라 다양한 관계 속에서 영향을 주고받으며 살아간다. 그는 고정된 자아에 대한 자기중심적 집착에서 벗어나 관계 속의 자신을 성찰해야 한다고 보았다.

바로 알기 ① 석가모니는 인간을 다른 존재와 관계 맺고 원인과 조건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하는 존재로 보았다. ② 석가모니는 나와 타인의 차이를 인정하면서도 서로 의존하는 관계임을 깨닫고, 차별과 집착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보았다. ④ 석가모니는 자신만 독립된 존재라 여기면 타인의 처지를 외면하기 쉬우므로, 갈등의 원인을 자신에게서도 찾아야 한다고 보았다. ⑤ 석가모니는 자신의 욕구만 앞세우면 타인을 배려하기 어려워지므로, 자기중심적인 집착을 경계해야 한다고 보았다.

10 석가모니가 강조한 무주상보시의 실천

제시된 사례에서 A는 타인에게 받은 도움을 먼저 떠올리며 보답을 요구하거나 선행을 내세우지 않았다. ⑤ 무주상보시는 도움을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베푼 행위의 결과에 대한 집착을 함께 내려놓는 태도이다. A는 도움을 일방적인 시혜로 여기기보다 서로 의존하는 관계 속의 실천으로 이해하므로 무주상보시의 취지에 부합한다.

바로 알기 ① 석가모니는 보답을 바라지 않고 베푸는 태도를 중시하였다. 이러한 베풂은 무주상보시를 실천하는 바람직한 태도이다. ② 석가모니는 모든 존재가 서로 의존한다는 연기의 이치를 강조하였다. A는 도움을 갚아야 한다는 의무감보다 자신도 타인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감을 깨닫고 친구를 도왔다. ③ 석가모니는 보살이 자신의 깨달음에만 머물지 않고 다른 중생의 고통을 덜어 주는 자비를 실천해야 한다고 보았다. ④ 석가모니는 보살이 선행을 했다는 생각에도 집착하지 않아야 한다고 보았다. A는 자신의 선행을 특별한 일로 여기지 않았다.

11 관계 맺기에 대한 롤스의 입장

롤스는 인간을 자유롭고 합리적인 존재로 보고, 사회를 구성원들이 서로 협력하는 체제로 이해하였다. 1. 롤스는 인간이 타인과 협력하며 살아간다고 보았다. 2. 그는 구성원들이 각자의 선을 추구하면서도 공동의 이익을 위해 협력할 수 있다고 보았다. 3. 롤스는 협동의 성과와 부담을 나누는 과정에서 구성원들의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다고 보았다.

바로 알기 4. 롤스는 구성원들의 선의만으로 공정한 협동이 유지될 수 있다고 보지 않았다. 그는 공정한 협동을 위해 정의의 원칙과 이를 뒷받침하는 사회 제도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12 타인과의 관계 맺기에 대한 공자의 입장

제시된 글을 주장한 사상가는 공자이다. 공자는 자신의 마음을 미루어 타인의 처지를 헤아리는 서(恕)를 실천하고, 벗과 함께 인격을 닦아야 한다고 보았다. ① 공자는 친구의 입장을 헤아려 행동해야 한다고 보았다. ② 친구를 존중하며 함께 인격을 수양하는 관계를 중시하였다. ③ 공자는 자신이 원하지 않는 일을 남에게도 행하지 말아야 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자신이 싫어하는 역할을 친구에게 일방적으로 떠넘기지 않아야 한다. ④ 친구에게 잘못이 있을 때 진실한 마음으로 충고하고, 자신도 친구의 지적을 받으면 잘못을 성찰하여 행동을 바로잡아야 한다.

바로 알기 ⑤ 공자는 친구의 잘못을 진실한 마음으로 충고하되 자신의 판단을 따르도록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다. 상대방과 의견이 다를 때에도 서로 존중하면서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도와야 한다.

13 진정한 우정에 대한 아리스토텔레스의 입장

아리스토텔레스는 우정을 이익·즐거움·좋음(덕)에 따라 구분하였다. 이익과 즐거움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에 기대는 관계는 불안정하지만, 덕에 기초한 관계는 친구의 좋은 성품을 깊이 이해하고 오랜 친교로 상호 신뢰를 쌓으며 지속된다. ④ 그는 서로의 선을 바라는 마음이 상대에게도 있음을 알아야 진정한 우정이 성립한다고 보았다.

바로 알기 ① 아리스토텔레스는 즐거움 때문에 맺어진 우정은 그 즐거움이 사라지면 약해질 수 있다고 보았다. ② 아리스토텔레스는 서로 이익을 주고받는 관계를 이익에 근거한 우정으로 보았으며, 이를 덕에 근거한 우정과 구분하였다. ③ 아리스토텔레스는 친구의 품성과 상관없이 관계를 유지하기만 한다면 진정한 우정이라고 보지 않았다. ⑤ 아리스토텔레스는 진정한 우정에는 오랜 친교로 신뢰를 쌓는 과정이 필요하므로 많은 사람과 동시에 진정한 우정을 맺기는 어렵다고 보았다. 서로를 깊이 알려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시간과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14 자유와 평등의 의미와 중요성

제시된 글은 삶을 선택할 기회와 존중받을 권리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ㄴ. 자유는 타인의 강요에 삶이 좌우되지 않아야 한다는 뜻이다. ㄷ. 평등한 참여가 보장되어야 서로 다른 시민도 공동체의 결정에 함께 기여할 수 있다.

바로 알기 ㄱ. 평등은 개인의 차이를 없애는 것이 아니다. ㄹ. 평등은 모두에게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다.

15 자유와 평등에 대한 장자의 입장

(2) 장자는 인위적 분별에서 벗어나 자연의 흐름에 따라 살아야 한다고 보았다. (3) 장자는 도의 관점에서 만물에 본래적인 귀천이 없다고 보았다. (4) 장자는 소요유를 참된 자유의 경지로 보았다. 학생은 세 항목을 옳게 서술하여 3점을 받는다.

바로 알기 (1) 장자는 인간에게 유용한지를 기준으로 만물의 가치를 판단하는 태도를 경계하였다.

16 자유와 평등에 대한 칸트의 입장

⑤ 칸트는 이성이 세운 도덕 법칙을 따르는 자율을 인간 존엄성의 근거로 보았다. 그는 모든 인간을 동등한 인격체이자 그 자체로 목적으로 존중해야 한다고 보았다.

바로 알기 ① 칸트는 외부의 간섭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자유가 실현된다고 보지 않았다. ② 칸트는 평등을 동일한 결과의 보장이 아니라 동등한 존엄성과 관련지었다. ③ 칸트는 욕망보다 도덕 법칙을 따르는 자율을 중시하였다. ④ 칸트는 행복을 위해서라도 인간을 수단으로만 대우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다.

17 자유와 평등에 대한 장자와 칸트의 입장

갑은 장자, 을은 칸트이다. ⑤ 장자는 외물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를, 칸트는 도덕 법칙에 따르는 자율을 중시하였다. 두 사상가는 욕망이나 외부의 구속에 좌우되지 않는 자유를 강조하였다.

바로 알기 ① 장자는 인위적 규범에 얽매이지 않아야 한다고 보았다. ② 장자는 인간의 유용성을 기준으로 만물을 차별하는 태도를 경계하였다. ③ 칸트는 욕망보다 도덕 법칙에 따르는 자율을 중시하였다. ④ 칸트는 인간을 단순한 수단이 아니라 목적으로 대해야 한다고 보았다.

18 능력주의의 한계

제시된 글은 개인의 능력과 성취가 노력뿐 아니라 스스로 선택하기 어려운 조건의 영향도 받는다고 지적한다. 이러한 조건이 각자 다르므로 경쟁 결과를 개인의 공로로만 평가하기는 어렵다.

바로 알기 ① 능력주의는 개인의 노력을 분배 기준으로 삼는다. ② 능력주의는 능력 차이와 그에 따른 보상 차이를 인정한다. ③ 능력주의는 차등 보상 자체를 부정의하다고 보지 않는다. ④ 능력주의는 사회적 배경보다 개인의 능력과 노력을 중시한다.

19 분배에 대한 순자와 롤스의 입장

갑은 순자, 을은 롤스이다. ㄴ. 순자는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사람마다 다른 덕과 능력, 역할을 고려하여 예에 따라 지위와 몫을 정해야 한다고 보았다. ㄷ. 순자는 예를, 롤스는 정의의 원칙을 사회적 분배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보았다.

바로 알기 ㄱ. 순자는 욕망을 없애기보다 예를 통해 조절해야 한다고 보았다. ㄹ. 롤스는 재능 차이 자체를 부정의하다고 보지 않고, 사회 제도가 이를 다루는 방식을 중시하였다.

20 원초적 입장과 정의의 원칙에 대한 롤스의 입장

롤스는 정의의 원칙에 따라 기본적 자유를 보장하고 불평등을 조정해야 한다고 보았다. ㄱ. 그는 모든 사람의 기본적 자유가 동등하게 보장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ㄷ. 그는 불평등이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이익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보았다.

바로 알기 ㄴ. 롤스는 공정한 기회균등과 차등의 원칙을 충족하면 불평등을 허용할 수 있다고 보았다. ㄹ. 그는 기본적 자유의 원칙을 차등의 원칙보다 우선시하였다.

21 이이가 강조한 도덕적 수양과 실천

이이는 몸과 마음을 바르게 수양하고, 도덕적으로 옳다고 판단한 바를 일상생활에서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22 에피쿠로스가 강조한 사려 깊음

에피쿠로스는 사려 깊음을 행복한 삶을 위한 중요한 덕으로 보았다. 그는 이성적인 판단을 통해 고통을 피하고 마음의 평온을 얻을 수 있다고 보았다.

23 불교의 연기와 존재의 상호 의존성

불교에서는 모든 존재가 서로 의존하여 성립하므로 독립적이고 고정된 실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본다. 이러한 연기의 이치를 깨닫는 것은 집착에서 벗어나는 바탕이 된다.

24 나딩스의 배려 윤리에서 전념의 의미

나딩스는 배려자가 피배려자의 처지와 필요를 깊이 이해하고, 그에 알맞게 응답하는 관계를 중시하였다.

25 장자가 강조한 소요유

장자는 세속적인 가치와 이해득실에 얽매이지 않고 도에 따라 자연스럽게 살아갈 때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다고 보았다.

26 롤스가 강조한 무지의 베일과 공정한 원칙 선택

롤스는 무지의 베일이 개인의 특수한 처지와 이해관계에 따른 편향을 막아, 누구나 공정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정의의 원칙을 선택하도록 한다고 보았다.

27 진정한 우정에 대한 아리스토텔레스의 입장

(1) 답 아리스토텔레스

(2) 예시 답안 학생 A는 친구가 과제를 도와주는지에 따라 관계를 맺고 끊기보다, 친구의 좋은 성품과 됨됨이 자체를 소중히 여기며 친구가 잘되기를 바라야 한다. 또한 오랜 시간 친교를 나누면서 서로를 이해하고 신뢰를 쌓으며 함께 좋은 삶을 추구해야 한다.

채점 기준	
상	아리스토텔레스의 입장에서 이익보다 친구의 성품과 됨됨이를 소중히 여기고, 친구의 선을 바라며 지속적인 친교와 신뢰를 쌓아야 한다는 핵심 내용을 모두 포함하여 학생 A의 상황에 적절하게 적용한 경우
하	아리스토텔레스가 강조한 진정한 우정의 핵심 내용을 일부만 포함하거나, 학생 A의 상황에 적절하게 적용하지 못한 경우

28 공리주의적 정의관에 대한 롤스의 입장

(1) 답 롤스

(2) 예시 답안 을은 사회 전체의 행복과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공리주의의 입장이다. 롤스는 이러한 입장이 다수의 이익을 위해 개인이나 소수의 기본적 자유와 권리를 희생시킬 수 있다고 비판하였다. 그는 원초적 입장에서 자신도 희생자가 될 수 있으므로 공리의 원칙을 배제하고, 모든 사람의 기본적 자유를 우선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보았다.

채점 기준	
상	을의 입장이 사회 전체의 행복과 이익을 극대화하는 과정에서 개인이나 소수의 기본적 자유와 권리를 희생시킬 수 있다는 문제점과, 롤스가 기본적 자유의 우선적 보장을 강조했다는 점을 모두 정확하게 서술한 경우
하	을의 입장에서 나타날 수 있는 개인이나 소수의 기본적 자유와 권리 침해 가능성 또는 롤스가 강조한 기본적 자유의 우선성 중 일부만 서술한 경우

완자 기말고사

08~13쪽

01 ③	02 ④	03 ②	04 ①	05 ⑤	06 ②	07 ③
08 ①	09 ③	10 ②	11 ③	12 ④	13 ③	14 ③
15 ④	16 ④	17 ②	18 ⑤	19 ⑤	20 ③	

21 화이부동

22 (가): 기능적 문해력, (나): 사회적 문해력

23 수기치인 24 무위자연 25 배타주의

26 제행무상 27 (1) 갑: 카슨, 을: 노자 (2) 해설 참조

28 (1) 사상가: 지눌, ㉠: 허무주의 (2) 해설 참조

01 밀이 강조한 의견의 다양성과 토론의 가치

제시된 글을 주장한 사상가는 밀이다. ①, ②, ⑤ 밀은 다양한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토론하는 과정을 통해 기존 생각의 오류를 발견하고, 진리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④ 밀은 인간의 개별성이 각자의 경험과 사고를 통해 형성되며, 이러한 다양한 개별적 관점이 자유롭게 표현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바로 알기 ③ 밀은 자신이 속한 집단의 권위나 관습을 무조건 따르기보다 다양한 의견을 자유롭게 비교·검토하고 자신의 생각을 비판적으로 성찰하는 태도를 중시하였다.

02 밀과 하버마스가 강조한 합리적 의사소통의 조건

갑은 밀, 을은 하버마스이다. 밀은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과정에서 진리에 가까워질 수 있다고 보았다. 하버마스는 공론장에서 모든 사람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ㄱ. 두 사상가는 모두 담론 참여자들의 자유로운 의견 교환을 중시하였다. ㄷ, ㄹ. 두 사상가는 모든 사람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의견을 제시하며 합리적 의사소통을 이루어야 한다고 보았다.

바로 알기 ㄴ. 밀과 하버마스는 모두 토론 과정에서 자신의 이익만을 앞세우기보다 타당한 근거와 합리적인 의사소통을 중시하였다. 따라서 해당 내용은 두 사상가의 공통 입장으로 보기 어렵다.

03 공자가 강조한 화이부동(和而不同)의 태도

그림의 사상가는 공자이다. ② 공자는 군자가 다른 사람들과 조화를 이루면서도 무조건 같은 생각을 따르지는 않는 화이부동(和而不同)의 태도를 지녀야 한다고 보았다. 즉 그는 자신과 다른 의견을 배척하지 않고 존중하며, 다양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부족함을 성찰하고 배움을 얻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바로 알기 ① 공자는 사회의 조화를 위해 모든 사람이 같은 생각을 가져야 한다고 보지 않았다. ③ 공자는 자신의 생각만을 기준으로 삼기보다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고 배울 점을 찾아야 한다고 보았다. ④ 공자는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을 멀리하기보다 조화를 이루며 함께 살아가는 태도를 중시하였다. ⑤ 공자는 조화를 위해 자신의 생각을 포기하고 다수의 의견을 무조건 따라야 한다고 보지 않았다.

04 메타버스의 특징과 윤리적 책임

(가)는 메타버스이다. ㄱ, ㄴ. 메타버스는 현실의 제약을 벗어난 가상 공간으로, 사용자는 아바타를 통해 다른 사람들과 상호 작용하며 사회적·경제적·문화적 활동을 할 수 있다. 또한 현실 세계의 제약을 벗어나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지만, 가상 공간에서의 행동도 현실 세계와 연결되므로 윤리적 책임이 요구된다.

바로 알기 ㄷ. 메타버스는 현실 세계와 단절된 공간이 아니라 경험, 자아, 사회·문화, 경제 등의 측면에서 현실 세계와 영향을 주고받는다. ㄹ. 가상 공간에서 이루어진 행동도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현실 세계와 마찬가지로 윤리적 책임이 요구된다.

05 장자가 본 만물의 변화와 분별을 극복하는 자세

장자는 인간이 자신의 기준에 따라 사물과 세계를 고정적으로 구분하는 태도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보았다. ⑤ 장자의 입장을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의 관계에 적용하면, 두 세계를 고정적으로 구분하기보다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를 이해해야 한다.

바로 알기 ① 장자는 인간의 경험과 판단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아 사물을 구분하는 태도를 경계하였다. ② 장자는 만물의 차이를 고정적으로 나누고 판단하기보다, 인위적인 분별에서 벗어나 만물의 변화와 관계성을 이해해야 한다고 보았다. ③ 장자는 현실과 꿈의 구별 자체를 부정한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해 인간의 고정된 판단과 분별을 성찰하고자 하였다. ④ 장자는 만물이 끊임없이 변화한다고 보았으므로 존재가 고정된 모습으로 유지된다는 입장을 지지하지 않았다.

06 장자의 입장에서 본 디지털 공간의 윤리적 태도

제시된 글을 주장한 사상가는 장자이다. 장자는 모든 존재가 서로 의존하며 관계 속에서 의미를 지닌다고 보았다. 따라서 '이것'과 '저것'을 절대적으로 구분하는 고정된 분별에서 벗어나 만물이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깨닫는 태도를 강조하였다. ② 이러한 관점은 디지털 공간에서도 자신과 타인이 연결되어 있음을 인식하고 서로를 존중하는 태도로 이어질 수 있다.

바로 알기 ① 장자는 현실과 가상 세계의 차이를 없애기 위해 모든 사람이 같은 생각을 가져야 한다고 보지 않았다. ③ 장자는 자신의 관점만을 절대화하고 다른 존재와의 관계를 무시하는 태도를 경계하였다. ④ 장자는 기술적 해결만을 강조한 것이 아니라, 존재 간의 관계와 조화를 중요하게 보았다. ⑤ 장자는 가상 세계와 현실 세계를 완전히 분리된 것으로 보지 않으며,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로 이해할 수 있다.

07 존재적 실존 양식과 소유적 실존 양식에 대한 프롬의 입장

제시된 글을 주장한 사상가는 프롬이다. 프롬은 인간이 소유한 것을 통해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려는 소유적 실존 양식에서 벗어나, 자신의 능력과 잠재력을 능동적으로 발휘하는 존재적 실존 양식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보았다. ㄴ, ㄷ. 존재적 실존 양식은 인간 자체의 내적 성장을 지향하며, 소유적 실존 양식은 재산·지위·지식 등 자신이 가진 것을 통해 자신을 규정하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하려는 삶의 방식이다.

바로 알기 ㄱ. 존재적 실존 양식은 자신의 잠재력을 발휘하고 내적 가치를 실현하는 삶의 방식을 의미한다. ㄹ. 존재적 실존 양식에서는 더 많은 소유나 소비보다 존재의 의미 자체를 중시한다.

08 정약용이 강조한 애민 정신

그림의 사상가는 정약용이다. ① 정약용은 목민관이 자신의 사사로운 욕심을 버리고 백성을 위한 공적인 자세를 지녀야 한다고 보았다. 그는 관리가 맡은 역할에 책임을 다하며 백성의 삶을 살피고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바로 알기 ② 정약용은 백성의 의견을 무시하고 자신의 판단만을 따르게 하는 태도가 아니라, 백성을 사랑하고 그들의 어려움을 살피는 자세를 강조하였다. ③ 정약용은 관리가 자신의 지위와 권한을 유지하는 것보다 백성의 삶을 살피는 일을 우선해야 한다고 보았다. ④ 정약용은 개인의 욕심을 충족하기보다 사적인 욕망을 절제하고 백성을 위해 봉사해야 한다고 보았다. ⑤ 정약용은 목민관의 덕목으로 수기치인을 강조하였으며, 이는 내적 수양을 바탕으로 백성의 삶을 책임 있는 자세로 돌봐야 함을 의미한다.

09 프롬이 강조한 삶에 대한 사랑과 존재 지향적 삶의 태도

①, ② 프롬은 인간의 생명력을 키우는 욕망을 추구하고, 자신과 타인을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④, ⑤ 프롬은 인간이 소유에 집착하고 타인을 경쟁 대상으로 바라보는 태도에서 벗어나, 삶을 사랑하고 자신을 포함한 모든 인간을 그 자체로 존중하고 존엄한 존재로 대해야 한다고 보았다.

바로 알기 ③ 프롬은 자신의 소유에 대한 욕구만을 우선하는 현대인의 이기적인 태도를 비판하며 자신과 타인의 존재를 사랑해야 한다고 보았다.

10 노자가 강조한 무위자연

(가) 사상가는 노자이다. ㄱ. 노자는 자연의 질서에 따르는 무위자연(無爲自然)의 삶을 강조하며, 인간이 자연의 흐름을 거스르지 않고 만물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보았다. ㄷ. 인간과 자연은 모두 도(道)의 질서 속에서 연결되어 있으며, 지나친 인위적 개입을 줄이고 자연의 순리에 따를 때 조화로운 삶을 이룰 수 있다고 보았다.

바로 알기 ㄴ. 노자는 자연의 이치를 중시하였으며 만물의 원리가 되는 도에 따른 삶을 강조하였기에 인간이 자연의 이치를 거스르지 않고 살아가야 한다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할 것이다. ㄹ. 노자는 과학과 자연에 대한 외적 탐구로 자연과의 상생을 도모하지 않았으며 자연의 순리에 따르고 인위적인 개입을 줄이는 무위자연의 삶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자연과의 상생을 위해 과학과 자연에 대한 외적 탐구가 가장 중요하냐는 질문에 '아니요'라고 답할 것이다.

11 화학 물질 사용에 대한 카슨의 입장

제시된 글을 주장한 사상가는 카슨이다. ③ 카슨은 인간의 편의를 위해 사용한 화학 물질이 특정 생물뿐 아니라 생태계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인간은 자연을 단순한 이용 대상으로 바라보지 않고, 생물 간의 연결성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책임 있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바로 알기 ① 카슨은 인간의 편의만을 우선하는 태도가 자연 생태계의 파괴를 가져올 수 있다고 보았다. ② 카슨은 화학 제품의 무분별한 사용이 생태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았으므로 사용 확대를 주장하지 않았다. ④ 카슨은 인간에게 유용한지 여부와 관계없이 생태계의 모든 생물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고 보았다. ⑤ 카슨은 자연을 인간의 필요에 따라 적극적으로 통제하기보다 자연의 연결성과 균형을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다.

12 인간과 자연의 상생을 위한 실천 방안

인간과 자연의 상생을 위해서는 인간의 편의만을 우선하기보다 자연과 생태계의 가치를 고려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친환경적 소비, 자원 순환, 탄소 배출 감축, 생태 감수성 증진 등은 자연과 함께 살아가기 위한 개인적 실천 방안에 해당한다.

바로 알기 ㉣ 인간과 자연의 상생을 위한 태도로 적절하지 않다. 자연과의 상생을 위해서는 자원의 무분별한 이용을 줄이고 생태계의 균형과 지속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13 자연과 생명 공동체에 대한 윤리적 관점

갑은 레오폴드, 을은 테일러이다. 레오폴드는 인간을 자연의 정복자가 아니라 토양·물·식물·동물과 함께 살아가는 생명 공동체의 한 구성원으로 보고, 공동체 전체를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③ 테일러는 모든 생명체가 고유한 가치를 지니므로 인간은 자연의 자율적 질서를 존중하고, 자연에 불필요하게 개입하지 않아야 한다고 보았다.

바로 알기 ① 레오폴드는 인간을 자연보다 우월한 존재로 보지 않았지만, 무생물만을 인간보다 우선하여 존중해야 한다고 보지는 않았다. 그는 토양·물·식물·동물을 포함한 생명 공동체 전체를 존중해야 한다고 보았다. ② 레오폴드는 인간이 자연과 분리되어야 한다고 보지 않았으며, 인간을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생명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보았다. ④ 테일러는 자연의 가치를 인간에게 유용한 정도에 따라 판단하지 않고, 모든 생명체가 고유한 가치를 지닌다고 보았다. ⑤ 레오폴드와 테일러는 인간의 모든 자연 이용을 부정한 것이 아니라, 자연의 질서와 생명 공동체를 고려하는 책임 있는 이용을 강조하였다.

14 인간의 불안에 대한 종교적 관점

제시된 내용은 인간의 불안과 이를 극복하는 방식에 대한 그리스도교와 이슬람교의 입장이다. 을. 그리스도교에서는 인간의 불안을 신과 단절된 인간의 실존적 상황에서 비롯된 필연적인 것으로 보고, 신과의 관계 회복을 통해 이를 극복할 수 있다고 본다. 병. 이슬람교에서는 인간이 물질적 풍요나 세속적 욕망만으로 근원적 불안을 해소할 수 없으며, 알라에 대한 믿음과 복종을 통해 참된 안정을 얻을 수 있다고 본다.

바로 알기 갑. 이슬람교에서는 물질적 풍요나 행운이 인간의 근원적인 불안을 해소할 수 없다고 본다. 정. 그리스도교에서는 인간이 세속적인 염려로 불안해하기보다 초월적 섭리를 신뢰해야 함을 강조한다.

15 엘리아데가 바라본 성스러움과 종교적 인간

제시된 글을 주장한 사상가는 엘리아데이다. ④ 엘리아데는 인간이 성스러움과 속됨이라는 두 가지 존재 양식 속에서 살아간다고 보았으며, 종교적 인간은 의례를 통해 성스러운 시간과 공간을 경험하고 삶의 의미와 방향을 찾는다고 보았다. 따라서 종교는 일상적 현실 속에서 성스러운 의미를 발견하고 인간이 삶을 이해하는 방식을 제공한다.

바로 알기 ① 엘리아데는 종교가 현실적 효용보다 초월적 의미와 성스러운 경험을 제공한다고 보았다. ② 엘리아데는 종교적 인간이 의례를 통해 성스러운 시간으로 돌아가고자 한다고 보았으므로, 성스러운 시간과 단절해야 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③ 엘리아데는 종교가 인간을 두려움과 비관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삶에 의미와 질서를 부여한다고 보았다. ⑤ 엘리아데는 성스러움과 속됨의 구분을 인정하였으므로 두 영역을 동일하게 바라보지 않았다.

16 종교와 윤리의 관계

(가)는 초월적 존재에 대한 믿음과 가르침을 바탕으로 인간의 삶과 세계를 이해하는 종교이며, (나)는 인간의 행위에서 옳고 그름의 기준과 원칙을 탐구하는 윤리이다. ㄱ, ㄹ. 종교는 인간이 삶의 의미와 방향을 찾도록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윤리는 다양한 상황에서 행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한다. ㄷ. 종교와 윤리는 모두 인간이 바람직한 삶을 살아가도록 이끄는 역할을 할 수 있다.

바로 알기 ㄴ. 윤리는 종교의 가르침을 무조건 받아들이고 따르는 태도를 중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성적 성찰을 통해 행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을 중시한다.

17 퀑이 강조한 종교 간 대화와 평화

그림의 사상가는 퀑이다. ② 퀑은 종교마다 고유한 정체성과 전통을 유지하면서도, 공통의 윤리적 기준을 바탕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해야 한다고 보았다.

바로 알기 ① 퀑은 종교 간 평화를 위해 각 종교의 신념을 포기해야 한다고 보지 않았으며,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면서 대화해야 한다고 보았다. ③ 퀑은 종교 간 차이를 없애 하나의 신앙으로 통합하는 것이 아니라, 각 종교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가운데 공통 가치를 찾아야 한다고 보았다. ④ 퀑은 종교 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차이보다 공통된 윤리적 가치를 강조해야 한다고 보았다. ⑤ 퀑은 특정 종교를 기준으로 다른 종교의 진리를 판단하는 태도를 지양하고, 종교 간 상호 존중과 대화를 강조하였다.

18 지눌이 바라본 인간의 삶과 죽음

제시된 글을 주장한 사상가는 지눌이다. ①, ② 지눌은 인간의 삶이 덧없고 유한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어렵게 얻은 인간의 삶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살피며 수행해야 한다고 보았다. ③, ④ 지눌은 죽음을 삶의 끝으로만 보지 않고 윤회 과정 속에서 이해하였으며, 깨달음에 이르기 위해 현재의 삶에서 수행을 이어 가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바로 알기 ⑤ 지눌은 삶의 덧없음을 깨닫는 것이 현재의 삶을 포기하고 죽음 이후의 삶만을 준비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보지 않았다. 오히려 현재 주어진 인간의 삶을 소중히 여기고, 지금 이 순간 자신의 마음을 살피며 수행해야 한다고 보았다.

19 사르트르와 지눌이 바라본 인간의 삶

갑은 사르트르, 을은 지눌이다. 사르트르는 인간에게 미리 정해진 본질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선택과 행동을 통해 스스로를 형성해 가는 존재라고 보았으며,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였다. 지눌은 깨달음을 얻은 뒤에도 마음을 끊임없이 닦아야 한다고 보았으며, 선정과 지혜를 함께 닦는 정혜쌍수를 통해 번뇌를 제거하고 깨달음을 완성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ㄷ, ㄹ. 두 사상가는 인간이 스스로를 변화시키고 삶을 형성해 간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며, 지눌은 지속적인 수행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바로 알기 ㄱ. 사르트르는 인간이 자신의 선택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았으므로, 책임을 피할 수 있는 선택을 내려야 한다고 보지 않았다. ㄴ. 사르트르는 인간에게 미리 정해진 본질이 없다고 보았다.

20 지눌이 강조한 돈오점수와 수행의 필요성

제시된 글을 주장한 사상가는 지눌이다. ③ 지눌은 돈오를 통해 본래 자신의 성품을 깨달을 수 있다고 보았지만, 오랜 습관과 번뇌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깨달음 이후에도 지속적인 수행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그는 이러한 점수의 과정을 통해 번뇌를 제거하고 깨달음을 온전히 실현할 수 있다고 보았다.

바로 알기 ① 지눌은 깨달음을 얻은 뒤에도 지속적인 수행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② 지눌은 본래의 성품을 외부 사물에 대한 탐구를 통해 형성한다고 보지 않고, 자신의 마음을 돌이켜 본래의 성품을 깨닫는다고 강조하였다. ④ 지눌은 깨달음을 외부의 절대적 존재가 전해 주는 지식으로 보지 않고, 자신의 마음을 통해 깨닫는 것으로 보았다. ⑤ 지눌은 수행을 통해 본래의 성품을 새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미 갖추어진 본래의 성품을 깨닫고 번뇌를 제거하는 과정으로 보았다.

21 공자가 강조한 화이부동(和而不同)의 태도

공자는 다른 사람과 조화를 이루면서도 자신의 주관과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보았다.

22 디지털 문해력의 유형

기능적 문해력, 사회적 문해력은 아바타를 통한 상호 작용에서 타인을 배려하고 존중하며 책임감 있게 행동하기 위해 필요한 디지털 문해력이다.

23 정약용이 강조한 수기치인

정약용은 목민관이 자신의 몸과 마음을 수양하고, 이를 바탕으로 백성의 삶을 이롭게 해야 한다고 보았다.

24 노자가 강조한 무위자연

노자는 인위를 벗어나 자연에 따른 무위자연의 삶을 강조하였다.

25 종교적 배타주의의 의미

배타주의란 자신이 속한 집단이나 사상만을 옳거나 우월하다고 여기고, 다른 집단이나 입장을 인정하지 않거나 배척하는 태도이다. 종교적 배타주의를 극복하지 못할 경우 극단적 특정 종교만을 절대적으로 옳다고 여기고 다른 종교를 배척하면서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

26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 지눌이 제시한 수행법

지눌은 세상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한다고 보았기 때문에, 인간의 삶도 마찬가지로 영원하지 않다고 보았다. 따라서 지눌은 이러한 삶의 유한성을 자각하고 삶의 소중함을 깨달아야 한다고 보았다.

27 카슨과 노자가 강조한 인간과 자연의 상생 방안

(1) 답 갑: 카슨, 을: 노자

(2) 예시 답안 카슨은 화학 물질이 생태계에 미치는 위험성을 지속적으로 탐구하고, 생물 간의 연결 관계를 고려하여 자연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보았다. 노자는 인간이 자연을 인위적으로 변화시키거나 지배하려 하지 않고, 자연의 순리에 따르는 무위자연의 태도를 실천해야 한다고 보았다.

채점 기준	
상	위험성의 탐구를 강조하는 카슨과 인위적인 개입을 지양하는 노자의 태도가 잘 드러나게 서술한 경우
중	카슨과 노자의 입장 차이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하고 인간 중심주의적인 태도를 벗어나야 한다고만 서술한 경우
하	인간이 자연을 보호해야 한다고만 서술한 경우

28 지눌이 강조한 수행과 삶의 의미 회복

(1) 답 사상가: 지눌, ㉠: 허무주의

(2) 예시 답안 지눌은 삶의 덧없음에 좌절하여 허무주의에 빠지기보다, 자신의 마음을 돌이켜 본래의 성품을 깨닫고 이를 바탕으로 꾸준히 수행해야 한다고 조언할 것이다. 또한 깨달음을 얻은 뒤에도 지속적인 수행을 통해 번뇌와 집착을 제거하며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볼 것이다.

채점 기준	
상	삶의 무상함과 자신의 본래의 성품을 깨닫고, 깨달음 이후에도 지속적인 수행을 통해 번뇌와 집착을 제거해야 함을 서술한 경우
하	'삶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긍정적으로 살아가기 위해 지속적인 수행이 필요하다.'와 같이 지눌의 입장을 미흡하게 서술한 경우

수행 평가 끝장 보기 풀이

활동형 문제 01 『격몽요결』을 활용한 나의 심신 수양 만화 만들기

활동 Solution

『격몽요결』의 수양 방법과 실천 방안이 잘 드러나도록 '문제 상황 – 수양 방법의 적용 – 구체적인 실천 – 변화와 다짐'의 흐름으로 구성한다. 특히 입지를 선택한 경우에는 올바른 뜻을 세우고 이를 되새기며 실제 행동으로 옮기는 과정이 분명하게 나타나도록 표현한다.

1 예시 답안

내가 겪은 사건	시험을 앞두고 공부할 양이 너무 많아 계획대로 마치지 못할 것 같다는 압박감을 느꼈다. 스마트폰을 오래 사용해 공부할 시간을 놓치고, 부족한 시간을 보충하려 늦게까지 공부하다가 스트레스를 받았다.
몸과 마음의 변화	• 몸의 변화: 스트레스를 받을 때 속이 더부룩했고, 밤에 쉽게 잠들지 못해 온몸에 피로가 쌓였다. 마음의 불안이 몸의 불편함으로 나타날 수 있음을 경험하였다. • 마음의 변화: 시험을 망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과 초조함이 밀려왔고, 점점 예민해져 작은 일에도 쉽게 짜증이 났다.

2 예시 답안

수양 방법	올바른 사람이 되기 위한 뜻을 굳게 세우는 입지
실천 방안	'남에게 이로운 사람이 되겠다.'라는 나의 목표와 공부하는 이유를 기록한다. 공부하다 딴생각이 들거나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싶을 때마다 기록한 내용을 다시 읽으며 내가 세운 목표를 되새기고, 해야 할 일에 집중한다.

3 예시 답안



만점 공략! 완자쌤의 과세특 POINT

'『격몽요결』을 활용한 나의 심신 수양 만화 만들기' 활동에서 시험공부와 스마트폰 사용으로 나타난 자신의 변화를 구체적으로 관찰하고 성찰함. 『격몽요결』의 수양 방법 중 입지(立志)를 올바른 사람이 되기 위한 뜻을 굳게 세우는 수양 방법으로 이해하고, 자신이 되고 싶은 모습과 공부하는 이유를 기록한 뒤 이를 바탕으로 생활 속 행동 수칙을 세워 실천함.

활동형 문제 02 마음의 평정을 위한 나의 하루 일과 계획하기

활동 Solution

에피쿠로스가 구분한 욕구의 유형을 정확히 분류하고, 그에 따른 쾌락과 고통을 비교한다. 특히 불필요한 욕구를 줄이고 마음의 동요를 줄일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과 이유가 드러나도록 작성한다.

1 예시 답안

내가 원했던 것	충분히 잠을 자고 피로를 풀고 싶었다.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에서 다른 사람보다 많은 관심과 인정을 받고 싶었다.
욕구의 유형	자연적이고 필수적인 욕구	자연적이지도 필수적이지도 않은 욕구
분류 이유	몸의 건강과 휴식을 위해 필요한 욕구이기 때문이다.	생명 유지에 필요한 욕구가 아니며, 자연적인 필요보다는 타인의 인정이나 명예를 얻고자 하는 데서 비롯된 욕구이기 때문이다.

2 예시 답안

선택한 욕구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에서 다른 사람보다 많은 관심과 인정을 받고 싶었다.
경험한 쾌락과 고통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에 올린 게시물에 많은 반응이 달리자 다른 사람에게 관심과 인정을 받는 즐거움을 느꼈다. 그러나 계속 반응을 확인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불안과 초조함이 커져 마음의 평정이 흐트러졌다. 순간적인 쾌락을 얻었지만, 그 뒤에는 마음의 동요가 따랐다.

3 예시 답안

구분	구체적 행동	실천 이유
아침	전날 충분히 잠을 잔 뒤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 하루를 시작한다.	수면과 휴식은 자연적이고 필수적인 욕구이므로 몸의 건강을 위해 적절히 충족해야 하기 때문이다.
오후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 사용 시간을 줄이고 친구와 산책하며 편안하게 대화를 나눈다.	타인의 관심과 인정을 얻으려는 불필요한 욕구를 줄이고, 우정을 통해 소박하고 안정된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서이다.

잠들기 전	오늘 추구한 욕구가 꼭 필요한 것이었는지 돌아보고, 그 결과 얻은 쾌락과 고통을 짧게 기록한다.	욕구에 따른 쾌락과 고통을 사려 깊게 판단하고 불필요한 욕구를 줄여 마음의 동요를 줄이기 위해서이다.

만점 공략! 완자쌤의 과세특 POINT

'마음의 평정을 위한 나의 하루 일과 계획하기' 활동에서 자신의 생활 속 욕구를 에피쿠로스의 욕구 유형에 따라 분류하고 그 근거를 구체적으로 설명함.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를 통한 인정 욕구에서 느낀 순간적인 쾌락과 불안, 마음의 동요를 비교하며, 쾌락과 고통을 사려 깊게 판단해야 한다는 에피쿠로스의 관점을 자신의 경험에 적용함. 자연적이고 필수적인 욕구는 적절히 충족하고 불필요한 욕구는 줄이는 구체적인 하루 일과를 설계하여 마음의 평정을 추구하는 실천적 태도를 드러냄.

논술형 문제 03 불교의 관점에서 현대인의 괴로움 성찰하기

논술 Solution

(가)는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에서 타인의 화려한 삶과 자신의 현실을 비교하면서 상대적 박탈감과 불안을 느끼는 모습을 보여 준다. 이러한 괴로움을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마음 챙김을 제시하고 있다.

⬇

(나)는 삶에서 생기는 고통에 탐욕과 집착이 더해지면 괴로움이 더욱 커질 수 있음을 설명한다. 이를 바탕으로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고 집착을 놓으려는 불교적 태도를 이해하고, A 씨가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마음 챙김 방안과 연결하여 서술한다.

1 예시 답안 A 씨가 겪는 괴로움의 근본 원인은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 속 타인의 화려한 삶을 부러워하고 그러한 삶을 갈망하며 이에 집착하는 데 있다. 또한 자신의 삶과 타인의 삶을 비교하면서 생긴 불안과 박탈감을 되새기며 스스로 괴로움을 더욱 키우고 있다. 이는 이미 생긴 고통에 다시 매달려 '두 번째 화살'을 맞는 것과 같다.

2 예시 답안 A 씨는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는 생각이나 불안한 감정이 생길 때 이에 휩쓸리지 않고 자신의 상태를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연습을 한다. 이와 함께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의 사용 시간을 정하거나 알림을 끄는 등 비교를 반복하게 만드는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의 사용을 줄이고 자신이 무엇에 집착하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한다. 이는 이미 생긴 고통을 계속 되새기며 괴로움을 키우는 '두 번째 화살'을 피하고, 집착을 놓아 마음의 평화를 찾으려는 실천이라고 볼 수 있다.

만점 공략! 완자쌤의 과세특 POINT

'불교의 관점에서 현대인의 괴로움 성찰하기' 활동에서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를 통해 타인의 삶과 자신의 삶을 비교하며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과 불안을 불교의 관점에서 분석함. 타인의 화려한 삶에 대한 갈망과 집착이 괴로움의 원인임을 설명하고, 불안과 박탈감을 거듭 되새기며 괴로움을 키우는 모습을 '두 번째 화살'과 연결하여 해석함. 마음 챙김의 의미를 이해하고,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 사용 시간을 조절하거나 사용을 줄이고 자신의 집착을 돌아보는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제시함.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 알림 차단 및 사용 시간 제한 등 현실적인 관리 방안을 결합하여, 불교의 가르침을 관념에 머무르지 않고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으로 구체화하는 실천적 태도를 드러냄.

활동형 문제 04 『금강경』을 활용한 갈등 해결 역할극 구상하기

활동 Solution

역할극의 상황은 실제 학교나 사회에서 일어날 법한 사례로 구성하고, 등장인물 사이의 갈등 원인이 드러나도록 한다. 또한 『금강경』의 가르침을 갈등 상황과 연결하여 특정한 생각이나 구분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고, 서로의 의견에 귀 기울이며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이 자연스럽게 나타나도록 구성한다.

1 예시 답안

갈등 유형	☐ 이성 관계 ☐ 친구 관계 ☐ 부모님과의 관계 ☑ 선후배와의 관계 ☐ 형제자매와의 관계
갈등 사례	고등학교 동아리 발표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2학년 선배와 1학년 후배 사이에 갈등이 발생하였다. 선배들은 지난해의 경험을 근거로 기존 방식대로 준비하자며 후배들의 새로운 제안을 충분히 듣지 않았다. 후배들은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자신의 의견이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껴 점차 동아리 활동에 소극적으로 참여하였다. 이에 선배들은 후배들의 적극성이 부족하다며 불만을 나타냈고, 갈등은 더욱 깊어졌다.

2 예시 답안

『금강경』의 가르침	보살은 대상에 대하여 마땅히 머무르지 않고 보시를 행하여야 한다. → 특정한 생각이나 구분에 집착하지 않고, 자기중심성에서 벗어나 다른 사람을 대해야 한다는 가르침이다.
선정 이유	선후배 갈등은 '나는 선배이고 너는 후배이다.'라는 지위 구분과 자신의 경험만 옳다고 믿는 집착에서 비롯될 수 있다. 이러한 갈등은 자기중심성에서 벗어나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고 귀 기울일 때 갈등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3 예시 답안

제목	'선후배'라는 구분에 머무르지 않기
상황 설정	동아리 발표회 기획안을 두고 발생한 선후배 간의 의견 충돌
등장 인물	민우(2학년 부장), 서연(1학년 부원)
대본	서연: 민우 선배, 이번에는 저희가 준비한 인공지능 체험 부스도 함께 검토해 보면 어떨까요? 민우: 작년에 하던 방식이 검증됐잖아. 내가 경험이 더 많으니까 이번에도 작년처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서연: 저희 의견은 제대로 들어 보지도 않고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무시하는 것 같아서 속상해요. 민우: 네 말을 듣고 보니 내가 '선배니까 내 판단이 더 옳다.'라는 생각에 너무 머물러 있었던 것 같아. 『금강경』에서 말하듯 한 가지 생각이나 구분에 집착하지 않고 네 의견도 제대로 들어 볼게. 서연: 저희도 선배들의 경험을 무시하려는 건 아니에요. 작년 경험과 새로운 아이디어를 함께 활용해 보면 좋겠어요. 민우: 좋아. 서로의 의견을 듣고 장점을 합쳐서 기획안을 다시 만들어 보자. 서연: 네, 같이 준비해 봐요.

● 만점 공략! 완자쌤의 과세특 POINT ●

『금강경』을 활용한 갈등 해결 역할극 구상하기' 활동에서 『금강경』의 주요 가르침을 탐색하여 제시하고, 이를 교내 선후배 간의 의견 충돌 사례와 연계하여 분석함. 선배라는 지위와 경험에 집착해 후배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가 갈등을 심화할 수 있음을 파악하고, 특정한 생각이나 구분에 집착하지 않아야 한다는 가르침을 해결의 근거로 제시함. 선배의 경험과 후배의 새로운 아이디어를 함께 활용하여 갈등을 극복하는 과정을 역할극으로 구성함. 고전의 가르침을 인간관계의 문제에 적용하여 자기중심적인 태도를 성찰하고 상호 존중의 해결 방안을 모색함. 불교 고전의 윤리적 가치를 일상 속 갈등 해결로 확장해 내는 사상적 응용력을 드러냄.

활동형 문제 05 『논어』를 활용한 진정한 우정과 참된 사랑의 편지 쓰기

활동 Solution

편지를 보낼 대상과의 경험을 떠올리고, 당시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본다. 타인에 대한 배려를 강조한 『논어』의 구절을 바탕으로 가르침의 의미와 성찰 내용을 정리하도록 한다.

⬇

성찰 내용을 바탕으로 미안함과 고마움을 담은 편지를 작성한다. 구절 인용에 그치지 않고, 진솔한 사과와 상대방의 입장을 먼저 고려하겠다는 구체적인 실천 다짐이 드러나도록 한다.

1 예시 답안

편지를 보낼 대상	우리 반 친구 수진이
갈등 경험 사례	내가 시험 기간에 공부가 잘되지 않아 예민해져 있을 때, 수진이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시험 공부 많이 힘들어?"라고 물어보았다. 나는 순간적으로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 수진이에게 짜증을 냈고, 그 뒤 서로 어색해져 며칠 동안 대화를 나누지 못했다.
성찰에 사용할 『논어』 구절	"기소불욕 물시어인(己所不欲 勿施於人)" →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남에게 하지 말라.
성찰 내용	공자는 자신이 원하지 않는 것을 남에게 하지 않는 서(恕)의 태도를 강조하였다. 나 역시 힘든 상황에서 누군가에게 거친 말을 들었다면 상처를 받았을 것이다. 그런데도 내 감정을 조절하지 못한 채 나를 걱정해 준 친구에게 짜증을 낸 것은 친구의 마음을 충분히 헤아리지 못한 행동이었다. 이번 일을 돌아보며 내 마음을 미루어 친구의 마음을 헤아리고,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욱 배려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2 예시 답안

수진이에게

수진아, 안녕? 며칠 동안 너와 제대로 이야기를 나누지 못해서 마음이 무거웠어. 이번에 『논어』를 공부하면서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남에게 하지 말라."라는 가르침을 배우고 가장 먼저 네 생각이 났어.

얼마 전 시험 기간에 내가 공부가 잘되지 않아 예민해져 있을 때, 네가 걱정하며 말을 걸어 주었잖아. 그런데 나는 내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너에게 짜증을 내버렸어. 만약 네가 나에게 짜증 섞인 말을 했다면 나 역시 많이 속상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 나를 걱정해 준 네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내 힘든 감정만 앞세워서 정말 미안해.

이번 일을 돌아보면서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욱 소중하게 대하고 상대방의 입장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어. 앞으로는 힘들거나 예민할 때에도 내 감정만 앞세우지 않고 네 마음을 먼저 헤아릴 수 있도록 노력할게. 우리 사이가 다시 편안해졌으면 좋겠어. 먼저 다가가지 못해서 미안하고, 늘 내 곁에서 힘이 되어 줘서 고마워.

● 만점 공략! 완자쌤의 과세특 POINT ●

공자의 서(恕)와 '기소불욕 물시어인(己所不欲 勿施於人)'의 의미를 이해하고 자신의 인간관계에 적용함. 시험 기간에 친구의 걱정과 배려에 감정적으로 대응했던 경험을 돌아보며, 자신의 마음을 미루어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는 태도의 필요성을 성찰함. 자신의 행동이 친구에게 미친 영향을 살펴보고, 미안함과 고마움, 실천 다짐을 편지에 표현함. 『논어』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진정한 우정의 의미를 성찰하고 관계 속에서 실천하려는 자세를 보여 줌.

논술형 문제 06 아리스토텔레스의 관점에서 우정의 상품화 비판하기

논술 Solution

(가)에서 진정한 우정은 훌륭한 성품을 지닌 사람들이 상대방 자체를 소중히 여기고 서로가 잘되기를 바라며 충분한 시간과 친교를 통해 신뢰를 형성하는 관계임을 강조한다. 진정한 우정과 대비하여, 이익이나 즐거움에 따른 우정은 조건이 사라지면 쉽게 해체된다는 한계를 서술하도록 한다.

⬇

(나)는 돈을 주고 다른 사람을 친구처럼 내세우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그 결과 우정의 고유한 가치가 훼손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따라서 상대방 자체를 소중히 여기는 진정한 우정의 조건을 근거로 제시하여 이를 비판적으로 작성하도록 한다.

1 예시 답안 (가)를 주장한 사상가는 아리스토텔레스이다. 아리스토텔레스가 구분한 우정의 유형 중 진정한 우정에 해당하지 않는 우정은 이익에 근거한 우정과 즐거움에 근거한 우정이다. 진정한 우정이 상대방의 좋은 성품 때문에 그 사람 자체를 소중히 여기며 서로가 잘되기를 바라는 관계인 데 비해, 이 두 유형의 우정은 자신에게 주는 이익이나 즐거움을 바탕으로 성립된다. 따라서 그 조건이 사라지면 관계도 쉽게 약해지거나 해체될 수 있다는 한계를 지닌다.

2 예시 답안 (나)처럼 돈을 주고 다른 사람을 친구처럼 내세우는 관계는 상대방 자체를 소중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인기나 타인의 관심이라는 이익을 얻기 위해 형성된 관계이므로 진정한 우정이라고 보기 어렵다.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진정한 우정은 상대방의 좋은 성품과 됨됨이 자체를 소중히 여기고 서로가 잘되기를 바라며, 충분한 시간과 친교를 통해 신뢰를 쌓아 갈 때 성립된다. 따라서 대가를 전제로 한 관계는 이익이라는 조건이 사라지면 쉽게 약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존중과 신뢰라는 진정한 우정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진정한 우정으로 보기 어렵다.

● 만점 공략! 완자쌤의 과세특 POINT ●

'아리스토텔레스의 관점에서 우정의 상품화 비판하기' 활동에서 현대사회의 우정 상품화 현상을 아리스토텔레스의 우정론을 바탕으로 분석함. 대가를 매개로 한 관계가 인기와 관심이라는 이익을 중시한다는 점에서 이익에 근거한 우정과 관련된 것임을 파악함. 진정한 우정은 상대방 자체를 소중히 여기고 서로가 잘되기를 바라며 충분한 시간과 친교를 통해 신뢰를 형성하는 관계임을 설명함. 이를 바탕으로 우정이 상품처럼 거래될 때 그 고유한 가치와 의미가 훼손될 수 있음을 비판적으로 서술함. 고전의 우정론을 일상 현상에 적용하여 관계의 본질을 성찰하는 윤리적 사고력이 돋보임.

논술형 문제 07 석가모니와 롤스의 관점에서 갈등 해결 방안 모색하기

논술 Solution

(가)에서는 석가모니의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석가모니는 모든 존재가 원인과 조건에 따라 서로 의존하는 연기적 관점을 강조하므로, 자기중심적 집착에서 벗어나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고 자비와 베풂을 실천해야 한다는 점을 서술한다.

⬇

(나)에서는 롤스의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롤스는 사회를 자유롭고 합리적인 사람들이 상호 이익을 위해 협력하는 공정한 협동 체제로 보았다. 따라서 우연한 조건이나 이해관계에 치우치지 않는 공정한 원칙을 바탕으로 타인과 협력하고 갈등을 조정해야 함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1 예시 답안 석가모니는 모든 존재가 서로 의존하는 연기적 관계에 있으므로, 인간도 독립된 존재가 아니라 다른 존재와의 관계 속에서 살아간다고 보았다. 따라서 고정된 '나'와 '나의 것'에 대한 집착과 자기중심성에서 벗어나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고 자비를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롤스는 인간이 다른 사람들과 협력하며 살아가는 존재이고 사회는 상호 이익을 위한 협동 체제라고 보았다. 따라서 자신의 우연한 조건이나 이해관계에 치우치지 않는 공정한 원칙을 바탕으로 타인과 협력해야 한다고 보았다.

2 예시 답안 오늘날 인간관계와 공동생활에서 나타나는 갈등을 해결하려면 개인적 차원에서 자신의 태도를 성찰하는 동시에 사회적 차원에서 이해관계를 조정할 공정한 원칙을 마련해야 한다. 석가모니의 관점에서는 자기중심적 집착에서 벗어나 상대방의 입장을 배려하고, 무주상보시의 자세로 타인에게 자비를 베풀고 배려하는 태도를 함양한다. 롤스의 관점에서는 사회적 지위나 타고난 재능과 같은 우연한 조건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이용하지 않는 공정한 관점에서 정의의 원칙을 마련하여 권리와 의무, 협동의 이익을 조정할 수 있다. 이처럼 서로를 배려하는 태도와 공정한 원칙에 따른 협력이 함께 이루어질 때 상호 존중과 공존의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 만점 공략! 완자쌤의 과세특 POINT ●

'석가모니와 롤스의 관점에서 갈등 해결 방안 모색하기' 활동에서 석가모니와 롤스가 자신과 타인의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을 각각 파악함. 석가모니가 모든 존재가 연기적 관계에 있다고 보고, 자기중심적 집착에서 벗어나 자비를 실천할 것을 강조하였음을 이해함. 롤스가 사회를 자유롭고 합리적인 사람들이 상호 이익을 위해 협력하는 공정한 협동 체제로 보고, 정의의 원칙에 따라 구성원 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해야 한다고 보았음을 설명함. 인간관계와 공동생활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자비를 실천하는 노력과 공정한 원칙에 따라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노력이 함께 필요함을 제시함.

활동형 문제 08 나의 자유 선언문 작성하기

활동 Solution

장자의 가죽나무 우화를 바탕으로 세속적인 기준이 나의 자유를 어떻게 구속하는지 구체적으로 파악해야 한다. 성적, 외모, 빠른 성취와 같은 획일적인 기준으로 자신의 가치를 판단하기보다, 장자의 관점에서 쓸모 있음과 쓸모없음의 기준이 절대적인 것이 아님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바탕으로 사회가 정한 기준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의 자연스러운 본성을 긍정하는 자유 선언문을 작성한다.

1 예시 답안

나의 자유를 구속하는 요인	☑ 성적이나 등수만으로 나의 가치를 평가하는 시선 ☐ 특정한 외모나 유행만을 아름답다고 여기는 기준 ☐ 남들보다 더 높이, 더 빨리 성취해야 한다는 강박감 ☐ 기타(직접 작성): _____
내가 처한 상황과 그때의 감정	나는 수학 성적이 낮아 남들보다 쓸모없는 사람처럼 느껴져서 괴롭다.

2 예시 답안 목수가 거들떠보지도 않던 울퉁불퉁한 가죽나무가 오히려 도끼에 베이지 않고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었듯이, 단편적인 성적이 나의 가치를 판단할 수 없다. 또한 세상 만물은 하나의 기준으로 평가되어 우열이 나뉠 수 없으므로, 나와 다른 사람을 비교하거나 사회가 정한 기준에 얽매이지 않고 나의 자연스러운 본성을 긍정하며 살아가야 한다.

3 예시 답안

나의 자유 선언문

제목: 도끼에 찍히지 않는 들판의 가죽나무처럼

하나, 나는 더 이상 타인이 만들어 놓은 성공의 기준에 얽매이지 않겠다.

둘, 나는 그림을 그리고 글을 쓰는 것을 좋아하는 나의 본성을 있는 그대로 긍정하겠다.

셋, 나는 남과 비교하여 나의 가치를 판단하지 않고, 사회가 정한 획일적인 기준에서 벗어나 나답고 자유롭게 살아갈 것이다.

● 만점 공략! 완자쌤의 과세특 POINT ●

'나의 자유 선언문 작성하기' 활동에서 장자의 가죽나무 우화를 바탕으로 세속적 기준이 개인의 자유를 구속하는 방식을 성찰함. 성적과 같은 획일적인 기준으로 자신의 가치를 평가하는 태도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쓸모 있음과 쓸모없음의 구분이 절대적이지 않다는 장자의 관점을 자신의 삶에 적용하여 자신의 자연스러운 본성을 긍정하는 태도를 보임. 획일적인 성공 기준에서 벗어나 자신의 가치와 삶의 방식을 성찰하는 자유 선언문을 작성하며, 윤리 사상을 자신의 삶에 적용하여 성찰하는 능력과 도덕적 상상력, 자기 이해 역량을 드러냄. 특히 타인의 시선이나 세속적 잣대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개성과 잠재력을 주체적으로 탐색하려는 의지가 돋보임.

활동형 문제 09 선의의 거짓말은 허용될 수 있는가?

활동 Solution

일상 속 선의의 거짓말 사례를 칸트의 의무론적 관점에서 평가하고, 행위의 준칙이 보편적 도덕 법칙이 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위로를 위해 거짓말을 해도 된다.'라는 준칙을 모든 사람이 따른다고 가정했을 때 언어적 신뢰가 무너지는 문제를 지적하도록 한다. 이를 근거로 거짓말의 도덕적 정당화 가능성을 판결문 형식으로 논증하는 것이 핵심이다.

⬇

보편화 테스트의 결과를 바탕으로 도덕 법정 판결문을 작성한다. 선의의 거짓말이라 하더라도 해당 준칙이 보편적 도덕 법칙이 될 수 없어 도덕적으로 유죄임을 선고하고, 판결 이유와 함께 거짓말을 하지 않고도 상대방의 감정을 존중하고 위로할 수 있는 행동을 실천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1 예시 답안

구분	내용
사건 개요	가장 친한 친구가 오랫동안 준비한 오디션에서 긴장한 탓에 실수를 연발하여 탈락하였다. 크게 낙담한 친구가 울면서 "나 정말 소질이 없나 봐. 내 노래 이상했지?"라고 물었다. 친구가 안쓰러웠던 나는 위로해 주기 위해 "아니야, 심사위원이 네 진가를 몰라본 거야. 너 오늘 진짜 잘했어!"라고 거짓말을 했다.
도덕적 딜레마	친구의 마음을 위로하고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서는 거짓말을 하는 것이 좋을 수 있지만,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도덕적 원칙도 지켜야 한다.
핵심 쟁점	친구를 위로하려는 선한 의도에서 한 거짓말은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가?

2 예시 답안

보편화 테스트	내용
순서 1. 행위의 준칙 찾기 (내가 세운 행동 원칙은 무엇인가?)	친구가 상처받는 것을 막고 친구를 위로하기 위해서라면 거짓말을 해도 된다.
순서 2. 보편적 법칙으로 상상하기 (모든 사람이 이 원칙에 따라 행동한다면?)	모든 사람이 '친구를 위로하기 위해서는 거짓말을 해도 된다.'라는 준칙에 따라 행동한다면, 사람들은 상대방의 말을 진실한 것으로 믿기 어려워질 것이다.
순서 3. 논리적 모순 여부 확인하기 (이 준칙은 보편적으로 성립할 수 있는가?)	모든 사람이 위로를 위해 거짓말을 해도 된다고 생각한다면, 사람들은 서로의 말을 믿기 어려워질 것이다. 따라서 '친구를 위로하기 위해서는 거짓말해도 된다.'라는 준칙은 모든 사람이 따라야 할 보편적 도덕 법칙으로 성립되기는 어렵다.

3 예시 답안

주문(판결 결과)	피고인 '나'의 거짓말은 도덕적으로 (무죄 / ㉮유죄)임을 선고한다.
판결 이유	피고인은 친구를 위로하겠다는 선한 의도에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칸트의 관점에서 행위의 도덕적 가치는 의도한 결과가 아니라 그 행위의 준칙이 모든 사람이 따를 수 있는 보편적 도덕 법칙이 될 수 있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피고인의 행위의 준칙인 '친구를 위로하기 위해서라면 거짓말을 해도 된다.'를 모든 사람이 따른다고 가정하면, 사람들은 서로의 말을 믿기 어려워지고 거짓말이 성립하기 위한 신뢰의 기반도 무너지게 된다. 따라서 이 준칙이 보편화될 경우 자신의 성립을 뒷받침하는 조건을 약화시키므로 보편적 도덕 법칙이 될 수 없다. 그러므로 본 법정은 피고인의 거짓말이 친구를 위로하려는 선한 의도에서 비롯되었다 하더라도 칸트의 관점에서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고 판결한다. 친구의 감정을 존중하면서도 거짓말하지 않고 위로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고 실천할 것을 권고한다.

● 만점 공략! 완자쌤의 과세특 POINT ●

'선의의 거짓말은 허용될 수 있는가?' 활동에서 칸트의 보편화 원칙을 바탕으로 선의의 거짓말이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지 체계적으로 판단함. 친구를 위로하려는 선한 의도와 긍정적 결과에만 주목하지 않고, '친구를 위로하기 위해 거짓말을 해도 된다'라는 준칙이 보편화될 경우 서로의 말을 믿기 어려워져 거짓말이 성립하기 위한 언어적 신뢰가 무너질 수 있음을 논리적으로 분석함. 행위자의 의도, 행위의 준칙, 보편화 가능성, 최종 판단의 순서에 따라 판결문을 구성하며, 칸트 의무론의 핵심을 실제 도덕적 딜레마에 적용하는 도덕 판단 능력과 논리적 사고력을 드러냄. 법조문의 논리를 윤리적 준칙 검증에 빗대어 엄밀하게 도출해 내는 비판적 추론 능력과 준법·윤리 의식이 돋보임.

활동형 문제 10 순자의 관점에서 세우는 나의 직업 준비 계획

활동 Solution

후천적인 노력과 배움의 관점에서 희망 직업에 필요한 태도와 능력을 탐구해야 한다. 먼저 욕망을 그대로 따를 때 해당 직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구체적인 상황으로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신이 길러야 할 태도와 능력을 정리한다. 이후 예와 의를 익히고 실천하는 의식적인 노력의 관점에서 학교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직업 준비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핵심이다.

1 예시 답안

희망 직업	간호사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	간호사는 바쁘고 힘든 상황에서도 환자를 돌보아야 한다. 그런데 피곤함이나 짜증, 귀찮음 등 자신의 감정에 따라 행동하면 환자에게 불친절하게 대하거나 투약 등 필요한 확인 절차를 소홀히 할 수 있다. 또한 동료와 협력하지 않고 자신의 편의만 앞세우면 의료진 사이의 신뢰가 약해지고, 환자의 생명과 안전에도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2 예시 답안 훌륭한 간호사가 되기 위해 환자를 존중하는 태도,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책임감, 정확한 업무 절차를 지키는 능력, 동료와 협력하는 자세를 기를 것이다. 특히 순자의 관점처럼 감정이나 욕망을 그대로 따르지 않고, 스승의 가르침과 직업윤리를 익혀 예에 맞게 행동하는 습관을 기를 것이다. 또한 지치고 힘든 상황에서도 정해진 규범에 따라 행동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자신을 단련할 것이다.

3 예시 답안

나의 직업 준비 계획서

1. 간호사의 직업윤리와 관련된 도서나 자료를 읽고, 환자 존중·책임감·협업과 관련된 실천 원칙을 정리한다.
2. 환자의 아픔을 가볍게 여기지 않기 위해 봉사 활동이나 진로 탐색 과정에서 타인의 어려움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공감하는 경험을 꾸준히 쌓는다.
3. 작은 일도 대충 넘기지 않고 꼼꼼하게 확인하는 습관을 생활 속에서 실천한다.
4. 환자나 보호자와 대화할 때 필요한 예절과 바르게 말하는 방법을 익히기 위해 평소 친구나 선생님과 대화할 때 상대의 말을 끝까지 듣고 차분하게 대답하는 연습을 한다.
5. 응급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평소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겼을 때 당황하지 않고 해야 할 일을 순서대로 정리하는 습관을 기른다.

● 만점 공략! 완자쌤의 과세특 POINT ●

'순자의 관점에서 세우는 나의 직업 준비 계획' 활동에서 희망 직업에 필요한 태도와 능력을 구체적으로 탐구함. 간호사라는 직업에서 피곤함, 짜증, 귀찮음과 같은 감정을 그대로 따를 때 환자 존중, 투약 확인, 동료와의 협력에 문제가 생길 수 있음을 현실적인 직업 상황과 연결하여 분석함. 예와 의의 후천적 학습과 실천, 욕망의 조절이라는 순자의 핵심 사상을 바탕으로 환자 존중, 책임감, 협업 능력, 정확한 업무 수행 능력을 기르기 위한 실천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함. 특히 자신의 본성을 끊임없이 다듬는 자세로 직업윤리적 규범을 내면화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임. 윤리 사상을 진로 탐색과 직업윤리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도덕적 상상력과 자기 성찰 능력, 구체적인 실천 계획을 수립하는 진로 설계 역량을 함양함.

논술형 문제 11 출발선이 다른 우리, 어떻게 나누는 것이 정의로울까?

논술 Solution

(가)는 롤스의 원초적 입장과 무지의 베일, 공정한 기회균등, 최소 수혜자에 대한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나)는 경제적 형편 때문에 진로 체험 활동 참여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위해 학교가 활동비와 교재비를 우선 지원하려는 상황을 보여 준다.

⬇

'무지의 베일'의 의미를 바탕으로, 자신의 우연적 조건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위험을 최소화하려는 합리적 선택 과정과 공정한 합의가 도출되는 이유를 논리적으로 서술한다.

⬇

모든 학생에게 똑같이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의 한계를 지적한다. 이어 롤스의 관점을 적용하여 우선 지원 제도가 출발선의 불평등을 완화하고 실질적 기회균등을 보장하는 정당한 조치임을 강조한다.

1 예시 답안 무지의 베일로 사람들은 자신의 사회적 지위, 타고난 재능, 가정환경 등 자신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우연적 조건들을 알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자신이 현실 사회에서 가장 열악한 처지에 놓일 가능성을 고려하여 위험을 최소화하려 하므로, 어떤 계층에도 유리하지 않은 공정한 정의의 원칙에 합의하게 된다.

2 예시 답안 모든 학생에게 똑같이 지원하는 것은 가정환경과 같은 우연적 조건을 간과하므로 롤스의 관점에서 공정하지 않다. 롤스는 사회적 지위나 가정환경과 같은 우연적 조건 때문에 교육 기회가 제한되어서는 안 되며, 직책과 지위는 공정한 기회균등의 조건 아래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에게 활동비를 우선 지원하는 학교의 제도는 타고난 가정환경과 무관하게 누구나 교육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기회균등을 보장하므로 도덕적으로 정당화된다.

● 만점 공략! 완자쌤의 과세특 POINT ●

'출발선이 다른 우리, 어떻게 나누는 것이 정의로울까?' 활동에서 롤스의 원초적 입장과 무지의 베일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고, 사람들이 자신의 우연적 조건을 모르는 상황에서 왜 공정한 정의의 원칙에 합의하게 되는지 논리적으로 설명함. 경제적 형편이라는 우연적 조건이 교육 활동의 참여 기회를 제한할 수 있음을 지적하고, 모든 학생에게 똑같이 지원하는 방식이 실질적 공정성을 보장하지 못할 수 있음을 비판함. 우선 지원 제도가 불리한 처지의 학생에게 교육 참여 기회를 제공하여 공정한 기회균등을 실현한다는 점을 롤스의 관점에서 논증함. 정의로운 분배와 기회균등의 의미를 학교생활 사례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정의로운 분배에 대한 윤리적 사고와 비판적 사고력, 논리적 서술 역량을 드러냄.

활동형 문제 12 '해악의 원칙'을 알리는 카드 뉴스 만들기

활동 Solution

밀의 해악의 원칙을 바탕으로 사례 속 개인이 누리고자 하는 자유와 그 자유가 타인에게 미치는 해악을 구분해야 한다. 개인의 자유는 원칙적으로 존중되어야 하지만 그 자유가 타인의 권리, 안전, 인격, 휴식, 학습 등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제한될 수 있다. 따라서 자유를 무조건 허용하거나 제한하기보다, 자유가 타인에 대한 해악으로 이어지는 경계가 어디인지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바탕으로 문제 상황을 제시하고, 해악의 원칙을 적용하여 사례를 판단한 뒤, 모두의 자유를 보장할 수 있는 대안을 카드 뉴스의 화면과 문구로 표현한다.

1 예시 답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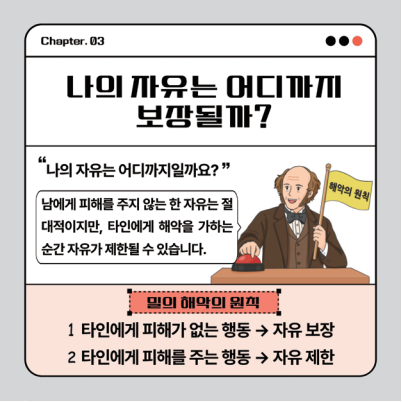
유형	☑ 쉬는 시간에 자유롭게 활동할 자유 ☐ 학교생활에서의 복장·개성 표현의 자유 ☐ 온라인 공간에서의 표현의 자유(개인 방송,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 활동 포함) ☐ 기타(직접 작성): _____
사례	최근 쉬는 시간에 교실에서 스마트폰으로 웹툰이나 동영상을 보며 큰 소리로 웃고 떠드는 학생들이 있다. 이러한 학생들은 "누구나 쉬는 시간에 자신이 원하는 것을 마음대로 할 권리가 있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쉬는 시간 동안 다음 수업을 준비하거나 조용히 쉬고 싶은 친구들은 이러한 소음 때문에 학습하거나 휴식하는 데 방해를 받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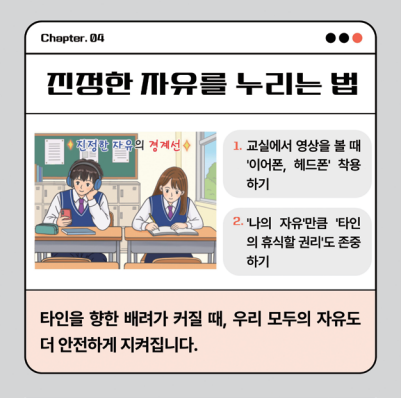
2 예시 답안 밀의 관점에서 보면 쉬는 시간에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며 휴식을 취할 자유는 원칙적으로 존중되어야 한다. 그러나 자신의 자유로운 행동이 교실이라는 공동의 공간에서 큰 소음을 유발하여 다른 학생들의 휴식이나 학습을 방해한다면 이는 타인에게 해악을 가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 따라서 교실에서 큰 소리를 내는 행동은 제한될 필요가 있으며, 이어폰을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해악을 가하지 않는 방식으로 자신의 자유를 행사해야 한다.

3 예시 답안









만점 공략! 완자쌤의 과세특 POINT

밀의 해악의 원칙을 바탕으로 쉬는 시간에 발생하는 소음 문제에서 개인의 자유와 타인의 권리가 충돌하는 지점을 구체적으로 분석함. 개인의 자유는 원칙적으로 존중되어야 하지만, 그 행동이 다른 학생의 휴식권과 학습권을 침해할 경우 제한될 수 있음을 논리적으로 설명함. 자유를 무조건 제한하거나 허용하는 태도를 넘어, 타인에게 해악을 끼치지 않는 책임 있는 자유의 의미를 카드 뉴스 화면으로 구성하고, 이를 잘 나타내는 핵심 문구를 작성하여 효과적으로 표현함. 도덕적 문제를 비판적으로 탐구하고, 자신의 생각을 시각적으로 전달하는 역량을 보여 줌. 소음을 줄이는 구체적 실천 방안을 도출하였으며, 개인의 욕구 충족과 타인에 대한 배려가 조화를 이루는 공동체적 삶의 태도를 정립함.

활동형 문제 13 화이부동(和而不同)을 실천하는 표어 만들기

활동 Solution

공자의 '화이부동'을 바탕으로, 친구들과 어울리기 위해 자신의 생각을 숨기거나 다른 사람의 의견에 무조건 따르는 태도를 성찰해야 한다. 먼저 체크리스트를 작성해 자신의 평소 모습을 돌아보고, 다수의 분위기나 친구 관계 때문에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포기했던 경험을 떠올린다. 그런 다음 공자의 화이부동 관점에서 다른 사람과 조화를 이루는 것과 자신의 생각을 포기한 채 무조건 따르는 것의 차이를 성찰한다. 마지막으로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면서도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지키는 화이부동의 태도를 담아 실천 표어를 작성한다.

1 예시 답안

항목	표시
다수결로 의견이 모일 때, 내 생각과 달라도 반대하기 두려워 그냥 손을 든 적이 있다.	☐
친한 친구들이 특정 친구를 싫어할 때, 뚜렷한 이유 없이 나도 같이 멀리한 적이 있다.	☑
친구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말투, 옷, 신발, 관심사를 따라 하지 않으면 소외될까 봐 불안했던 적이 있다.	☐
나와 다른 의견을 가진 친구와 갈등이 생길까 봐 내 생각을 숨기거나 무조건 상대의 말에 맞춘 적이 있다.	☑
단체 대화방에서 친구들이 누군가를 비난할 때, 마음이 불편했지만 분위기를 깨기 싫어 맞장구를 친 적이 있다.	☑
친구들과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겉으로는 동의하면서도, 실제로는 서로의 생각을 나누거나 이해하려 하지 않은 적이 있다.	☐

점검 결과

내가 체크한 항목 수: 3개

- 0~1개: 나는 비교적 내 생각을 지키면서 친구들과 어울리는 편이다.
- 2~3개: 나는 때때로 친구들과 같아지려는 마음 때문에 내 생각을 숨기는 경우가 있다.
- 4개 이상: 나는 친구들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내 판단을 쉽게 포기하는 경우가 있다.

2 예시 답안

나의 경험	중학교 때 친한 친구들이 단체 대화방에서 한 친구의 뒷담화를 한 적이 있다. 나는 그 친구에게 나쁜 감정이 없었고 오히려 뒷담화가 불편했지만, 친구들과 멀어지거나 나도 뒷담화의 대상이 될까 봐 두려워서 마지못해 맞장구를 쳤다.
경험 성찰하기	공자의 관점에서 보면 과거의 내 행동은 친구들과 조화롭게 지낸 것이 아니라, 친구들과 같아지기 위해 내 생각과 판단을 포기한 동이불화의 모습이었다. 그때 나는 친구들과의 관계가 멀어질까 봐 내 생각을 표현하지 않고 분위기에 휩쓸려 행동했다. 앞으로는 친구들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무조건 같은 의견을 따르기보다,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면서 내 생각을 표현하도록 노력해야겠다.

3 예시 답안 다름을 존중하고, 함께 조화를 이루자! / 같지 않아도 함께할 수 있어요! / 내 생각은 지키고, 서로의 차이는 존중하자! / 다름을 인정할 때, 진정한 화합이 시작된다! / 생각은 달라도, 마음은 함께! / 내 생각도 소중하게, 너의 생각도 존중하게!

● 만점 공략! 완자쌤의 과세특 POINT ●

공자의 화이부동 관점을 바탕으로 친구들과 어울리기 위해 자신의 생각을 숨기거나 다른 사람의 의견에 무조건 따르는 태도를 성찰함. 친구들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자신의 판단을 숨기거나 옳지 않은 분위기에 맞장구쳤던 경험을 구체적으로 돌아보고, 이를 진정한 화합이 아니라 동이불화의 모습으로 분석함. 다른 사람과 조화를 이루는 것과 자신의 생각을 포기한 채 무조건 따르는 것의 차이를 이해하고,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면서도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지키는 화이부동의 태도를 표어로 작성함.

활동형 문제 14 메타버스 속 시민 자치 규약 제정하기

활동 Solution

메타버스에서 익명성을 바탕으로 자신의 욕망을 무분별하게 표출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분석해야 한다. 자신이 만든 아바타의 외형과 능력에 어떤 욕망이 반영되어 있는지 설명한 뒤, 그 욕망이 익명성과 결합할 때 타인에 대한 조롱, 활동 방해, 배제, 책임 회피 등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음을 성찰한다. 이를 바탕으로 타인의 인격을 존중하고 자신의 행동에 책임질 수 있는 메타버스 시민 자치 규약을 제정한다.

1 예시 답안

닉네임	캡틴 노바(Captain Nova)
외형 및 특징	화려한 은빛 머리카락을 휘날리며 망토를 두르고 있다. 누구보다 빠르게 날아다닐 수 있는 능력이 특징이다.
현실 속 자신과 아바타 비교	현실에서 나는 평범한 외모와 소심한 성격 때문에 남들 앞에 나서는 것을 부담스러워하지만, 메타버스 속 나의 아바타는 화려한 외모에 힘도 세고 뭐든지 잘해서 어디에서나 눈에 띈다.
아바타에 반영된 자신의 욕망	현실과 다르게 사람들의 주목과 인정을 받고 싶은 욕망이 반영되어 있다.

2 예시 답안

문제점	메타버스에서는 아바타와 익명성 뒤에 숨어 평소에 숨겨 왔던 욕망을 무분별하게 드러낼 수 있다. 예를 들어 사람들의 관심을 받기 위해 다른 사람의 활동을 방해하거나, 상대방의 아바타를 놀리고 계속 따라다니며 불편하게 만들 수 있다. 이는 주목받고 인정받고 싶은 욕망이 익명성과 만나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으로 나타난 것이다.
메타버스 윤리 관점에서의 성찰	메타버스에서도 아바타 뒤에는 실제 사람이 있으며, 익명성이 보장된다고 해서 말과 행동에 대한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내가 장난이라고 생각한 행동도 다른 사람에게는 불쾌감이나 두려움으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메타버스에서 자신의 욕망을 무분별하게 드러내기보다 다른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고, 자신의 행동을 절제하며 그 결과에 책임지는 태도가 필요하다.

3 예시 답안

구분	메타버스 시민 자치 규약
제1조	우리는 아바타 뒤에 실제 사람이 있음을 명심하고, 화면 너머의 타인을 존중한다.
제2조	우리는 자유에는 책임이 따르며, 익명성이 잘못된 행동의 핑계가 될 수 없음을 명심한다.
제3조	우리는 가상 공간에서 욕망을 무분별하게 표출하지 않고, 서로 존중하며 함께 성장하는 메타버스를 만들어 간다.

● 만점 공략! 완자쌤의 과세특 POINT ●

메타버스 속 아바타가 평소 자신이 바라는 모습과 욕망을 표현할 수 있는 존재임을 이해하고, 자신이 설정한 아바타와 현실의 모습을 비교하며 자신의 욕망이 가상 공간에서 어떻게 표현되는지 성찰함. 아바타에 반영된 욕망이 익명성과 결합할 때 타인의 활동을 방해하거나 상대방을 불편하게 하는 등 사이버 윤리 문제로 이어질 수 있음을 설명함. 메타버스에서 타인을 존중하고 자신의 행동에 책임지는 태도가 필요함을 시민 자치 규약으로 구체화함. 디지털 공동체의 윤리적 조건을 탐구하는 과정에서 도덕적 상상력과 디지털 시민성, 공동체 규범 형성 역량을 보여 줌.

논술형 문제 15 '호접지몽'으로 가상과 현실의 경계 바라보기

논술 Solution

(가)는 장자의 호접지몽을 바탕으로 현실과 꿈, 이것과 저것을 엄격하게 나누는 이분법적 태도를 비판하고, 만물이 고정된 모습에 머무르지 않고 변화하며 서로 관계를 맺는 물화의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어느 한쪽의 관점에만 치우치지 않고 대립을 넘어 전체를 조망하는 '도의 지도리'의 관점을 강조한다.

⬇

(나)의 민수는 현실의 어려움을 외면하고 가상 세계에서만 인정받으려 한다. 따라서 민수의 문제를 이분법적 사고와 한쪽에 치우친 태도에서 찾고, '도의 지도리'의 관점에서 가상과 현실을 함께 바라보며 가상 세계에서 얻은 경험과 자신감을 현실의 삶과 연결하는 태도가 중요함을 서술한다.

1 예시 답안 가상 세계와 현실 세계는 서로 완전히 분리된 이분법적인 세계가 아니라, 서로 구분되면서도 끊임없이 변화하고 영향을 주고받는다.

2 예시 답안 민수의 문제는 현실과 가상 세계를 '진짜 나'와 '가짜 나'로 구분하며, 현실을 외면하고 가상 세계에만 집착하는 이분법적 사고에 갇혀 있다는 점이다. 장자의 관점에서 세계는 고정된 경계로 나뉘어 있지 않고 끊임없이 변화하고 관계를 맺는다. 따라서 민수는 어느 한쪽에만 집착하지 말고, 대립을 넘어 전체를 바라보는 '도의 지도리'의 관점에서 가상과 현실을 함께 이해해야 한다. 또한 가상 세계에서 얻은 경험과 자신감을 현실의 삶과 연결하며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가야 한다.

만점 공략! 완자쌤의 과세특 POINT

장자의 호접지몽과 물화의 관점을 바탕으로 가상 세계와 현실 세계의 관계를 철학적으로 분석함. 현실과 꿈, 이것과 저것을 엄격하게 나누는 이분법적 태도의 한계를 이해하고, 만물이 고정된 모습에 머무르지 않고 변화하며 서로 관계를 맺는 장자의 관점을 가상 세계와 현실 세계의 관계에 적용함. 민수가 현실의 어려움을 외면하고 가상 세계에만 집착하는 모습을 한쪽에 치우친 태도로 진단하고, '도의 지도리'의 관점에서 가상과 현실을 함께 바라보며 가상 세계에서 얻은 경험과 자신감을 현실의 삶과 연결할 필요가 있음을 논리적으로 서술함. 가상 공간에서의 자아와 현실 자아의 상호 작용을 깊이 있게 성찰함으로써,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바람직한 매체 사용 윤리와 조화로운 삶의 가치를 함양함.

활동형 문제 16 내가 꿈꾸는 바람직한 직업관 확립하기

활동 Solution

소유와 존재의 관점에서 직업의 의미를 이해하고, 직업을 선택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조건과 자신의 삶에서 추구하는 가치를 연결하여 정리해야 한다.

⬇

소득이나 안정성과 같은 조건뿐만 아니라 자아실현, 사회적 기여, 일과 삶의 균형 등 다양한 조건을 비교하여 직업 선택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각 조건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조건들이 소유와 존재 중 어떤 가치와 연결되는지 성찰해 보고, 나만의 바람직한 직업관을 명확히 정립한다.

1 예시 답안 바람직한 직업은 생계를 유지하는 수단에 그치지 않고,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고 성장하며 다른 사람과 사회에 기여함으로써 삶의 의미와 보람을 얻을 수 있는 일이다.

2 예시 답안

순위	내가 선택한 조건	조건을 선택한 이유
1순위	자아실현	내가 가진 능력과 관심을 발휘하며 성장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2순위	사회적 기여	직업 활동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과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3순위	일과 삶의 균형	일 외에도 취미 생활과 가족 및 친구와의 관계로 삶의 만족을 얻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3 예시 답안 내가 고른 자아실현, 사회적 기여, 일과 삶의 균형은 일을 하며 보람과 성장을 얻는 '존재'의 가치와 연결된다. 물론 소득과 안정성 같은 '소유'의 가치도 생계 유지를 위해 필요하지만, 나는 내 능력을 발휘해 나의 가능성을 펼치고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때 진짜 행복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나는 물질적 보상에만 매달리지 않고, 일과 삶의 균형 속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하며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직업을 갖고 싶다.

만점 공략! 완자쌤의 과세특 POINT

'내가 꿈꾸는 바람직한 직업관 확립하기' 활동에서 소유와 존재의 관점을 바탕으로 직업의 의미를 자아실현과 사회적 기여의 측면에서 이해함. 자신이 중요하게 여기는 직업의 조건을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하고, 각 조건을 자신의 가치와 연결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함. 단순한 물질적 보상에 매달리기보다 일과 삶의 조화를 이루며 지속해서 성장하고 사회에 기여하는 것이 진정한 직업의 가치임을 도출해 냄. 이를 통해 주체적이고 바람직한 직업 가치관을 구체적으로 확립하며 미래 직업인으로서의 윤리적 실천 의지를 보여 줌.

활동형 문제 17 기후 위기를 알리는 포스터 만들기

활동 Solution

기후 위기가 생태계와 인간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다. 이후 기후 위기의 원인과 해결 방안을 자신이 선택한 사상가가 강조하는 자연관과 윤리적 입장을 바탕으로 정리한다.

⬇

조사 내용과 사상가의 핵심 입장을 시각적 요소와 문구로 표현한다. 단순한 현상 전달에 그치지 않고 사상적 근거와 구체적 실천 방안이 드러나도록 포스터를 제작한다. 특히 기후 위기의 심각성과 사상가의 핵심 주장이 한눈에 들어오도록 그림과 말풍선 등 그래픽 요소를 유기적으로 배치한다.

1 예시 답안

기후 위기 사례	극지방 빙하 감소
발생 원인	탄소 배출량 증가에 따른 지구 온난화
미치는 영향	극지방의 빙하가 감소하면 해수면이 상승하여 해안 저지대가 침수 위험에 처한다. 또한 북극곰과 같은 동물의 서식지가 줄어들고 생태계가 파괴된다.

2 예시 답안

사상가	☐ 노자 ☐ 장자 ☐ 카슨 ☑ 레오폴드
기후 위기에 대한 사상가의 주장	극지방 빙하 감소 문제는 인간의 편의와 이익만을 우선하여 발생한 결과이다. 따라서 인간은 스스로를 생태 공동체의 한 구성원으로 인식하여 인간뿐만 아니라 동식물과 생태계 전체의 안정성과 조화를 고려하여 행동해야 한다.

3 예시 답안



● 만점 공략! 완자쌤의 과세특 POINT ●

'기후 위기를 알리는 포스터 만들기' 활동에서 기후 위기가 생태계와 인간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조사하였음. 선택한 사상가가 바라보는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바탕으로 기후 위기의 원인을 분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실천 방안을 제시함. 특히 사상가의 관점을 포스터의 메시지와 그림에 포함하여 환경 문제에 대한 윤리적 성찰을 효과적으로 드러냄. '생태계 전체의 안정과 조화'를 촉구하는 문구와 시각 요소를 창의적으로 구성함. 단순한 환경 보호 구호를 넘어 윤리 사상적 근거를 바탕으로 기후 위기의 본질을 짚어 내는 깊이 있는 윤리적 사고력과 전달력을 입증함.

논술형 문제 18 인간과 자연의 상생을 위해 어떤 태도가 필요할까?

논술 Solution

(가)는 인간이 자연을 자신의 이익을 위한 대상으로 여기고 이용한 것이 환경 문제의 근본 원인이라는 입장이다. 따라서 자연의 질서와 생명의 가치를 존중하고 인간의 욕망과 소비를 절제해야 한다고 본다. (나)는 과학기술의 발전과 효율적인 관리로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과학기술을 거부하기보다 인간과 자연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

(가)의 입장에서는 생명 존중 가치관으로의 전환과 욕망의 절제를 중심으로 환경 문제의 해결 방안을 서술한다. (나)의 입장에서는 환경 문제의 해결을 기술적·관리적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작성한다.

1 예시 답안 (가) 입장에서 환경 문제는 인간이 자연을 지배와 이용의 대상으로 여기고 지나친 욕망을 추구했기 때문에 발생했다고 본다. (나) 입장에서 환경 문제는 과학기술을 적절하게 활용하지 못하고 효율적인 관리 체계를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했다고 본다.

2 예시 답안

☑ 멸종 위기 생물 증가
☐ 대기 오염과 미세 먼지 문제
☐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산림 파괴
☐ 기후 위기에 따른 이상 기후 증가
☐ 플라스틱 쓰레기로 발생한 해양 오염
☐ 기타(직접 작성): _____

3 예시 답안 나는 (가)의 입장에서 멸종 위기 생물 증가 문제의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멸종 위기 생물의 증가는 인간이 자신의 편의와 이익을 위해 자연을 과도하게 이용한 결과이므로, 인간은 인간뿐만 아니라 다른 생명도 함께 존중하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 이를 위해 개발 과정에서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생물의 서식지를 보전하는 등 생명 공동체 전체의 안정성을 지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나는 (나)의 입장에서 멸종 위기 생물 증가 문제의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멸종 위기 생물 증가 문제는 생태계에 대한 과학적 정보와 효율적인 관리 체계가 부족하여 발생한 결과이므로, 과학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이를 해결해야 한다. 이를 위해 인공지능과 첨단 데이터 기술로 멸종 위기 생물의 서식지를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유전공학 및 인공 번식 기술을 이용해 멸종 위기 생물의 개체 수를 늘리고 멸종 위기종을 복원하는 등 기술적 방안을 바탕으로 생태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만점 공략! 완자쌤의 과세특 POINT

'인간과 자연의 상생을 위해 어떤 태도가 필요할까?' 활동에서 환경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에 대한 두 입장의 차이를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 대한 관점에서 비교하여 정확히 설명함. 오늘날 발생하는 환경 문제를 선정하여 그 원인과 특성을 분석하고, 선택한 입장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함. 환경 문제에 대한 자신의 주장을 사상적 근거와 연결하여 논리적으로 서술하고 인간과 자연의 상생을 위한 태도를 성찰함. 특히 과학기술과 효율적 관리를 강조하는 관점과 자연의 내재적 가치 존중을 강조하는 관점의 한계와 유용성을 다각도로 검토함.

활동형 문제 19 나의 경험을 돌아보며 의미 있는 삶 기록하기

활동 Solution

자신의 삶에서 의미 있었거나 다시 돌아보고 싶은 경험을 하나 선택하고, 당시 상황에서 든 생각과 그때의 행동을 구체적으로 정리한다. 이후 선택한 사상가의 관점에서 자신의 경험을 분석하고, 깨달음을 정리한다.

⬇

과거의 경험과 성찰을 바탕으로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해 필요한 태도와 앞으로의 실천 계획을 구체적으로 서술한다.

1 예시 답안

어떤 경험이었는가?
고등학교 진학 후 진로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확신하지 못하고, 주변 사람들이 추천하는 방향을 그대로 따라가려 했던 경험이 있다.
그때 나는 어떤 선택과 행동을 했는가?
나는 실패했을 때 내가 그 선택에 책임지는 것이 두려워 가족과 친구들의 의견에 의존하여 나의 진로를 선택하려 하였다. 그러나 내 삶은 내가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에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고, 다양한 정보를 찾아보며 스스로 진로 방향을 결정하려 노력하였다.

2 예시 답안

선택한 사상가	☐ 지눌 ☑ 사르트르
사상가의 관점에서 분석한 경험	사르트르는 인간은 미리 정해진 본질에 따라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자신의 선택과 행동으로 스스로를 만들어 가는 존재라고 보았다. 따라서 진로 선택에서도 다른 사람의 판단에 의존하기보다 내가 선택한 삶을 책임지는 태도가 필요하다. 나의 경험은 선택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 했던 태도를 돌아보고, 주체적으로 삶을 결정해야 함을 깨닫는 계기가 되었다.

3 예시 답안

• 과거의 경험
나는 진로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다른 사람의 의견에 의존하고 스스로 선택하는 것을 주저한 경험이 있다.
• 경험에 대한 성찰
이 경험으로 내 삶의 방향은 다른 사람이 대신 정해줄 수 없으며, 내가 내린 선택에 책임지는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사르트르의 입장처럼 인간은 주체적인 선택으로 스스로를 형성해 가는 존재이므로, 타인의 기대에 휘둘리지 않고 스스로 삶의 방향을 선택해야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
• 앞으로의 실천 계획
앞으로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에서 다른 사람의 조언을 참고하되, 나의 가치와 목표를 바탕으로 주체적으로 결정하겠다. 또한 내가 선택한 결과를 받아들이고 그 과정에서 배우며 성장하는 태도를 갖겠다.

만점 공략! 완자쌤의 과세특 POINT

'나의 경험을 돌아보며 의미 있는 삶 기록하기' 활동에서 자신의 삶에서 의미 있었던 경험을 선정하고, 당시의 생각과 행동을 돌아보며 경험의 의미를 성찰함. 선택한 사상가의 관점에서 자신의 경험을 분석하여 의미 있는 삶을 위해 필요한 태도를 도출하고, 과거의 경험에서 얻은 깨달음을 앞으로의 실천 계획과 연결하여 자신의 삶을 성찰함. 삶의 중요한 순간마다 자신의 가치관에 따라 판단하고 책임감 있게 성장하려는 주체적인 삶의 자세를 확립함. 이러한 성찰을 바탕으로 성실하게 삶을 가꾸어 나가려는 뚜렷한 가치관과 윤리적 실천 의지가 돋보임.

논술형 문제 20 퀑의 관점에서 종교적 배타주의 비판하기

논술 Solution

퀑은 종교 간 평화 없이는 세계 평화도 이루기 어렵다고 보고, 각 종교가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도 사랑과 평화라는 보편적 가치를 추구해야 한다고 보았다.

⬇

(나)와 (다)는 자신과 다른 종교를 인정하지 않고 배척하거나 박해하여 종교적 차이가 갈등과 폭력으로 이어진 사례이다. 이러한 사례로 종교적 배타주의의 문제를 파악하고, 종교 간 대화와 서로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갈등을 극복해야 한다는 점을 이해한다.

⬇

종교 공동체와 개인의 차원에서 다른 종교와 대화하고 서로의 가치와 전통을 존중하는 등 종교적 배타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제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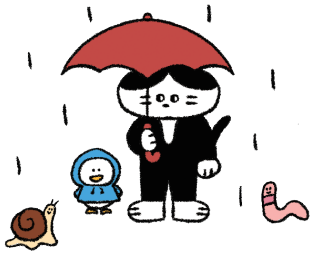
1 예시 답안 (가)에서 큉은 종교 간 차이를 극복하거나 없애야 할 대상이 아닌, 각 종교의 고유한 정체성으로 바라보았다. 즉, 그는 종교 간 차이를 인정하고 서로의 가치와 전통을 존중해야 한다고 보았다.

2 예시 답안 (나), (다)의 사례는 자신의 종교만을 절대화하고 다른 종교를 인정하지 않는 종교적 배타주의의 위험성을 보여 준다. 이러한 태도는 특정 신앙을 가진 이들을 배척·박해하는 사회적 갈등과 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는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고 종교 간 평화와 세계의 평화를 해치는 문제를 유발한다.

3 예시 답안 종교적 배타주의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각 종교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도 다른 종교의 정체성과 전통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우선 종교 공동체 차원에서는 다른 종교와의 대화와 교류로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고 사랑, 평화, 인간 존엄성과 같은 보편적 가치를 함께 실천해야 한다. 또한 개인적 차원에서는 자신의 종교만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여기지 않고,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도 존중하며 협력하려는 열린 태도를 가져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종교가 갈등의 원인이 아닌 사회적 화합과 세계 평화에 기여하도록 해야 한다.

● 만점 공략! 완자쌤의 과세특 POINT ●

'큉의 관점에서 종교적 배타주의 비판하기' 활동에서 종교 간 평화와 대화의 필요성을 강조한 큉의 관점을 정확히 이해하고, 종교적 배타주의가 다른 종교를 인정하지 않아 갈등과 박해를 초래하는 문제임을 구체적인 사례를 바탕으로 분석함. 종교적 차이를 갈등의 원인으로만 바라보지 않고 서로 다른 종교의 정체성과 가치를 존중해야 할 대상으로 인식하는 태도를 보임. 종교 간 갈등 사례를 인간 존엄성과 평화의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상호 이해와 존중을 바탕으로 갈등 해결을 위한 실천 방안을 구체적으로 작성함. 각 종교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도 인간 존엄성, 사랑, 평화와 같은 보편적 가치를 함께 추구해야 함을 설명하고, 종교 간 평화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논리적으로 제시함.





Memo



Memo



Memo